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분석보고서

조사주관 · 원불교정책연구소
조사수행 · (주)한국리서치

목 차

보고서를 내며

일러두기

I. 조사 개요

1. 조사명	9
2. 조사 주체 및 예산 지원	9
3. 실시 기관	9
4. 조사 대상	9
5. 조사 기간	9
6. 조사 지역	10
7. 조사 방법	10
8. 표본 추출	10
9. 표본 수와 표집 오차	10
10. 조사 내용	10
▶ 전체응답자와 유효응답자 비교 분석	11

II. 영역별 설문 분석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문항1) 연령	15
문항2) 성별	15
문항3) 거주 지역	16
문항4) 본인 종교	16
문항5) 가족 종교	17
▶ 본인 종교와 가족의 종교 관계 분석	18
2. 인지도 및 태도	
▶ 요약 및 분석	21
문항6) 원불교 인지도	23
문항7) 원불교 인지 경로	27
문항8) 원불교 전반적인 인상	31
문항9) 원불교 전반적 분위기·태도	35
문항10) 원불교 교리·내용 인식	39
문항11) 원불교에 대한 생각	43
문항12) 원불교 경험 희망	47

3. 이미지 및 가치	
▶ 요약 및 분석	52
문항13) 원불교 이미지 인식	54
문항14) 원불교 핵심가치 인식	58
문항15) 원불교 경험 경로 희망	62
4. 사회적 영향력	
▶ 요약 및 분석	67
문항16)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 인식	69
문항17) 원불교 활동 인식	73
문항18) 원불교 사회적 역할 인식	77
5. 디지털 종교 콘텐츠	
▶ 요약 및 분석	82
문항19)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84
문항20) 종교 콘텐츠 선호 유형	88
문항21)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인식	92
문항22) 디지털 교화 활동 효과 인식	96
6. 세대별 심층 분석	
▶ 요약 및 분석	101
문항23) 청년층 종교 선택 기준	103
문항24) 청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107
문항25) 중장년층 종교 선택 기준	111
문항26)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115
문항27) 노년층 종교 선택 기준	119
문항28) 노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123
7. 사회 인식	
▶ 요약 및 분석	128
문항29) 인류 보편 가치	130
문항30) 사회 갈등	134
문항31) 종교 인구 감소 원인	138
8. 종합 결론 및 제언	142

III. 별첨

1. 설문지 문항	147
2. 설문 결과표	159

보고서를 내며

원기 107년에 이어, 원기 110년에도 「제8차 원불교 사회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원불교 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주)한국리서치가 수행하였으며, 원기 95년 이후 15년에 걸친 조사 축적 위에서, 시대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질문과 분석 체계를 통해 현대 사회 속 원불교의 위상과 인식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조사가 주로 ‘인지도와 호감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제8차 조사는 탈종교화 시대, 디지털 전환, 세대별 종교의 역할 변화라는 사회 흐름 속에서 원불교가 오늘의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무엇을 기대받고 있는가라는 근본 질문에 답하려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청년·중장년·노년 세대별 종교 선택 기준과 종교의 우선 역할, 디지털 교화 및 온라인 수행 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효과성, 원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이미지, 핵심가치 인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불교는 여전히 ‘넓게 알려졌다나 알게 이해된 종교’이지만, 동시에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현대 종교’, ‘마음공부 중심의 생활 수행 종교’로서의 잠재적 신뢰와 기대가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대중이 원불교에 기대하는 종교의 역할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동반자’, ‘마음을 돌보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실천적 종교’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교화의 방향이 교리 전달 중심에서 체험·공감·실용 중심의 생활 교화로 전환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수치와 해석이 단순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원불교가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안을 원만하게 실현해 가기 위한 사회적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단의 교화 현장에서 이 결과들이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이어져, ‘이해되는 교법, 체험되는 진리, 함께하는 종교’로서 원불교의 미래 비전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조사와 보고서 발간에 정성을 다해 준 정책연구소 교무들과 기획·분석 전 과정에 함께해 주신 상산 윤관명 교무 그리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기 110년 12월

원불교정책연구소장 진산 전홍진 교무 합장

일 러 두 기

- ① 본 보고서의 모든 연도 표기는 원칙적으로 ‘**원기(圓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기(西紀) 연도를 병기하였습니다.
- ② 「제8차 원불교 사회여론조사」는 원기 95년(2010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1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장기 연속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원기 110년(2025년)에 실시되었으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사 틀을 마련하고, 원불교에 대한 대중의 현실적 인식과 미래적 기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 ③ 조사는 원불교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주)한국리서치가 수행하였습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9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웹 기반 설문)를 실시하고, 그 전체 응답자 중 **원불교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를 제외한 1,116명을 유효 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령(청년·중장년·노년), 성별, 지역을 고려한 균등 할당 표본 설계를 적용하여 대표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문항 1번부터 4번까지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응답 비율(%)과 사례 수(명)를 병기함으로써 해석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④ 기존의 원불교 사회여론조사는 연도별 동일 문항을 활용한 비교 분석 중심의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제8차 조사에서는 기존 접근을 탈피하여 **시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원불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지 수준, 이해도, 가치 평가, 교화 참여 의향 등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단순 비교를 넘어 현시대의 인식 구조와 교화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습니다.
- ⑤ 신규 문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조사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화 방식의 수용도 및 효과성
 - 2) 세대별 종교의 의미와 기대 역할
 - 3) 종교의 사회적 신뢰 및 가치 인식
 - 4) 인류 보편 가치(공감·평화·생명 등)에 대한 인식 구조
 - 5) 원불교의 이미지, 핵심가치, 교화 방향성에 대한 평가
- ⑥ 본 보고서의 모든 수치는 **백분율(%) 단위로 통일하여 제시**하였으며, 본문 내에서는 수치를 가급적 직접 표기하지 않고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해석 중심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반올림 처리로 인해 항목 합계가 100%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제시된 **그래프 중 ‘종교’ 항목에서 ‘기타’ 응답자는 표본 수가 극히 적어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그래프 및 표·분석 내용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⑦ 본 보고서의 부록에는 「설문 결과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복수 선택 문항의 경우 1+2순위와 1순위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항13’은 1+2순위 합산 응답, ‘문항13-1’은 1순위 응답을 의미합니다. 분석 시 번호 체계와 응답 방식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문항은 질문 설계상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전체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답자 수가 아닌 응답 건수를 기준으로 비율이 산정되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⑧ 본 보고서는 원불교의 사회 인식 변화를 통해 교단의 정책·교화·교육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는 단순 여론 통계에 머무르지 않고, 교단의 미래 교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⑨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보고서의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I

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1. 조사명

“원기 110년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 인지도, 이미지, 영향력, 콘텐츠, 세대별, 미래”

2. 조사 주체 및 예산 지원

조사 주체: 원불교 정책연구소

3. 실시 기관

(주) 한국리서치

4.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전체 응답자(1,951명) 중 원불교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는 설문에서 제외

5. 조사 기간

원기 110년 7월 7일 ~ 10일까지(4일간)

6. 조사 지역

전국: 7개 권역

(1) 서울 (2) 경기도(인천 포함) (3) 강원도 (4) 충청도(대전/세종 포함)
(5) 경상도(부산/대구/울산 포함) (6) 전라도(광주 포함) (7) 제주도

7. 조사 방법

주)한국리서치 온라인 웹설문

- 조사 대상자에게 웹설문 링크가 있는 조사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8. 표본 추출

1차 할당: 청년층(19~39세), 중장년층(40~59세), 노년층(60세 이상)

2차 할당: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성별, 연령별 균등 할당

9. 표본 수와 표본 오차

유효표본 1,116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9\%$

10. 조사 내용

- ① 원불교 인지도·태도
- ② 원불교 이미지·가치
- ③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역할
- ④ 종교 콘텐츠 이용 스타일
- ⑤ 종교에 대한 세대별 중요 선호도
- ⑥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미래방향성

* 각 항목은 인구 속성(연령/성별/지역/종교 등) 변수에 따라 분석됨.

전체응답자와 유효응답자 비교 분석

전체 응답자(1,951명) 대비 유효 응답자(1,116명)의 구성비 변화를 통해 원불교 인지도와 관련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전체 응답자 vs 유효 응답자 인구통계 비교표

구분	항목	전체 응답자 (A)(구성비 %)	유효 응답자 (B)(구성비 %)	증감 (%p)(B-A)	변화 해석
세대	청년층	40.4%	33.4%	-7.0	과표집 해소 및 급격한 비중 축소
	중장년층	32.3%	33.2%	+0.9	구성비 유지 (안정적)
	노년층	27.3%	33.4%	+6.1	인지도 기반 비중 확대
성별	남성	45.3%	49.9%	+4.6	남성 비중 확대
	여성	54.7%	50.1%	-4.6	여성 비중 축소
지역	수도권 (서울/경기)	38.6%	39.4%	+0.8	유사 수준
	충청권	14.4%	9.0%	-5.4	인지도 취약 지역 (급감)
	경상권	25.9%	26.1%	+0.2	유사 수준
	전라권	12.4%	15.7%	+3.3	인지도 우위 지역 (확대)
종교	종교 있음	53.2%	59.5%	+6.3	유종교인 중심 재편
	종교 없음	46.8%	40.5%	-6.3	무종교인 이탈 심화

2. 세대별 분석

세대별 유효 응답자 구성비의 변화는 ‘의도된 불균형에서 결과적 균형으로의 전환’이라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청년층은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초기 전체 응답자 중 4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유효 응답자 단계에서는 7.0%p나 급감하며 33.4%로 조정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초기 유입은 많았으나 원불교를 전혀 모르는 단순 패널(허수)이 그만큼 많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지도 필터링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 구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장년층은 전체(32.3%)와 유효(33.2%) 간의 차이가 +0.9%p에 불과해, 탈락률과 유입률이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데이터의 중심을 잡는 안정적인 ‘허리’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노년층의 부상이다. 초기 비중은 27.3%로 가장 낮았으나 높은 인지도 덕분에 탈락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유효 응답자 내 비중이 6.1%p 급증한 33.4%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유효 데이터 내에서 노년층의 의견은 청년층과 대등한 1:1 비중으로 반영되는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3. 지역 및 종교적 특성

세대 외 변수에서는 지역과 종교 유무에 따른 뚜렷한 명암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볼 때 충청권은 5.4%p 감소하여 세대 변수를 제외하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는데, 이는 청년층의 이탈만큼이나 충청권 내 원불교 인지도 공백이 심각함을 시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남권은 3.3%p 증가하며 전체 인구 대비 과대 대표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역으로 원불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임을 방증한다. 또한 종교가 없는 무종교층의 비중은 6.3%p 감소하여 청년층의 감소 추세와 궤를 같이했다. 이는 무종교층에게 원불교가 종교 이전에 하나의 ‘문화’로서도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높은 심리적 장벽을 보여준다.

Ⅱ

영역별 설문 분석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문항1) 연령

문항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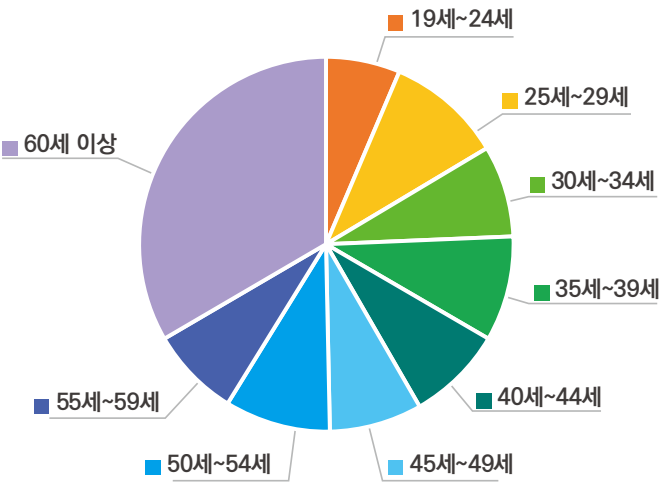
문항3) 거주 지역

문항4) 본인 종교

문항5) 가족 종교

▶ 본인 종교와 가족의 종교 관계 분석

문항1) 연령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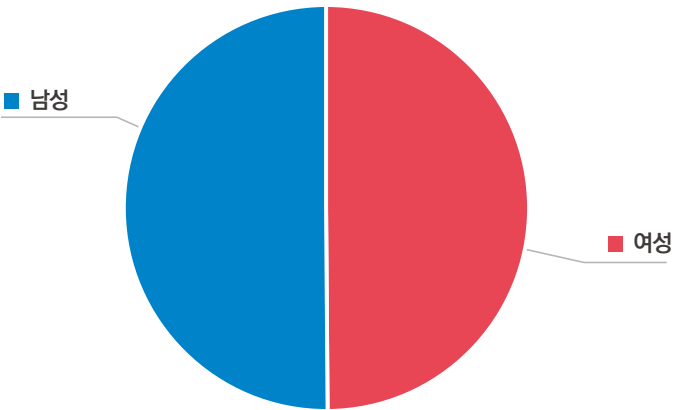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	50세~54세	55세~59세	60세 이상
전체 (1,116명)	6.4 (71명)	10.0 (112명)	7.9 (88명)	9.1 (102명)	8.3 (93명)	8.0 (89명)	9.1 (101명)	7.8 (87명)	33.4 (373명)

	청년층(19~39세)	중장년층(40~59세)	노년층(60세 이상)
전체	33.4 (373명)	33.2 (370명)	33.4 (373명)

전체 표본 1,116명의 연령 구성은 각 연령대를 약 3분의 1씩 균등할당한 설계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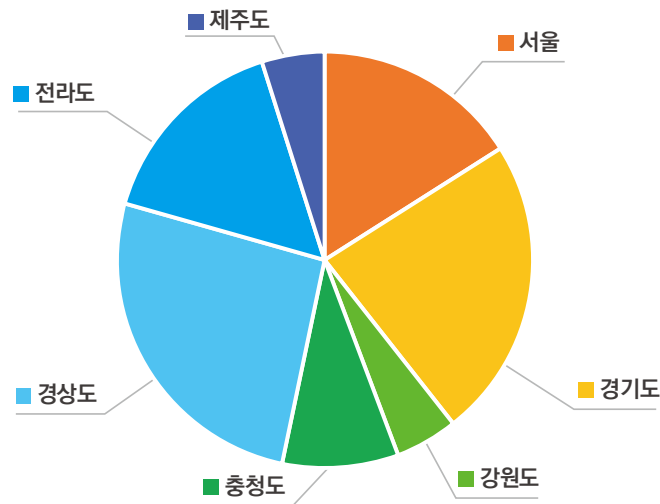
문항2) 성별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	여성
전체 (1,116명)	49.9 (557명)	50.1 (559명)

응답자의 남녀 비율이 거의 1:1 수준으로 균등하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균형은 연령별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 응답자가 거의 동등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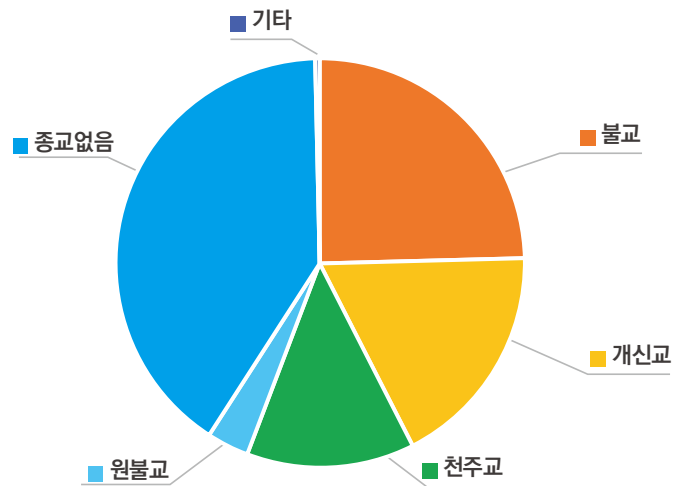
문항3) 거주 지역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전체 (1,116명)	16.0 (179명)	23.4 (261명)	4.9 (55명)	9.0 (100명)	26.1 (291명)	15.7 (175명)	4.9 (55명)

거주 지역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표본을 균형 배분하였다. 비교적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약 65%의 표본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지역도 일정 비율 포함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표본 구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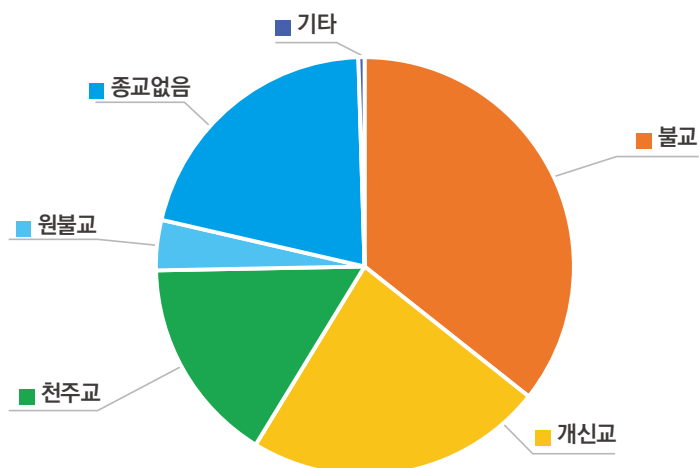
문항4) 본인 종교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없음	기타
전체 (1,116명)	24.6 (274명)	17.9 (200명)	13.3 (148명)	3.3 (37명)	40.5 (452명)	0.4 (5명)

응답자의 종교를 보면, 전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무종교 비율이 높고 고령층일수록 불교와 기독교 신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원불교의 경우 전체 응답자에서는 1.9%였으나, 유효 응답자에서는 3.3%가 나왔다.

문항5) 가족 종교 귀하와 가족(부모 또는 직계 가족)이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없음	기타
전체 (1,116명)	41.3 (461명)	26.7 (298명)	18.5 (206명)	4.5 (50명)	24.2 (270명)	0.6 (7명)

응답자의 가족 종교는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본인의 종교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가족 단위에서는 불교 비중이 다소 높고 무종교 비중이 낮은 특징이 나타난다.

(예: 본인 무종교 40.5% → 가족 무종교 24.2%).

1. 무종교 증가 추세

[문항4] 본인 종교와 [문항5] 가족 종교를 비교하면, 대체로 가족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종교가 줄고 무종교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경향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 중 불교는 가족 종교에서 41.3%였으나 본인 종교에서는 24.6%로 16.7%p 감소했고, 개신교 26.7%→17.9%(-8.8%p), 천주교 18.5%→13.3%(-5.2%p), 원불교 4.5%→3.3%(-1.2%p)로 모두 하락했다.

반면 무종교는 가족 세대에서 24.2%였던 것이 본인 세대에서는 40.5%로 16.3%p나 급증했다. 즉, 부모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종교 소속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대신 무종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며, 전통적 신앙의 대물림 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젊은 세대의 무종교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연령별 종교 전승 및 이탈 양상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일수록 무종교화 경향이 더욱 심화된다. 19~29세 응답자의 본인 종교 중 무종교 비율은 50.3%로 나타났는데, 같은 연령대의 가족 종교 무종교 비율(31.7%)보다 훨씬 높다. 즉 젊은 세대에서 절반 정도가 종교가 없는 반면, 기성 세대에서는 종교가 있는 비율이 더 컸다.

가족의 종교 배경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종교의 대물림'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무종교 가정의 자녀 세대가 무종교를 유지하는 비율은 77.8%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았던 반면, 개신교(55.7%), 천주교(54.4%), 불교(53.8%) 등 기존 종교의 전승율은 50%대 중반에 불과했다. 이는 부모 세대의 절반가량만 자녀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며, 특히 청년층에서는 전통 종교 이탈과 무종교화가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3. 원불교 신앙 유지율 및 이탈 유형

원불교의 경우, 다른 주요 종교보다 세대 간 신앙 유지율이 더 낮은 점이 눈에 띈다. 원불교 가정에서 자란 응답자의 성인 본인 중 원불교를 그대로 신앙하는 비율은 52.0%로 주요 종교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원불교 가정의 자녀 2명 중 1명 꼴로 성인이 되어 원불교를 떠난다. 더 심각한 것은, 원불교 신앙을 이탈한 이들 중 약 60%가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기보다 무종교로 전향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원불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종교간 이동(Brand Switching)보다는 종교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무종교를 선택하는 '탈종교화' 현상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참고로 위 분석은 유효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인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통 종교 이탈과 무종교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무종교층 특성과 원불교 대응 방향

무종교층의 특성을 보면, 이들 상당수는 과거에 종교적 배경을 가졌으나 실망하여 떠난 ‘이탈자’다. 현재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53.5%는 과거 종교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던 경험이다. 이들은 기존 종교의 권위주의나 비합리성에 실망했으며, 단순한 홍보보다 합리적·실용적 설득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원불교 신자의 구성 배경을 보면, 타종교 출신 유입 비율이 21.6%로 상대적으로 높아 ‘대안 종교’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순수 무종교 출신 유입 비율은 8.1%에 불과해, 일반인에게 다가가는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는 기존 기성 종교에 불만족하거나 새로운 영성을 찾는 사람에게는 원불교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종교와는 거리를 두는 대다수 무종교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더욱 개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가족교화 측면에서는 원불교 가정의 생활 속 마음공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법회를 강요하기보다 감사일기, 명상과 같은 생활밀착형 마음공부를 가정에서 보급하고, 30~40대 부모의 심신 케어를 위한 ‘부모 마음학교’ 등을 운영하여 가정 내 원불교적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인지도 및 태도

▶ 요약 및 분석

문항6) 원불교 인지도

문항7) 원불교 인지 경로

문항8) 원불교 전반적인 인상

문항9) 원불교 전반적 분위기·태도

문항10) 원불교 교리·내용 인식

문항11) 원불교에 대한 생각

문항12) 원불교 경험 희망

[문항6, 7] 원불교 인지도 및 인지 경로

원불교에 대한 대중의 인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넓은 인지’와 ‘얕은 이해’라는 상반된 특성이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70.5%가 “원불교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는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단 3.0%에 불과해, 대다수의 국민에게 원불교는 이름만 친숙할 뿐 구체적인 교리나 활동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미지 부재’ 상태임이 드러났다.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TV·신문 등 전통 매체(Legacy Media)를 통해 접하는 비율이 44.1%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유입은 전체적으로 19.1%에 그쳤으나, 20대에서는 30.1%로 급증하여 청년층에게는 디지털 채널이 가장 중요한 정보 습득 경로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직접 방문이나 행사 참석과 같은 오프라인 경험은 약 14%에 불과해, 대중이 일상에서 원불교를 직접 경험할 기회 제공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문항8, 9, 10] 원불교 인상 및 분위기, 교리 내용

원불교에 대한 대중의 인상은 ‘무관심 속 긍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응답자의 62.5%가 “특별한 인상이 없었다”고 응답하여 대중의 무관심이 지배적이나, 인상을 형성한 경우(37.5%)에는 긍정적 인상(31.3%)이 부정적 인상(6.3%)보다 약 5배가량 높아 잠재적인 호감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신호도 명확했다. 원불교의 분위기에 대해 “폐쇄적이다”(41.5%)는 인식보다 “개방적이다”(58.5%)는 인식이 우세하다. 특히 20대의 68.9%가 원불교를 개방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기성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 쉬운 청년층에게 원불교가 ‘열린 종교’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리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다”(50%)와 “어렵다”(50%)는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쉬운 생활 종교’를 표방하는 교단의 지향점이 대중에게는 아직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항11, 12] 원불교 생각 및 경험 희망

대중이 인식하는 원불교의 정체성에는 오해와 긍정적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가장 큰 오해는 ‘정체성의 혼란’이다. 응답자의 46.6%가 원불교를 독자적인 종교가 아닌 ‘불교의 한 종파’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20대에서는 이 비율이 55.2%에 달해, 젊은 층일수록 원불교를 ‘현대적인 불교’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원불교에서 경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3%가 압도적인 비율로 “마음공부, 좌선 등 수행 프로그램”을 1순위로 꼽았다. 반면, 법회나 천도재 같은 종교 의식(10.5%)이나 교리 학습(19.8%)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았다.

이는 현대인들이 원불교를 숭배나 신앙의 대상(Religion)으로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Mental Tool)로서 소비하고자 하는 강력한 요구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인지도 및 태도에 관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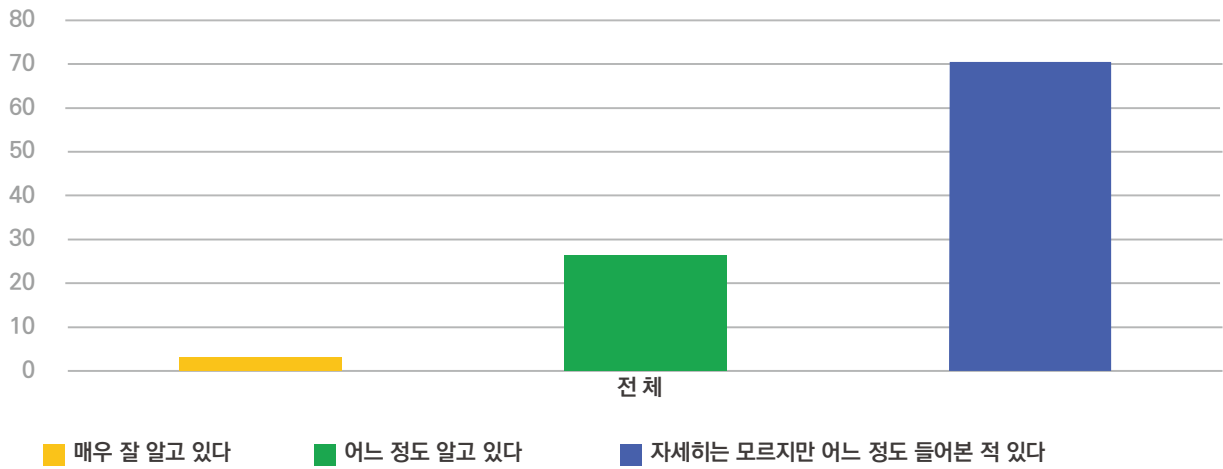
향후 원불교의 대중화 전략은 종교색을 뺀 ‘영성(Spirituality) 콘텐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독자성 확립과 활용:** ‘불교의 아류’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한국 자생의 개벽종교’라는 독자성을 강조해야 한다. 단, 20대가 가진 ‘개방적인 불교’라는 인식은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긍정적 기제이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마음챙김 콘텐츠:** 2030세대의 주요 유입 경로인 유튜브와 SNS 채널에 무거운 교리 대신, 가볍고 감각적인 ‘마음 챙김(Mindfulness)’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여 접점을 넓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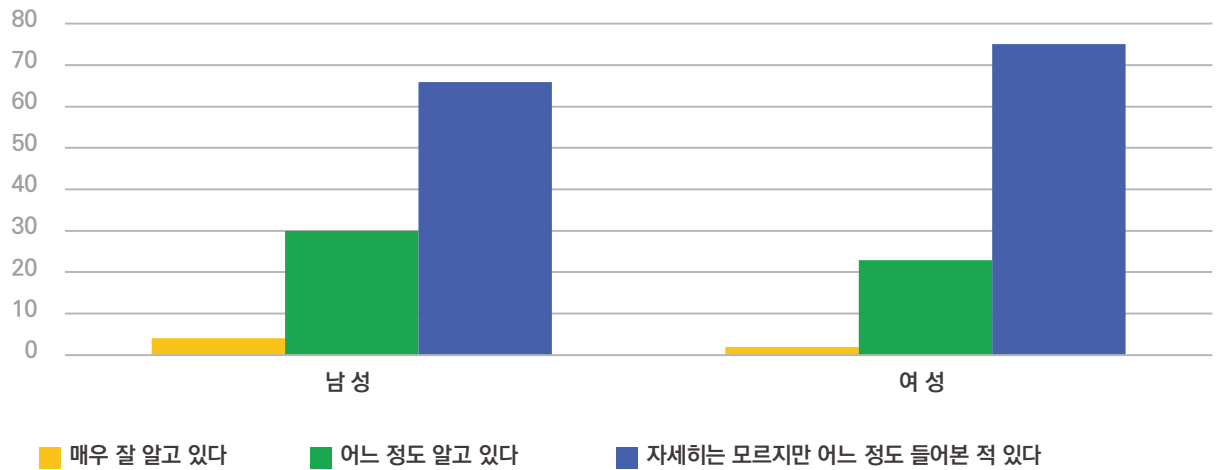
- **마음공부의 브랜드화:** 교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원불교를 믿으세요’라는 종교적 접근보다는, 대중의 요구가 확인된 ‘마음이 힘들 때 원불교 명상을 해보세요’라는 실용적 제안이 훨씬 효과적이다. ‘마음공부’를 원불교를 대표하는 중심 콘텐츠로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있다.

문항6) 원불교 인지도 귀하께서는 원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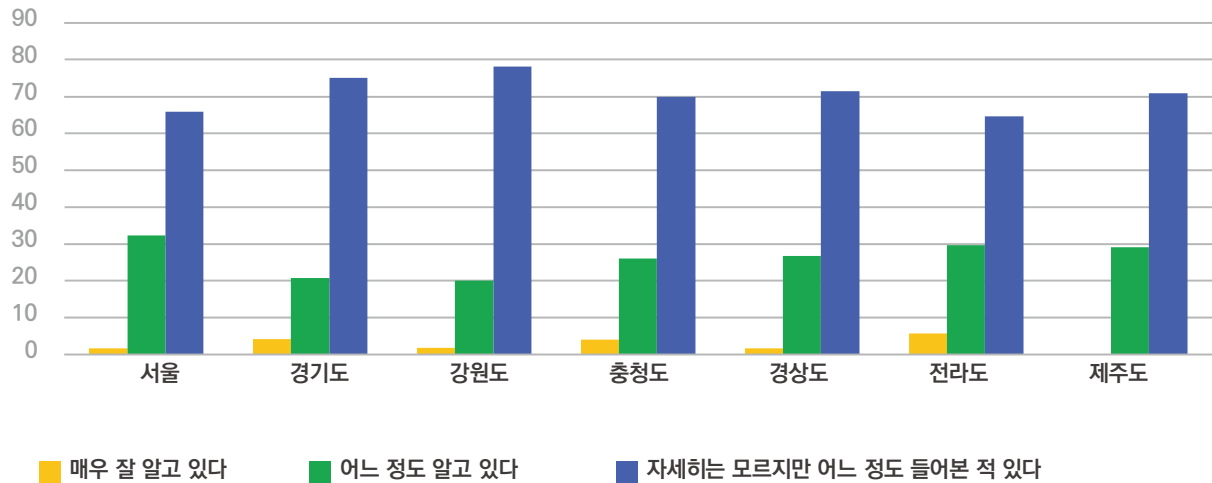
[원불교 인지도]

	■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안다	■ 들어본 적 있다
전체	3.0	26.4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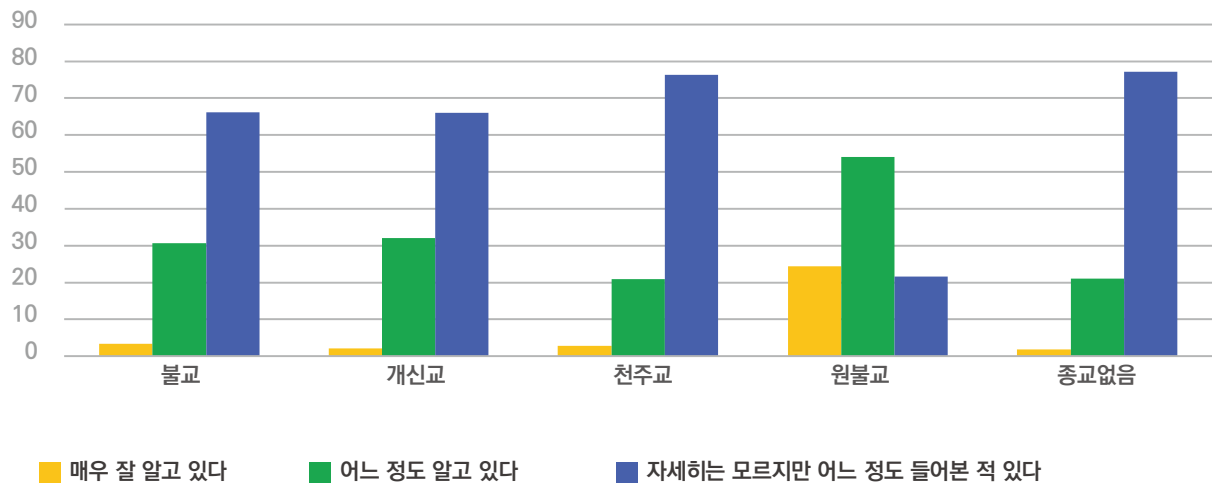
[원불교 인지도 - 성별]

성별	■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안다	■ 들어본 적 있다
남성	4.1	30.0	65.9
여성	2.0	22.9	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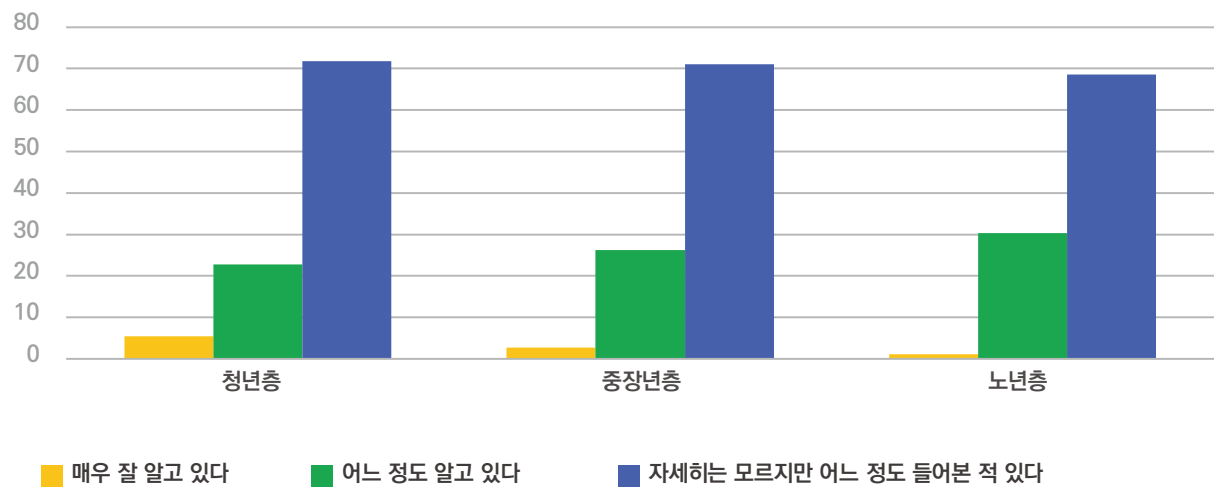
[원불교 인지도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서울	1.7	32.4	65.9
경기도	4.2	20.7	75.1
강원도	1.8	20.0	78.2
충청도	4.0	26.0	70.0
경상도	1.7	26.8	71.5
전라도	5.7	29.7	64.6
제주도	0.0	29.1	70.9



[원불교 인지도 - 종교]

종교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안다	들어본 적 있다
불교	3.3	30.7	66.1
개신교	2.0	32.0	66.0
천주교	2.7	20.9	76.4
원불교	24.3	54.1	21.6
종교 없음	1.8	21.0	77.2



[원불교 인지도 - 연령대]			
연령대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청년층	5.4	22.8	71.8
중장년층	2.7	26.2	71.1
노년층	1.1	30.3	68.6

문항6)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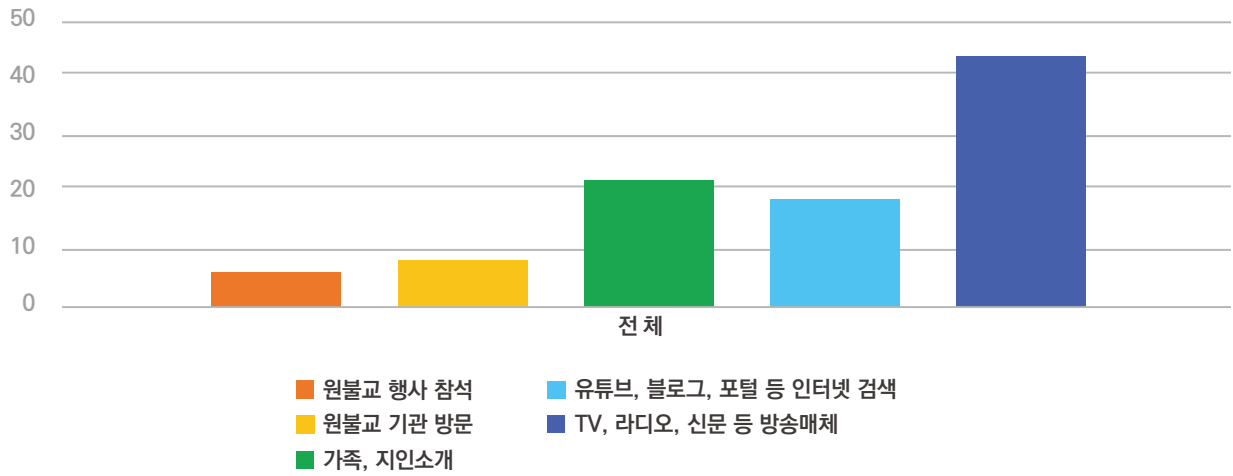
‘원불교에 대한 인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5%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3.0%, “어느 정도 알고 있다”26.4%로, **실제로 내용을 이해하는 인지층은 약 3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불교가 명칭 수준의 대중적 노출은 확보했으나, 교리·활동·가치 등 실질적인 내용이 사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상승**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p 높게 나타났다으며, **서울과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도·강원도에서 낮았다. 이러한 패턴은 원불교의 역사적 연원지 효과와 수도권 내 정보접근성의 차이, 그리고 교단의 홍보·교화 활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불교와 개신교 신자 집단의 인지도(약 34%)가 무종교층(22.8%)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기존 종교 신앙자들이 종교 간 비교와 관심을 통해 원불교를 상대적으로 더 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무종교층은 전체 표본 중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이 가장 낮아, 교화의 새로운 접근이 가장 절실한 대상군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층에서 피상적 인지가 높게 나타난 점은, 원불교가 현대사회에서 **실질적 생활 언어와 감성으로 다가가는 교화적 번역이 부족했음**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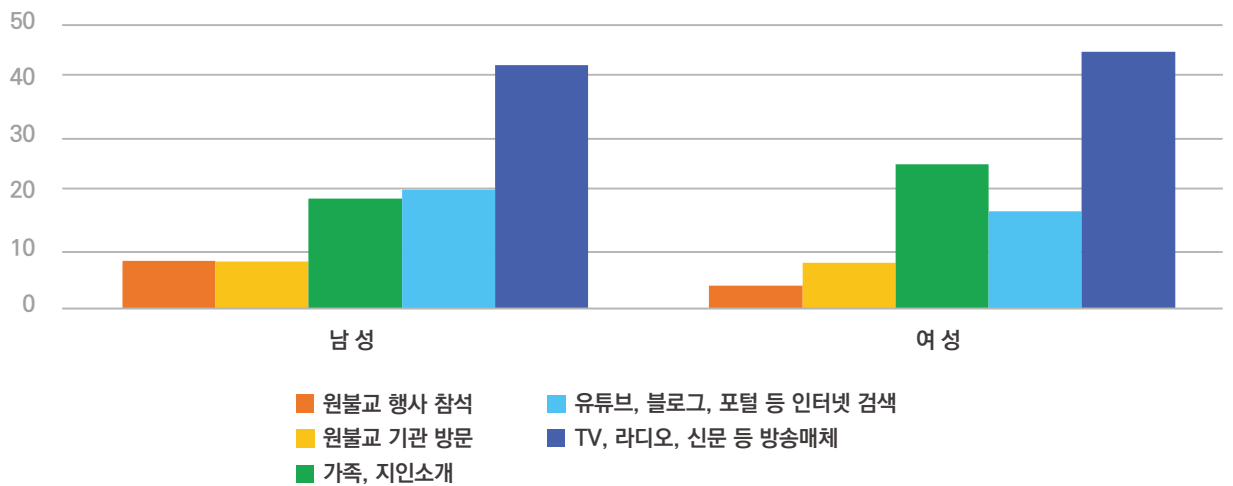
원불교 인지도는 단순한 ‘인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사회적 존재감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종합 성적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출의 확장이 아니라 ‘이해의 전환’이며, 그 전환의 방향은 **생활 속 원불교·이해되는 교법·체험되는 진리로의 재구조화**다.

문항7) 원불교 인지 경로 귀하께서는 어떻게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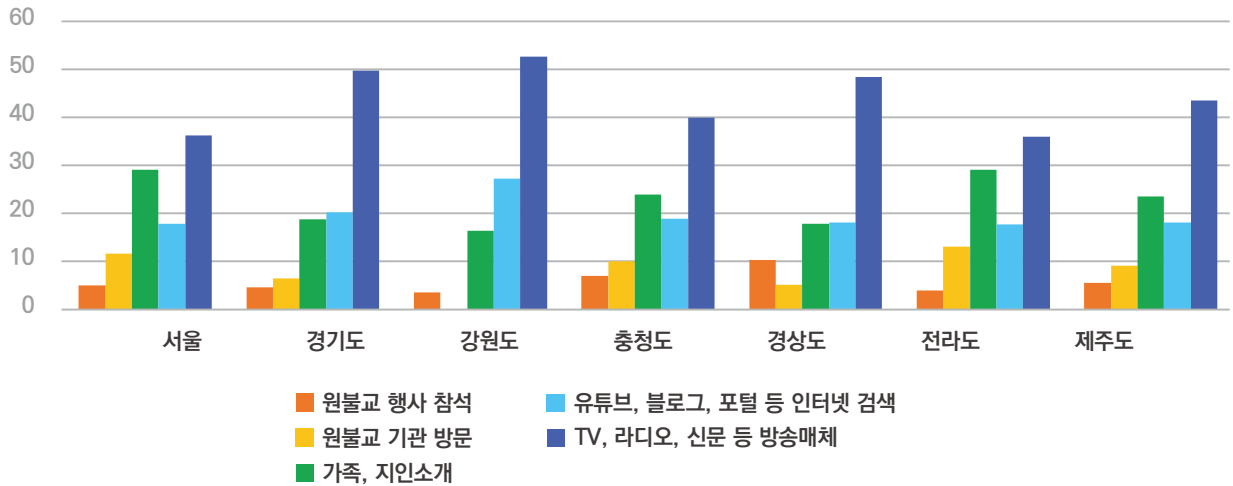
[원불교 인지 경로]

	행사 참석	기관 방문	가족, 지인소개	인터넷 검색	방송매체
전체	6.3	8.2	22.4	19.1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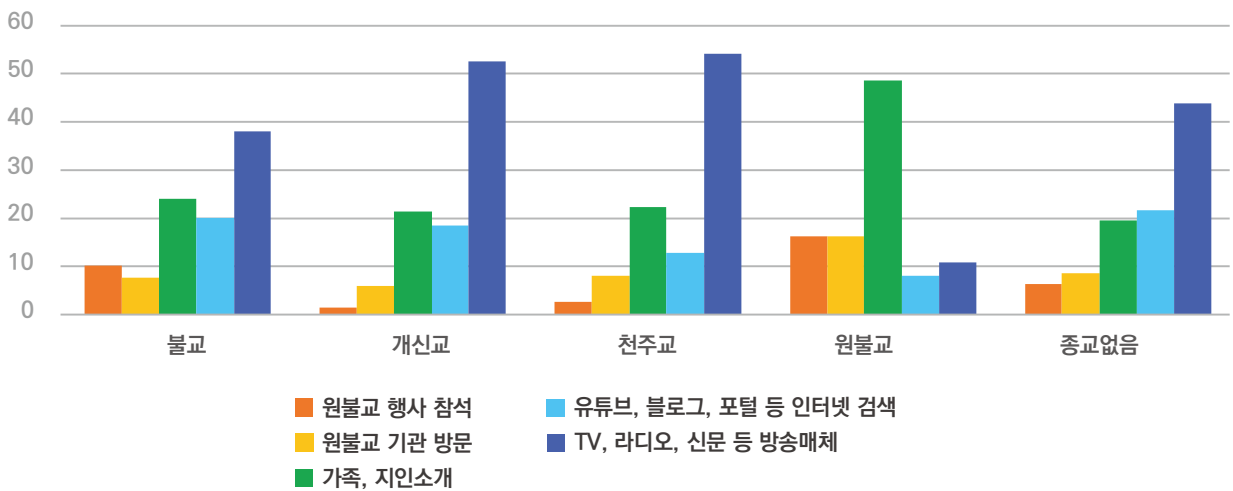
[원불교 인지 경로 - 성별]

성별	행사 참석	기관 방문	가족, 지인소개	인터넷 검색	방송매체
남성	8.4	8.3	19.4	21.0	42.9
여성	4.1	8.1	25.4	17.2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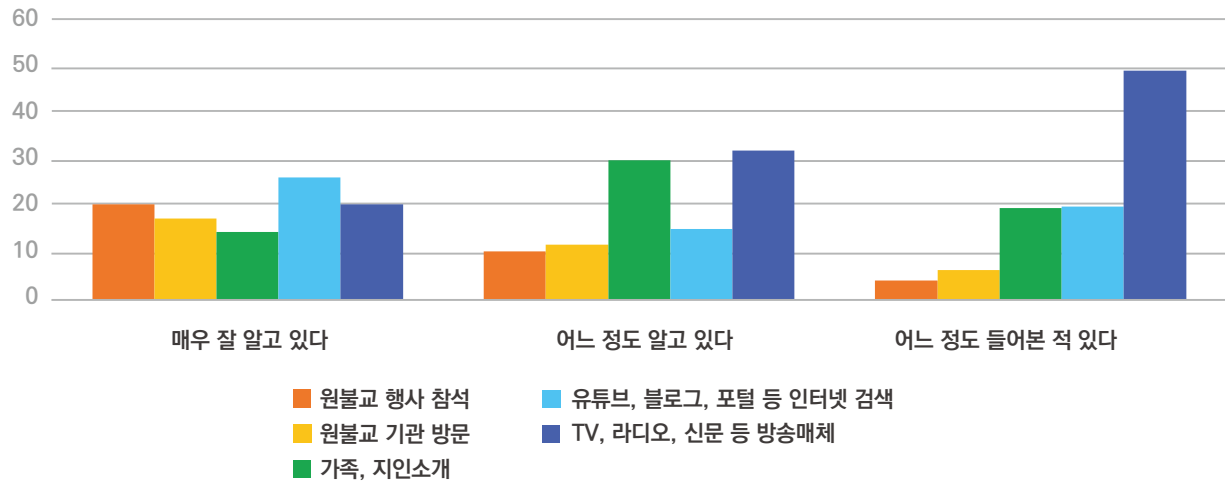
[원불교 인지 경로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행사 참석	기관 방문	가족, 지인소개	인터넷 검색	방송매체
서울	5.0	11.7	29.1	17.9	36.3
경기도	4.6	6.5	18.8	20.3	49.8
강원도	3.6	0.0	16.4	27.3	52.7
충청도	7.0	10.0	24.0	19.0	40.0
경상도	10.3	5.2	17.9	18.2	48.5
전라도	4.0	13.1	29.1	17.7	36.0
제주도	5.5	9.1	23.6	18.2	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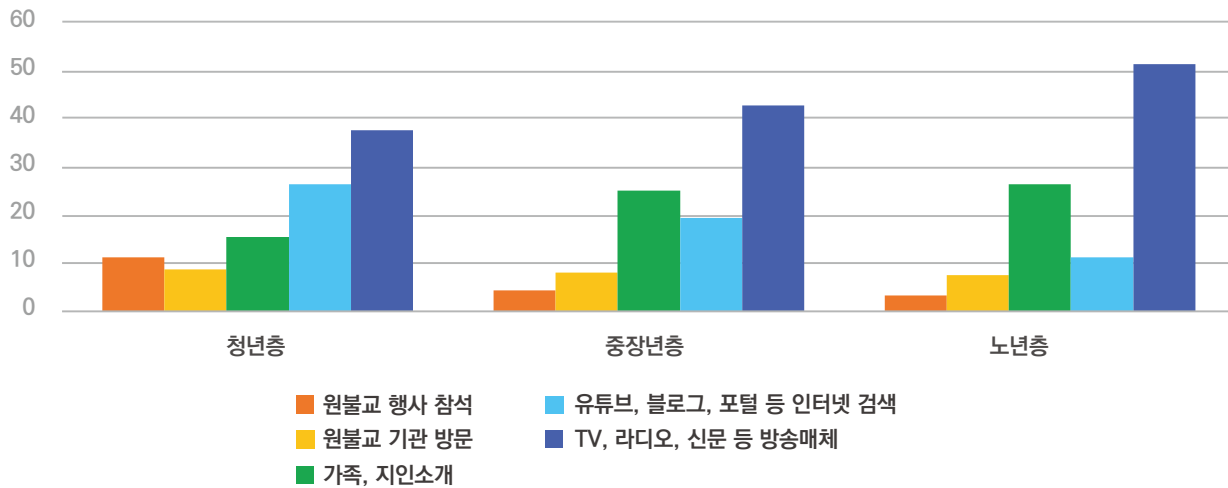
[원불교 인지 경로 - 종교]

종교	행사 참석	기관 방문	가족, 지인소개	인터넷 검색	방송매체
불교	10.2	7.7	24.1	20.1	38.0
개신교	1.5	6.0	21.5	18.5	52.5
천주교	2.7	8.1	22.3	12.8	54.1
원불교	16.2	16.2	48.6	8.1	10.8
종교 없음	6.4	8.6	19.5	21.7	43.8



[원불교 인지 경로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행사 참석	기관 방문	가족, 지인 소개	인터넷 검색	방송매체
매우 잘 안다	20.6	17.6	14.7	26.5	20.6
어느 정도 안다	10.5	11.9	30.2	15.3	32.2
들어본 적 있다	4.1	6.4	19.8	20.2	49.6



[원불교 인지 경로 - 연령대]

연령대	행사 참석	기관 방문	가족, 지인 소개	인터넷 검색	방송매체
청년층	11.3	8.8	15.5	26.5	37.8
중장년층	4.3	8.1	25.1	19.5	43.0
노년층	3.2	7.5	26.5	11.3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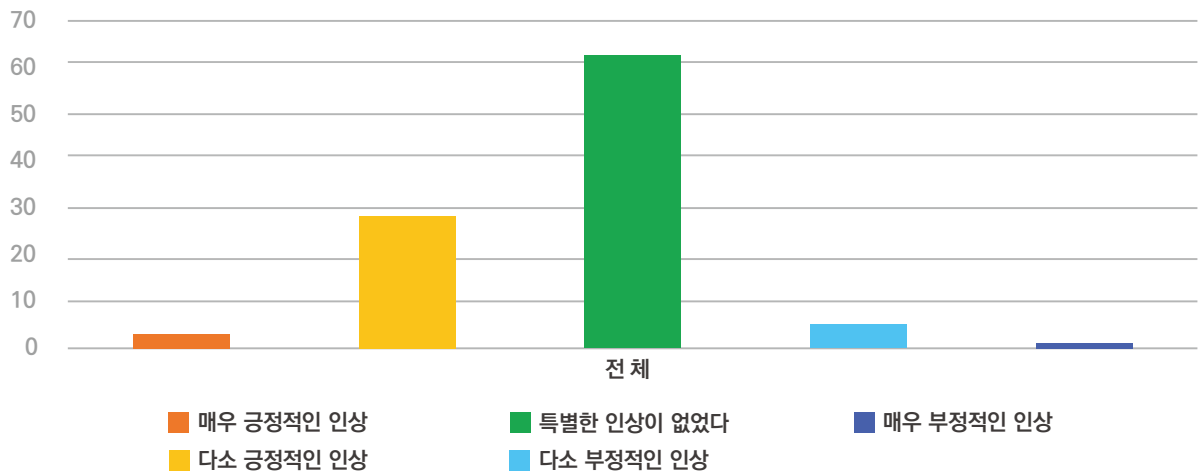
문항7) 분석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대중의 인식이 여전히 직접적 체험보다는 간접적 노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44.1%가 TV·라디오·신문 등 방송매체**를 통해, 22.4%는 가족·지인 소개, 19.1%는 유튜브, 블로그, 포털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불교를 인지했으며, 기관 방문(8.2%)과 행사 참석(6.3%) 등 **직접적 경험 경로는 15% 미만**에 그쳤다. 이는 원불교가 이름은 알려져 있으나 실제 체험과 탐색을 통해 접근되는 종교로까지 확장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온라인 검색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인지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방송매체** 의존도가 뚜렷해 세대 간 인식 구조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은 관계 기반, 남성은 정보 탐색 기반 인지 비중이 높았으며, **경기도·강원도·경상도 지역에서는 방송매체 중심**, **서울·전라도에서는 지인 소개 중심**의 인식 경로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원불교를 깊이 이해하는 집단일수록 기관 방문과 인터넷 탐색 비율이 높았고**, 피상 인지층은 방송매체 의존도가 높아 ‘인지의 깊이는 경험의 밀도에 비례한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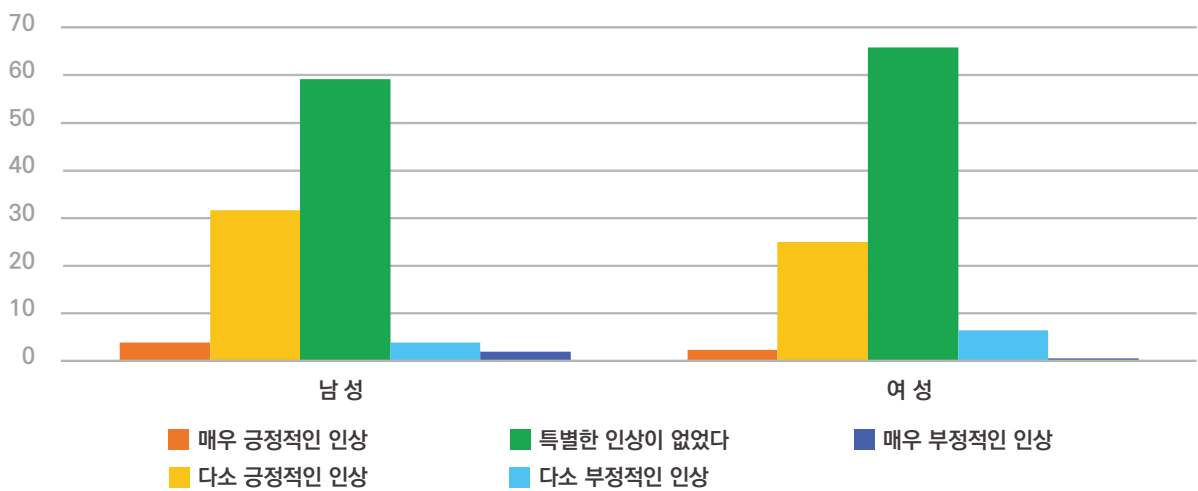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원불교 인지도 확산이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닌, **교화 경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시사한다.

문항8) 원불교 전반적인 인상 귀하께서는 원불교에 대해 알게 된 후,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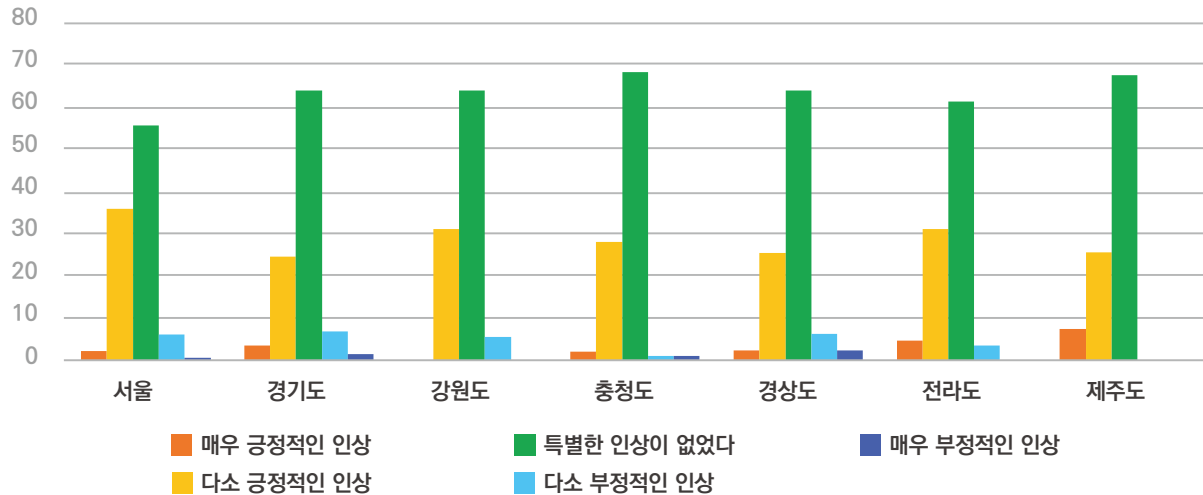
[원불교 전반적인 인상]

	매우 긍정	다소 긍정	특별한 인상이 없음	다소 부정	매우 부정
전체	3.0	28.2	62.5	5.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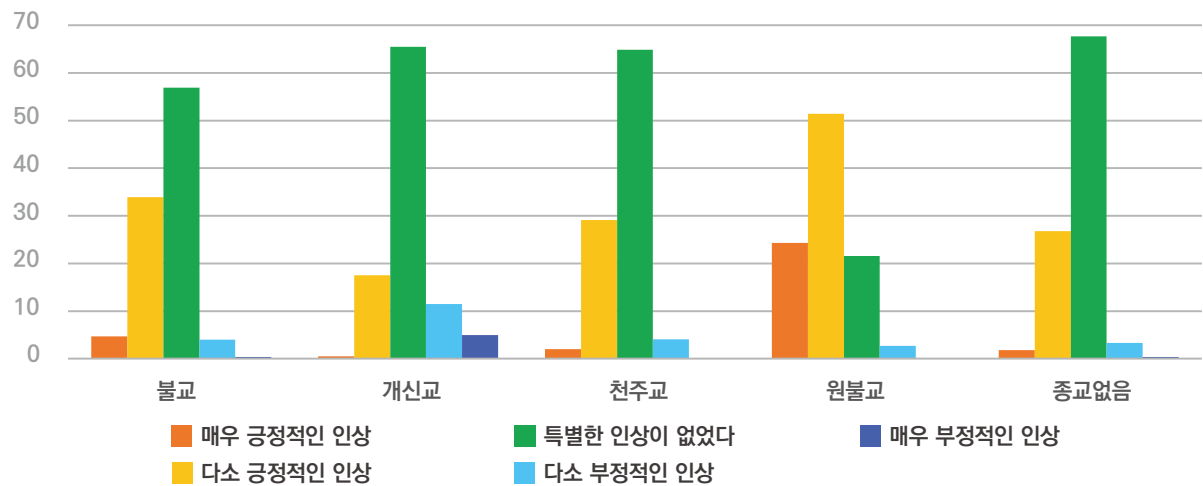
[원불교 전반적인 인상 - 성별]

성별	매우 긍정	다소 긍정	특별한 인상이 없음	다소 부정	매우 부정
남성	3.8	31.6	59.1	3.8	1.8
여성	2.3	24.9	65.8	6.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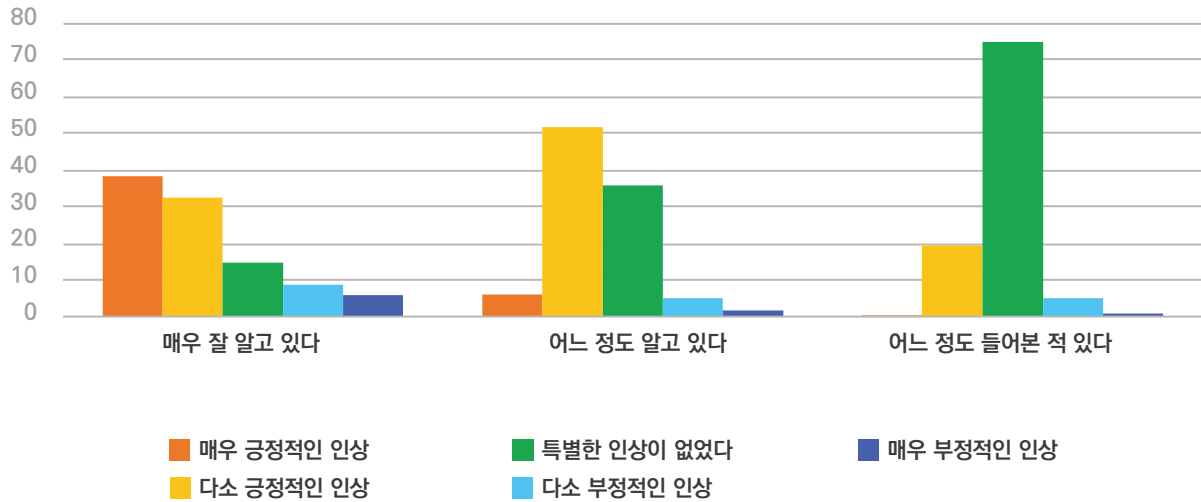
[원불교 전반적인 인상 - 거주지역]

거주지역	매우 긍정	다소 긍정	특별한 인상이 없었다	다소 부정	매우 부정
서울	2.2	35.8	55.3	6.1	0.6
경기도	3.4	24.5	63.6	6.9	1.5
강원도	0.0	30.9	63.6	5.5	0.0
충청도	2.0	28.0	68.0	1.0	1.0
경상도	2.4	25.4	63.6	6.2	2.4
전라도	4.6	30.9	61.1	3.4	0.0
제주도	7.3	25.5	67.3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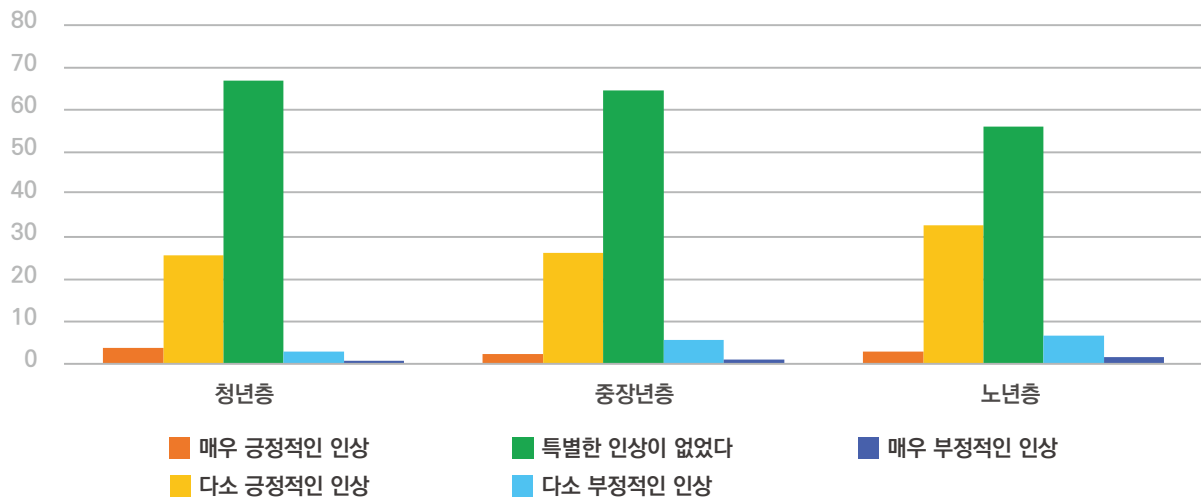
[원불교 전반적인 인상 - 종교]

종교	매우 긍정	다소 긍정	특별한 인상이 없었다	다소 부정	매우 부정
불교	4.7	33.9	56.9	4.0	0.4
개신교	0.5	17.5	65.5	11.5	5.0
천주교	2.0	29.1	64.9	4.1	0.0
원불교	24.3	51.4	21.6	2.7	0.0
종교 없음	1.8	26.8	67.7	3.3	0.4



[원불교 전반적인 인상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매우 긍정	다소 긍정	특별한 인상이 없음	다소 부정	매우 부정
매우 잘 안다	38.2	32.4	14.7	8.8	5.9
어느 정도 안다	6.1	51.5	35.6	5.1	1.7
들어본 적 있다	0.4	19.3	74.6	5.0	0.8



[원불교 전반적인 인상 - 연령대]

연령대	매우 긍정	다소 긍정	특별한 인상이 없음	다소 부정	매우 부정
청년층	3.8	25.7	66.8	2.9	0.8
중장년층	2.4	26.2	64.6	5.7	1.1
노년층	2.9	32.7	56.0	6.7	1.6

문항8)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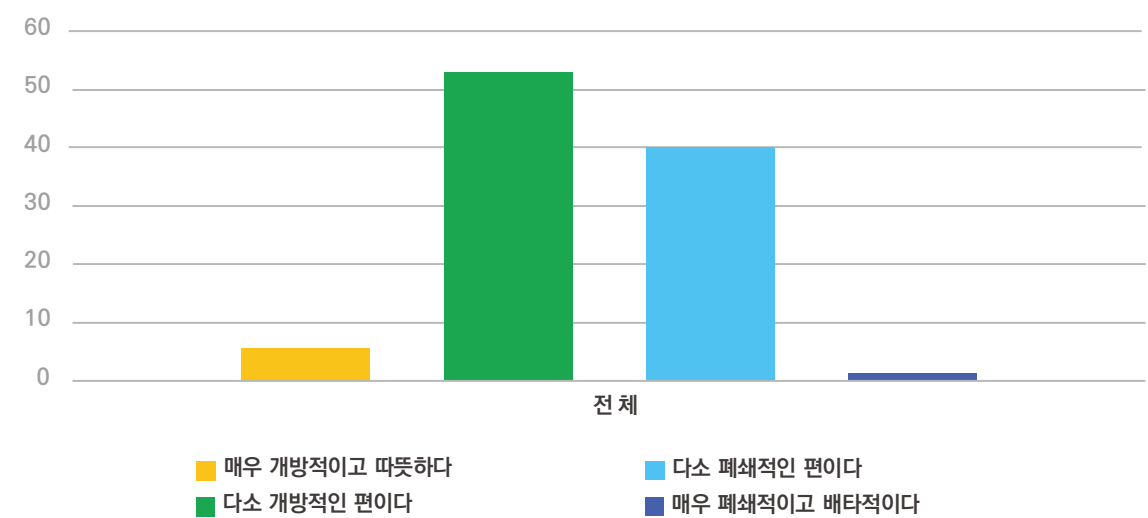
‘원불교에 대한 전반적 인상’을 조사한 결과, 대중의 다수인 62.5%가 “특별한 인상이 없다”고 응답해, 원불교가 여전히 뚜렷한 이미지나 감정적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긍정적 인상은 31.3%, 부정적 인상은 6.3%로 나타나, 비호감보다는 무관심이 훨씬 큰 특징적 양상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불교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종교는 아니지만, 동시에 강력한 정체성과 호감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중의 인식은 ‘희미한 긍정과 광범위한 중립’으로 요약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부정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젊은 층은 가장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원불교가 과거 세대에게는 일정한 경험과 판단을 남겼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여전히 ‘먼 종교’, 혹은 ‘관심 밖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별로는 불교 신자층의 긍정 인상(38.7%)이 두드러졌고, 개신교 신자의 부정 인상(16.5%)은 가장 높았다. 특히 원불교를 잘 아는 집단일수록 긍정 인상도 높지만(70.6%), 동시에 부정 인상도 함께 증가하는 ‘인지의 양면성’이 나타나, 단순한 인지도 제고만으로는 이미지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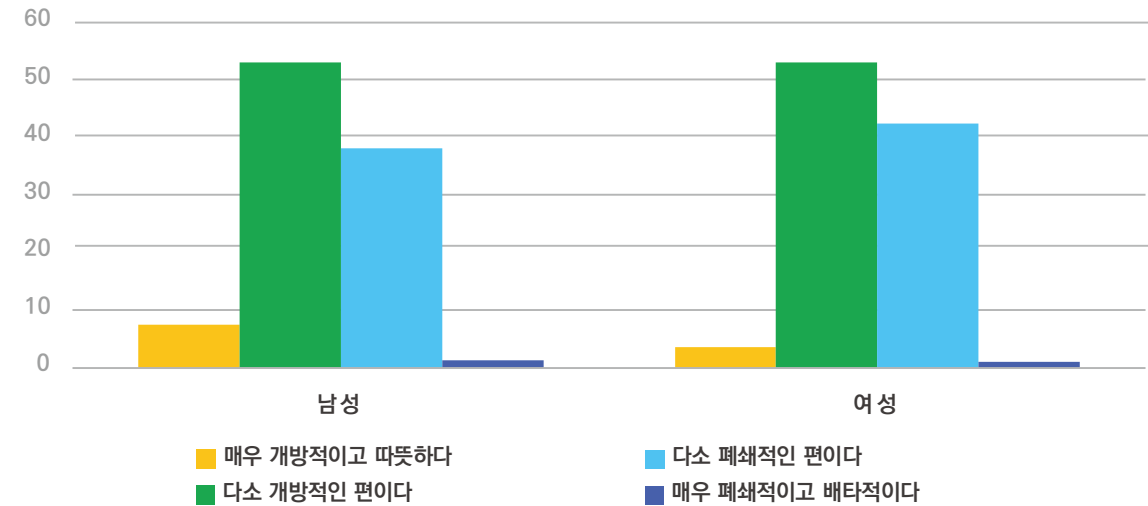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원불교의 과제가 ‘알려지지 않음’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되느냐’의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의 원불교는 대중에게 명확한 색깔 없이 모호한 종교, 즉 ‘비어 있는 캔버스’로 인식되고 있다. 대중이 ‘모호한 인상’을 넘어 ‘함께 있고 싶은 종교’로 인식하도록, 원불교는 이제 교리보다 경험, 설명보다 감동, 홍보보다 **이미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문항9) 원불교 전반적 분위기·태도 귀하께서 느끼시는 원불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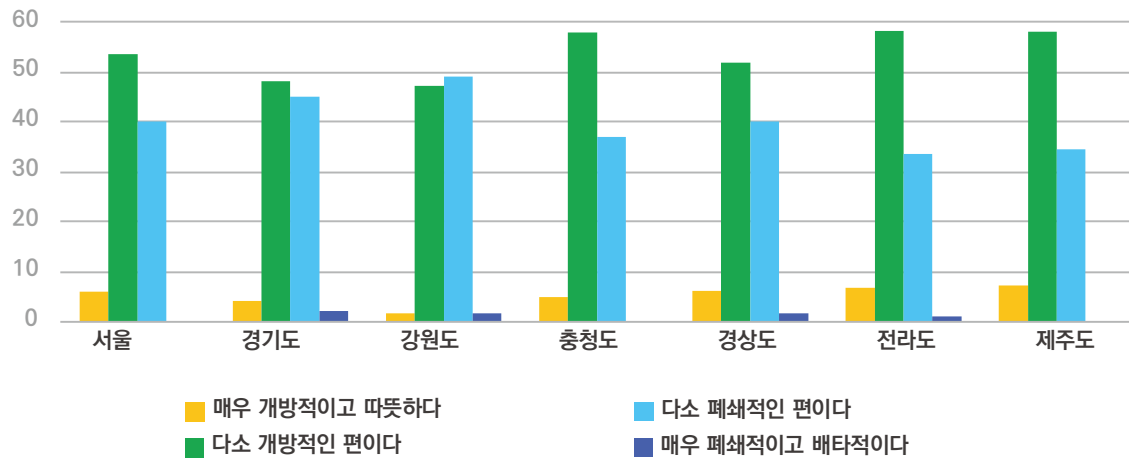
[원불교 전반적 분위기·태도]

	매우 개방	다소 개방	다소 폐쇄	매우 폐쇄
전체	5.6	53.0	40.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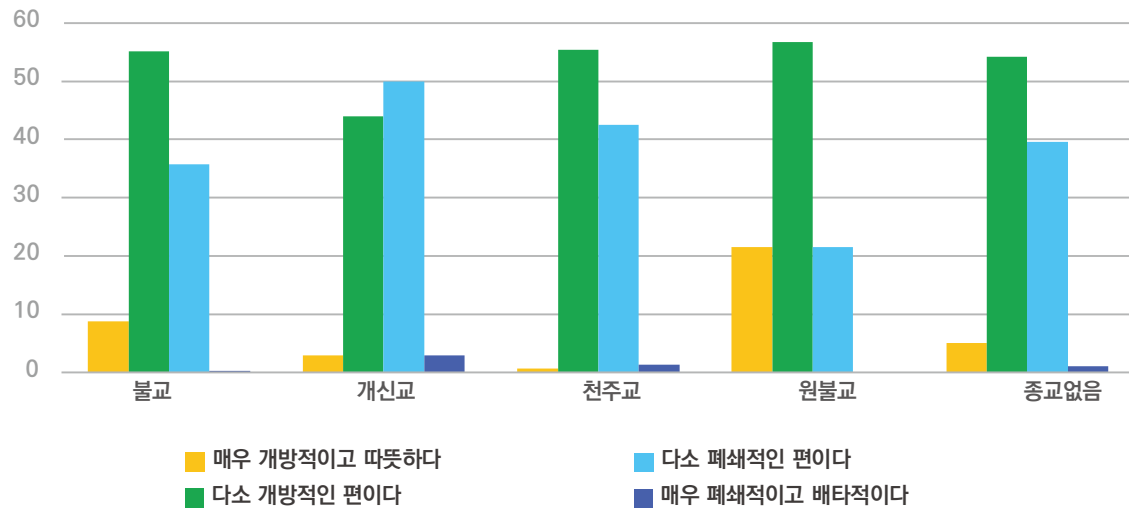
[원불교 전반적 분위기·태도 - 성별]

성별	매우 개방	다소 개방	다소 폐쇄	매우 폐쇄
남성	7.5	53.0	38.1	1.4
여성	3.6	53.0	42.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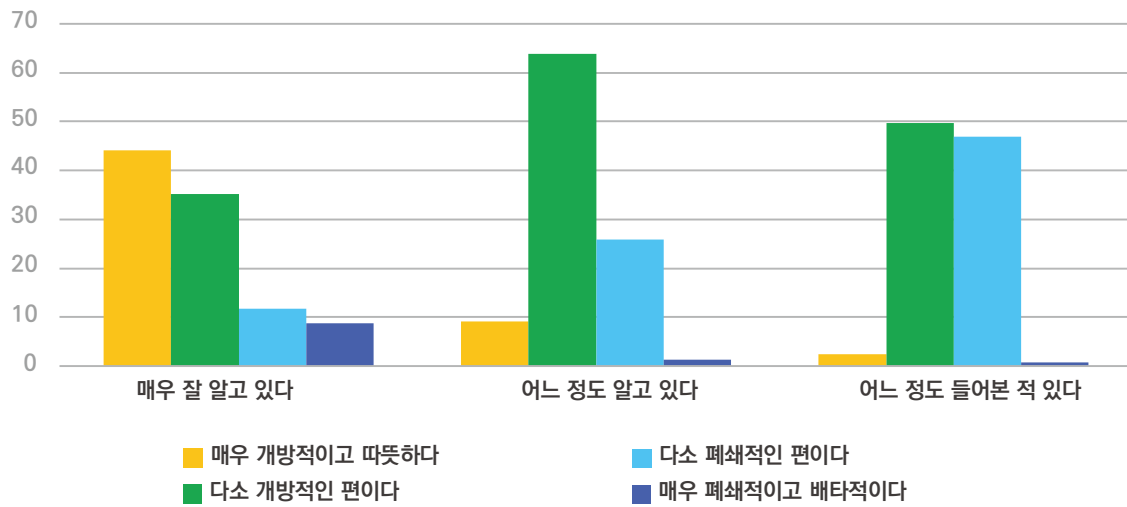
[원불교 전반적 분위기·태도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매우 개방	다소 개방	다소 폐쇄	매우 폐쇄
서울	6.1	53.6	40.2	0.0
경기도	4.2	48.3	45.2	2.3
강원도	1.8	47.3	49.1	1.8
충청도	5.0	58.0	37.0	0.0
경상도	6.2	51.9	40.2	1.7
전라도	6.9	58.3	33.7	1.1
제주도	7.3	58.2	34.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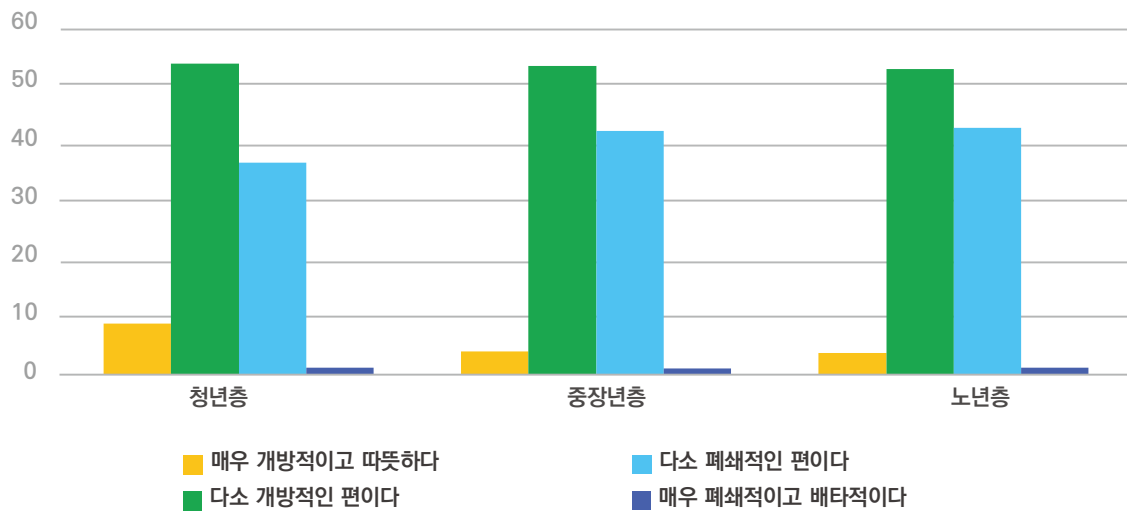
[원불교 전반적 분위기·태도 - 종교]

종교	매우 개방	다소 개방	다소 폐쇄	매우 폐쇄
불교	8.8	55.1	35.8	0.4
개신교	3.0	44.0	50.0	3.0
천주교	0.7	55.4	42.6	1.4
원불교	21.6	56.8	21.6	0.0
종교 없음	5.1	54.2	39.6	1.1



[원불교 전반적 분위기·태도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매우 개방	다소 개방	다소 폐쇄	매우 폐쇄
매우 잘 안다	44.1	35.3	11.8	8.8
어느 정도 안다	9.2	63.7	25.8	1.4
들어본 적 있다	2.5	49.7	46.9	0.9



[원불교 전반적 분위기·태도 - 연령대]

연령대	매우 개방	다소 개방	다소 폐쇄	매우 폐쇄
청년층	8.8	53.4	36.5	1.3
중장년층	4.1	53.0	41.9	1.1
노년층	3.8	52.5	42.4	1.3

문항9) 분석

‘원불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중의 인식이 ‘개방적’과 ‘폐쇄적’ 평가로 양분된 이중 구조**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58.5%는 “개방적이다”(매우 개방적 5.6% + 다소 개방적 53.0%)라고 응답했으나, 동시에 41.5%는 “폐쇄적이다”(다소 폐쇄적 40.2% + 매우 폐쇄적 1.3%)라고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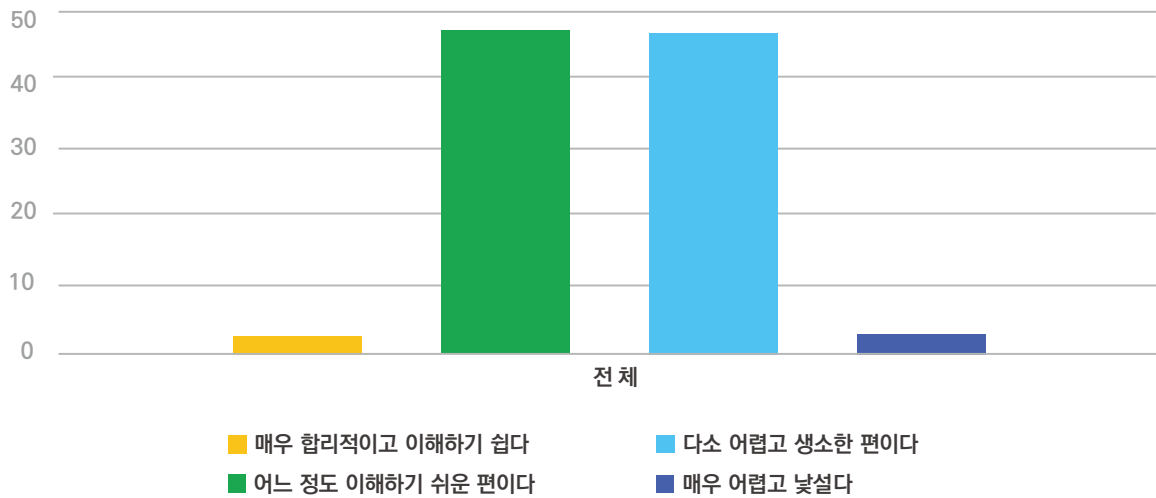
이는 원불교가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관된 긍정적 인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접촉 경험과 인식 수준에 따라 인식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의 평균 점수(2.63점)는 개방적 인식이 우세하나, 동시에 상당수가 폐쇄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중은 원불교를 전면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지만, **가깝게 다가가기에는 거리감이 존재하는 종교로 인식**하고 있다. 인식의 차이는 경험 여부에 따라 크게 갈렸다. 원불교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79.4%가 개방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순히 “들어본 적이 있다”는 집단은 52.2%만이 개방적이라고 답했다. 즉, **이해와 체험의 깊이가 개방적 인식과 비례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또한, 전라도(65.1%) 등 **교화 기반이 강한 지역일수록 개방적 평가가 높고**, 경기도(52.5%)와 강원도(49.1%)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교단 활동의 지역적 편중과 교화 경험의 밀도 차이가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별로는 불교 신자의 63.9%가 개방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개신교 신자는 53.0%가 폐쇄적으로 인식해 종교 간 심리적 거리가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원불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폐쇄적 교단’이 아니라 ‘낮선 교단’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대중은 원불교에 대한 명확한 편견보다는 정보 부족에서 오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인지의 양보다 경험의 질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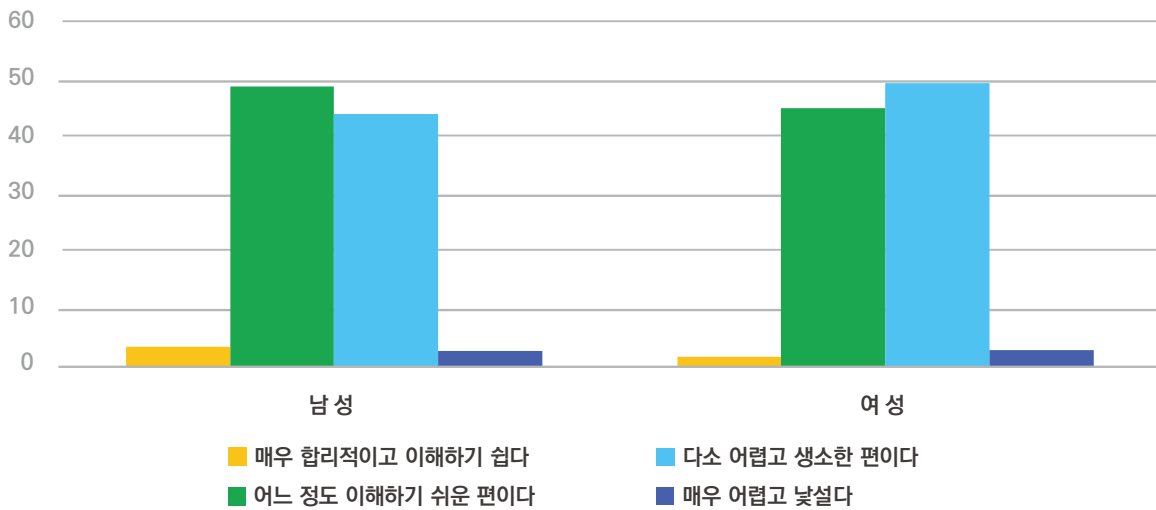
이번 원불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태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원불교가 이미 사회적으로 일정 수준의 신뢰와 호감을 확보했으나,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10) 원불교 교리·내용 인식 귀하께서 느끼시기에 원불교의 교리나 내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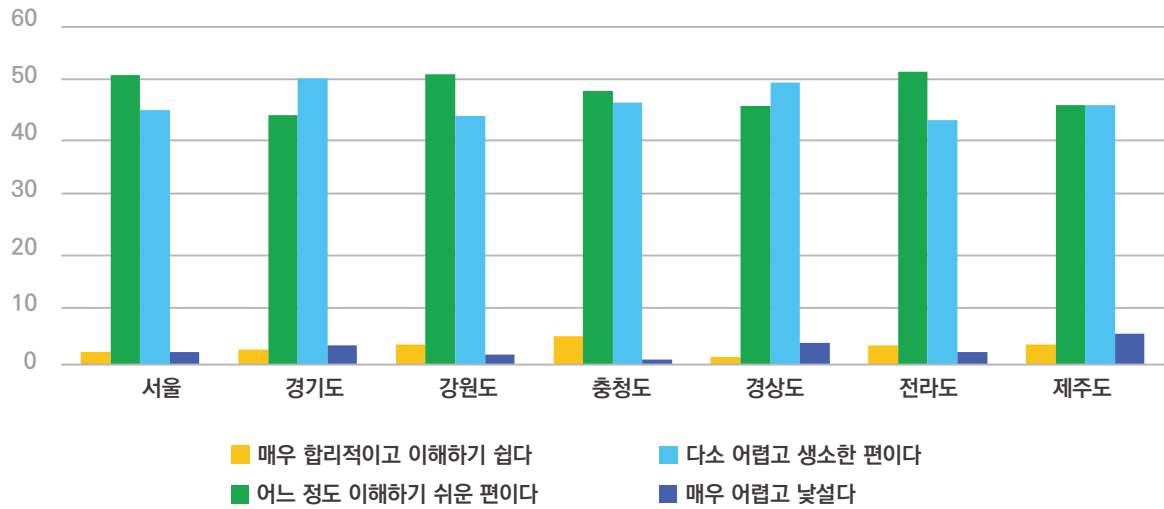
[원불교 교리·내용 인식]

	■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 다소 어렵고 생소한 편이다	■ 매우 어렵고 낯설다
전체	2.7	47.3	47.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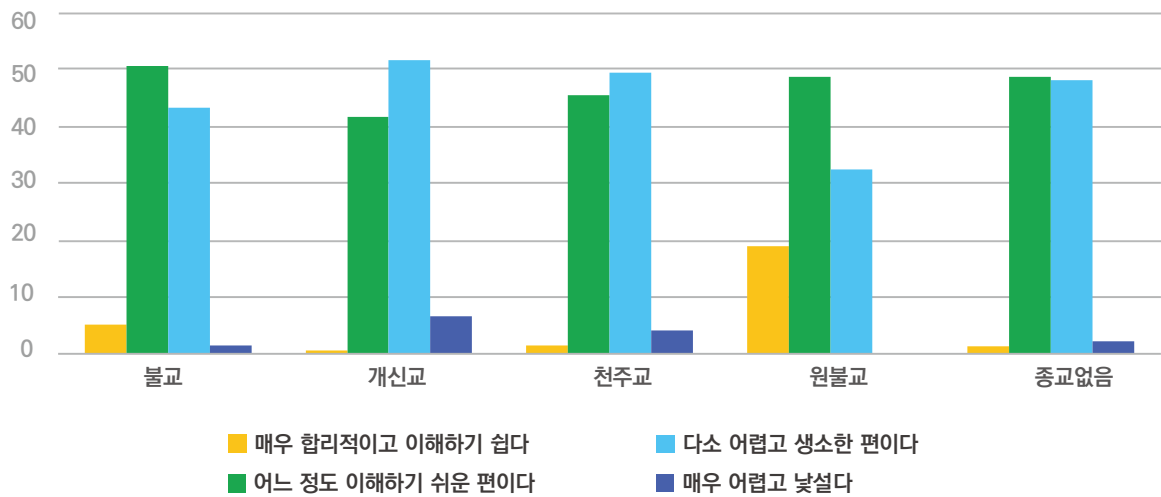
[원불교 교리·내용 인식 - 성별]

성별	■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 다소 어렵고 생소한 편이다	■ 매우 어렵고 낯설다
남성	3.6	49.2	44.3	2.9
여성	1.8	45.4	49.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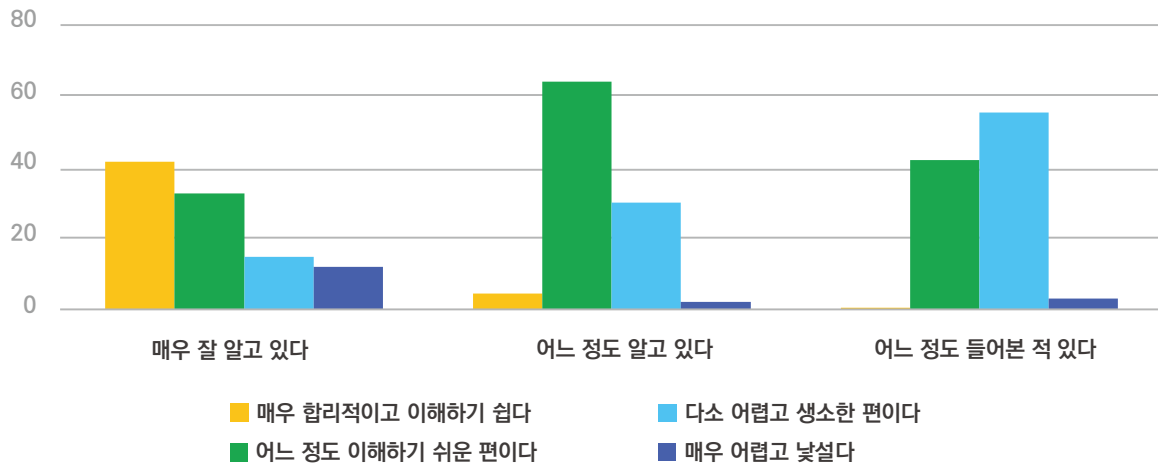
[원불교 교리·내용 인식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편이다	매우 어렵고 낯설다
서울	2.2	50.8	44.7	2.2
경기도	2.7	43.7	50.2	3.4
강원도	3.6	50.9	43.6	1.8
충청도	5.0	48.0	46.0	1.0
경상도	1.4	45.4	49.5	3.8
전라도	3.4	51.4	42.9	2.3
제주도	3.6	45.5	45.5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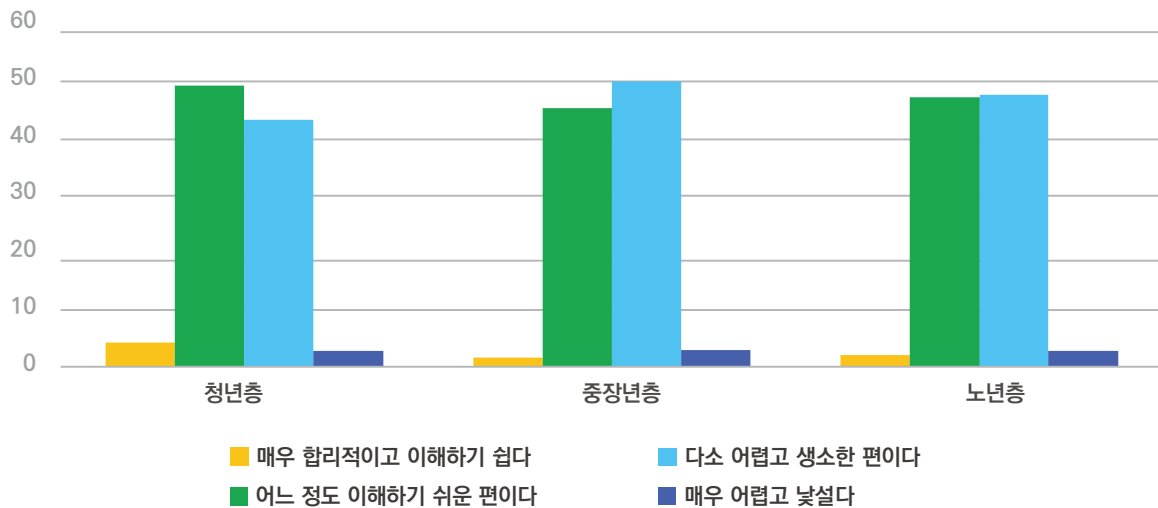
[원불교 교리·내용 인식 - 종교]

종교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편이다	매우 어렵고 낯설다
불교	5.1	50.4	43.1	1.5
개신교	0.5	41.5	51.5	6.5
천주교	1.4	45.3	49.3	4.1
원불교	18.9	48.6	32.4	0.0
종교 없음	1.3	48.5	48.0	2.2



[원불교 교리·내용 인식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편이다	매우 어렵고 낯설다
매우 잘 안다	41.2	32.4	14.7	11.8
어느 정도 안다	4.4	63.7	29.8	2.0
들어본 적 있다	0.4	41.8	54.9	2.9



[원불교 교리·내용 인식 - 연령대]

연령대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편이다	매우 어렵고 낯설다
청년층	4.3	49.3	43.4	2.9
중장년층	1.6	45.4	50.0	3.0
노년층	2.1	47.2	47.7	2.9

문항10) 분석

‘원불교 교리와 내용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이 **정확히 절반 (이해하기 쉽다 50.0%, 어렵다 50.0%)**으로 양분되는 특이한 구조를 보였다. 이는 원불교 교리가 일부에게는 합리적이고 명쾌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다수에게는 생소하고 진입 장벽이 높은 체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교리 그 자체의 난해함보다 설명 방식과 언어의 간극이 대중의 이해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원불교 인지도 수준이었다. 원불교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73.5%는 교리를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했으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집단은 57.8%가 어렵다고 답했다. 즉, ‘삶의 깊이’가 ‘이해의 정도’를 결정짓는 구조이며, 이는 **교리의 전달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해석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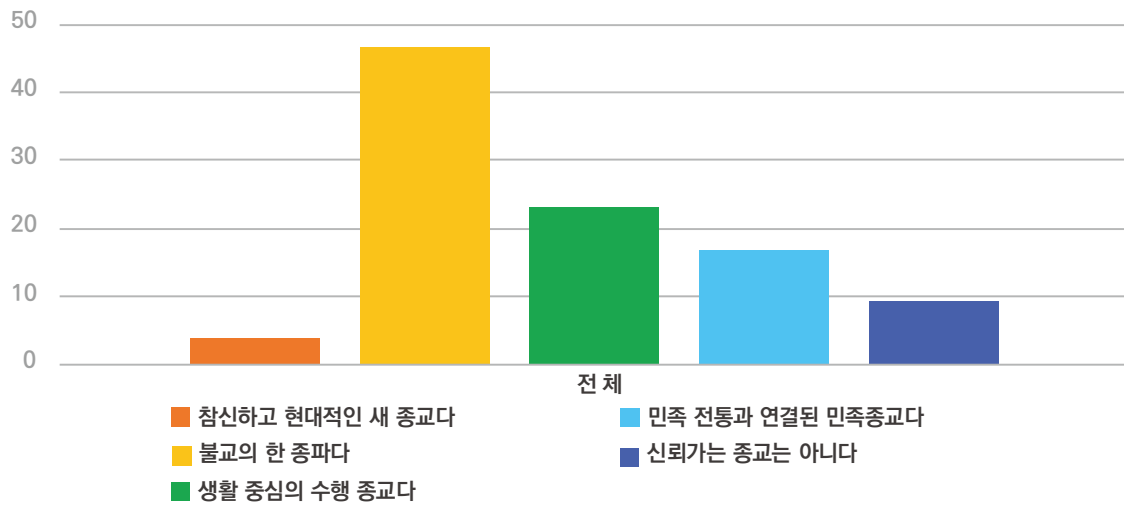
또한 불교 신자는 55.5%가 “쉽다”고 응답해 가장 긍정적이었고, 개신교 신자는 58.0%가 “어렵다”고 답해 가장 높은 장벽을 보였다. 이는 종교적 배경에 따라 교리에 대한 해석의 틀(해석의 안경)이 다름을 시사한다.

세대별로는 청년층(53.6%)이 중장년층(47.0%)보다 교리를 쉽게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층은 종교적 선입견이 적고, 원불교를 전통 종교가 아닌 ‘마음관리의 철학’이나 ‘삶의 심리학’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반면, 중장년층은 교리의 추상적 개념이나 불교·기독교와의 차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2.8%로 여성(47.2%)보다 이해도가 높았는데, 이는 남성이 교리를 논리적으로 탐구하려는 정보탐색적 성향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관계적·정서적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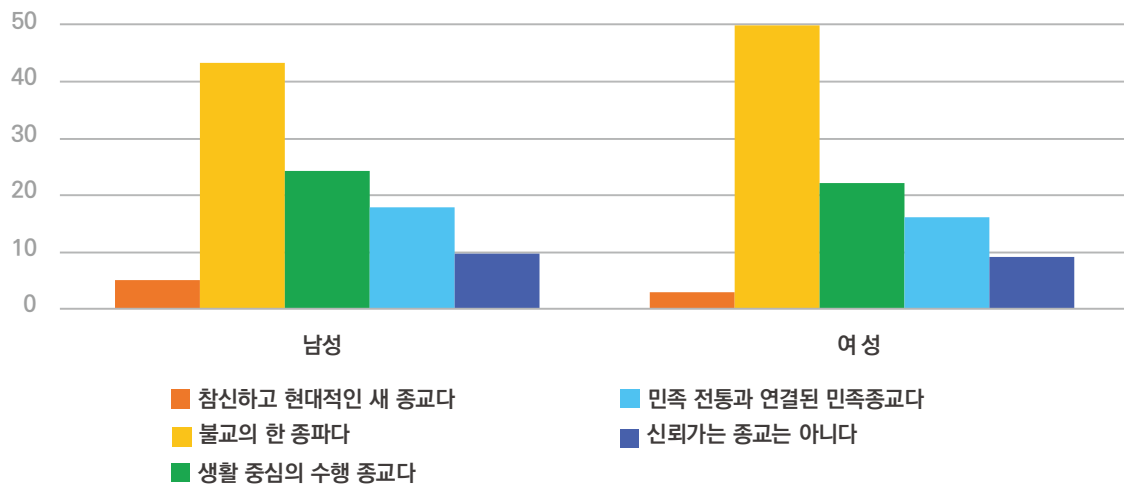
이는 원불교 교리가 ‘어려운 진리’라기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진리’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교리 자체의 난해함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의 거리감**에 있다. 따라서 교화의 핵심 과제는 ‘교리의 심화’가 아니라 ‘교리의 번역’, 즉 **일상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문항11) 원불교에 대한 생각 귀하께서는 원불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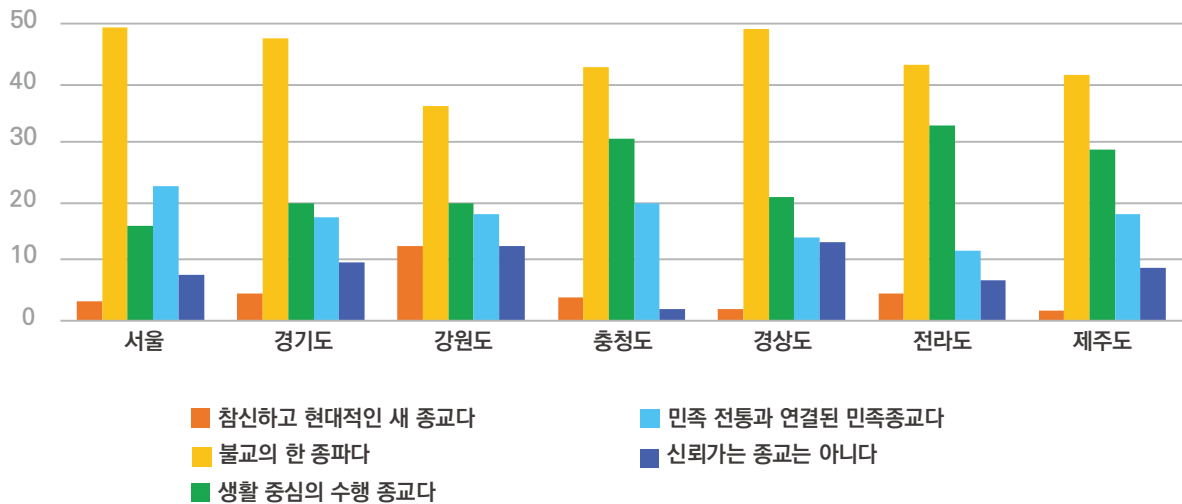
[원불교에 대한 생각]

	참신하고 현대적인 새 종교	불교의 한 종파	생활 중심의 수행 종교	민족 전통과 연결된 민족종교	신뢰가는 종교는 아니다
전체	3.9	46.6	23.1	16.9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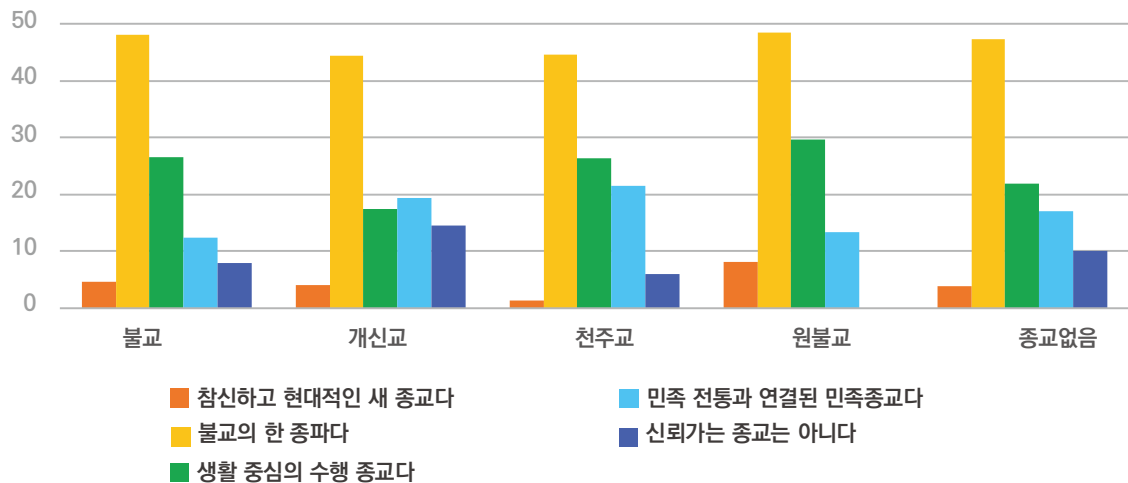
[원불교에 대한 생각 - 성별]

성별	참신하고 현대적인 새 종교	불교의 한 종파	생활 중심의 수행 종교	민족 전통과 연결된 민족종교	신뢰가는 종교는 아니다
남성	5.0	43.3	24.2	17.8	9.7
여성	2.9	49.9	22.0	16.1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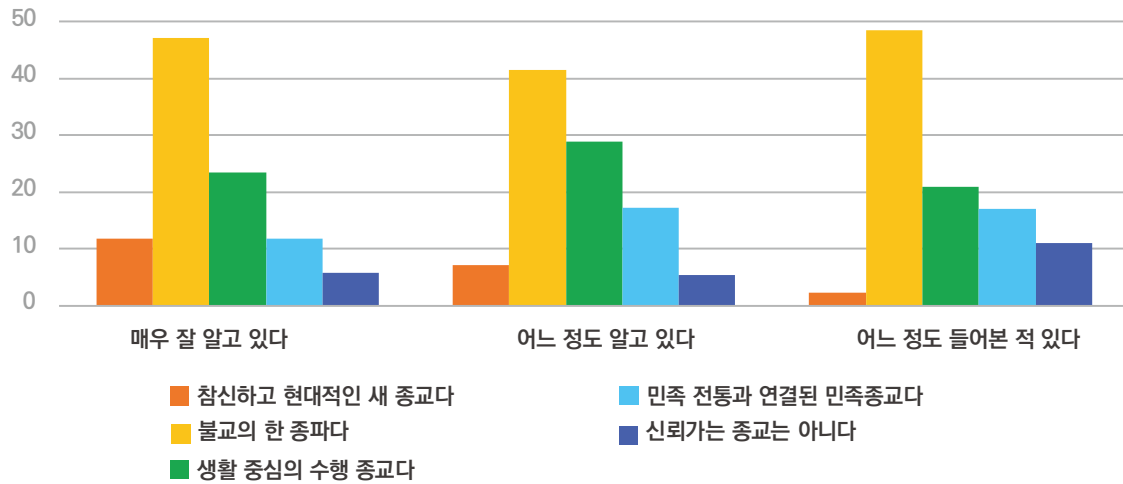
[원불교에 대한 생각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참신하고 현대적인 새 종교다	불교의 한 종파다	생활 중심의 수행 종교다	민족 전통과 연결된 민족종교다	신뢰가는 종교는 아니다
서울	3.4	49.7	16.2	22.9	7.8
경기도	4.6	47.9	19.9	17.6	10.0
강원도	12.7	36.4	20.0	18.2	12.7
충청도	4.0	43.0	31.0	20.0	2.0
경상도	2.1	49.5	21.0	14.1	13.4
전라도	4.6	43.4	33.1	12.0	6.9
제주도	1.8	41.8	29.1	18.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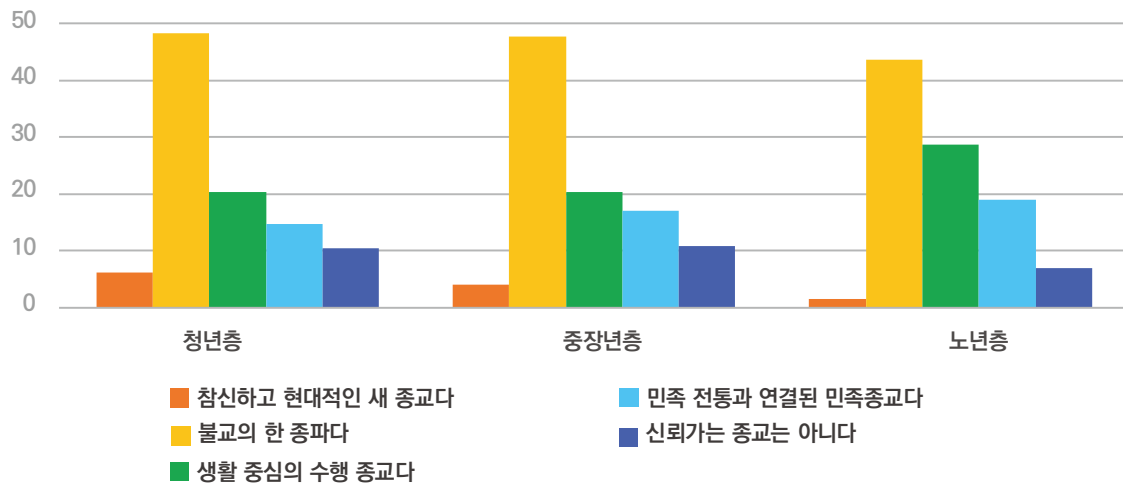
[원불교에 대한 생각 - 종교]

종교	참신하고 현대적인 새 종교다	불교의 한 종파다	생활 중심의 수행 종교다	민족 전통과 연결된 민족종교다	신뢰가는 종교는 아니다
불교	4.7	48.2	26.6	12.4	8.0
개신교	4.0	44.5	17.5	19.5	14.5
천주교	1.4	44.6	26.4	21.6	6.1
원불교	8.1	48.6	29.7	13.5	0.0
종교 없음	3.8	47.3	21.9	17.0	10.0



[원불교에 대한 생각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참신하고 현대적인 새 종교	불교의 한 종파	생활 중심의 수행 종교	민족 전통과 연결된 민족종교	신뢰가는 종교는 아니다
매우 잘 안다	11.8	47.1	23.5	11.8	5.9
어느 정도 안다	7.1	41.4	28.8	17.3	5.4
들어본 적 있다	2.4	48.5	21.0	17.0	11.1



[원불교에 대한 생각 - 연령대]

연령대	참신하고 현대적인 새 종교	불교의 한 종파	생활 중심의 수행 종교	민족 전통과 연결된 민족종교	신뢰가는 종교는 아니다
청년층	6.2	48.3	20.4	14.7	10.5
중장년층	4.1	47.8	20.3	17.0	10.8
노년층	1.6	43.7	28.7	19.0	7.0

문항11)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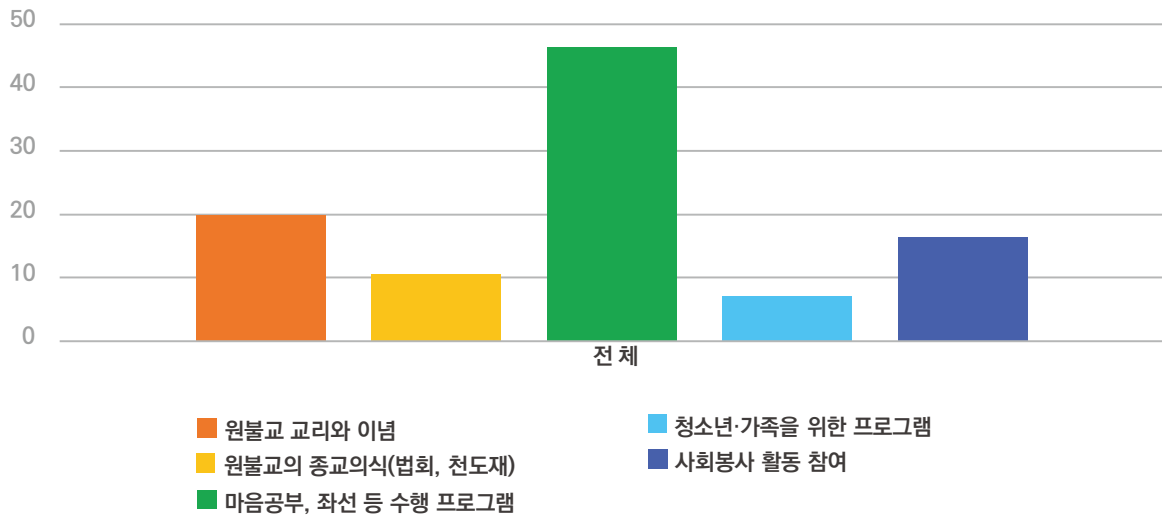
‘원불교에 대한 생각(원불교는 어떤 종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중의 절반가량인 46.6%가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불교가 개교 10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교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는 종교적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생활 중심의 수행 종교”(23.1%)와 “민족 전통과 연결된 종교”(16.9%), “참신하고 현대적 인 새 종교”(3.9%)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신뢰가는 종교는 아니다”(9.4%)는 소수에 그쳤다.

이 결과는 대중이 원불교를 명확히 부정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교의 변형된 형태’ 혹은 ‘덜 알려진 분파’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장년층과 전통 종교 문화가 강한 지역(경상도, 충청도 등)에서 두드러졌으며, 반대로 청년층에서는 **‘새로운 종교’와 ‘생활 중심 수행 종교’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대 간 인식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불교 신자층은 원불교를 “생활 중심의 수행 종교”(26.6%)로 평가했으나, 동시에 절반 이상이 “불교의 한 종파”라고 인식해 친숙함과 혼동이 공존하는 양면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개신교 신자는 “신뢰가는 종교는 아니다” 응답이 14.5%로 가장 높았고, 무종교층은 전반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참신하고 현대적인 새 종교”라는 응답이 전체 3.9%에 불과한 것은**, 원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새로움의 이미지보다 전통적 종교의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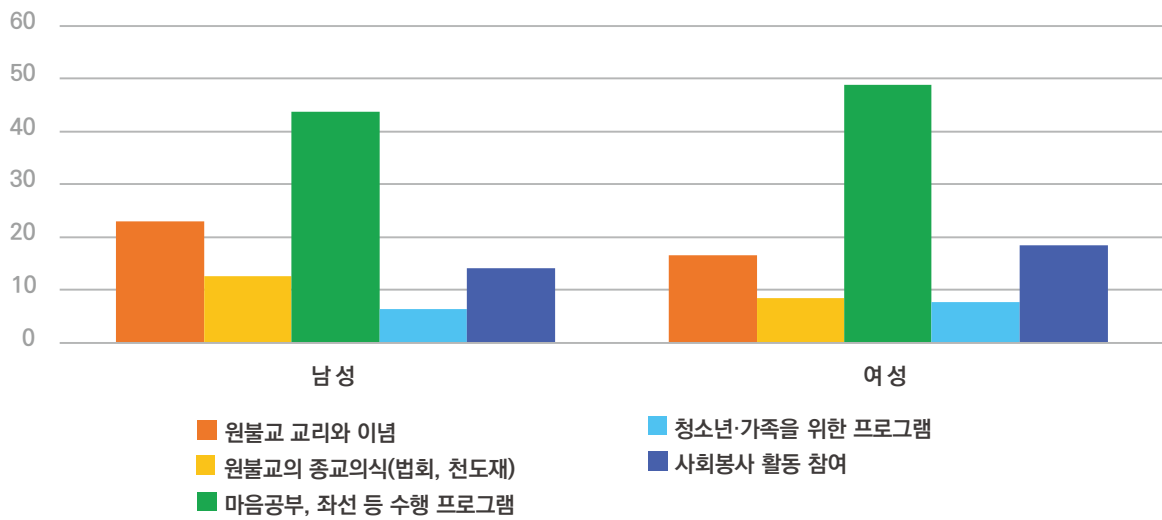
이는 원불교가 여전히 ‘익숙한 불교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생활 속 수행 종교’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원불교는 ‘불교의 분파’라는 인식 틀을 벗어나, ‘현대인의 삶을 바꾸는 실천적 종교’, ‘깨달음을 일상의 언어로 구현하는 교단’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문항12) 원불교 경험 희망 귀하께서 원불교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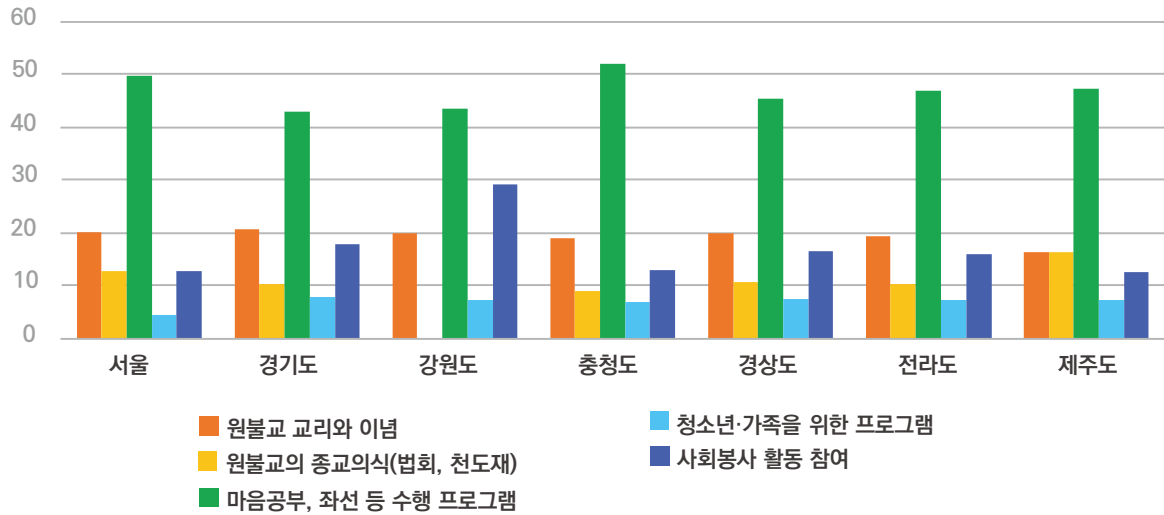
[원불교 경험 희망]

	원불교 교리와 이념	원불교의 종교의식	수행 프로그램	청소년·가족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참여
전체	19.8	10.5	46.3	7.1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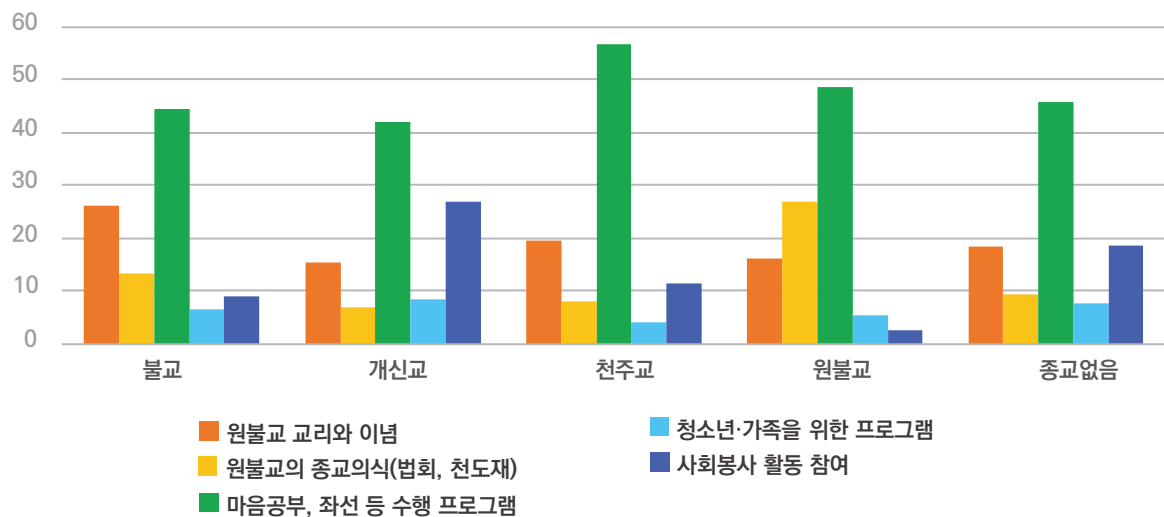
[원불교 경험 희망 - 성별]

성별	원불교 교리와 이념	원불교의 종교의식	수행 프로그램	청소년·가족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참여
남성	23.0	12.6	43.8	6.5	14.2
여성	16.6	8.4	48.8	7.7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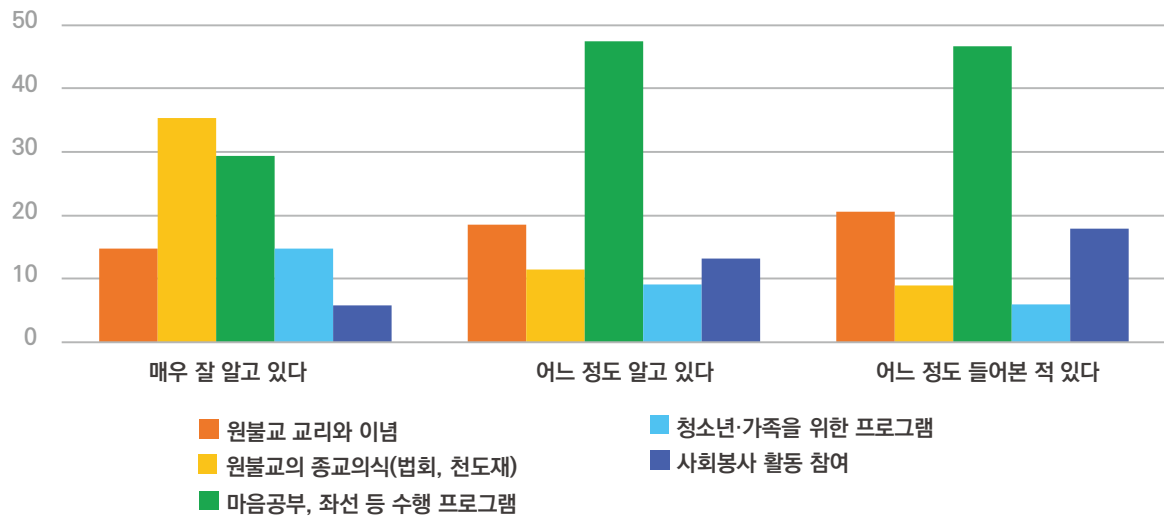
[원불교 경험 희망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원불교 교리와 이념	원불교의 종교의식	수행 프로그램	청소년·가족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참여
서울	20.1	12.8	49.7	4.5	12.8
경기도	20.7	10.3	42.9	8.0	18.0
강원도	20.0	0.0	43.6	7.3	29.1
충청도	19.0	9.0	52.0	7.0	13.0
경상도	19.9	10.7	45.4	7.6	16.5
전라도	19.4	10.3	46.9	7.4	16.0
제주도	16.4	16.4	47.3	7.3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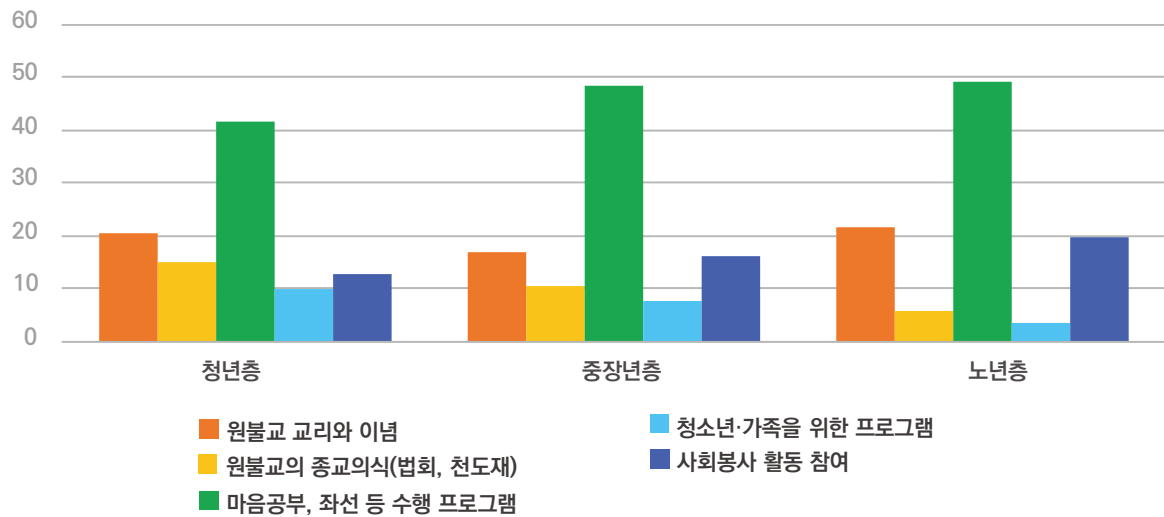
[원불교 경험 희망 - 종교]

종교	원불교 교리와 이념	원불교의 종교의식	수행 프로그램	청소년·가족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참여
불교	26.3	13.5	44.5	6.6	9.1
개신교	15.5	7.0	42.0	8.5	27.0
천주교	19.6	8.1	56.8	4.1	11.5
원불교	16.2	27.0	48.6	5.4	2.7
종교 없음	18.4	9.5	45.8	7.7	18.6



[원불교 경험 희망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교리와 이념	원불교의 종교의식	수행 프로그램	청소년·가족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참여
매우 잘 안다	14.7	35.3	29.4	14.7	5.9
어느 정도 안다	18.6	11.5	47.5	9.2	13.2
들어본 적 있다	20.5	9.0	46.6	6.0	17.9



[원불교 경험 희망 - 연령대]

연령대	원불교 교리와 이념	원불교의 종교의식	수행 프로그램	청소년·가족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참여
청년층	20.6	15.0	41.6	9.9	12.9
중장년층	17.0	10.5	48.4	7.8	16.2
노년층	21.7	5.9	49.1	3.5	19.8

문항12) 분석

‘원불교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마음공부·좌선 등 수행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이 원불교를 전통적 종교 의례보다 ‘실천적이고 체험 가능한 종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교리와 이념”(19.8%), “사회봉사 활동”(16.3%), “종교의식 참여”(10.5%), “청소년·가족 프로그램”(7.1%)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신앙보다는 **삶의 효용과 사회적 의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교리와 이념”(20.6%)과 “수행 프로그램”(41.6%)을 고르게 선호하며, 탐구적 태도와 체험적 호기심이 공존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수행 프로그램”(43.8%)과 “교리와 이념”(23.0%)을, 여성은 “수행 프로그램”(48.8%)과 “사회봉사 활동”(18.4%)을 더 선호하였고, 불교 신자는 “수행 프로그램”(44.5%)과 “교리와 이념”(26.3%)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개신교 신자는 “수행 프로그램”(42%)과 “사회봉사 활동”(27.0%)에 집중하여 종교 간 접근 방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불교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교리보다 종교의식(35.3%) 등 내부적 신앙 체험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반대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는 집단은 “수행 프로그램”(46.6%)과 “사회봉사 활동”(17.9%)에 비중이 높아 실용적·사회적 체험을 통해 원불교를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원불교의 문은 교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원불교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결과는 원불교의 미래 교화 방향이 **설명에서 체험으로, 교리에서 실천으로, 신앙에서 생활로 이동**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중은 ‘말하는 종교’보다 ‘함께 경험하는 종교’를 원하고 있다.

3 이미지 및 가치

▶ 요약 및 분석

문항13) 원불교 이미지 인식

문항14) 원불교 핵심가치 인식

문항15) 원불교 경험 경로 희망

[문항13] 원불교 이미지 인식

원불교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시각적 상징(Symbol)’과 ‘사회적 인프라(Infrastructure)’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인식이 양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55.6%가 원불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일원상(동그라미)”을 1순위로 꼽았다. 이는 십자가(기독교)나 불상(불교)과 같이, 원불교만의 고유한 상징이 대중의 뇌리에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주목할 점은 “원불교 관련 기관(학교, 병원 등)”을 떠올리는 비율이 39.9%로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44.8%)와 30대(45.8%) 청년층에서는 일원상 못지않게 관련 기관을 연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층에게 원불교가 종교적 실체보다는 ‘원광대학교’, ‘원광대병원’과 같은 거대한 교육·의료재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반면, “수행 프로그램”(17.2%)이나 “봉사활동”(7.5%) 등 원불교가 가진 내면적 가치를 떠올리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미지의 외연을 건물이나 재단에서 ‘콘텐츠’와 ‘활동’으로 확장해야 할 과제가 확인되었다.

[문항14] 원불교 핵심가치 인식

대중이 인식하는 원불교의 핵심 가치에서 향후 브랜드 전략의 중요한 단초가 발견되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역시 상징과 연결된 “일원상(진리)”(48%)이었으나, 전략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마음공부”가 29.1%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세대인 20대에서는 ‘마음공부’를 핵심 가치로 꼽은 비율이 29.5%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문항12]에서 청년층이 가장 경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수행/명상’을 선택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청년 세대에게 소구할 수 있는 원불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마음공부’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신개벽”(9.9%)이나 “은혜”(9.7%)와 같은 원불교 고유의 교리 용어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종교적 언어를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전달하는 작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항15] 원불교 경험 경로 희망

원불교를 접하고 싶은 경로에 대한 조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략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대중은 물리적인 방문보다는 ‘콘텐츠’를 통한 접촉을 선호했다. 1위는 “명상/좌선 체험” (42.1%)으로 구체적인 수행 경험을 원했으며, 2위는 “유튜브/영상 콘텐츠”(38.2%)로 비대면 탐색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반면, 전통적인 교화 방식인 “교당 방문”(22.9%)이나 “지인 소개”(7.9%)는 후순위로 밀려나, ‘교당으로 오라’는 기존의 교화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냈다.

▲ 이미지 및 가치에 관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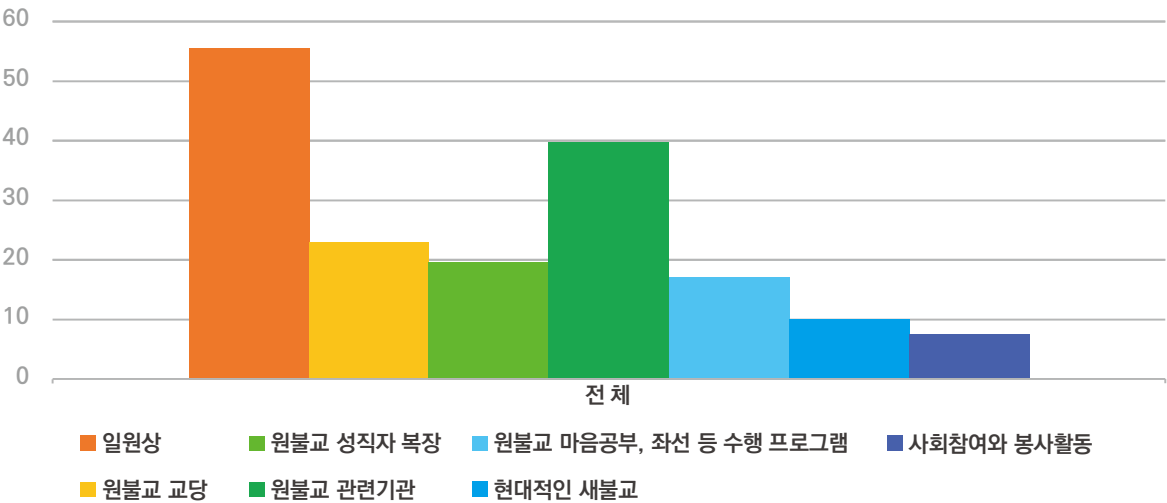
이미지 및 가치에 대한 분석의 핵심은 ‘외면적 이미지(건물, 상징)는 잘 알려져 있으나, 내면적 이미지(정신, 가치)는 아직 대중에게 낯설다’는 것이다.

- **상징의 브랜드화:**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일원상’을 종교적 상징의 틀에 가두지 말고, 세련된 브랜드 로고처럼 활용하여 굿즈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메시지 단순화:** 대중에게 낯선 ‘정신개벽’ 대신, 이미 인지도가 높고 호감도가 높은 ‘마음공부’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워야 한다. (예: ‘정신을 개벽합시다’ → ‘마음공부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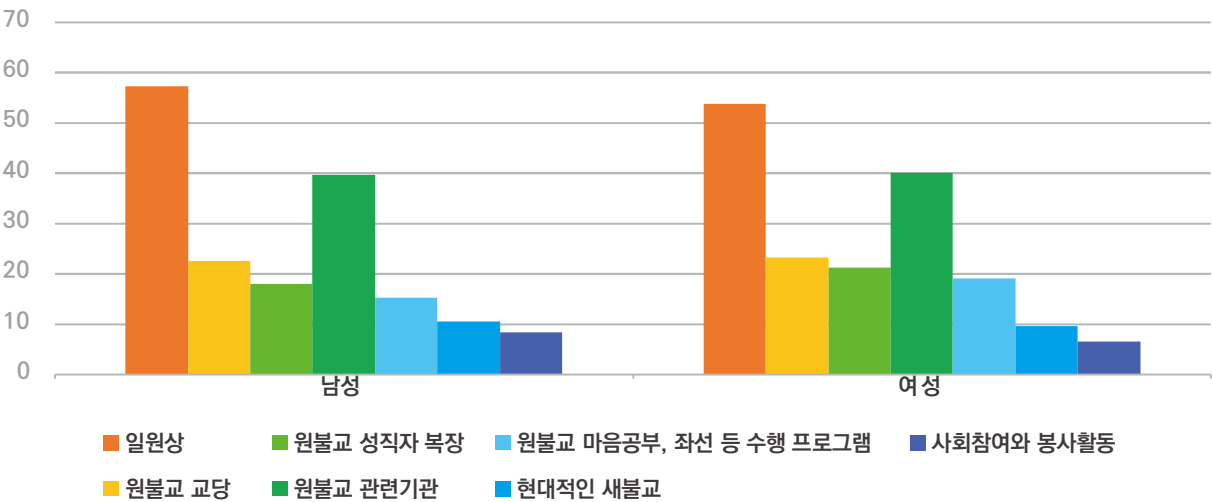
- **온-오프라인 연계:** 온라인에서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생활 속 명상’, ‘마음 치유’ 콘텐츠를 공급하여 유입을 유도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교당을 ‘명상 센터’나 ‘문화 공간’으로 개방하여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항13) 원불교 이미지 인식(복수선택) 귀하께서는 원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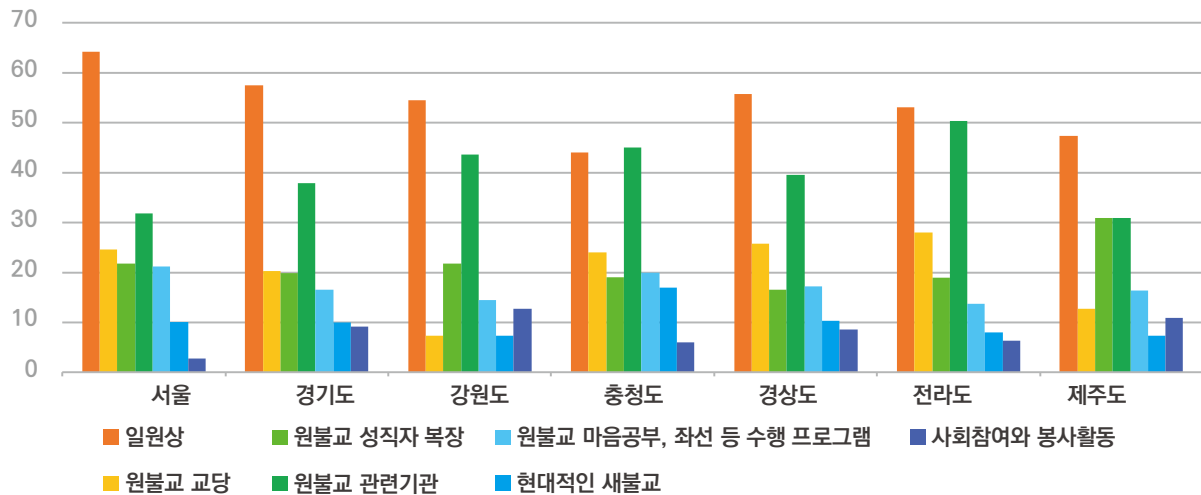
[원불교 이미지 인식]

	일원상	원불교 교당	원불교 성직자 복장	원불교 관련기관	수행 프로그램	현대적인 새불교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전체	55.6	22.9	19.7	39.9	17.2	10.1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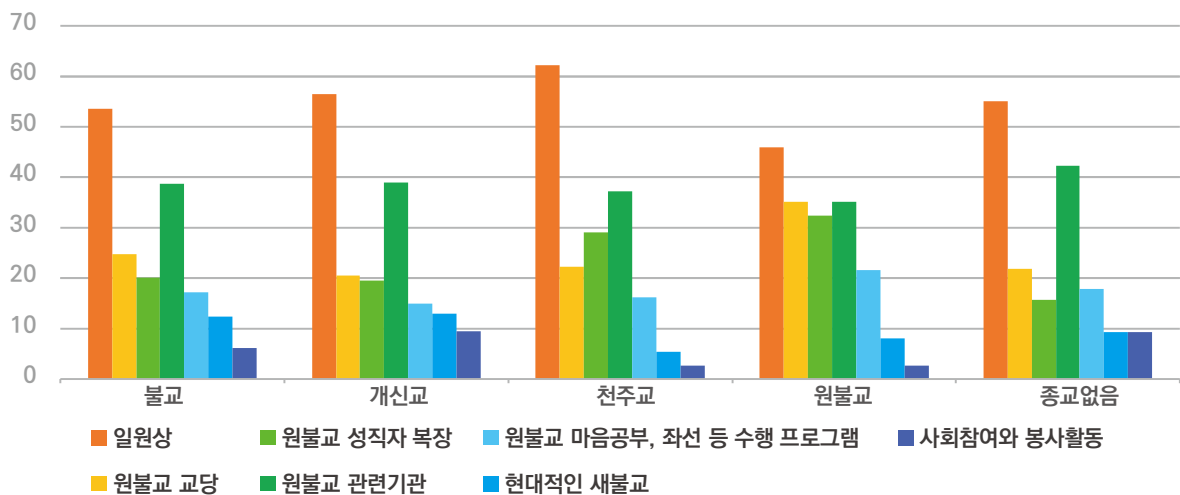
[원불교 이미지 인식 - 성별]

성별	일원상	원불교 교당	원불교 성직자 복장	원불교 관련기관	수행 프로그램	현대적인 새불교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남성	57.3	22.6	18.1	39.7	15.3	10.6	8.4
여성	53.8	23.3	21.3	40.1	19.1	9.7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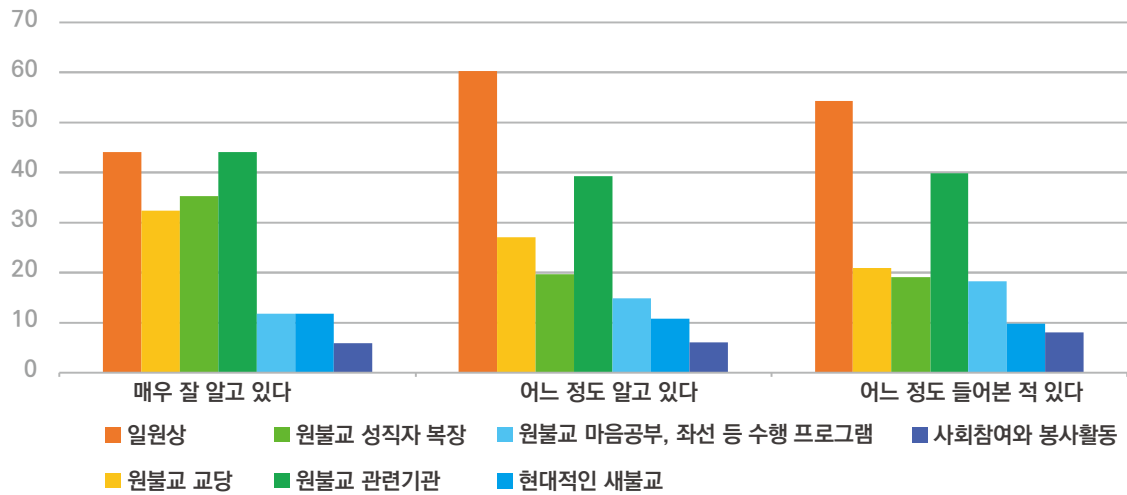
[원불교 이미지 인식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일원상	원불교 교당	원불교 성직자 복장	원불교 관련기관	수행 프로그램	현대적인 새불교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서울	64.2	24.6	21.8	31.8	21.2	10.1	2.8
경기도	57.5	20.3	19.9	37.9	16.5	10.0	9.2
강원도	54.5	7.3	21.8	43.6	14.5	7.3	12.7
충청도	44.0	24.0	19.0	45.0	20.0	17.0	6.0
경상도	55.7	25.8	16.5	39.5	17.2	10.3	8.6
전라도	53.1	28.0	18.9	50.3	13.7	8.0	6.3
제주도	47.3	12.7	30.9	30.9	16.4	7.3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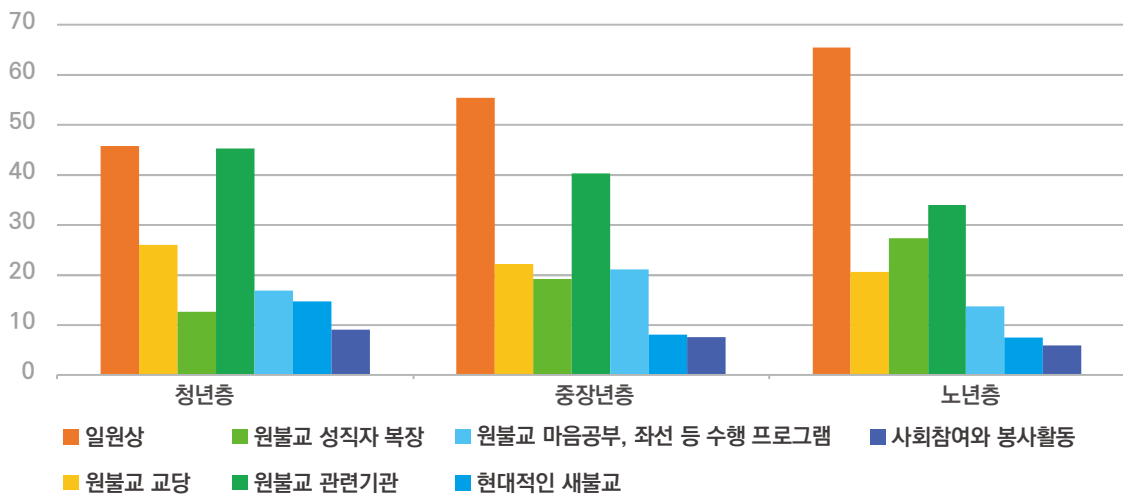
[원불교 이미지 인식 - 종교]

종교	일원상	원불교 교당	원불교 성직자 복장	원불교 관련기관	수행 프로그램	현대적인 새불교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불교	53.6	24.8	20.1	38.7	17.2	12.4	6.2
개신교	56.5	20.5	19.5	39.0	15.0	13.0	9.5
천주교	62.2	22.3	29.1	37.2	16.2	5.4	2.7
원불교	45.9	35.1	32.4	35.1	21.6	8.1	2.7
종교 없음	55.1	21.9	15.7	42.3	17.9	9.3	9.3



[원불교 이미지 인식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일원상	원불교 교당	원불교 성직자 복장	원불교 관련기관	수행 프로그램	현대적인 새불교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매우 잘 안다	44.1	32.4	35.3	44.1	11.8	11.8	5.9
어느 정도 안다	60.3	27.1	19.7	39.3	14.9	10.8	6.1
들어본 적 있다	54.3	21.0	19.1	39.9	18.3	9.8	8.1



[원불교 이미지 인식 - 연령대]

연령대	일원상	원불교 교당	원불교 성직자 복장	원불교 관련기관	수행 프로그램	현대적인 새불교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청년층	45.8	26.0	12.6	45.3	16.9	14.7	9.1
중장년층	55.4	22.2	19.2	40.3	21.1	8.1	7.6
노년층	65.4	20.6	27.3	34.0	13.7	7.5	5.9

문항13) 분석

‘원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조사(복수선택)한 결과, 대중의 인식 속에서 원불교는 여전히 ‘일원상(동그라미 상징)’ 중심의 상징적 이미지에 강하게 고착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55.6%가 “일원상”을 첫 번째로 떠올렸으며, 이어 “원불교 관련 기관(원광대학교·원광어린이집 등)”39.9%, “교당”22.9%, “성직자 복장”19.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음공부·좌선 등 수행 프로그램”17.2%, “사회참여와 봉사활동”7.5%은 하위권에 머물러, 원불교가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닌, 무엇을 가진 종교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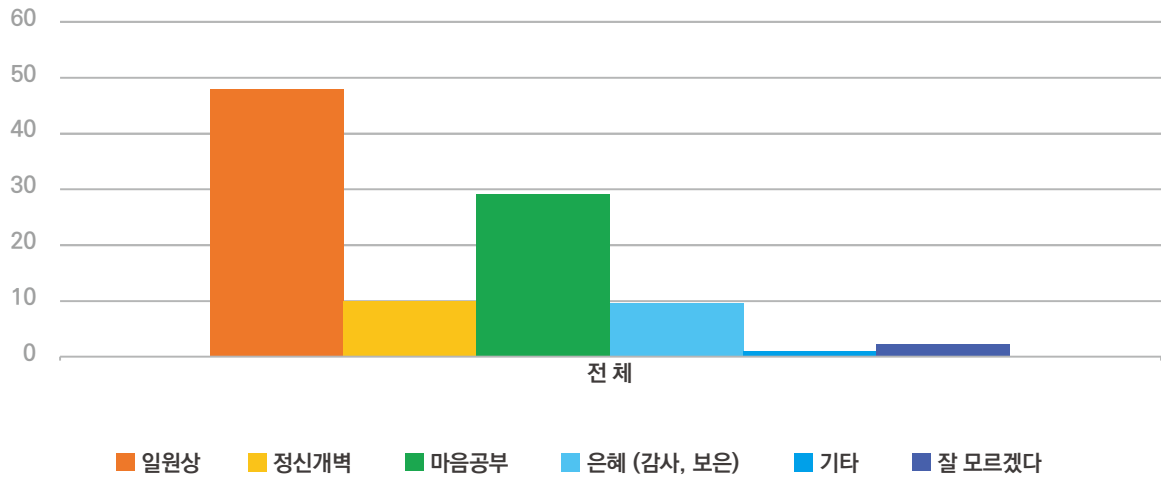
즉, 대중은 원불교를 교리적 가치나 수행 활동보다 상징·시설·조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일원상’이 교단의 강력한 브랜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이념·사람·실천의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세대별로는 청년층이 “기관”(45.3%)과 “일원상”(45.8%)을 거의 대등하게 떠올렸고, 노년층은 “일원상”(65.4%) 중심의 상징적·종교적 인식 구조가 여전히 강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도에서 “기관”(50.3%)과 “교당”(28.0%) 인지율이 높아, 원불교가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서울(일원상 64.2%)과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상징 중심의 피상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대중은 원불교를 ‘마음공부의 종교’로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2-7. 원불교 경험 희망 1위), 실제로는 ‘건물’과 ‘상징’으로만 떠올리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인식의 불일치’는 교화의 가장 큰 한계이며, 교단의 핵심 자산이 보여지지 않고 묻혀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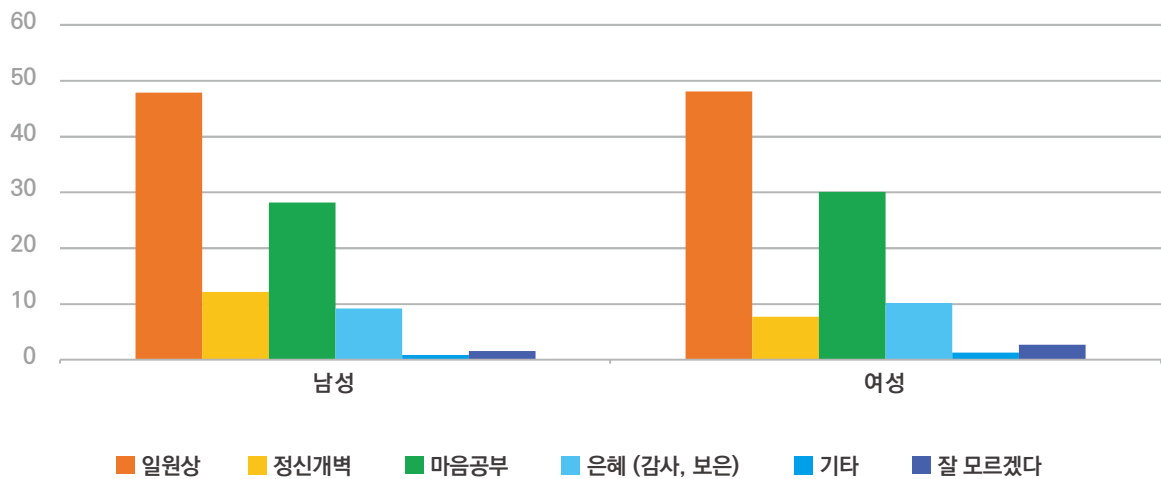
이번 원불교 이미지 인식의 결과는 원불교가 ‘보이는 종교’는 되었지만, 아직 ‘느껴지는 종교’는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강력한 상징(일원상)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치와 실천을 전달하는 것이 향후 교화의 관건이다.

문항14) 원불교 핵심가치 인식 귀하께서 원불교하면 떠오르는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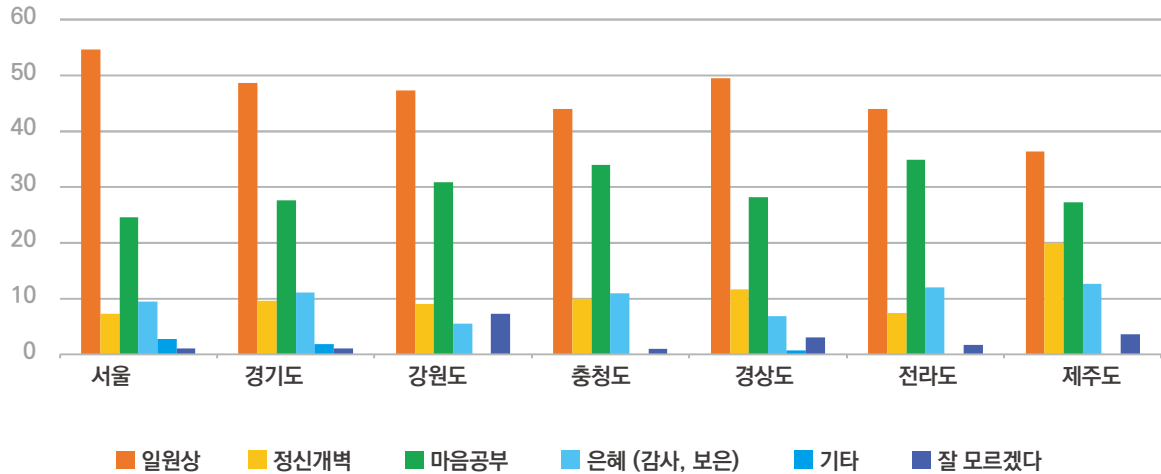
[원불교 핵심가치 인식]

	일원상	정신개벽	마음공부	은혜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48.0	9.9	29.1	9.7	1.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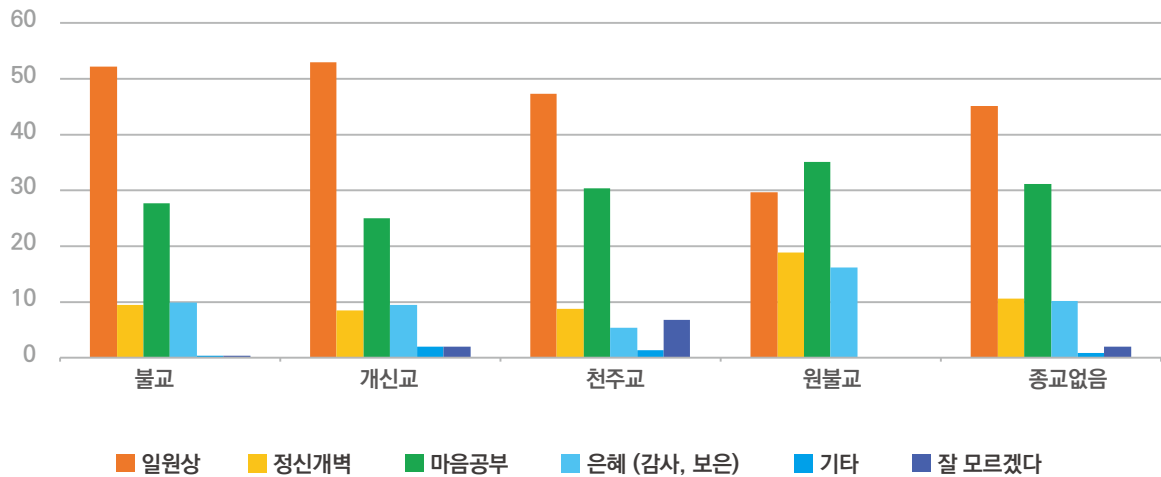
[원불교 핵심가치 인식 - 성별]

성별	일원상	정신개벽	마음공부	은혜	기타	잘 모르겠다
남성	47.9	12.2	28.2	9.2	0.9	1.6
여성	48.1	7.7	30.1	10.2	1.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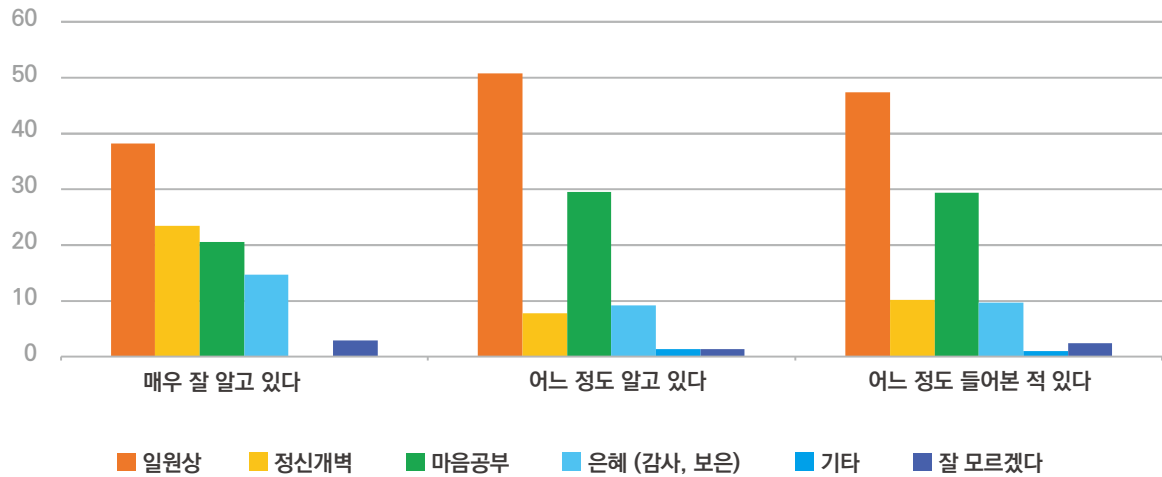
[원불교 핵심가치 인식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일원상	정신개벽	마음공부	은혜	기타	잘 모르겠다
서울	54.7	7.3	24.6	9.5	2.8	1.1
경기도	48.7	9.6	27.6	11.1	1.9	1.1
강원도	47.3	9.1	30.9	5.5	0.0	7.3
충청도	44.0	10.0	34.0	11.0	0.0	1.0
경상도	49.5	11.7	28.2	6.9	0.7	3.1
전라도	44.0	7.4	34.9	12.0	0.0	1.7
제주도	36.4	20.0	27.3	12.7	0.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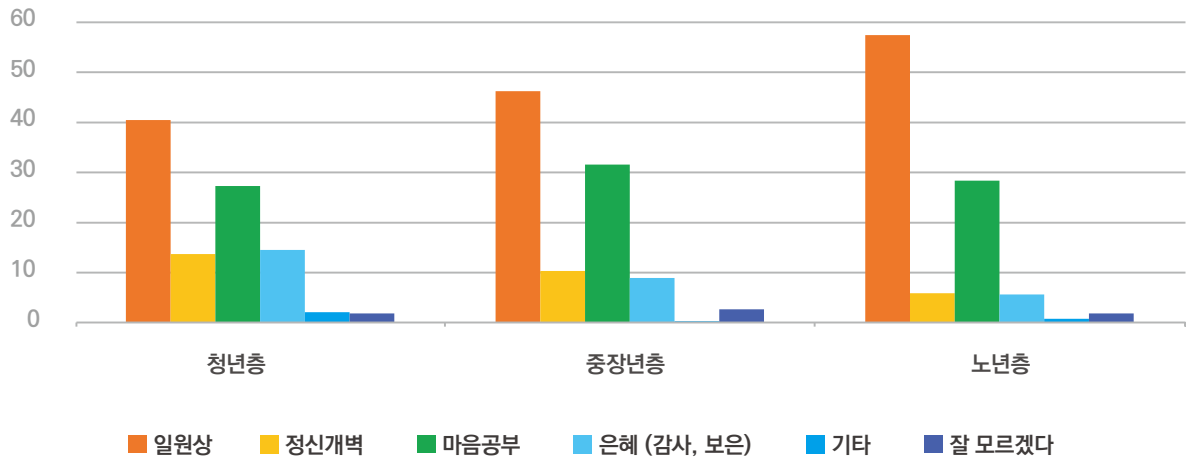
[원불교 핵심가치 인식 - 종교]

종교	일원상	정신개벽	마음공부	은혜	기타	잘 모르겠다
불교	52.2	9.5	27.7	9.9	0.4	0.4
개신교	53.0	8.5	25.0	9.5	2.0	2.0
천주교	47.3	8.8	30.4	5.4	1.4	6.8
원불교	29.7	18.9	35.1	16.2	0.0	0.0
종교 없음	45.1	10.6	31.2	10.2	0.9	2.0



[원불교 핵심가치 인식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일원상	정신개벽	마음공부	은혜	기타	잘 모르겠다
매우 잘 안다	38.2	23.5	20.6	14.7	0.0	2.9
어느 정도 안다	50.8	7.8	29.5	9.2	1.4	1.4
들어본 적 있다	47.4	10.2	29.4	9.7	1.0	2.4



[원불교 핵심가치 인식 - 연령대]

연령대	일원상	정신개벽	마음공부	은혜	기타	잘 모르겠다
청년층	40.5	13.7	27.3	14.5	2.1	1.9
중장년층	46.2	10.3	31.6	8.9	0.3	2.7
노년층	57.4	5.9	28.4	5.6	0.8	1.9

문항14)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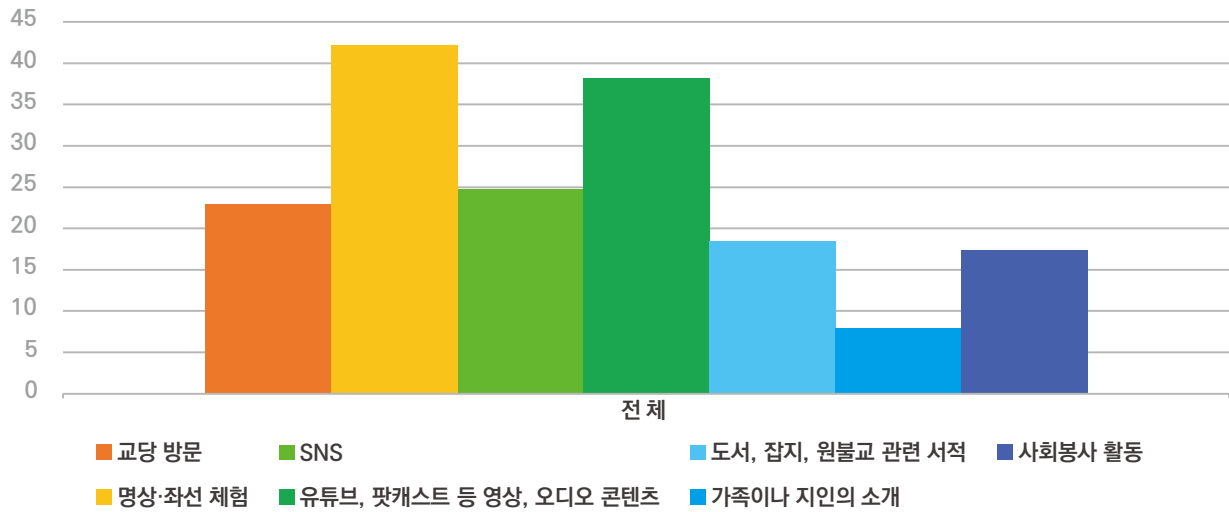
‘원불교 하면 떠오르는 핵심가치’를 조사한 결과,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일원상’ 중심의 상징적 인식 구조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48.0%가 “일원상(하나로 연결된 진리)”을 꼽았으며, “마음공부”(29.1%), “정신개벽”(9.9%), “은혜(감사·보은)”(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불교가 철학적 깊이와 수행적 가치를 지닌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보이는 상징’에 머물고, ‘실천적 가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중구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년층의 57.4%가 “일원상”을 핵심가치로 인식하는 반면, 청년층은 “정신개벽”(13.7%)과 “은혜”(14.5%)의 응답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세대 간 가치 인식의 변화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편, 원불교 신자 집단은 “마음공부”(35.1%)와 “정신개벽”(18.9%)을 높게 인식해, 교단 내부에서는 교리의 균형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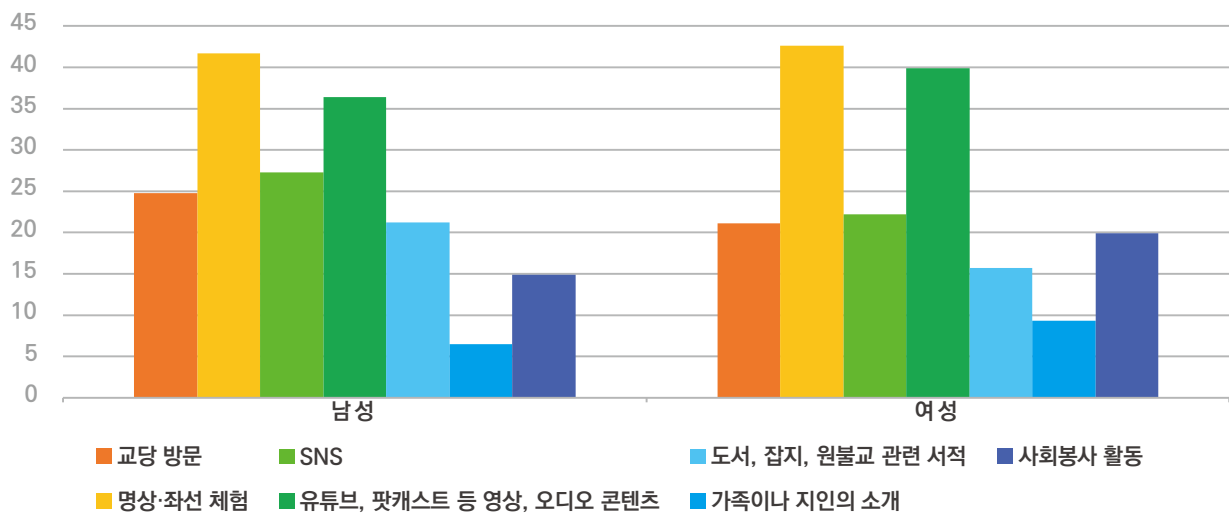
이번 원불교 핵심가치의 결과는 원불교가 대중의 마음속에 ‘하나의 원(圓)’으로 각인되어 있으나, 아직 그 안의 내용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교단의 과제는 그 비어 있는 원 안에 ‘마음공부의 경험’과 ‘정신개벽의 비전’, ‘은혜 삶의 이야기’를 채워 넣는 일이다.

문항15) 원불교 경험 경로 희망(복수선택) 귀하께서는 원불교를 어떤 경로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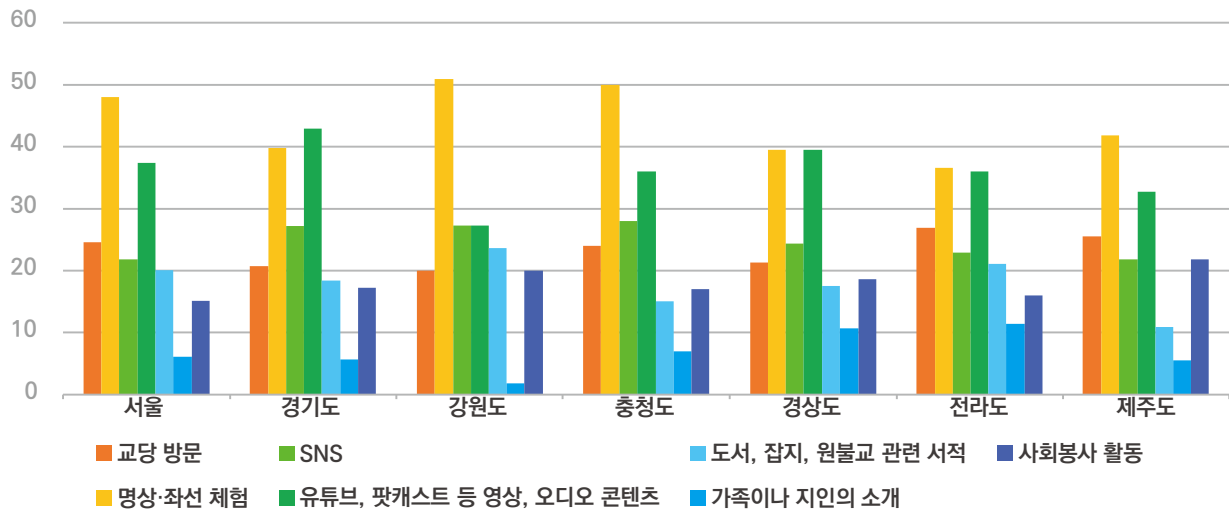
[원불교 경험 경로 희망]

	교당 방문	명상·좌선 체험	SNS	영상, 오디오 콘텐츠	원불교 관련 서적	가족, 지인의 소개	사회 봉사 활동
전체	22.9	42.1	24.7	38.2	18.5	7.9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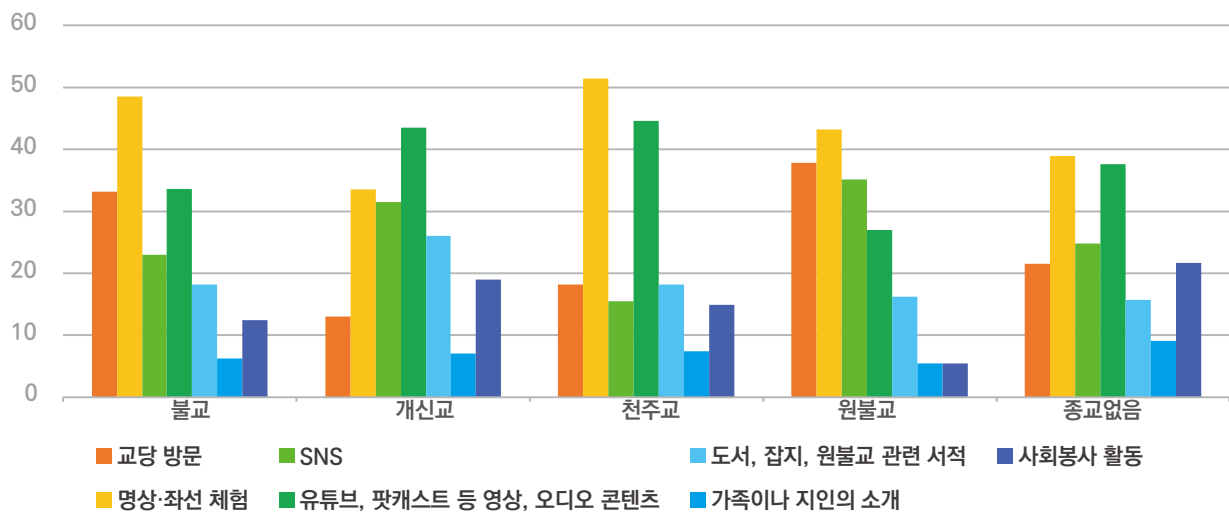
[원불교 경험 경로 희망 - 성별]

성별	교당 방문	명상·좌선 체험	SNS	영상, 오디오 콘텐츠	원불교 관련 서적	가족, 지인의 소개	사회 봉사 활동
남성	24.8	41.7	27.3	36.4	21.2	6.5	14.9
여성	21.1	42.6	22.2	39.9	15.7	9.3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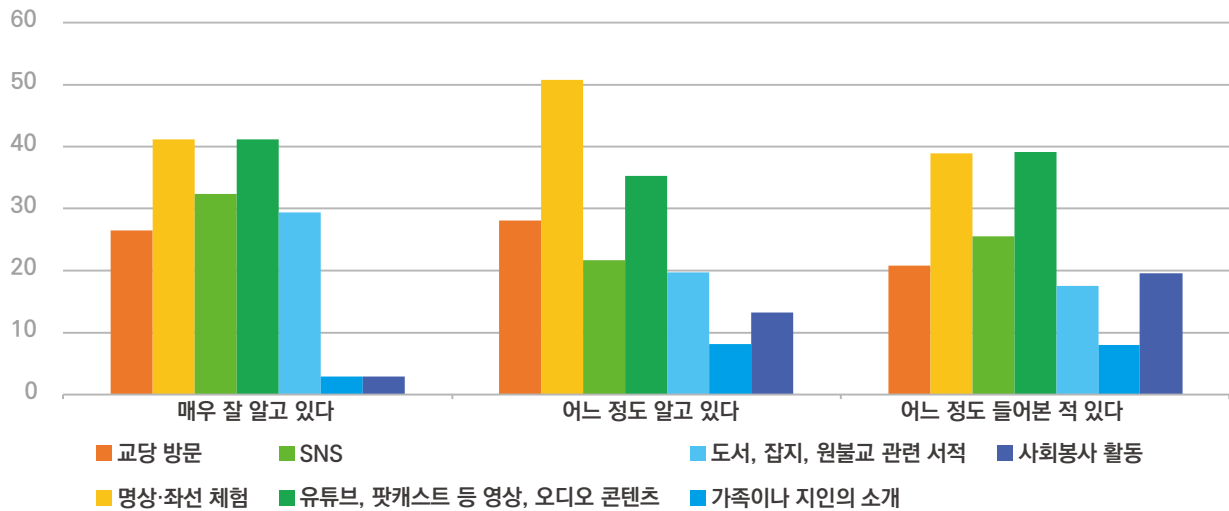
[원불교 경험 경로 희망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교당 방문	영상·좌선 체험	SNS	영상, 오디오콘텐츠	원불교 관련 서적	가족, 지인의 소개	사회 봉사 활동
서울	24.6	48.0	21.8	37.4	20.1	6.1	15.1
경기도	20.7	39.8	27.2	42.9	18.4	5.7	17.2
강원도	20.0	50.9	27.3	27.3	23.6	1.8	20.0
충청도	24.0	50.0	28.0	36.0	15.0	7.0	17.0
경상도	21.3	39.5	24.4	39.5	17.5	10.7	18.6
전라도	26.9	36.6	22.9	36.0	21.1	11.4	16.0
제주도	25.5	41.8	21.8	32.7	10.9	5.5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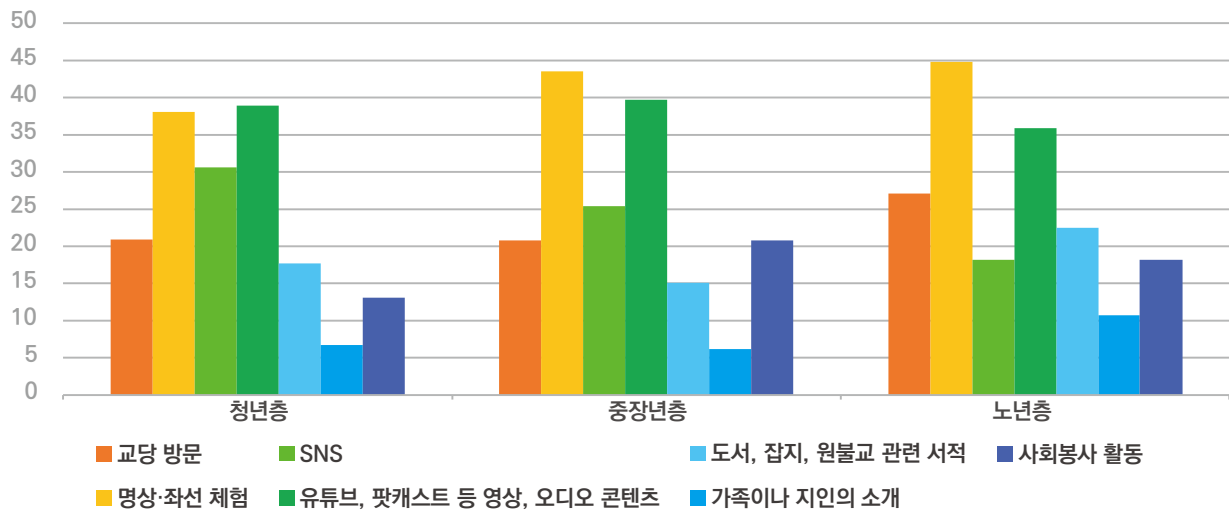
[원불교 경험 경로 희망 - 종교]

종교	교당 방문	영상·좌선 체험	SNS	영상, 오디오콘텐츠	원불교 관련 서적	가족, 지인의 소개	사회 봉사 활동
불교	33.2	48.5	23.0	33.6	18.2	6.2	12.4
개신교	13.0	33.5	31.5	43.5	26.0	7.0	19.0
천주교	18.2	51.4	15.5	44.6	18.2	7.4	14.9
원불교	37.8	43.2	35.1	27.0	16.2	5.4	5.4
종교 없음	21.5	38.9	24.8	37.6	15.7	9.1	21.7



[원불교 경험 경로 희망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교당 방문	명상·좌선 체험	SNS	영상, 오디오 콘텐츠	원불교 관련 서적	가족, 지인의 소개	사회봉사 활동
매우 잘 안다	26.5	41.2	32.4	41.2	29.4	2.9	2.9
어느 정도 안다	28.1	50.8	21.7	35.3	19.7	8.1	13.2
들어본 적 있다	20.8	38.9	25.5	39.1	17.5	8.0	19.6



[원불교 경험 경로 희망 - 연령대]

연령대	교당 방문	명상·좌선 체험	SNS	영상, 오디오 콘텐츠	원불교 관련 서적	가족, 지인의 소개	사회봉사 활동
청년층	20.9	38.1	30.6	38.9	17.7	6.7	13.1
중장년층	20.8	43.5	25.4	39.7	15.1	6.2	20.8
노년층	27.1	44.8	18.2	35.9	22.5	10.7	18.2

문항15) 분석

‘원불교를 경험하고 싶은 경로’를 조사(복수선택)한 결과, 대중이 원불교를 접하고 싶어 하는 방식은 명확히 ‘체험형(오프라인)’과 ‘콘텐츠형(온라인)’이라는 두 축으로 분화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42.1%가 “명상·좌선 등 수행 체험”을, 38.2%가 “유튜브·팟캐스트 등 영상·오디오 콘텐츠”를 선택하여, 원불교의 교화 접근이 더 이상 단선적인 오프라인 중심 구조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SNS”(24.7%), “교당 방문”(22.9%),

“도서·잡지, 원불교 관련 서적”(18.5%), “사회봉사 활동”(17.4%) 순으로 나타나, 대중의 종교 접근 방식이 점차 디지털과 체험의 혼합형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현대인이 종교를 ‘소속의 대상’이 아니라 ‘탐색의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과거처럼 교당이나 법회를 통해 입문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일정한 신뢰가 형성되면 오프라인 체험으로 확장하는 ‘탐색→체험’형 경로로 변화하고 있다.

청년층(19~39세)은 SNS와 영상, 오디오 콘텐츠를 선호하며, 종교적 색채보다 공감·감성·재미를 중심으로 한 접근에 반응하는 ‘디지털 탐색형 세대’의 특징을 보였다. 반면 중장년층(40~59세)은 “명상·좌선 체험”(43.5%)과 “영상, 오디오 콘텐츠”(39.7%)를 병행하며,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수행과 교리적 이해를 함께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노년층(60세 이상)은 “명상·좌선 체험”(44.8%)과 “교당 방문”(27.1%), “원불교 관련 서적”(22.5%)을 통해 전통적이고 신뢰 기반의 접근을 유지했다.

종교별로는 불교 신자는 “명상·좌선 체험”(48.5%)과 “교당 방문”(33.2%)을 통해 익숙한 명상 체험 경로를 선호했고, 개신교 신자는 “영상, 오디오 콘텐츠”(43.5%)와 “SNS”(31.5%) 중심으로 비대면 정보형 접근을 보였다. 무종교인은 “명상·좌선 체험”(38.9%)과 “사회봉사 활동”(21.7%)을 통해 종교적 교리보다 실용적 체험과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원불교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영상, 오디오 콘텐츠”(41.2%)와 “명상·좌선 체험”(41.2%)의 선호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교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체험과 콘텐츠를 병행해 신앙을 심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원불교를 경험하고 싶은 경로의 결과는 원불교의 미래 교화가 ‘명상과 미디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함을 보여준다. 대중은 수행을 통해 깊이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접근성을 추구하고 있다.

4 사회적 영향력

▶ 요약 및 분석

문항16)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 인식

문항17) 원불교 활동 인식

문항18) 원불교 사회적 역할 인식

[문항16]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

원불교의 현 사회적 위상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낮은 체감도’와 ‘숨겨진 긍정성’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보인다.

대중의 33.2%는 “기성 종교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여, 원불교가 한국 사회의 주류 종교로서 갖는 힘이나 존재감이 아직 크지 않음을 냉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무적인 점은 “일부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중이 원불교를 거대 담론을 주도하는 힘 있는 종교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사회 곳곳에서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적인 주체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단 2.5%에 불과했다. 이는 타 종교 대비 사회적 반감이나 이미지 훼손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브랜드(Safe Brand)’로서의 이미지가 확고함을 입증하며, 향후 대중적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다.

[문항17] 원불교 활동

원불교가 전개해 온 다양한 사회 활동이 홍보 부족과 소통 방식의 한계로 인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지도 부재’이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1.4%가 원불교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는 교단이 수행하는 활동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대중과의 소통 채널과 방식에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나마 대중에게 각인된 활동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비극에 대한 추모 의식”(20.3%)과 “재난 구호 및 취약계층 봉사”(18.8%)이었다. 반면, 교단이 시민 사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드 반대 평화운동”(5.7%)이나 “환경·탈핵 운동”(10.9%)은 일반 대중의 인식 속에 거의 자리 잡지 못해, 사회 운동의 방향성과 대중적 공감대 사이의 괴리가 확인되었다.

[문항18] 원불교 사회적 역할

대중이 원불교에게 바라는 미래의 역할은 거창한 사회 변혁보다는, 개인과 사회를 지탱해 줄 ‘정신적 지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원불교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묻는 질문에, 1위는 “삶의 지혜와 정신적 안정에 기여하는 영성 지도”(36.2%)였으며, 2위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 제시”(33.7%)였다. 이는 앞선 항목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마음공부’와 ‘치유’에 대한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로, 혼탁한 사회 속에서 중심을 잡아줄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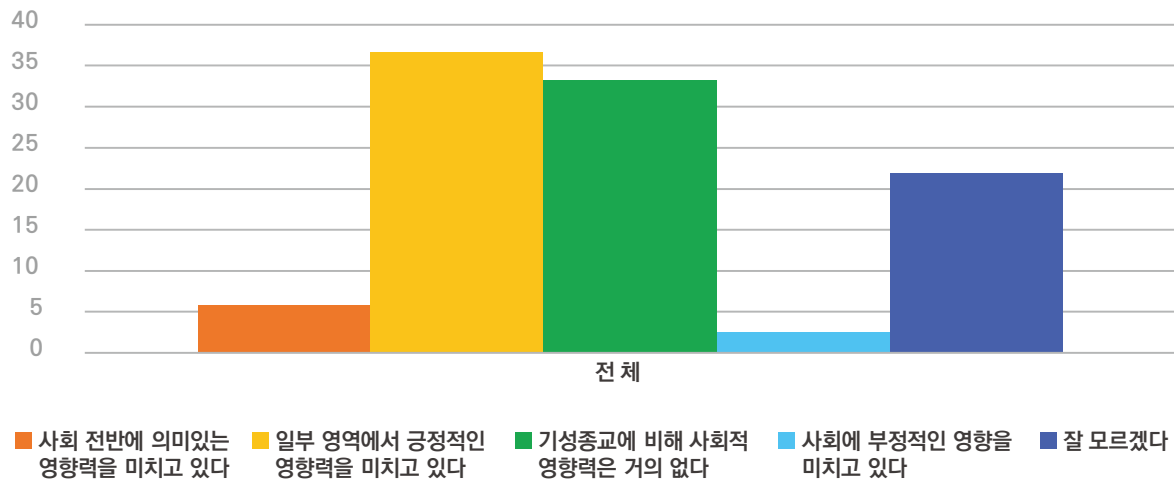
다만, 세대별로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 20대 청년층은 영성 지도보다 “실질적인 봉사 활동”(37.7%)을 더 중요하게 꼽았다. 청년들에게 종교의 가치는 설교나 말씀이 아닌, ‘행동하는 봉사’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증명된다는 실용주의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제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원불교의 사회 활동 전략이 ‘백화점식 나열을 멈추고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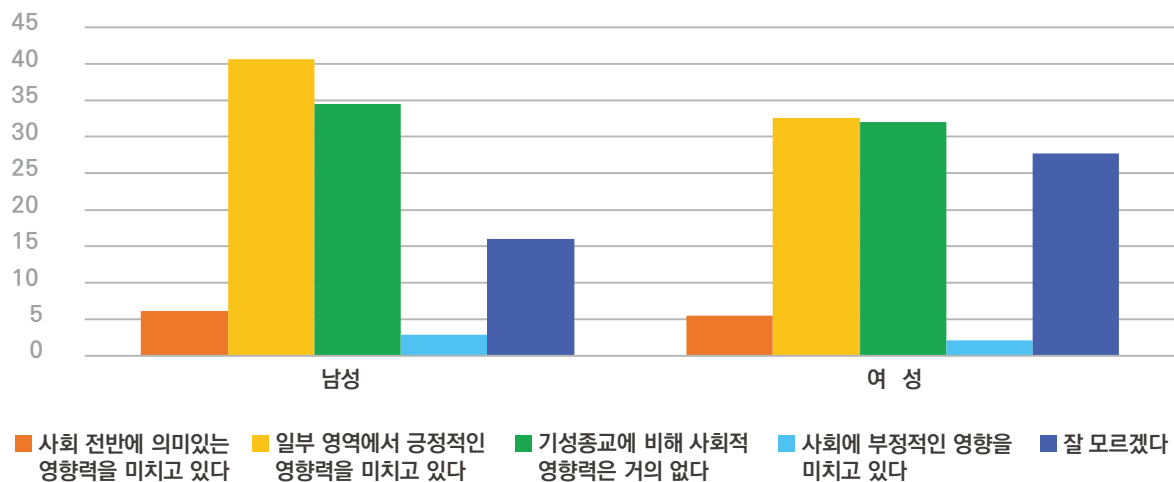
- **선택과 집중:** 인지도가 확보된 ‘재난 구호’와 대중적 요구가 가장 높은 ‘마음 치유(영성 지도)’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메시지를 단순화하여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
- **국민 멘토:** 대중은 원불교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보다, 불안한 현대인의 마음을 잡아주는 ‘국민 멘토’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도 ‘투쟁’의 언어보다 ‘위로’와 ‘치유’의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참여형 봉사:** 청년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힙(Hip)한 봉사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예: 플로깅, 유기견 봉사 등 트렌디한 활동과 원불교 브랜드의 결합)

문항16)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 인식 귀하께서는 원불교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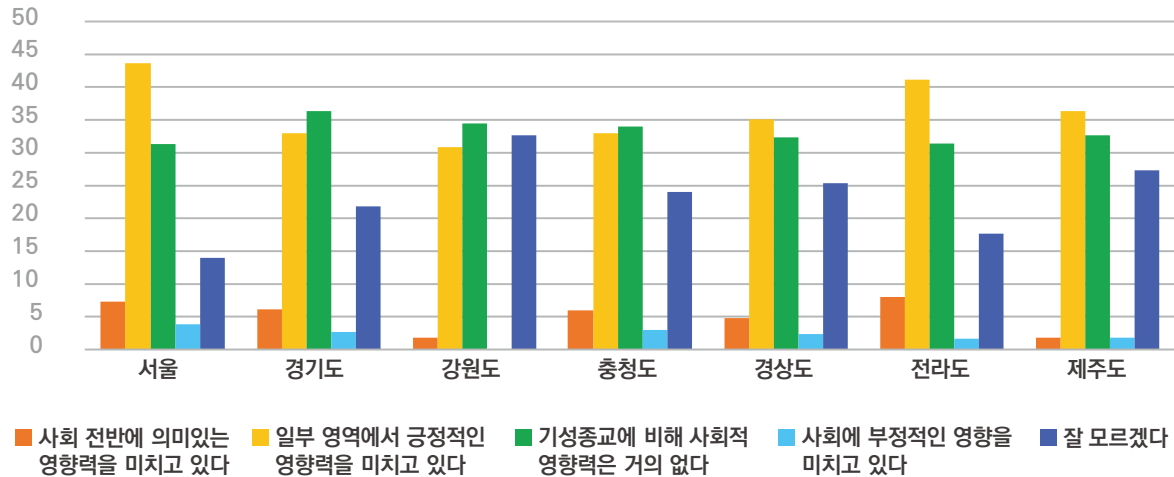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 인식]

	■ 사회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력	■ 일부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	■ 사회적 영향력은 없다	■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 잘 모르겠다
전체	5.8	36.6	33.2	2.5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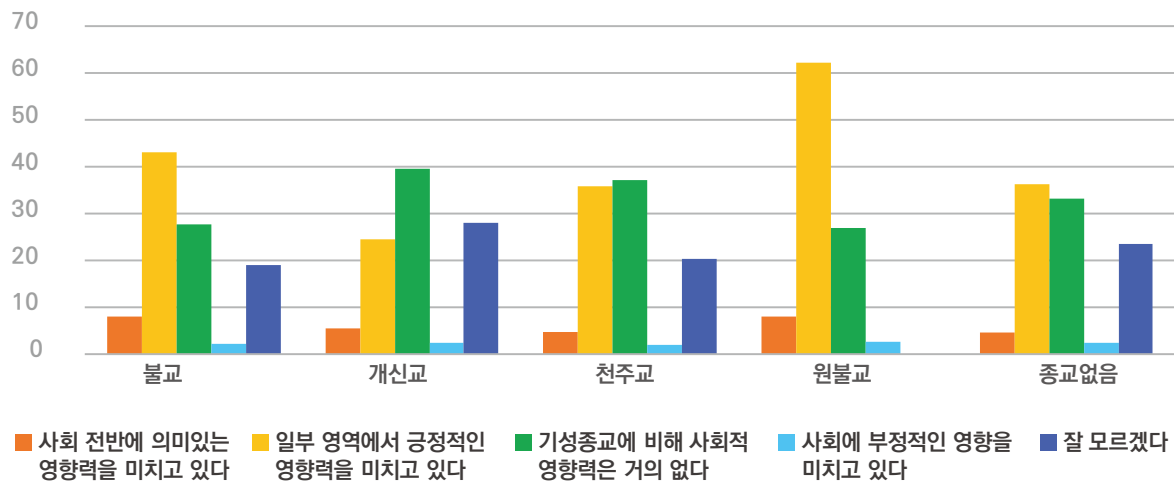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 인식 - 성별]

성별	■ 사회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력	■ 일부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	■ 사회적 영향력은 없다	■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 잘 모르겠다
남성	6.1	40.6	34.5	2.9	16.0
여성	5.5	32.6	32.0	2.1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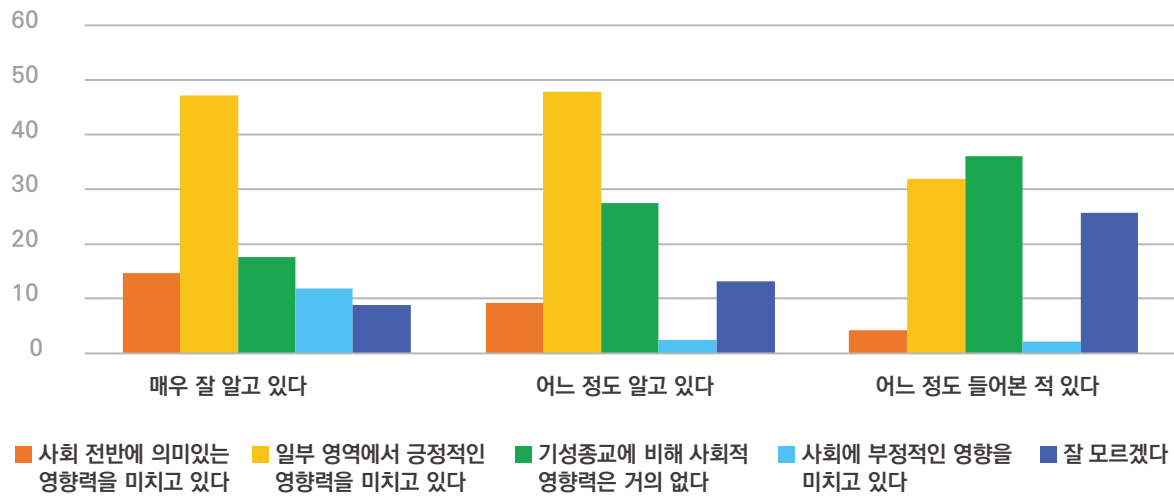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 인식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 사회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력	■ 일부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	■ 사회적 영향력은 없다	■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 잘 모르겠다
서울	7.3	43.6	31.3	3.9	14.0
경기도	6.1	33.0	36.4	2.7	21.8
강원도	1.8	30.9	34.5	0.0	32.7
충청도	6.0	33.0	34.0	3.0	24.0
경상도	4.8	35.1	32.3	2.4	25.4
전라도	8.0	41.1	31.4	1.7	17.7
제주도	1.8	36.4	32.7	1.8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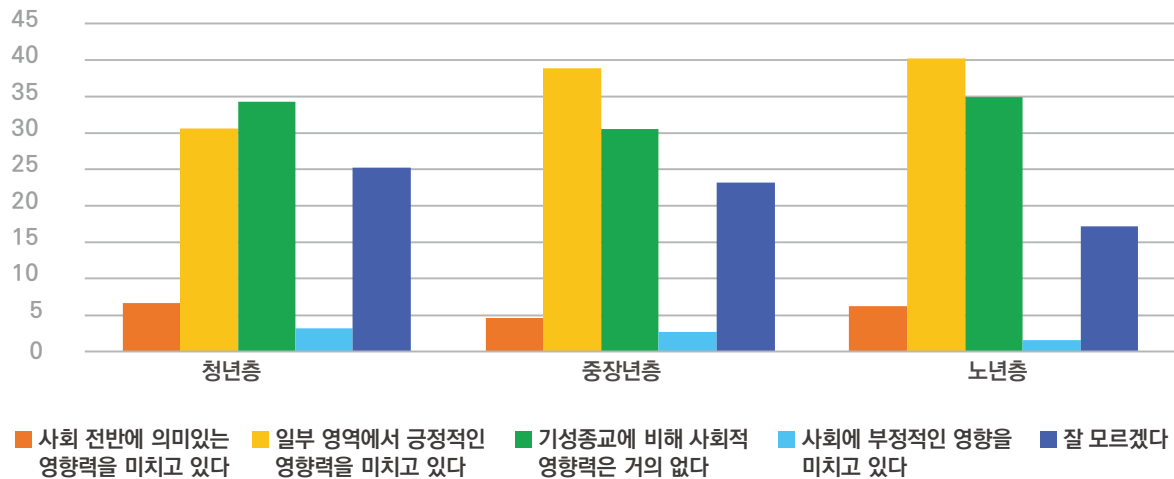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 인식 - 종교]

종교	■ 사회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력	■ 일부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	■ 사회적 영향력은 없다	■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 잘 모르겠다
불교	8.0	43.1	27.7	2.2	19.0
개신교	5.5	24.5	39.5	2.5	28.0
천주교	4.7	35.8	37.2	2.0	20.3
원불교	8.1	62.2	27.0	2.7	0.0
종교 없음	4.6	36.3	33.2	2.4	23.5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 인식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사회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력	일부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은 없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잘 모르겠다
매우 잘 안다	14.7	47.1	17.6	11.8	8.8
어느 정도 안다	9.2	47.8	27.5	2.4	13.2
들어본 적 있다	4.2	31.9	36.1	2.2	25.7



[원불교 사회적 영향력 인식 - 연령대]

연령대	사회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력	일부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은 없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잘 모르겠다
청년층	6.7	30.6	34.3	3.2	25.2
중장년층	4.6	38.9	30.5	2.7	23.2
노년층	6.2	40.2	34.9	1.6	17.2

문항16) 분석

‘원불교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대중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영향력으로 요약된다**. 전체 응답자의 **42.4%**가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지만, **33.2%**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그리고 **21.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원불교의 사회적 활동이 여전히 대중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원불교가 종교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고 인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시 말해, 원불교는 ‘**좋은 종교**’로는 인식되지만, ‘**영향력 있는 종교**’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9~39세)은 “**긍정**”37.3%, “**영향력 없음**”34.3%, “**잘 모르겠다**” 25.2%로, 다른 세대보다 무관심과 판단 유보가 높았다. 반면 노년층(60세 이상)은 “**긍정**” 46.4%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나, 동시에 “**영향력 없음**”34.9%도 높아, 경험 여부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가 드러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46.7% vs 38.1%), “**잘 모르겠다**”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27.7% vs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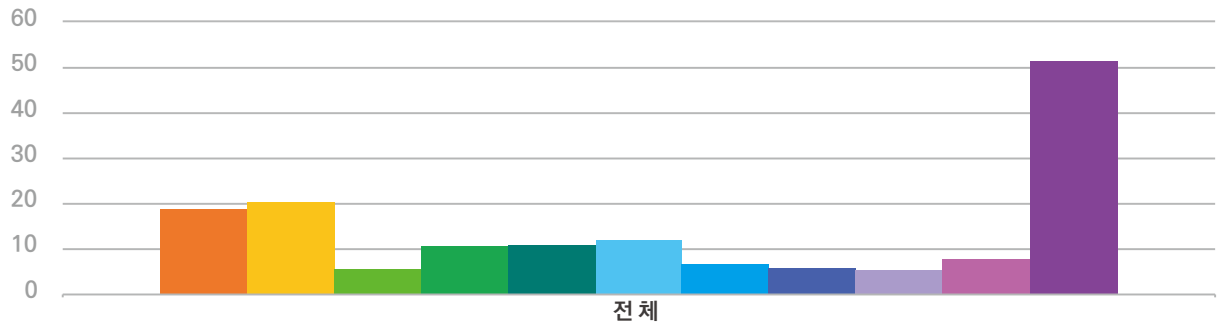
종교별 차이 또한 두드러졌다. 불교 신자(51.1%)는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한 반면, 개신교 신자(30.0%)는 가장 낮은 긍정 비율을 보였고, “**영향력 없음**”과 “**잘 모르겠다**”가 각각 39.5%, 28.0%로 높았다. 원불교 신자들은 70.3%가 긍정 평가를 보였으나, 이는 내부 자부심에 국한된 결과로, 외부 인식과의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인지도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져, “**매우 잘 안다**”는 집단은 61.8%가 긍정 평가, 반면 “**이름만 들어봤다**”는 집단은 36.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즉, ‘알수록 긍정적이지만, 모르면 무관심한 종교’라는 인식 구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번 원불교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의 결과는 원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이미 일정한 도덕적 신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영향력**’에 머무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교단의 과제는 선한 행위를 넘어서, 그 **선함을 사회가 함께 인식하게 만드는 소통의 전환**이다.

문항17) 원불교 활동 인식(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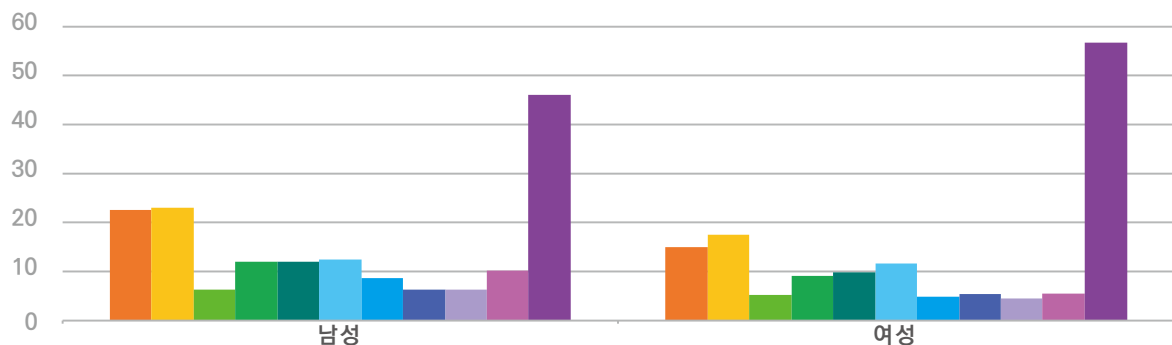
귀하께서 아래 활동 가운데 원불교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원불교 봉공회' 국내외 재난 긴급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원불교 교당 및 기관' 국가적 비극에 대한 추모의식
- 소성리 사드반대 평화운동
- '세계봉공재단' 대학생, 청년 해외봉사활동
- '원불교 환경연대' 햇빛발전소 건립과 탈핵운동
- 생명존중 자살예방 '다시살림' 캠페인
- 저출생대응 '다뽏다뽏' 캠페인
- '밋마인드(meet mind)' 명상 컨퍼런스
- '심심풀이' 인성교육
-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ICCGC) 주최
- 잘 모르겠다

[원불교 활동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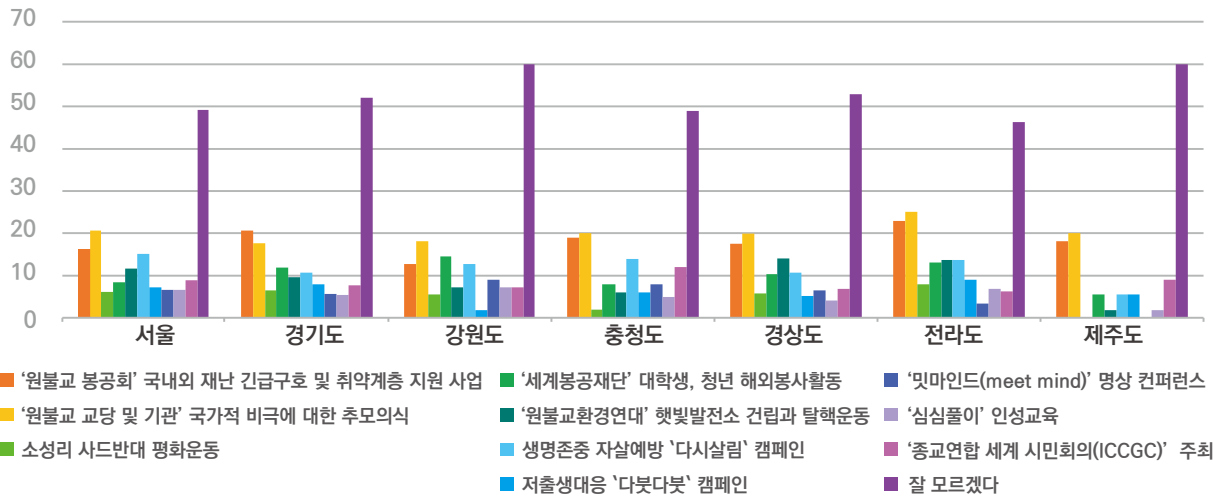
	원불교 봉공회	원불교 추모의식	사드반대 평화운동	세계봉공재단 해외봉사	원불교 환경연대	생명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	저출생 대응 캠페인	밋 마인드 명상	'심심풀이' 인성교육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	잘 모르겠다
전체	18.8	20.3	5.7	10.6	10.9	12.0	6.7	5.8	5.4	7.9	51.4



- '원불교 봉공회' 국내외 재난 긴급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원불교 교당 및 기관' 국가적 비극에 대한 추모의식
- 소성리 사드반대 평화운동
- '세계봉공재단' 대학생, 청년 해외봉사활동
- '원불교 환경연대' 햇빛발전소 건립과 탈핵운동
- 생명존중 자살예방 '다시살림' 캠페인
- 저출생대응 '다뽏다뽏' 캠페인
- '밋마인드(meet mind)' 명상 컨퍼런스
- '심심풀이' 인성교육
-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ICCGC) 주최
-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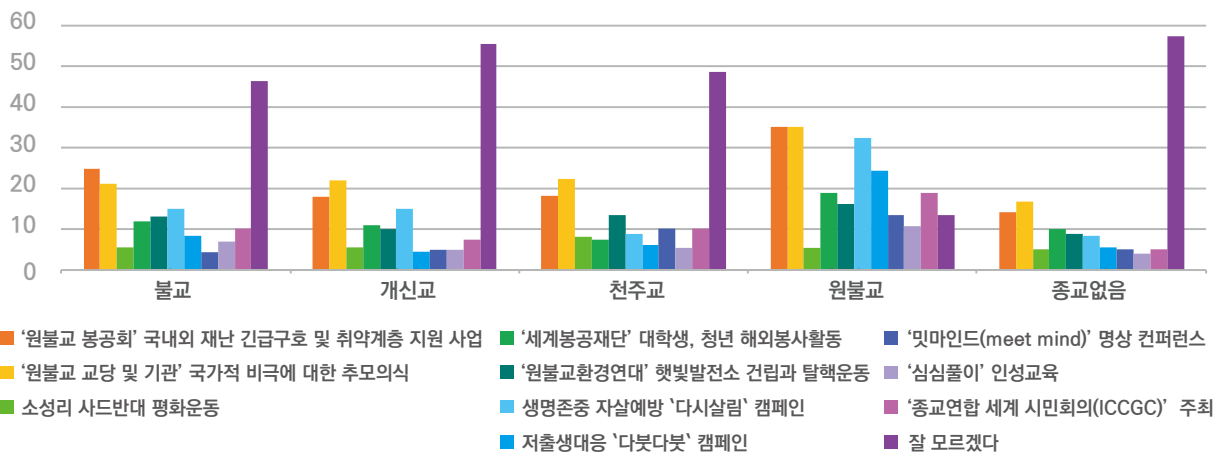
[원불교 활동 인식 - 성별]

성별	원불교 봉공회	원불교 추모의식	사드반대 평화운동	세계봉공재단 해외봉사	원불교 환경연대	생명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	저출생 대응 캠페인	밋 마인드 명상	'심심풀이' 인성교육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	잘 모르겠다
남성	22.6	23.0	6.3	12.0	12.0	12.4	8.6	6.3	6.3	10.2	46.1
여성	15.0	17.5	5.2	9.1	9.8	11.6	4.8	5.4	4.5	5.5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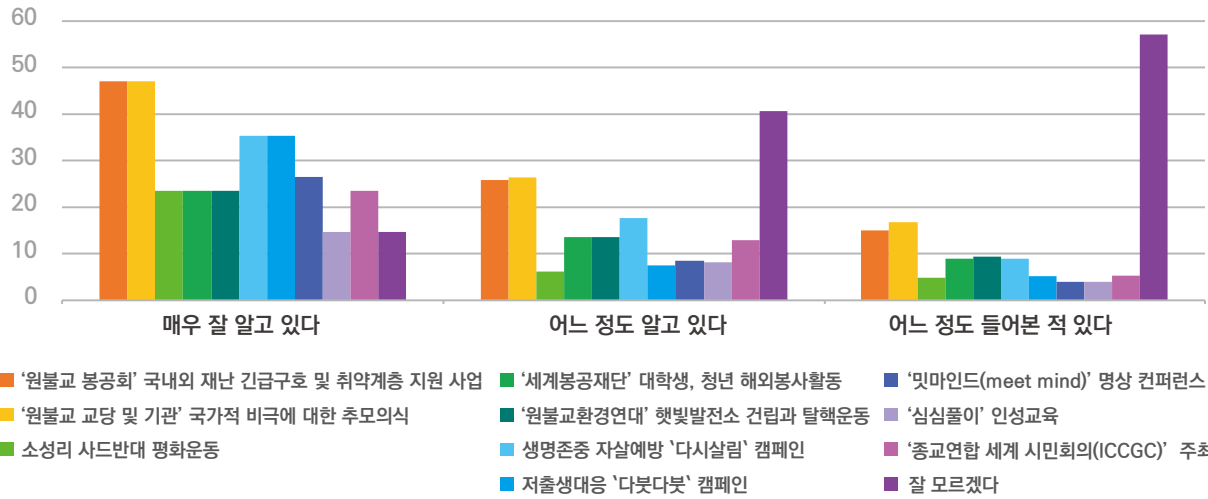
[원불교 활동 인식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원불교 봉공회	원불교 추모의식	사드반대 평화운동	세계봉공재단 해외봉사	원불교 환경연대	생명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	저출생 대응 캠페인	잇 마인드 명상	‘심심풀이’ 인성교육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	잘 모르겠다
서울	16.2	20.7	6.1	8.4	11.7	15.1	7.3	6.7	6.7	8.9	49.2
경기도	20.7	17.6	6.5	11.9	9.6	10.7	8.0	5.7	5.4	7.7	52.1
강원도	12.7	18.2	5.5	14.5	7.3	12.7	1.8	9.1	7.3	7.3	60.0
충청도	19.0	20.0	2.0	8.0	6.0	14.0	6.0	8.0	5.0	12.0	49.0
경상도	17.5	19.9	5.8	10.3	14.1	10.7	5.2	6.5	4.1	6.9	52.9
전라도	22.9	25.1	8.0	13.1	13.7	13.7	9.1	3.4	6.9	6.3	46.3
제주도	18.2	20.0	0.0	5.5	1.8	5.5	5.5	0.0	1.8	9.1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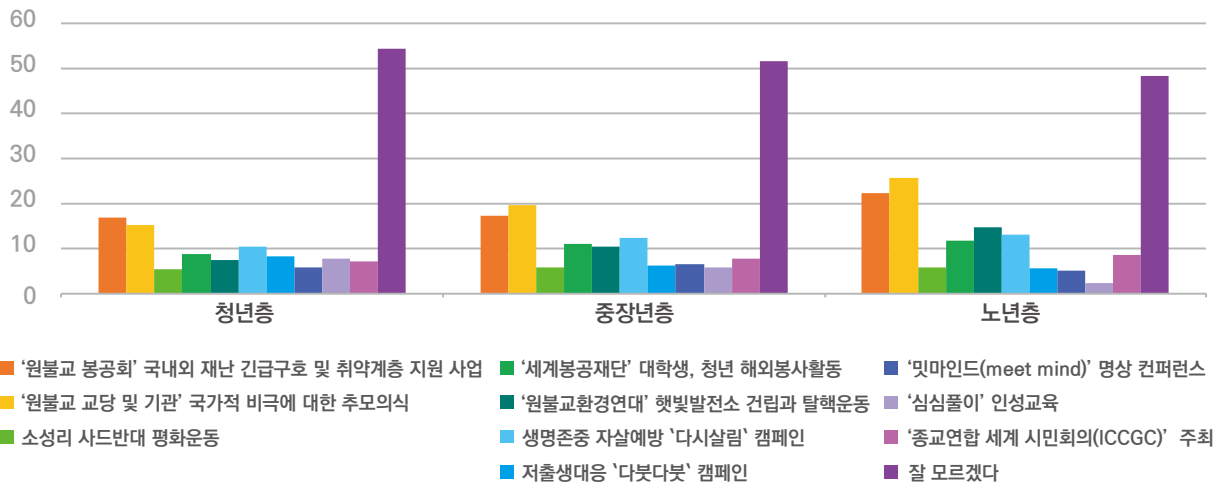
[원불교 활동 인식 - 종교]

종교	원불교 봉공회	원불교 추모의식	사드반대 평화운동	세계봉공재단 해외봉사	원불교 환경연대	생명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	저출생 대응 캠페인	잇 마인드 명상	‘심심풀이’ 인성교육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	잘 모르겠다
불교	24.8	21.2	5.5	12.0	13.1	15.0	8.4	4.4	6.9	10.2	46.4
개신교	18.0	22.0	5.5	11.0	10.0	15.0	4.5	5.0	5.0	7.5	55.5
천주교	18.2	22.3	8.1	7.4	13.5	8.8	6.1	10.1	5.4	10.1	48.6
원불교	35.1	35.1	5.4	18.9	16.2	32.4	24.3	13.5	10.8	18.9	13.5
종교없음	14.2	16.8	5.1	10.0	8.8	8.4	5.5	5.1	4.0	5.1	57.3



[원불교 활동 인식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봉공회	원불교 추모의식	사드반대 평화운동	세계봉공재단 해외봉사	원불교 환경연대	생명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	저출생 대응 캠페인	밋 마인드 명상	'심심풀이' 인성교육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	잘 모르겠다
매우 잘 안다	47.1	47.1	23.5	23.5	23.5	35.3	35.3	26.5	14.7	23.5	14.7
어느 정도 안다	25.8	26.4	6.1	13.6	13.6	17.6	7.5	8.5	8.1	12.9	40.7
들어본 적 있다	15.0	16.8	4.8	8.9	9.4	8.9	5.2	3.9	3.9	5.3	57.1



[원불교 활동 인식 - 연령대]

연령대	원불교 봉공회	원불교 추모의식	사드반대 평화운동	세계봉공재단 해외봉사	원불교 환경연대	생명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	저출생 대응 캠페인	밋 마인드 명상	'심심풀이' 인성교육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	잘 모르겠다
청년층	16.9	15.3	5.4	8.8	7.5	10.5	8.3	5.9	7.8	7.2	54.4
중장년층	17.3	19.7	5.9	11.1	10.5	12.4	6.2	6.5	5.9	7.8	51.6
노년층	22.3	25.7	5.9	11.8	14.7	13.1	5.6	5.1	2.4	8.6	48.3

문항17)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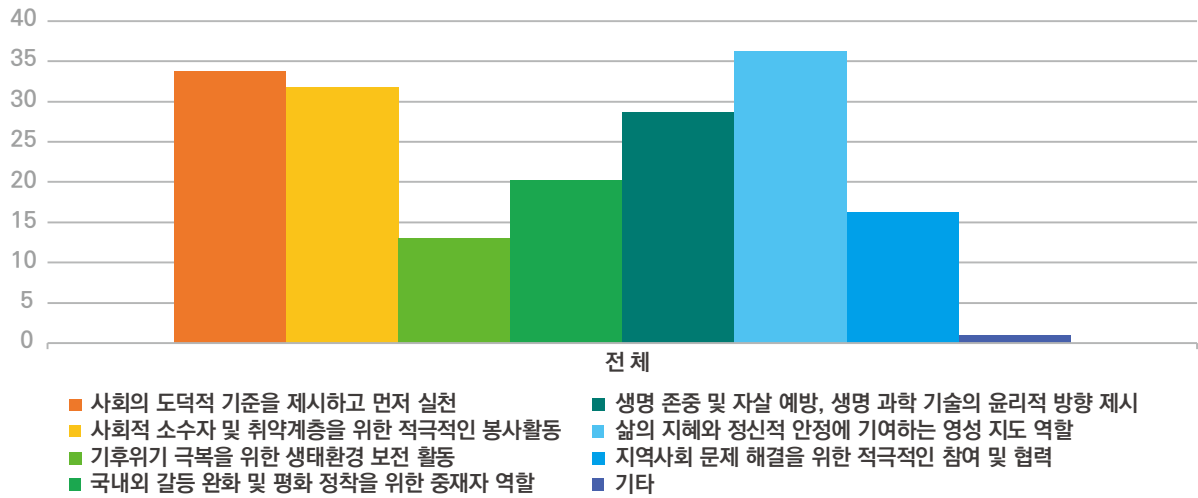
‘원불교가 주관하는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복수선택)한 결과, 대중은 원불교의 사회 활동 중 일부 대표 사업만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단의 폭넓은 공익 활동은 여전히 대중적 인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 “원불교 교당 및 기관 국가적 비극에 대한 추모의식”(20.3%) 과 “원불교 봉공회 국내외 재난 긴급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18.8%)이 가장 높게 인식되었으며, 그 뒤를 “생명존중 자살예방 다시살림 캠페인”(12.0%), “원불교 환경연대 햇빛발전소 건립과 탈핵운동”(10.9%) “세계봉공재단 대학생 청년 해외봉사 활동”(10.6%) 이었다. 반면 “밋마인드(meet mind)명상 컨퍼런스”(5.8%), “심심풀이 인성교육”(5.4%), “저출생 대응 다붓다붓 캠페인”(6.7%) 등 최근의 생활밀착형·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은 인지율이 낮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4%)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원불교의 사회활동 인식 기반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전라도와 충청도,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높았으나, 강원도·제주도 지역은 60% 이상이 “잘 모르겠다”고 답해, 활동 홍보의 지역 편차가 뚜렷했다. 종교별로는 원불교 신자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잘 모르겠다” 13.5%), 개신교 신자와 무종교층은 대부분 활동을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무종교층의 절반 이상(57.3%)이 “모른다”고 응답한 것은, 원불교의 공익활동이 비종교 대중에게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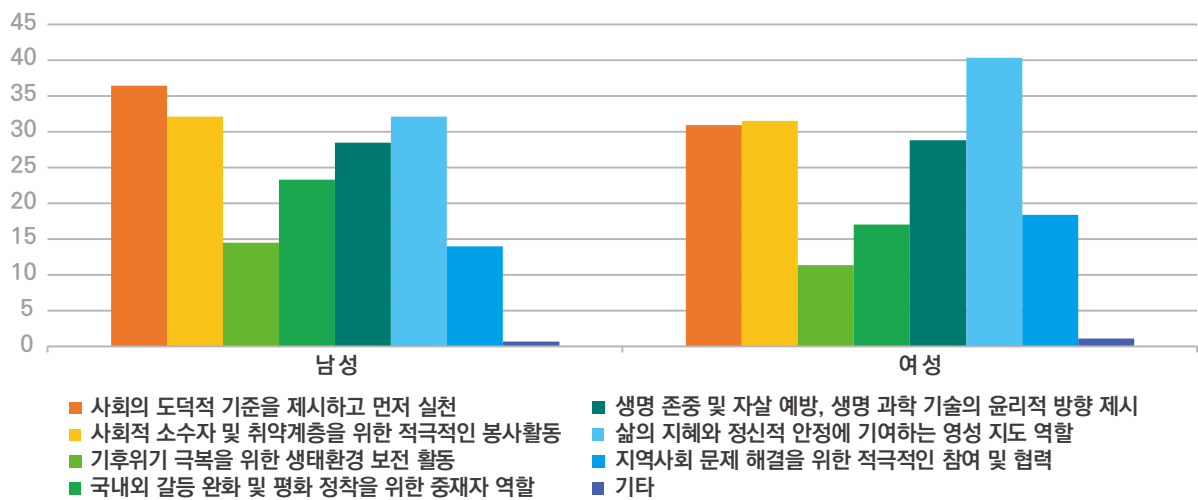
이번 원불교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활동의 결과는 원불교가 ‘활동은 많지만, 인식은 낮은 종교’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단의 과제는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선행을 세상에 보이게 하는 일이다.**

문항18) 원불교 사회적 역할 인식(복수선택) 귀하께서는 원불교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했으면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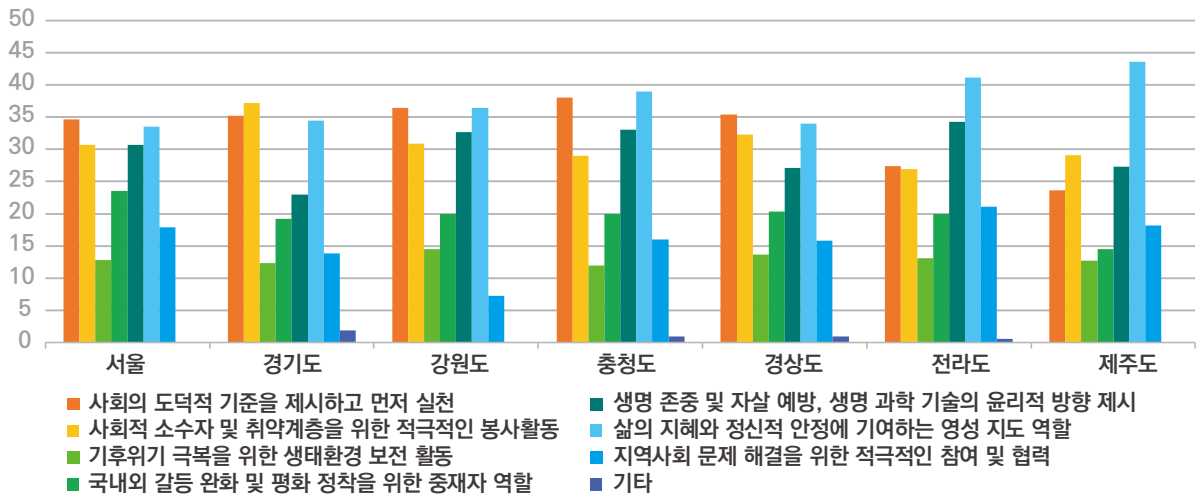
[원불교 사회적 역할 인식]

	도덕적 기준 실천	취약계층 봉사활동	생태 환경 보전 활동	갈등완화 중재자 역할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신안정 영성 지도역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타
전체	33.7	31.8	13.0	20.2	28.7	36.2	16.2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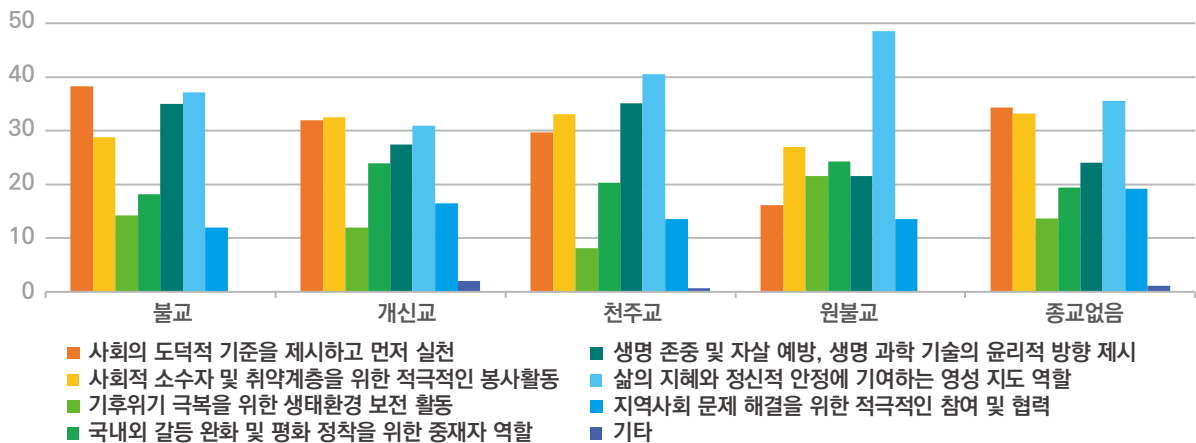
[원불교 사회적 역할 인식 - 성별]

성별	도덕적 기준 실천	취약계층 봉사활동	생태 환경 보전 활동	갈등완화 중재자 역할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신안정 영성 지도역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타
남성	36.4	32.1	14.5	23.3	28.5	32.1	14.0	0.7
여성	30.9	31.5	11.4	17.0	28.8	40.3	18.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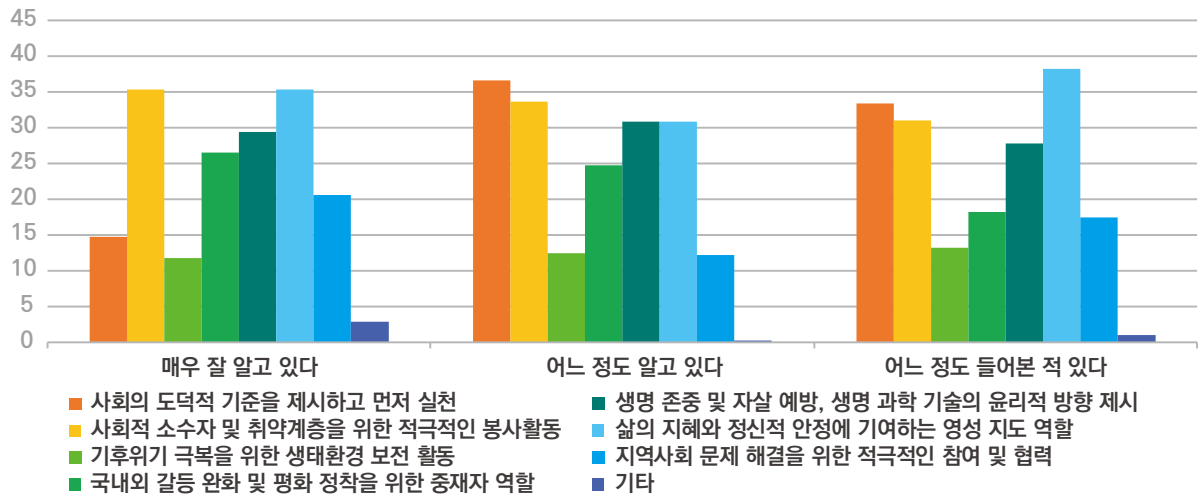
[원불교 사회적 역할 인식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도덕적 기준 실천	취약계층 봉사활동	생태 환경 보전 활동	갈등완화 중재자 역할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신안정 영성 지도역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타
서울	34.6	30.7	12.8	23.5	30.7	33.5	17.9	0.0
경기도	35.2	37.2	12.3	19.2	23.0	34.5	13.8	1.9
강원도	36.4	30.9	14.5	20.0	32.7	36.4	7.3	0.0
충청도	38.0	29.0	12.0	20.0	33.0	39.0	16.0	1.0
경상도	35.4	32.3	13.7	20.3	27.1	34.0	15.8	1.0
전라도	27.4	26.9	13.1	20.0	34.3	41.1	21.1	0.6
제주도	23.6	29.1	12.7	14.5	27.3	43.6	18.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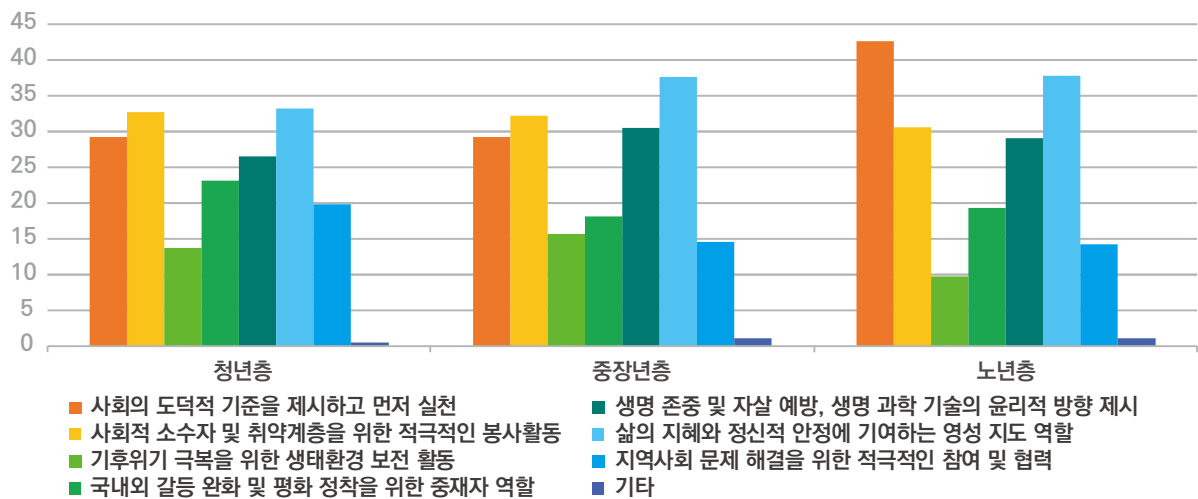
[원불교 사회적 역할 인식 - 종교]

종교	도덕적 기준 실천	취약계층 봉사활동	생태 환경 보전 활동	갈등완화 중재자 역할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신안정 영성 지도역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타
불교	38.3	28.8	14.2	18.2	35.0	37.2	12.0	0.0
개신교	32.0	32.5	12.0	24.0	27.5	31.0	16.5	2.0
천주교	29.7	33.1	8.1	20.3	35.1	40.5	13.5	0.7
원불교	16.2	27.0	21.6	24.3	21.6	48.6	13.5	0.0
종교 없음	34.3	33.2	13.7	19.5	24.1	35.6	19.2	1.1



[원불교 사회적 역할 인식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도덕적 기준 실천	취약계층 봉사활동	생태 환경 보전 활동	갈등완화 중재자 역할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신안정 영성 지도역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타
매우 잘 안다	14.7	35.3	11.8	26.5	29.4	35.3	20.6	2.9
어느 정도 안다	36.6	33.6	12.5	24.7	30.8	30.8	12.2	0.3
들어본 적 있다	33.4	31.0	13.2	18.2	27.8	38.2	17.5	1.0



[원불교 사회적 역할 인식 - 연령대]

연령대	도덕적 기준 실천	취약계층 봉사활동	생태 환경 보전 활동	갈등완화 중재자 역할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신안정 영성 지도역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타
청년층	29.2	32.7	13.7	23.1	26.5	33.2	19.8	0.5
중장년층	29.2	32.2	15.7	18.1	30.5	37.6	14.6	1.1
노년층	42.6	30.6	9.7	19.3	29.0	37.8	14.2	1.1

문항18) 분석

‘원불교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조사(복수선택)한 결과, 대중은 종교에 대해 **공공의 윤리 기준을 세우는 사회적 지도력**과 동시에 **개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정신적 돌봄 역할**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6.2%가 “**삶의 지혜와 정신적 안정에 기여하는 영성 지도 역할**”, 33.7%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먼저 실천**”, 31.8%가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꼽아 세 항목이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생명 과학 기술의 윤리적 방향 제시**”(28.7%), “**국내외 갈등 완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중재자 역할**”(20.2%),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16.2%) 순으로 나타나, 대중은 종교의 본질적 기능보다 사회적 책임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기대를 우선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종교가 더 이상 초월적 신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현대사회의 심리적·윤리적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노년층(60세 이상)이 “**도덕적 기준 실천**”(42.6%)을, 청년층(19~39세)은 “**정신 안정 영성 지도 역할**”(33.2%)과 “**취약계층 봉사활동**”(32.7%)을 중시했다. 즉, 노년층은 종교의 질서와 권위를, 청년층은 치유와 공정성을 기대하는 세대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다. 중장년층(40~59세) 또한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정신 안정 영성 지도 역할**”(37.6%)과 “**취약계층 봉사활동**”(32.2%)을 높게 선택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사회적 기준 실천**’, 여성은 ‘**정신 안정 영성 지도 역할**’ 응답이 높았다.

한편 원불교 신자 집단에서는 “**정신 안정 영성 지도 역할**”(48.6%)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단 내부가 이미 ‘**마음공부 중심 종교**’로 정체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외부 대중은 여전히 교단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불교의 향후 교화 전략이 ‘**교단 내부 수행 중심 구조**’에서 ‘**사회적 돌봄 중심 구조**’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5 디지털 종교 콘텐츠

▶ 요약 및 분석

문항19)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문항20) 종교 콘텐츠 선호 유형

문항21)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인식

문항22) 디지털 교화 활동 효과 인식

[문항19]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디지털 종교 콘텐츠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이용률은 낮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적극적 이용층은 전체의 9%에 불과해, 디지털 종교 활동이 아직 일상적인 실행 방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가끔 이용한다”는 적게 쓰는 이용자가 30.3%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력적이고 유용한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 이용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 고객군이 충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세대별 이용률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인 20대의 적극적 이용률(7.1%)과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여겨지는 60대 이상의 이용률(10%)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디지털 종교 활동의 활성화가 단순한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를 관통할 수 있는 ‘콘텐츠의 질과 매력도’에 달려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문항20] 종교 콘텐츠 선호 유형

대중이 온라인 공간에서 종교에 바라는 것은 지식 습득이 아닌 정서적 안정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을 조사한 결과, 1위는 “감성적 메시지나 위로를 주는 영상”(37.3%)이었으며, 2위는 “명상·좌선 등 체험형 콘텐츠”(25.6%)가 차지했다. 이 두 가지 ‘소프트 콘텐츠’의 합계가 62.9%에 달하는 반면, 전통적인 종교 콘텐츠인 “교리 해설/경전 강의”에 대한 선호도는 15.9%에 그쳤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대중은 종교적 학습보다는 ‘정서적 케어’와 ‘힐링’을 원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단순 시청을 넘어 “체험형 콘텐츠”(27.3%)와 “실시간 소통”(10.4%)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

[문항21, 22] 디지털 종교 콘텐츠 및 교화 활동 효과

디지털 신앙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매우 유연하고 실용적이었으며, 플랫폼 전략은 ‘본질’에 집중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58.2%가 디지털 종교 콘텐츠에 대해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는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미래 세대인 20대는 3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디지털 신앙에 가장 열려 있고 거부감이 없는 세대임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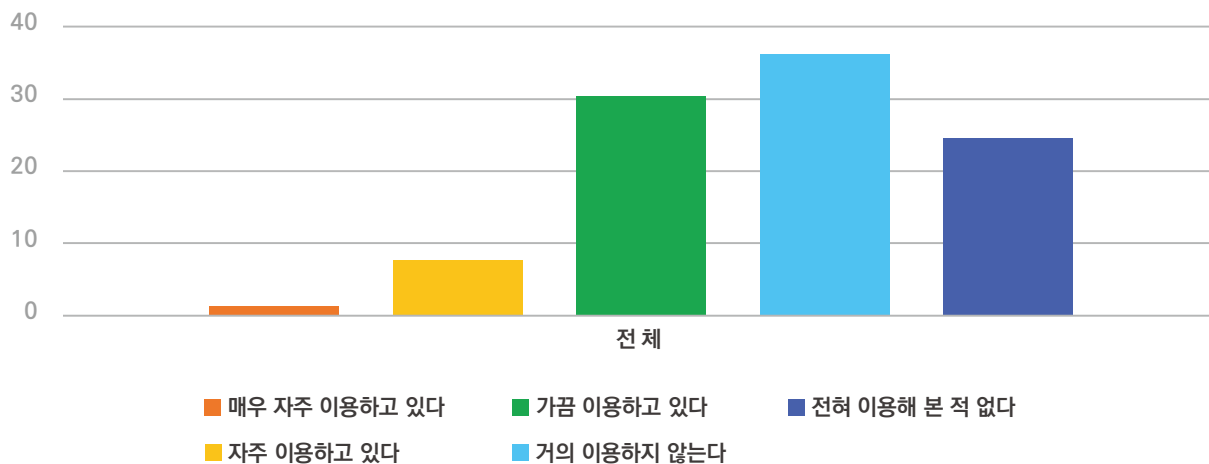
가장 효과적인 디지털 교화 방법으로는 “온라인 명상 체험”(27.4%)과 “유튜브 수행 안내”(25.1%)가 꼽혔다. 반면, “메타버스”(2.8%)나 “AI 신앙상담”(4.6%)과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낮았다. 이는 대중이 화려한 신기술보다는 ‘유튜브’라는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명상’과 같은 본질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디지털 종교 콘텐츠에 관한 제언

디지털 종교 콘텐츠에 대한 분석의 결론은 ‘기술(Tech)은 수단일 뿐, 핵심은 위로(Healing)에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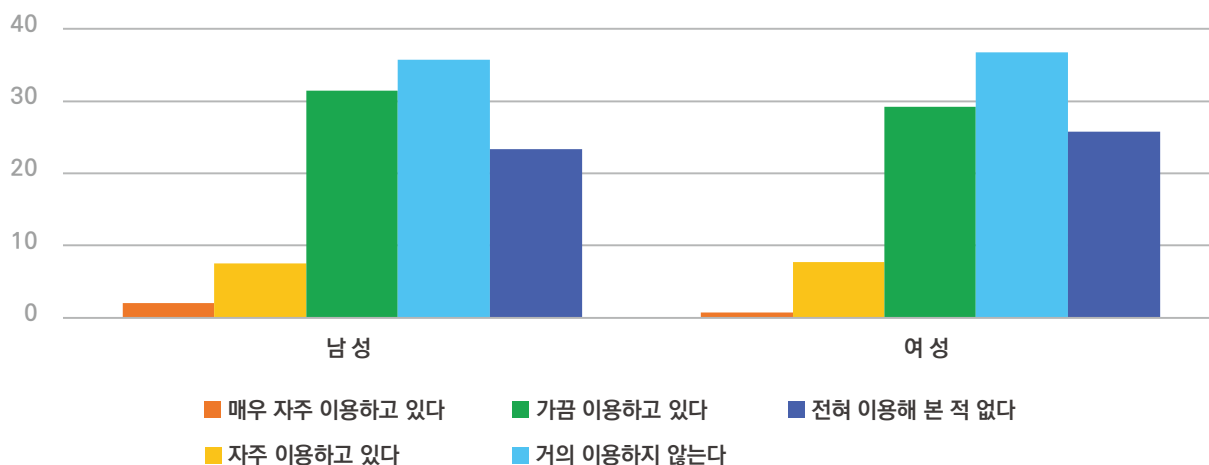
- **숏폼 & 위로:** 1시간이 넘는 설교 영상 제작을 지양하고, 3분 내외의 ‘위로 영상’이나 10분 내외의 ‘데일리 명상 가이드’를 주력 콘텐츠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 **세대별 맞춤 접근:** 2030 세대에게는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숏츠를 활용해 감각적인 이미지와 짧은 문구(Wise Saying)로 접근하여 자발적인 ‘공유’를 유도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깊이 있는 강의를 제공하되 오프라인 명상 캠프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선택과 집중:** 고비용 저효율인 메타버스 등은 배제하고,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문항19)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귀하께서는 디지털 종교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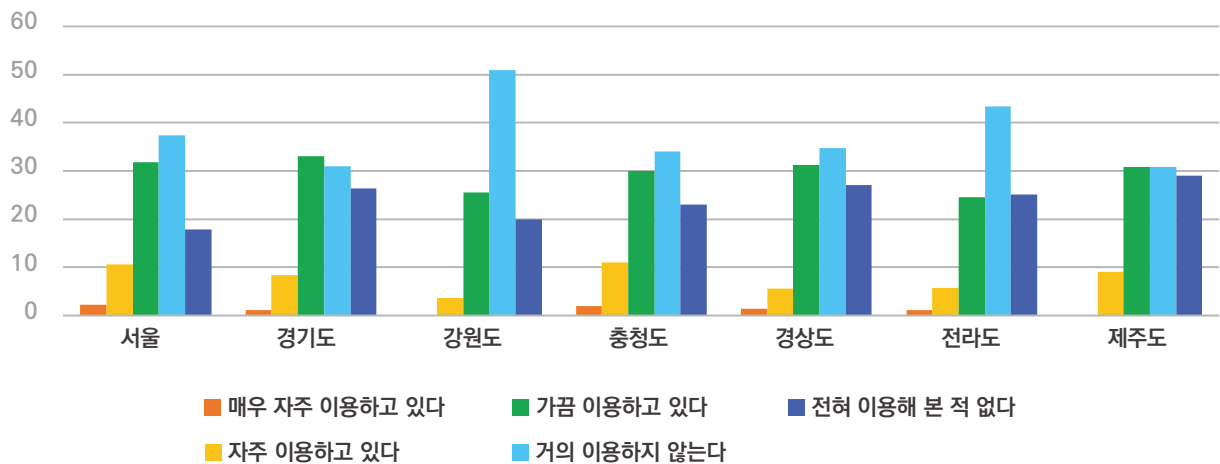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다	자주 이용하고 있다	가끔 이용하고 있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전혀 이용해 본 적 없다
전체	1.3	7.6	30.3	36.2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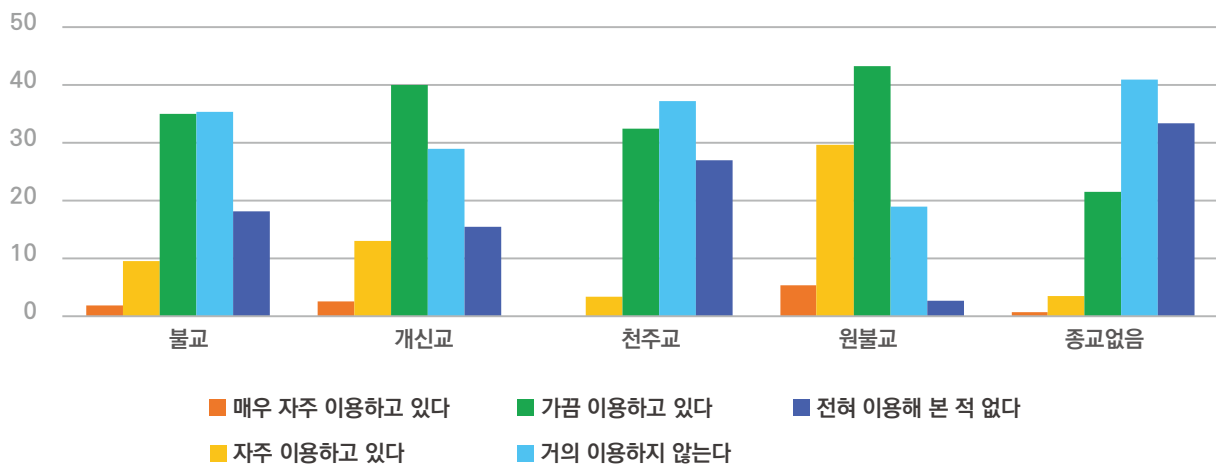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 성별]

성별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다	자주 이용하고 있다	가끔 이용하고 있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전혀 이용해 본 적 없다
남성	2.0	7.5	31.4	35.7	23.3
여성	0.7	7.7	29.2	36.7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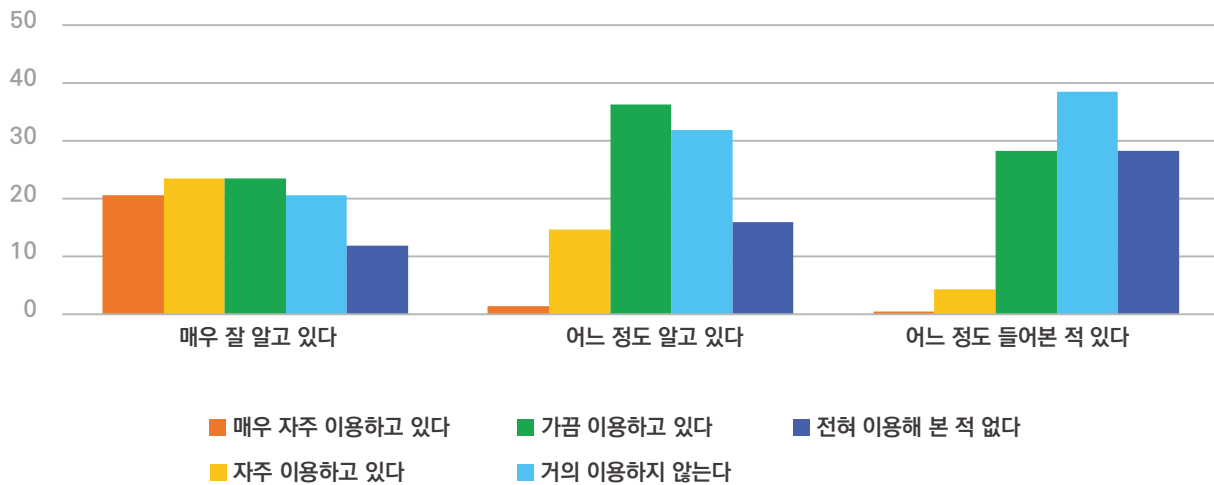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다	자주 이용	가끔 이용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전혀 이용해 본 적 없다
서울	2.2	10.6	31.8	37.4	17.9
경기도	1.1	8.4	33.0	31.0	26.4
강원도	0.0	3.6	25.5	50.9	20.0
충청도	2.0	11.0	30.0	34.0	23.0
경상도	1.4	5.5	31.3	34.7	27.1
전라도	1.1	5.7	24.6	43.4	25.1
제주도	0.0	9.1	30.9	30.9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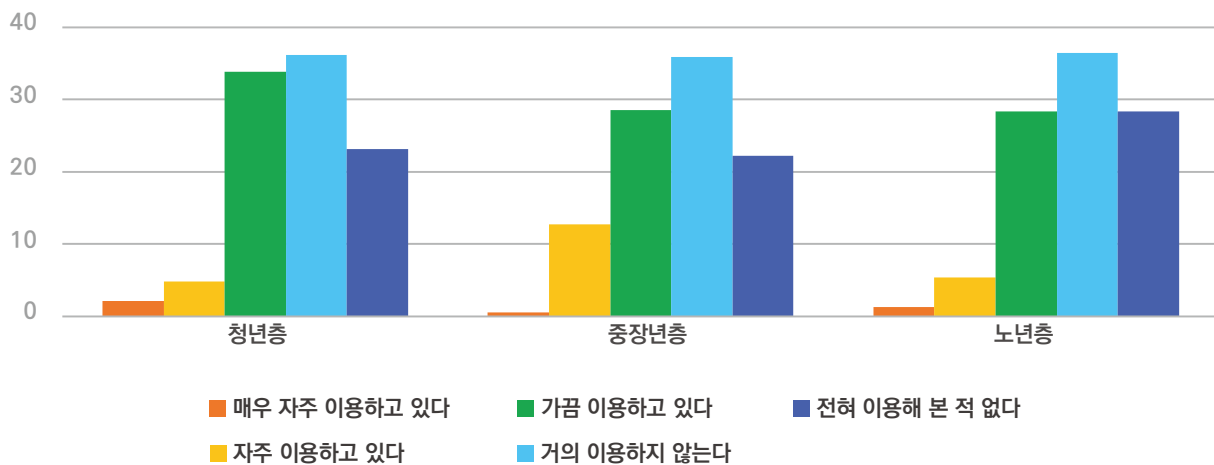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 종교]

종교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다	자주 이용	가끔 이용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전혀 이용해 본 적 없다
불교	1.8	9.5	35.0	35.4	18.2
개신교	2.5	13.0	40.0	29.0	15.5
천주교	0.0	3.4	32.4	37.2	27.0
원불교	5.4	29.7	43.2	18.9	2.7
종교 없음	0.7	3.5	21.5	40.9	33.4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다	자주 이용	가끔 이용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전혀 이용해 본 적 없다
매우 잘 안다	20.6	23.5	23.5	20.6	11.8
어느 정도 안다	1.4	14.6	36.3	31.9	15.9
들어본 적 있다	0.5	4.3	28.3	38.5	28.3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 연령대]

연령대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다	자주 이용	가끔 이용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전혀 이용해 본 적 없다
청년층	2.1	4.8	33.8	36.2	23.1
중장년층	0.5	12.7	28.6	35.9	22.2
노년층	1.3	5.4	28.4	36.5	28.4

문항19) 분석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중의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수의 적극 이용자(9.0%)와 다수의 비이용자(60.8%)로 양극화된 구조를 보였다. 반면 “가끔 이용한다”는 응답이 30.3%로 나타나, 디지털 교화의 잠재적 확장 기반이 바로 이 집단에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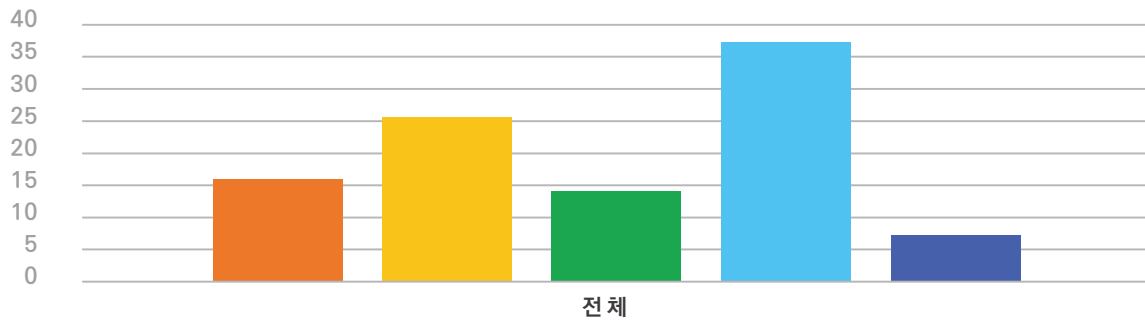
이 결과는 한국 사회의 종교 디지털화가 아직 ‘대중적 흐름’이 아니라 ‘관심 있는 일부 집단의 자발적 참여’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디지털 종교 콘텐츠의 주 이용층이 예상과 달리 청년층이 아닌 중장년층(40-59세, 13.2%)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가 새로운 신앙 입문 창구가 아니라, 이미 종교적 기반을 가진 중장년층의 심화 학습 채널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디지털=청년의 영역’이라는 통념이 무너지고, 4050세대가 교화의 핵심 온라인 이용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원불교 인지도와 디지털 이용률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 원불교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집단의 44.1%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률이 높은 반면, “들어본 적만 있다”는 집단에서는 4.8%에 불과했다.

종교별로는 원불교 신자(35.1%)의 자주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무종교인의 74.3%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현재 종교 콘텐츠가 내부 신자 중심의 언어와 형식에 머물러 있어, 비종교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종교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는 무종교층에게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시사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불교의 디지털 교화 전략이 지금의 내부 중심 구조를 넘어, ‘외부 확장형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원불교 디지털 교화의 현재 위치가 ‘시작 단계’가 아니라 ‘전환기’에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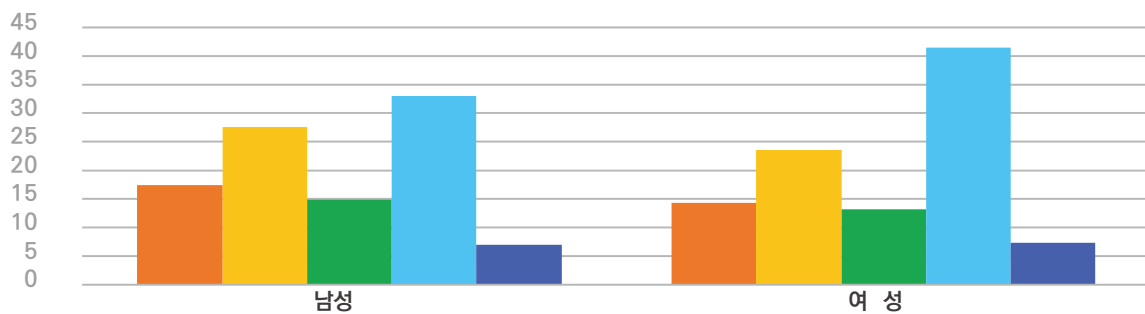
문항20) 종교 콘텐츠 선호 유형 귀하께서는 종교 콘텐츠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 교리 해설, 경전 강의
 ■ 종교 인물 인터뷰, 간증, 체험담
 ■ 실시간 상담과 Q&A로 소통
 ■ 영상·좌선, 기도문 낭독 등 체험형 콘텐츠
 ■ 감성적 메시지나 위로를 주는 영상

[종교 콘텐츠 선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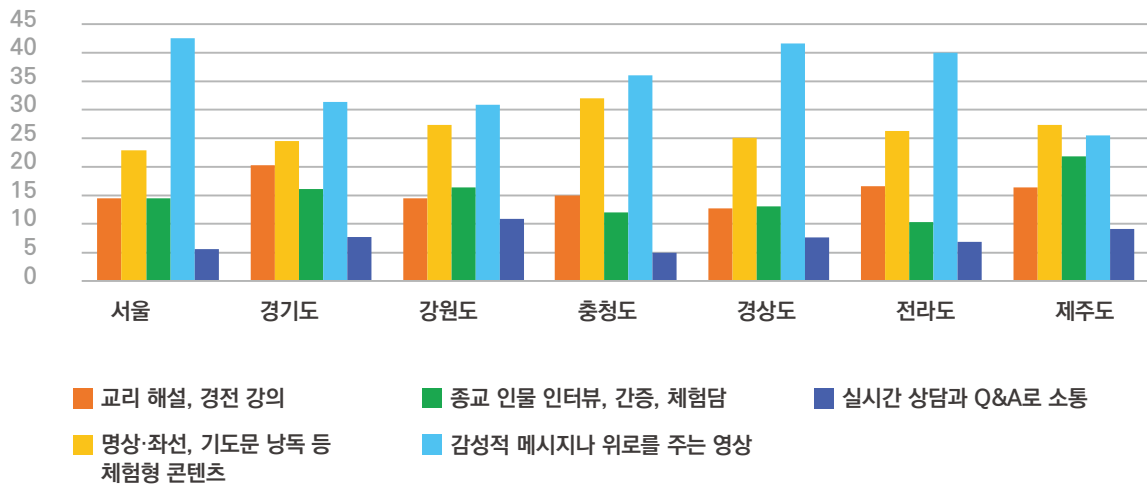
	교리 해설, 경전 강의	체험형 콘텐츠	인터뷰, 간증, 체험담	감성적 메시지 영상	실시간 상담과 Q&A
전체	15.9	25.6	14.1	37.3	7.2



■ 교리 해설, 경전 강의
 ■ 종교 인물 인터뷰, 간증, 체험담
 ■ 실시간 상담과 Q&A로 소통
 ■ 영상·좌선, 기도문 낭독 등 체험형 콘텐츠
 ■ 감성적 메시지나 위로를 주는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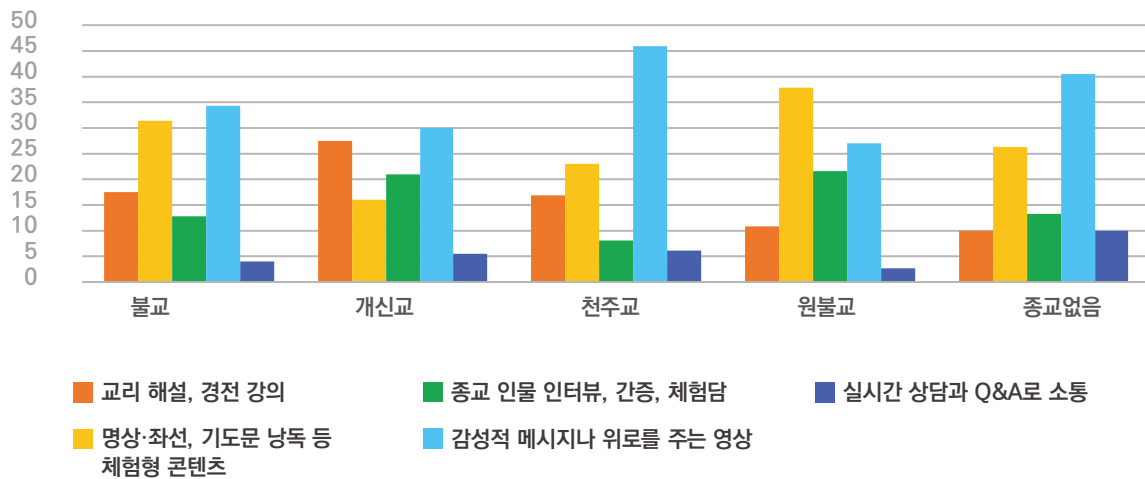
[종교 콘텐츠 선호 유형 - 성별]

성별	교리 해설, 경전 강의	체험형 콘텐츠	인터뷰, 간증, 체험담	감성적 메시지 영상	실시간 상담과 Q&A
남성	17.4	27.6	14.9	33.0	7.0
여성	14.3	23.6	13.2	41.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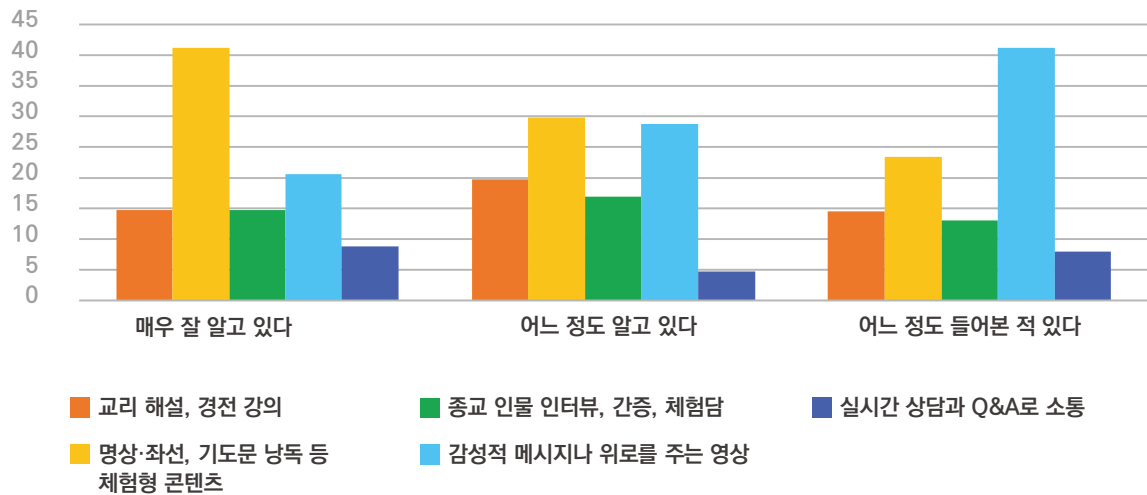
[종교 콘텐츠 선호 유형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교리 해설, 경전 강의	체험형 콘텐츠	인터뷰, 간증, 체험담	감성적 메시지 영상	실시간 상담과 Q&A
서울	14.5	22.9	14.5	42.5	5.6
경기도	20.3	24.5	16.1	31.4	7.7
강원도	14.5	27.3	16.4	30.9	10.9
충청도	15.0	32.0	12.0	36.0	5.0
경상도	12.7	25.1	13.1	41.6	7.6
전라도	16.6	26.3	10.3	40.0	6.9
제주도	16.4	27.3	21.8	25.5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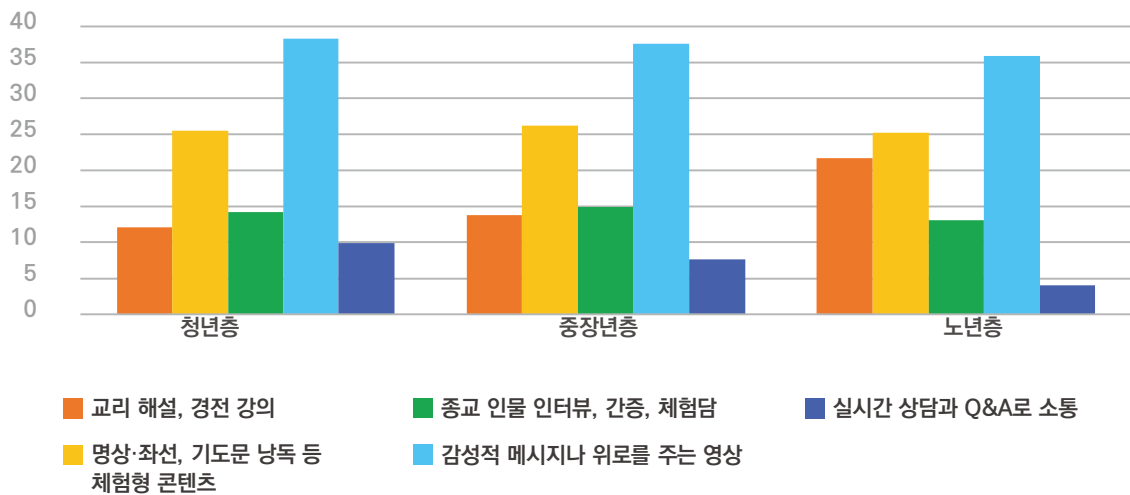
[종교 콘텐츠 선호 유형 - 종교]

종교	교리 해설, 경전 강의	체험형 콘텐츠	인터뷰, 간증, 체험담	감성적 메시지 영상	실시간 상담과 Q&A
불교	17.5	31.4	12.8	34.3	4.0
개신교	27.5	16.0	21.0	30.0	5.5
천주교	16.9	23.0	8.1	45.9	6.1
원불교	10.8	37.8	21.6	27.0	2.7
종교 없음	10.0	26.3	13.3	40.5	10.0



[종교 콘텐츠 선호 유형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교리 해설, 경전 강의	체험형 콘텐츠	인터뷰, 간증, 체험담	감성적 메시지 영상	실시간 상담과 Q&A
매우 잘 안다	14.7	41.2	14.7	20.6	8.8
어느 정도 안다	19.7	29.8	16.9	28.8	4.7
들어본 적 있다	14.5	23.4	13.0	41.2	8.0



[종교 콘텐츠 선호 유형 - 연령대]

연령대	교리 해설, 경전 강의	체험형 콘텐츠	인터뷰, 간증, 체험담	감성적 메시지 영상	실시간 상담과 Q&A
청년층	12.1	25.5	14.2	38.3	9.9
중장년층	13.8	26.2	14.9	37.6	7.6
노년층	21.7	25.2	13.1	35.9	4.0

문항20) 분석

‘가장 선호하는 종교 콘텐츠 유형’을 조사한 결과, 대중은 종교를 지식이나 교리의 영역보다는 **정서적 위로와 체험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전체 응답자의 **37.3%**가 “**감성적 메시지나 위로를 주는 영상**”을, 25.6%가 “명상·좌선 등 체험형 콘텐츠”를 선택, 두 항목의 합이 62.9%에 달했다. 반면 “교리 해설·경전 강의”는 15.9%, “종교 인물 인터뷰나 간증”은 14.1%, “실시간 상담·Q&A”는 7.2%에 그쳐, 종교적 정보 전달보다는 즉각적인 감정적 공감과 실용적 체험을 중시하는 이용 패턴이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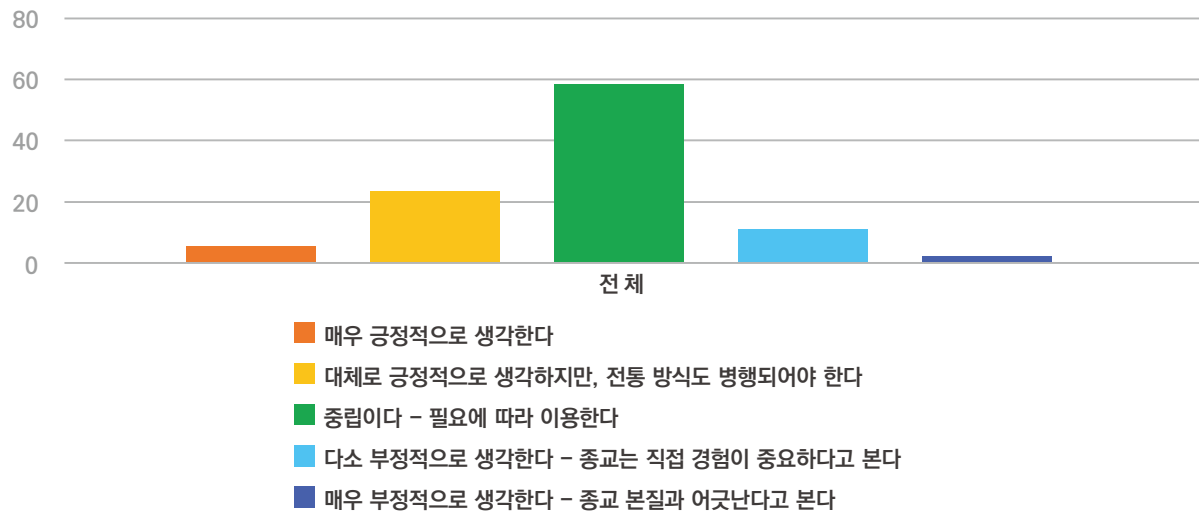
이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 콘텐츠가 더 이상 ‘가르침의 통로’가 아니라 ‘치유와 위로의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은 종교적 지식보다는 ‘삶의 피로를 덜어주는 언어’,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이야기’를 원하며, 이는 종교의 기능이 **이론에서 감성, 교리에서 체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별 비교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천주교 신자는 “감성 메시지 영상”(45.9%)을, 개신교 신자는 “교리 해설, 경전 강의”(27.5%)를, 불교 신자는 “체험형 콘텐츠”(31.4%)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원불교 신자는 “체험형 콘텐츠”(37.8%)를, 무종교층은 “감성적 메시지 영상”(40.5%)을 가장 많이 선택해, **비종교인에게 종교는 이념보다 감정으로 접근할 때 가장 친근해진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원불교 인지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감성적 메시지 영상”(49.4%)보다 “체험형 콘텐츠”(71%)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불교 인지도가 거의 없는 경우는 “감성적 메시지 영상”(41.2%)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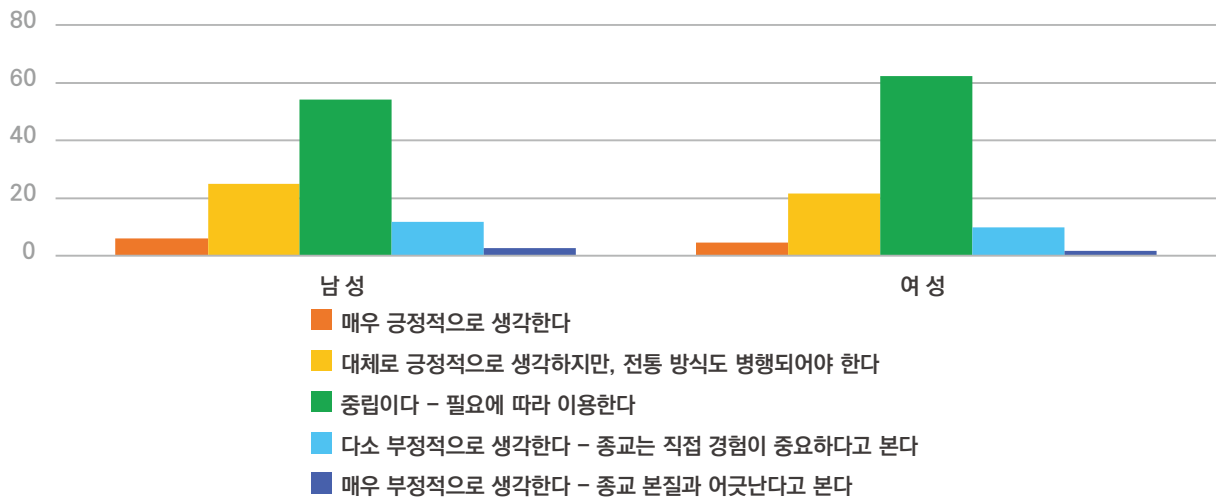
결국 이번 가장 선호하는 종교 콘텐츠 유형의 결과는 ‘지식보다 위로, 교리보다 경험’이라는 현대 종교 소비의 흐름을 분명히 드러낸다. 원불교의 교화 전략은 이제 교리의 전달보다 ‘마음을 치유하는 경험의 언어’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항21)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인식 귀하께서는 온라인 또는 디지털 종교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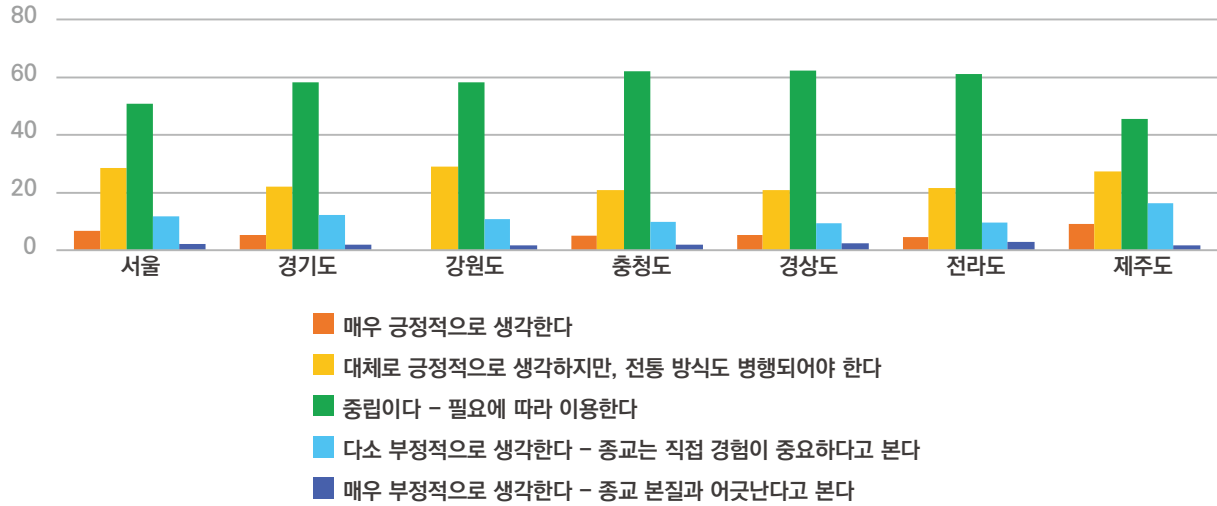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인식]

	매우 긍정	대체로 긍정	중립	다소 부정	매우 부정
전체	5.3	23.3	58.2	10.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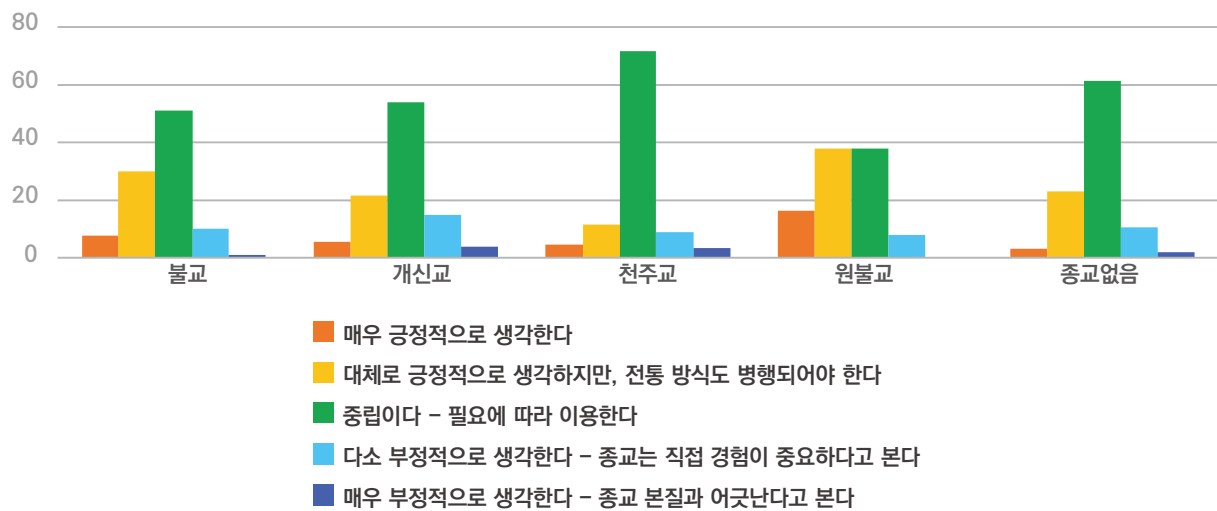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인식 - 성별]

성별	매우 긍정	대체로 긍정	중립	다소 부정	매우 부정
남성	6.1	25.1	54.2	11.8	2.7
여성	4.5	21.5	62.3	10.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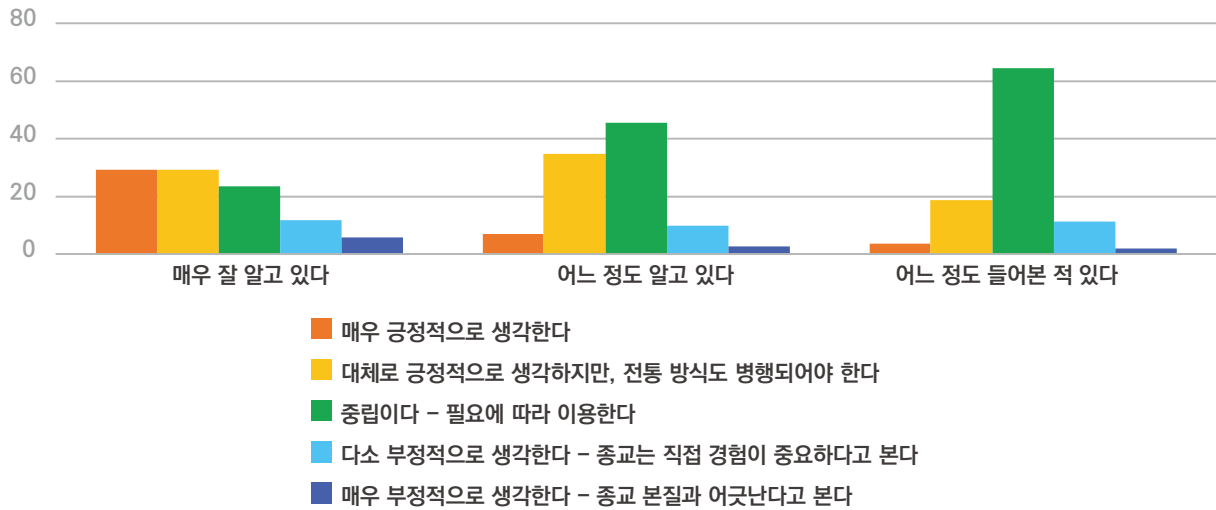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인식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 매우 긍정	■ 대체로 긍정	■ 중립	■ 다소 부정	■ 매우 부정
서울	6.7	28.5	50.8	11.7	2.2
경기도	5.4	22.2	58.2	12.3	1.9
강원도	0.0	29.1	58.2	10.9	1.8
충청도	5.0	21.0	62.0	10.0	2.0
경상도	5.2	21.0	62.2	9.3	2.4
전라도	4.6	21.7	61.1	9.7	2.9
제주도	9.1	27.3	45.5	16.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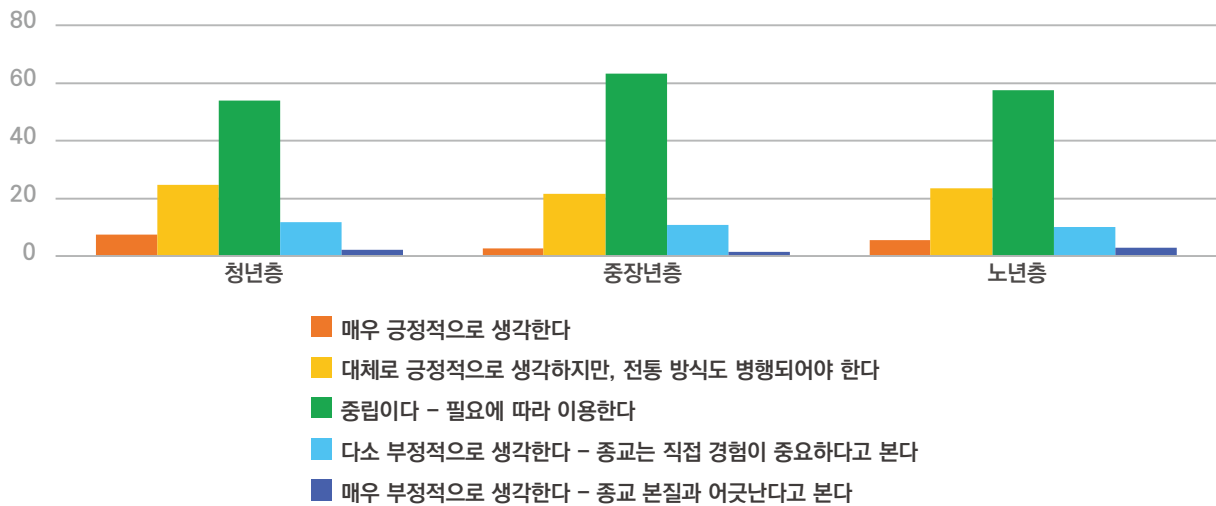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인식 - 종교]

종교	■ 매우 긍정	■ 대체로 긍정	■ 중립	■ 다소 부정	■ 매우 부정
불교	7.7	29.9	51.1	10.2	1.1
개신교	5.5	21.5	54.0	15.0	4.0
천주교	4.7	11.5	71.6	8.8	3.4
원불교	16.2	37.8	37.8	8.1	0.0
종교 없음	3.1	23.0	61.3	10.6	2.0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인식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매우 긍정	대체로 긍정	중립	다소 부정	매우 부정
매우 잘 안다	29.4	29.4	23.5	11.8	5.9
어느 정도 안다	7.1	34.9	45.4	9.8	2.7
들어본 적 있다	3.6	18.7	64.5	11.3	1.9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인식 - 연령대]

연령대	매우 긍정	대체로 긍정	중립	다소 부정	매우 부정
청년층	7.5	24.7	53.9	11.8	2.1
중장년층	2.7	21.6	63.2	10.8	1.6
노년층	5.6	23.6	57.6	10.2	2.9

문항21) 분석

‘온라인 및 디지털 종교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중의 인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관망적 중립**”(58.2%)이 지배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28.6%가 “**긍정적**”, 13.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디지털 종교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아직 ‘본격적 확산기’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중이 디지털 종교를 전통적 신앙의 대체재로 보기보다는,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보완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천주교 신자의 중립 비율이 71.6%로 가장 높고, 원불교(54.1%)와 불교(37.6%) 신자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서, ‘수행 중심 종교’일수록 디지털 수용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반면 개신교 신자는 19.0%로 부정 인식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공동체 중심 예배 구조가 강한 종교일수록 디지털화가 ‘관계 단절’로 느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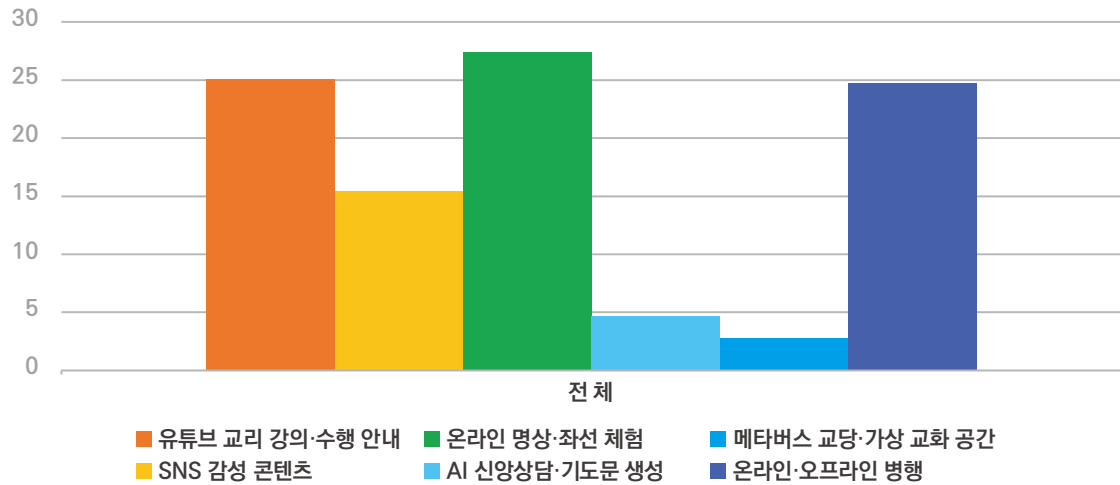
세대별로는 청년층의 긍정 응답(32.2%)이 가장 높았고, 중장년층(24.3%)이 오히려 노년층(29.2%)보다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이 아날로그 신앙 교육에 익숙하면서도, 디지털 피로감이 누적된 ‘깁 세대’로서 기술적 적응에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년층은 이동과 접근성의 제약을 해소하는 ‘편의성의 종교화’ 측면에서 디지털 종교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불교 인지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디지털 종교에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증가(매우 잘 아는 집단 58.8%)하여, ‘원불교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디지털 교화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온라인 및 디지털 종교 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대중이 디지털 종교를 ‘거부하지 않지만, 아직 신뢰하지도 않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원불교의 과제는 기술의 확장이 아니라, 영성의 함양과 디지털 윤리의 조화를 증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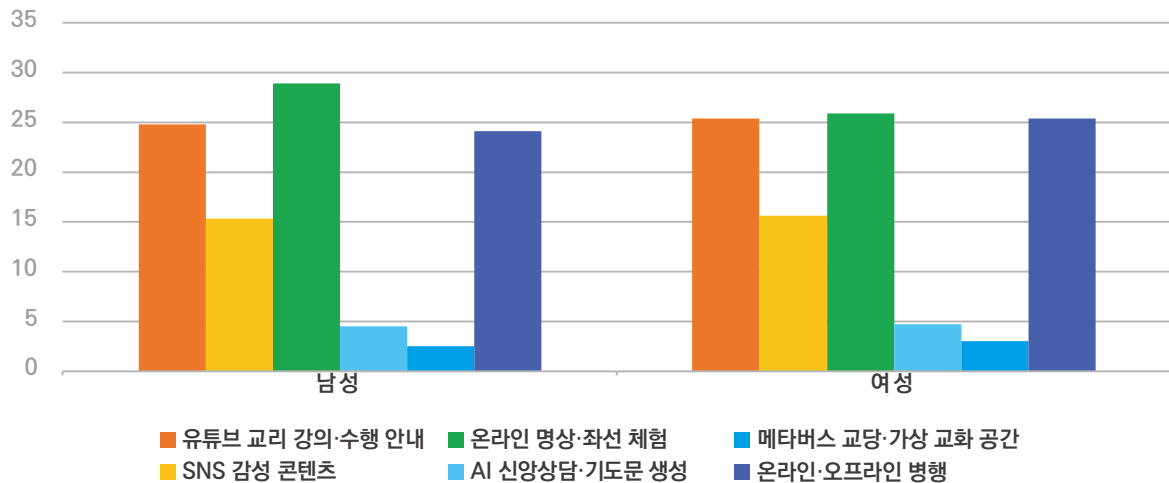
문항22) 디지털 교화 활동 효과 인식

귀하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화 활동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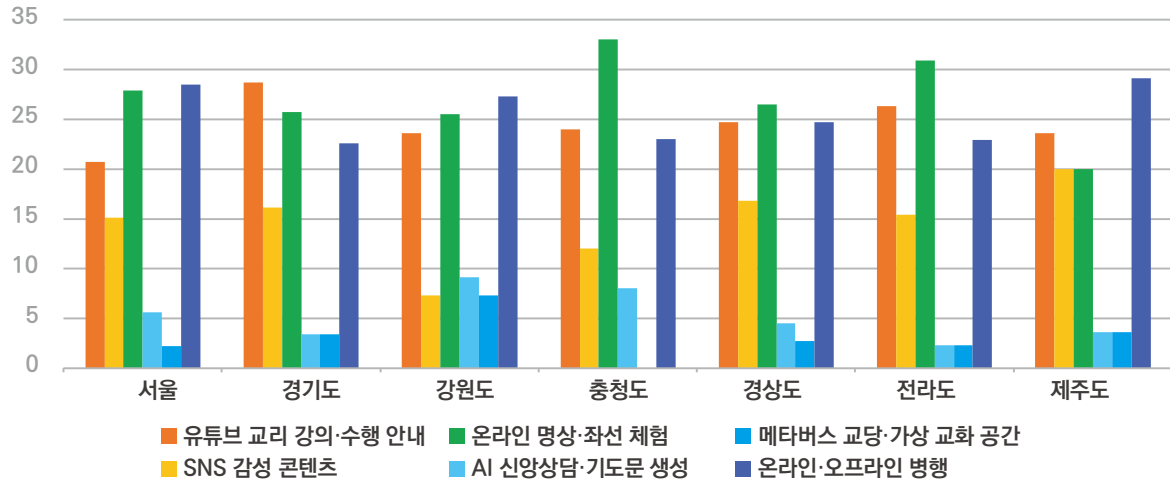
[디지털 교화 활동 효과]

	유튜브 교리 강의·수행 안내	SNS 감성 콘텐츠	온라인 명상·좌선 체험	AI 신앙상담·기도문 생성	가상 교화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전체	25.1	15.4	27.4	4.6	2.8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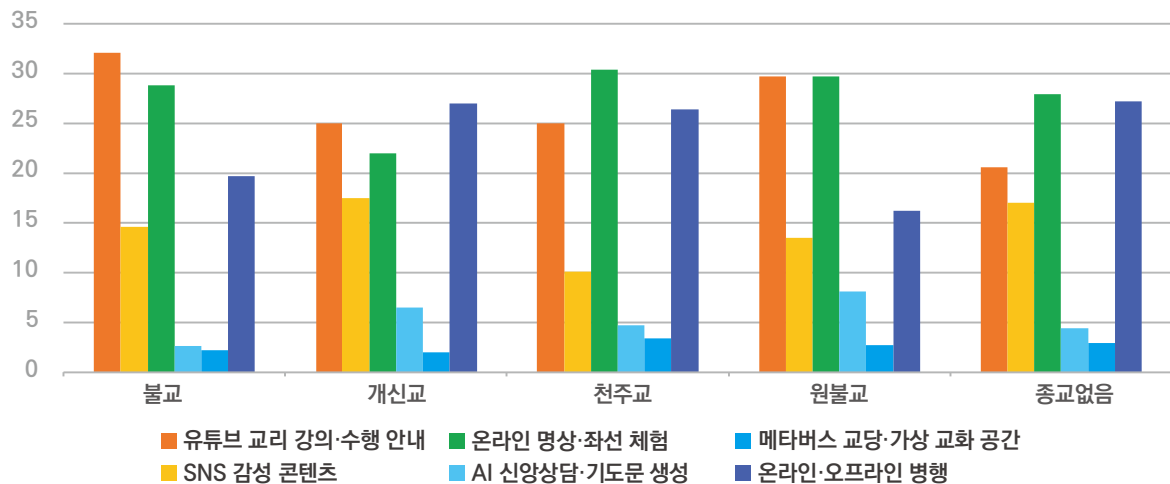
[디지털 교화 활동 효과 - 성별]

성별	유튜브 교리 강의·수행 안내	SNS 감성 콘텐츠	온라인 명상·좌선 체험	AI 신앙상담·기도문 생성	가상 교화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남성	24.8	15.3	28.9	4.5	2.5	24.1
여성	25.4	15.6	25.9	4.7	3.0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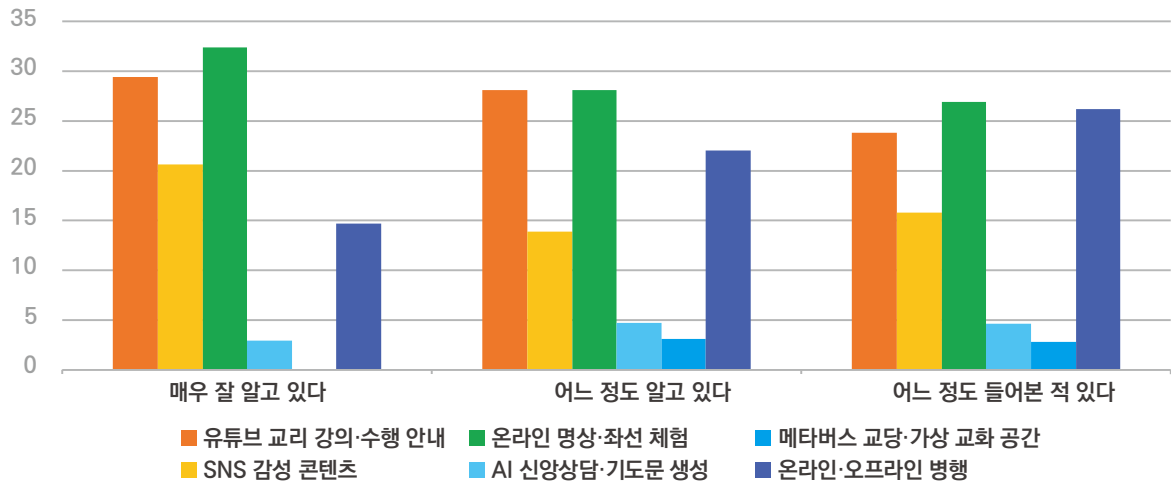
[디지털 교화 활동 효과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유튜브 교리 강의·수행 안내	SNS 감성 콘텐츠	온라인 영상·좌선 체험	AI 신앙상담·기도문 생성	가상 교화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울	20.7	15.1	27.9	5.6	2.2	28.5
경기도	28.7	16.1	25.7	3.4	3.4	22.6
강원도	23.6	7.3	25.5	9.1	7.3	27.3
충청도	24.0	12.0	33.0	8.0	0.0	23.0
경상도	24.7	16.8	26.5	4.5	2.7	24.7
전라도	26.3	15.4	30.9	2.3	2.3	22.9
제주도	23.6	20.0	20.0	3.6	3.6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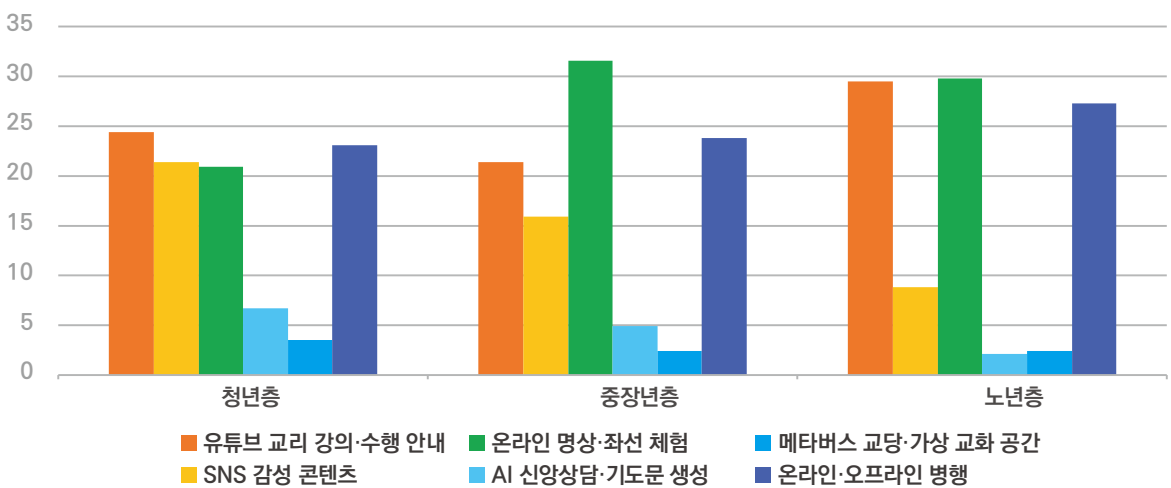
[디지털 교화 활동 효과 - 종교]

종교	유튜브 교리 강의·수행 안내	SNS 감성 콘텐츠	온라인 영상·좌선 체험	AI 신앙상담·기도문 생성	가상 교화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불교	32.1	14.6	28.8	2.6	2.2	19.7
개신교	25.0	17.5	22.0	6.5	2.0	27.0
천주교	25.0	10.1	30.4	4.7	3.4	26.4
원불교	29.7	13.5	29.7	8.1	2.7	16.2
종교 없음	20.6	17.0	27.9	4.4	2.9	27.2



[디지털 교회 활동 효과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유튜브 교리 강의·수행 안내	SNS 감성 콘텐츠	온라인 명상·좌선 체험	AI 신앙상담·기도문 생성	가상 교회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매우 잘 안다	29.4	20.6	32.4	2.9	0.0	14.7
어느 정도 안다	28.1	13.9	28.1	4.7	3.1	22.0
들어본 적 있다	23.8	15.8	26.9	4.6	2.8	26.2



[디지털 교회 활동 효과 - 연령대]

연령대	유튜브 교리 강의·수행 안내	SNS 감성 콘텐츠	온라인 명상·좌선 체험	AI 신앙상담·기도문 생성	가상 교회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청년층	24.4	21.4	20.9	6.7	3.5	23.1
중장년층	21.4	15.9	31.6	4.9	2.4	23.8
노년층	29.5	8.8	29.8	2.1	2.4	27.3

문항22) 분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화 활동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조사한 결과, 대중은 첨단기술보다 **직접적인 수행과 학습 중심의 디지털 교화 방식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27.4%**가 “온라인 명상·좌선 체험”을, 25.1%가 “유튜브 교리 강의·수행 안내”를, 24.7%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이브리드)”을 선택하며 세 항목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반면 “AI 신앙상담·기도문 생성”(4.6%), “메타버스 교당·가상 교화 공간”(2.8%)과 같은 첨단 기술 기반 교화 방식은 아직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디지털 시대의 교화가 단순히 기술의 새로움을 따라가기보다, ‘수행의 실질적 경험’과 ‘교리의 생활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대중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제공하는 정신적 안정(Healing)과 지적 성장(Learning)의 실질적 효용에 반응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디지털 교화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가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종교별로는 불교·원불교 신자층이 “수행·학습 중심”(명상·교리 강의)을, 개신교·천주교 신자층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무종교층은 “온라인 명상·좌선 체험”(27.9%)과 “하이브리드”(27.2%)를 선호하였다.** 특히 무종교층의 선택은 종교적 교리보다 ‘마음 건강’과 ‘실용적 체험’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원불교가 비종교인에게 ‘생활 수행 종교’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28.5%)과 제주도(29.1%)는 “하이브리드 방식”, 충청도(33.0%)와 전라도(30.9%), 경상도(26.5%)는 “명상·좌선 체험”, 경기도(28.7%)는 “유튜브 교리 강의” 비율이 높아, **지역별 교화 환경과 기술 접근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이는 교화의 표준 모델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교화가 더 이상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결국 이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화 활동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결과는 **‘기술보다 체험, 혁신보다 실용’**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다. 대중은 첨단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감되는 정신적 효용을 원한다.

6 세대별 심층 분석

▶ 요약 및 분석

문항23) 청년층 종교 선택 기준

문항24) 청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문항25) 중장년층 종교 선택 기준

문항26)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문항27) 노년층 종교 선택 기준

문항28) 노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문항23, 25, 27] 종교 선택의 기준에 대한 세대 간 공통점과 차이점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세 세대 모두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심리적 불안이 종교 선택의 핵심 동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강도는 나이가 들수록 높아져, 청년층 32.7%, 중장년층 45.4%, 노년층 43.4%로 나타났다.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에 대한 요구 역시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지만, 청년층(28.7%), 중장년층 50대(30.3%), 노년층(37.8%)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생 경험이 축적될수록 실천적 지혜에 대한 갈증이 커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세대 간 뚜렷한 차이도 존재하는데, 청년층은 투명성과 자율성을, 중장년층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노년층은 사회적 자부심을 각각 독특한 선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각 세대가 처한 삶의 단계와 사회적 역할이 종교에 대한 기대를 다르게 형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항24, 26, 28] 종교의 우선 역할에 대한 세대 간 요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세 세대 모두 종교에 '마음의 안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년 세대의 스트레스 해소, 중장년 세대의 명상과 성찰, 노년 세대의 정서 안정 지원은 모두 현대 한국 사회의 심리적 불안과 피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모든 세대가 '실용성'을 중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추상적인 교리 전달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진로 상담, 중장년 세대의 감정 조절 기술, 노년 세대의 건강 프로그램은 모두 일상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적 도구들이다.

그러나 세대별 차이도 분명한데, 청년 세대는 '휴식'과 '사회 참여'를 통한 효능감을, 중장년 세대는 '성찰'과 '인생 재설계'를, 노년 세대는 '건강 유지'와 '존엄한 마무리'를 각각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각 세대가 처한 생애 주기와 발달 과제가 종교적 요구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형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세대별 통합적 제언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세 세대에 대한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명확하다. 21세기 종교는 '가르치는 곳'에서 '돌보는 곳'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곳'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정체성을 전환해야 한다.

- **언어와 브랜딩의 현대화:** 종교적 용어를 일상 언어로 번역하고, 종교 시설을 '마음쉼터', '마음회복 센터' 등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청년층에게는 휴식과 사회 참여를, 중장년층에게는 성찰과 재충전을, 노년층에게는 건강과 웰다잉(well-dying)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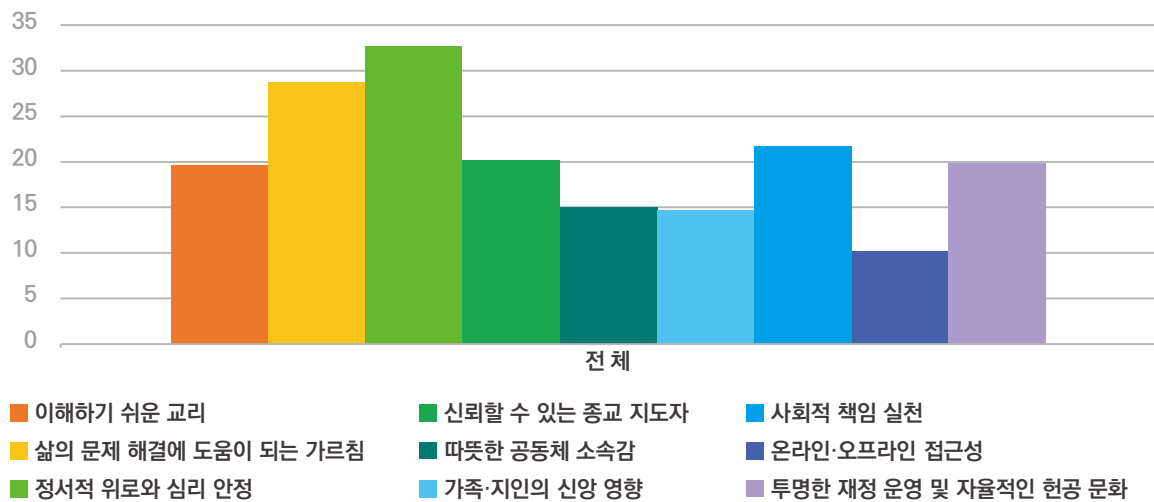
- **운영 방식의 유연화:** 출석과 헌금 강요를 최소화하고, 구독 서비스처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 **인프라와 서비스의 통합:** 종교 기관이 보유한 의료, 교육, 복지 인프라를 신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연결하여, 종교가 삶의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 **리더십의 재정의:** 성직자는 권위자가 아닌 멘토로, 설교자가 아닌 경청자로, 관리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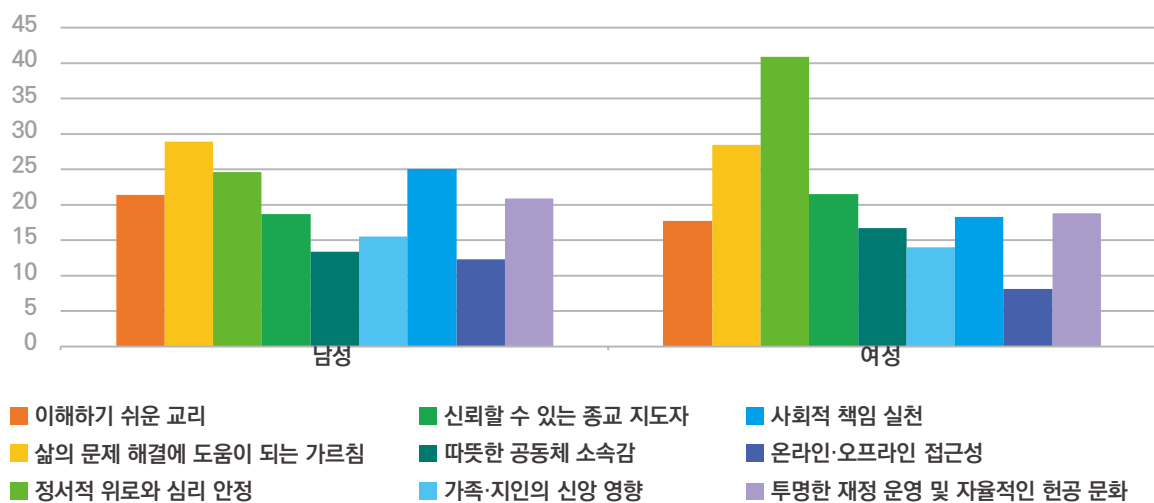
현대인은 종교에 구원의 약속이 아닌 오늘의 위로를, 내세의 보상이 아닌 현재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할 때, 종교는 비로소 현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문항23) 청년층 종교 선택 기준(복수선택) 귀하께서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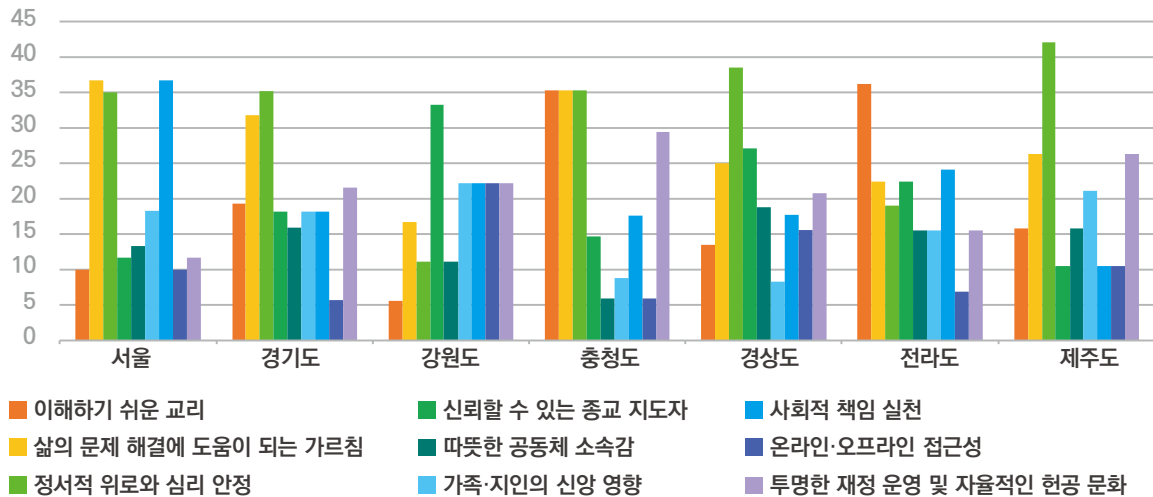
[청년층 종교 선택 기준]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 심리 안정	신뢰 지도자	공동체 소속감	가족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 라인 접근	투명한 재정 운영
전체	19.6	28.7	32.7	20.1	15.0	14.7	21.7	10.2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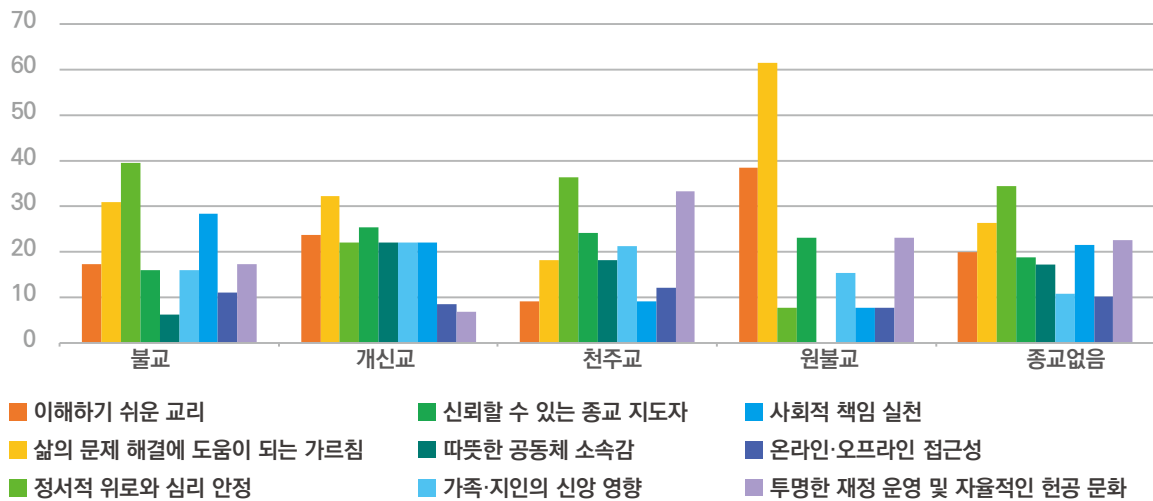
[청년층 종교 선택 기준 - 성별]

성별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 심리 안정	신뢰 지도자	공동체 소속감	가족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 라인 접근	투명한 재정 운영
남성	21.4	28.9	24.6	18.7	13.4	15.5	25.1	12.3	20.9
여성	17.7	28.5	40.9	21.5	16.7	14.0	18.3	8.1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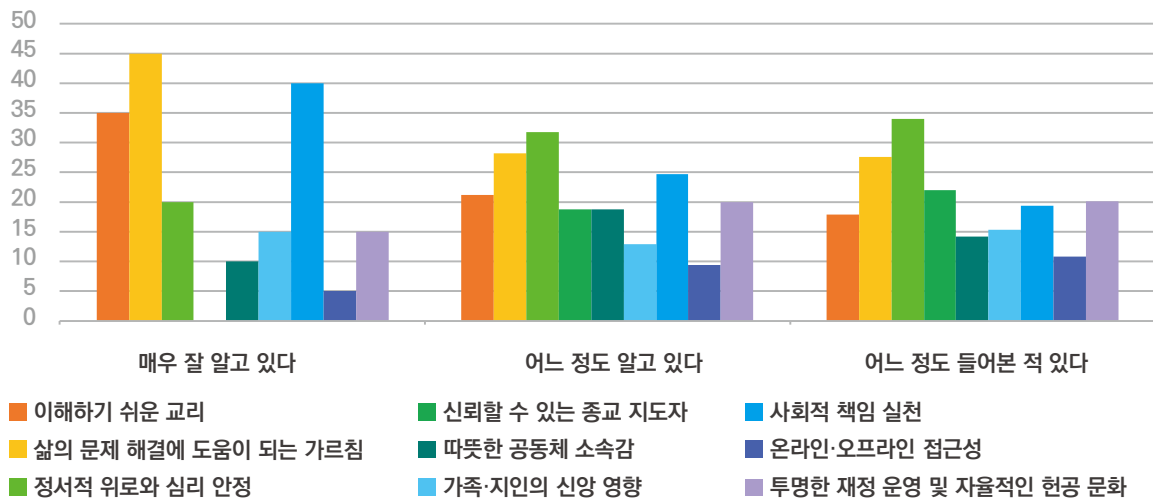
[청년층 종교 선택 기준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라인 접근	투명한 재정 운영
서울	10.0	36.7	35.0	11.7	13.3	18.3	36.7	10.0	11.7
경기도	19.3	31.8	35.2	18.2	15.9	18.2	18.2	5.7	21.6
강원도	5.6	16.7	11.1	33.3	11.1	22.2	22.2	22.2	22.2
충청도	35.3	35.3	35.3	14.7	5.9	8.8	17.6	5.9	29.4
경상도	13.5	25.0	38.5	27.1	18.8	8.3	17.7	15.6	20.8
전라도	36.2	22.4	19.0	22.4	15.5	15.5	24.1	6.9	15.5
제주도	15.8	26.3	42.1	10.5	15.8	21.1	10.5	10.5	26.3



[청년층 종교 선택 기준 - 종교]

종교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라인 접근	투명한 재정 운영
불교	17.3	30.9	39.5	16.0	6.2	16.0	28.4	11.1	17.3
개신교	23.7	32.2	22.0	25.4	22.0	22.0	22.0	8.5	6.8
천주교	9.1	18.2	36.4	24.2	18.2	21.2	9.1	12.1	33.3
원불교	38.5	61.5	7.7	23.1	0.0	15.4	7.7	7.7	23.1
종교없음	19.9	26.3	34.4	18.8	17.2	10.8	21.5	10.2	22.6



[청년층 종교 선택 기준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이해가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 심리 안정	신뢰 지도자	공동체 소속감	가족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 라인 접근	투명한 재정 운영
매우 잘 안다	35.0	45.0	20.0	0.0	10.0	15.0	40.0	5.0	15.0
어느 정도 안다	21.2	28.2	31.8	18.8	18.8	12.9	24.7	9.4	20.0
들어본 적 있다	17.9	27.6	34.0	22.0	14.2	15.3	19.4	10.8	20.1

문항23) 분석

‘청년층이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조사(복수선택)한 결과, 현대 청년 세대가 종교를 신앙의 체계보다 삶의 문제 해결과 정서적 안정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응답 결과,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32.7%)과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28.7%)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사회적 책임 실천”(21.7%),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20.1%), “투명한 재정 운영”(19.8%)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세대에게 종교는 더 이상 추상적 신념 체계가 아니라, ‘심리적 인식처이자 현실적 해법의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종교에서 위로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내면의 치유’와 ‘실천적 효용’이라는 두 축이 현대 종교 선택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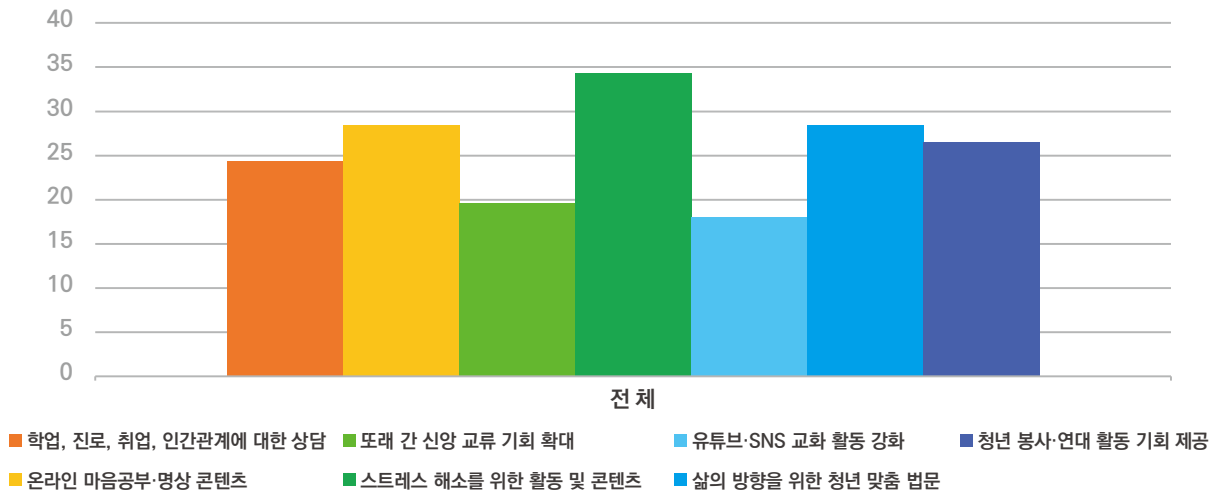
성별 차이는 매우 두드러졌다. 여성 청년의 40.9%가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을 1순위로 선택했으며, 이는 남성(24.6%)보다 16%p 이상 높다. 여성 청년층은 종교를 ‘지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안전기지(Safe Base)’로 인식하고, 남성 청년층은 “삶의 문제 해결”(28.9%)과 “사회적 책임 실천”(25.1%)을 중심으로, 종교를 ‘현실적 해법과 가치 실현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별로 보면, 무종교 청년층은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34.4%)”, “삶의 문제 해결”(26.3%), “투명한 재정”(22.6%)을 중시했다. 특히 원불교 청년층은 “삶의 문제 해결”(61.5%)과 “이해하기 쉬운 교리”(38.5%)를 선택, 실용주의적 정체성이 뚜렷하게 내재화되어 있었다. 이는 원불교 교단이 청년 교도들에게 ‘생활 속의 불법’과 ‘정신개벽의 실천성’을 체화시켜 왔음을 보여주는 점이다.

결국 이번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의 결과는 청년 세대에게 종교는 ‘치유의 공동체이자 삶의 솔루션’이라는 이중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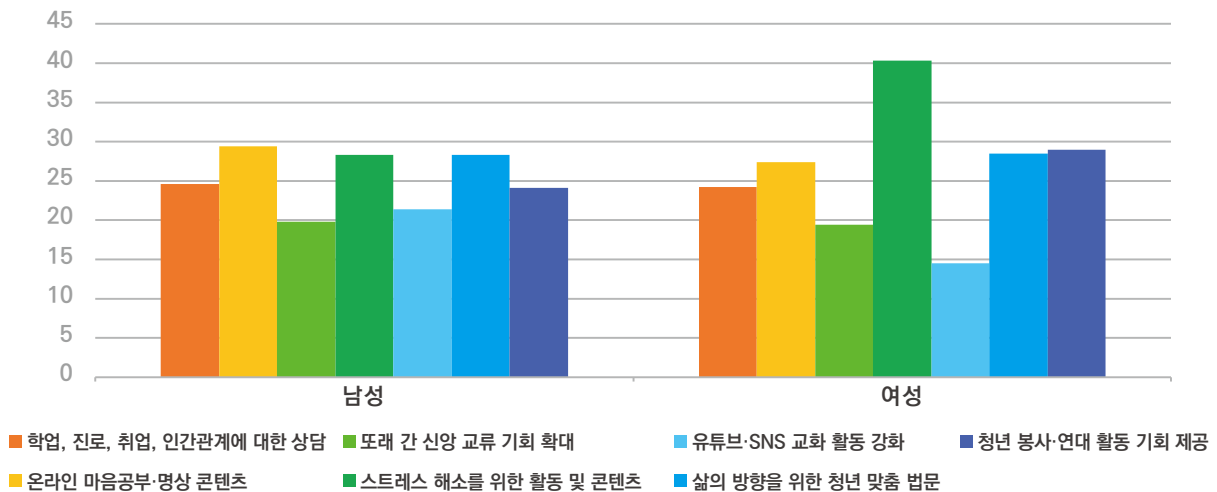
문항24) 청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복수선택)

귀하께서는 청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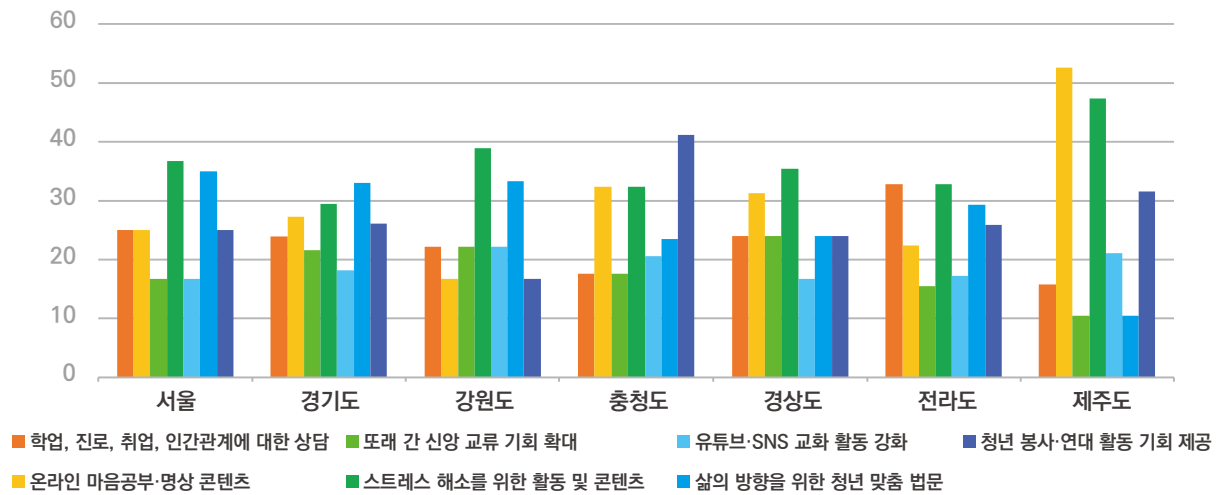
[청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학업, 진로 상담	명상 콘텐츠	또래 신앙 교류	스트레스 해소	SNS 교화 강화	청년 맞춤 법문	봉사·연대 기회 제공
전체	24.4	28.4	19.6	34.3	18.0	28.4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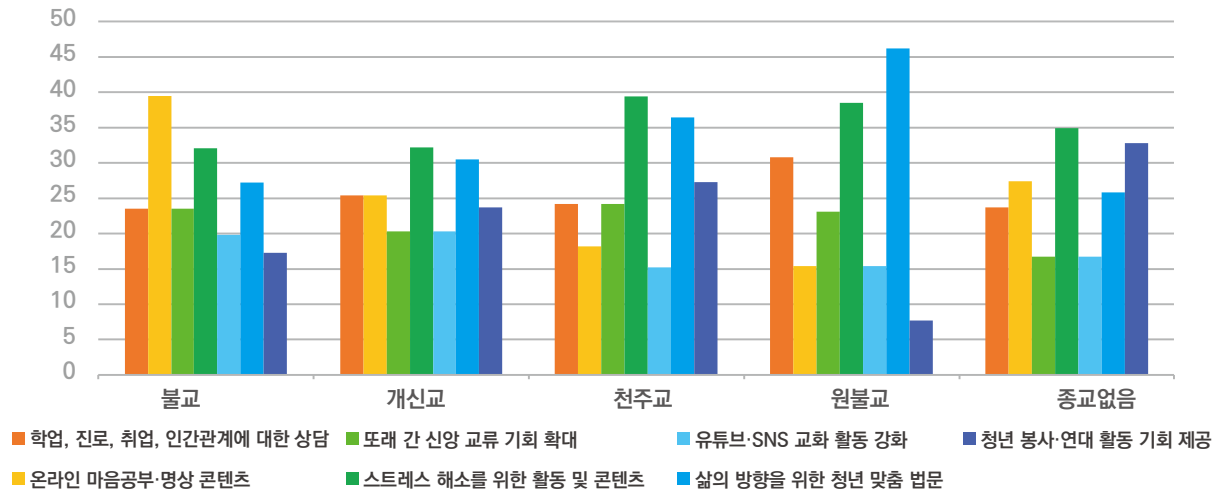
[청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성별]

성별	학업, 진로 상담	명상 콘텐츠	또래 신앙 교류	스트레스 해소	SNS 교화 강화	청년 맞춤 법문	봉사·연대 기회 제공
남성	24.6	29.4	19.8	28.3	21.4	28.3	24.1
여성	24.2	27.4	19.4	40.3	14.5	28.5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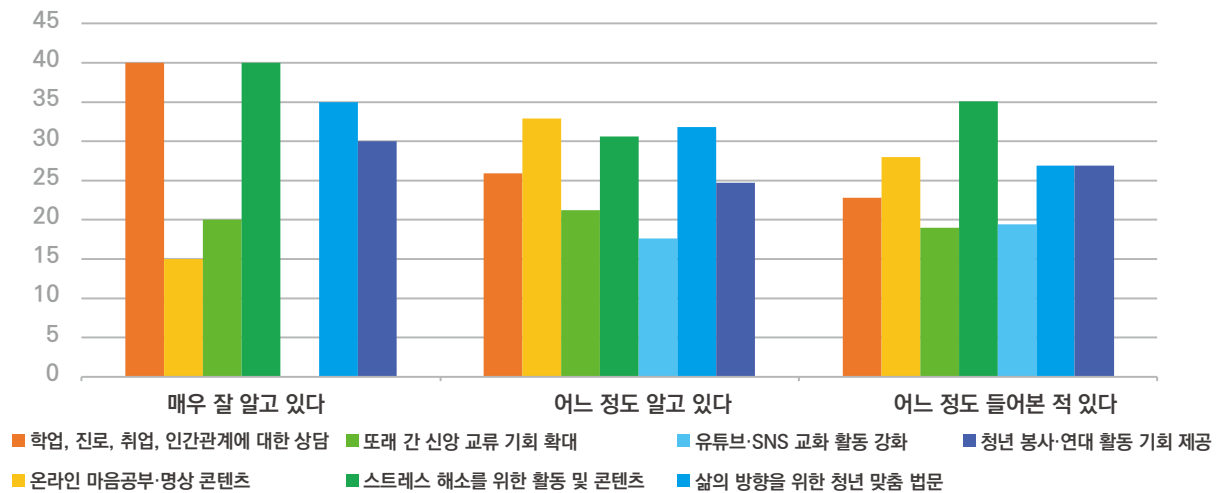
[청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학업, 진로 상담	명상 콘텐츠	또래 신앙 교류	스트레스 해소	SNS 교화 강화	청년 맞춤 법문	봉사·연대 기회 제공
서울	25.0	25.0	16.7	36.7	16.7	35.0	25.0
경기도	23.9	27.3	21.6	29.5	18.2	33.0	26.1
강원도	22.2	16.7	22.2	38.9	22.2	33.3	16.7
충청도	17.6	32.4	17.6	32.4	20.6	23.5	41.2
경상도	24.0	31.3	24.0	35.4	16.7	24.0	24.0
전라도	32.8	22.4	15.5	32.8	17.2	29.3	25.9
제주도	15.8	52.6	10.5	47.4	21.1	10.5	31.6



[청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종교]

종교	학업, 진로 상담	명상 콘텐츠	또래 신앙 교류	스트레스 해소	SNS 교화 강화	청년 맞춤 법문	봉사·연대 기회 제공
불교	23.5	39.5	23.5	32.1	19.8	27.2	17.3
개신교	25.4	25.4	20.3	32.2	20.3	30.5	23.7
천주교	24.2	18.2	24.2	39.4	15.2	36.4	27.3
원불교	30.8	15.4	23.1	38.5	15.4	46.2	7.7
종교 없음	23.7	27.4	16.7	34.9	16.7	25.8	32.8



[청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학업, 진로 상담	명상 콘텐츠	또래 신앙 교류	스트레스 해소	SNS 교화 강화	청년 맞춤 법문	봉사·연대 기회 제공
매우 잘 안다	40.0	15.0	20.0	40.0	0.0	35.0	30.0
어느 정도 안다	25.9	32.9	21.2	30.6	17.6	31.8	24.7
들어본 적 있다	22.8	28.0	19.0	35.1	19.4	26.9	26.9

문항24) 분석

‘청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을 조사(복수선택)한 결과, 현대 청년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역할은 전통적 교리 전수나 신앙 공동체 형성보다, **삶의 문제 해결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실질적 파트너로의 기능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34.3%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콘텐츠 개발”**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온라인 마음공부·명상 콘텐츠”(28.4%)와 “청년 맞춤 법문”(28.4%)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청년봉사·연대활동 기회제공”(26.5%), “학업·진로·취업, 인간관계 상담”(24.4%)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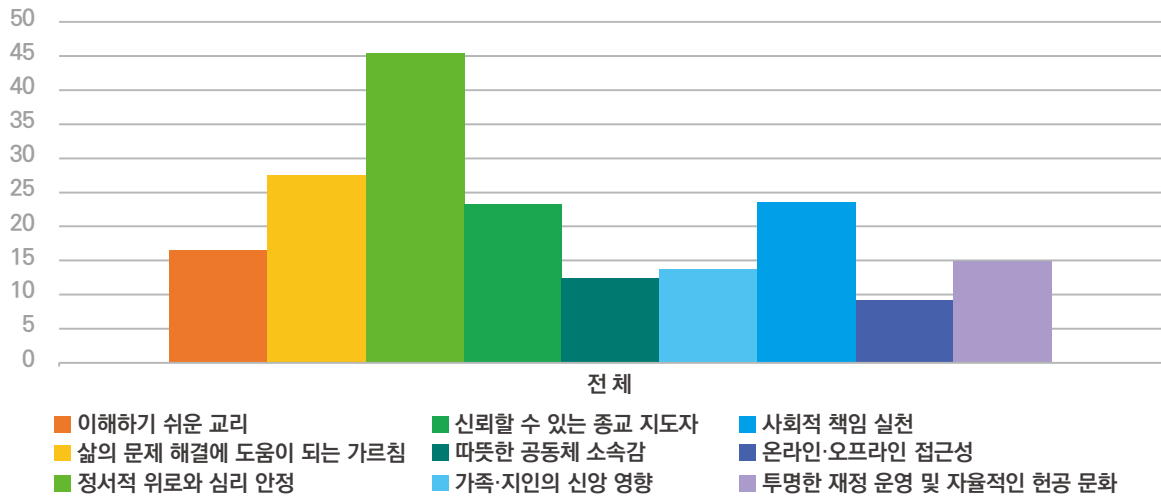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종교를 ‘**믿는 곳**’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곳**’, 즉 **심리적 치유와 현실적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는 더 이상 초월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용적 동반자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는 곧 교단의 교화 패러다임이 ‘전달과 가르침’에서 ‘지원과 동행’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충청도는 “봉사·연대 기회 제공”(41.2%)을, 제주도는 “온라인 명상 콘텐츠”(52.6%)를 선호했다. 이는 교화 전략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제주도처럼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큰 지역에서는 **디지털 교화의 절대적 필요성**, 충청도처럼 공동체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참여형 교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종교별로는 원불교 청년층이 “청년 맞춤 법문”(46.2%)을, 무종교 청년층이 “스트레스 해소”(34.9%)와 “봉사·연대 기회 제공”(32.8%)을 높게 선택하였다.

주목할 점은 청년층이 종교를 단절적 구조가 아닌 유연하고 느슨한 관계망(Networked Religion)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폐쇄적 신앙 공동체보다는 **공통의 가치(환경·공익·심리 치유 등)를 공유하는 느슨한 연대를 선호**한다. 따라서 원불교는 전통적 교당 중심 구조를 넘어, ‘소셜 네트워크형 교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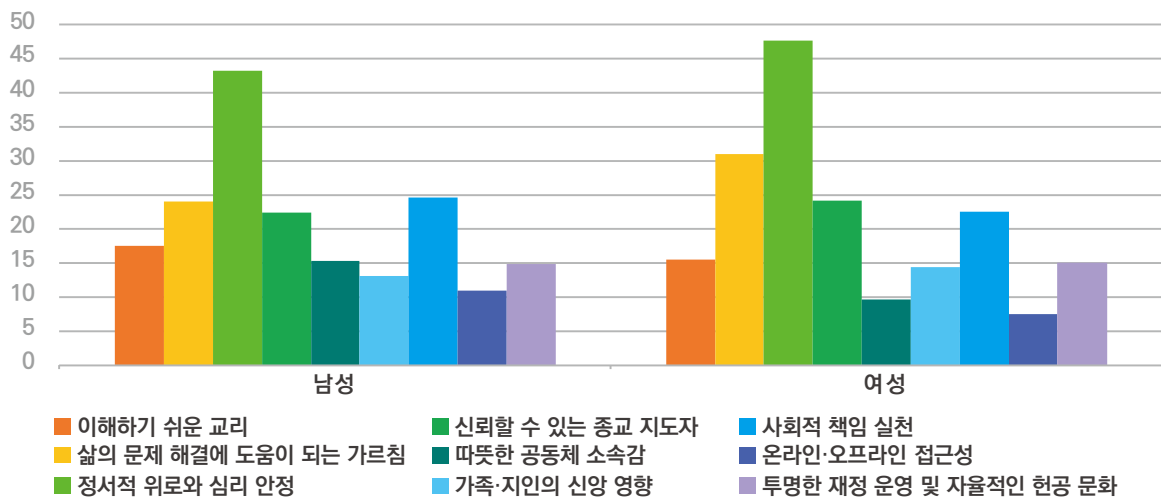
결국 이번 청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의 결과는 청년 세대가 종교에 바라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회복’이며, ‘교리’가 아니라 ‘삶의 기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종교는 **정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 주는 종교**다.

문항25) 중장년층 종교 선택 기준(복수선택) 귀하께서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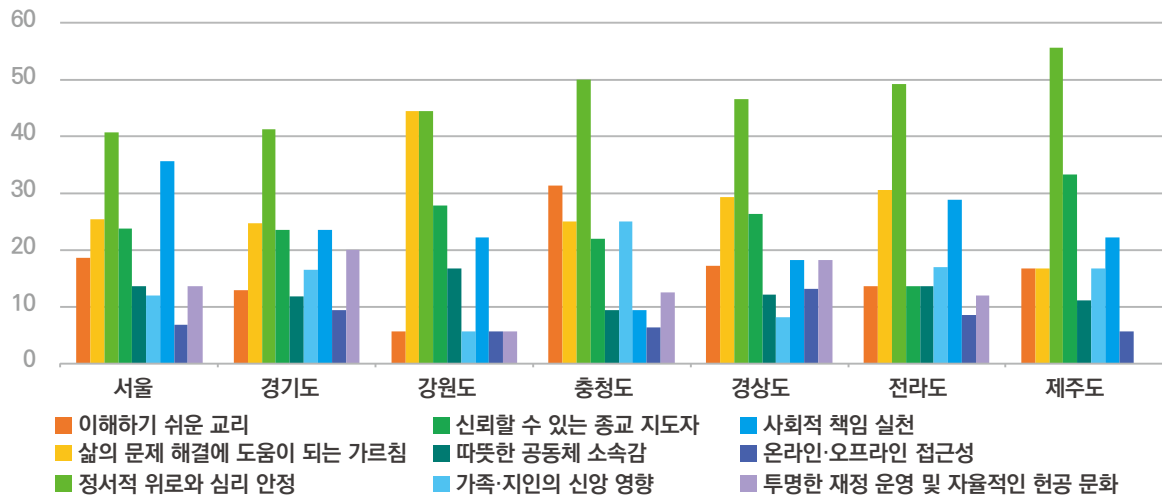
[중장년층 종교 선택 기준]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재정 운영
전체	16.5	27.6	45.4	23.2	12.4	13.8	23.5	9.2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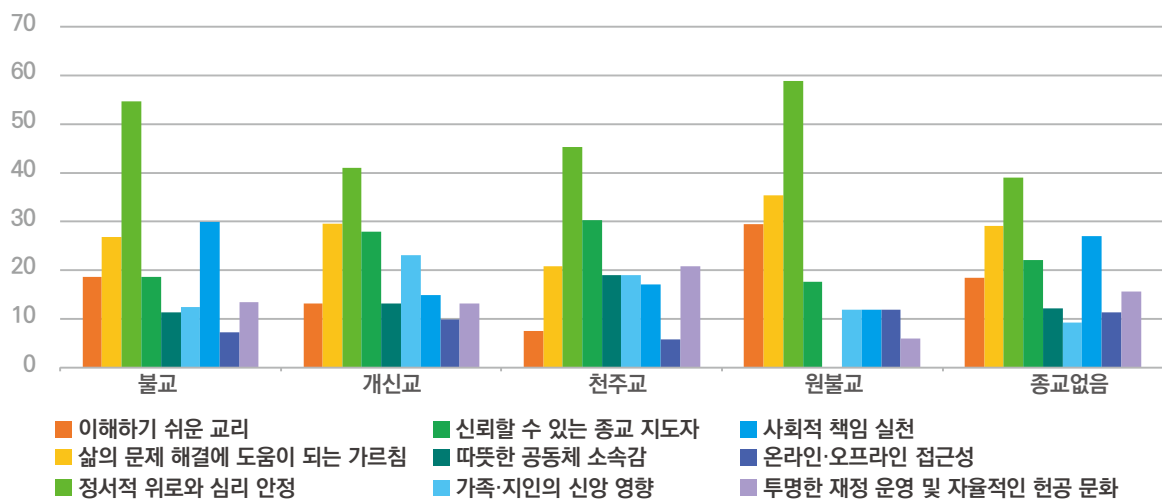
[중장년층 종교 선택 기준 - 성별]

성별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재정 운영
남성	17.5	24.0	43.2	22.4	15.3	13.1	24.6	10.9	14.8
여성	15.5	31.0	47.6	24.1	9.6	14.4	22.5	7.5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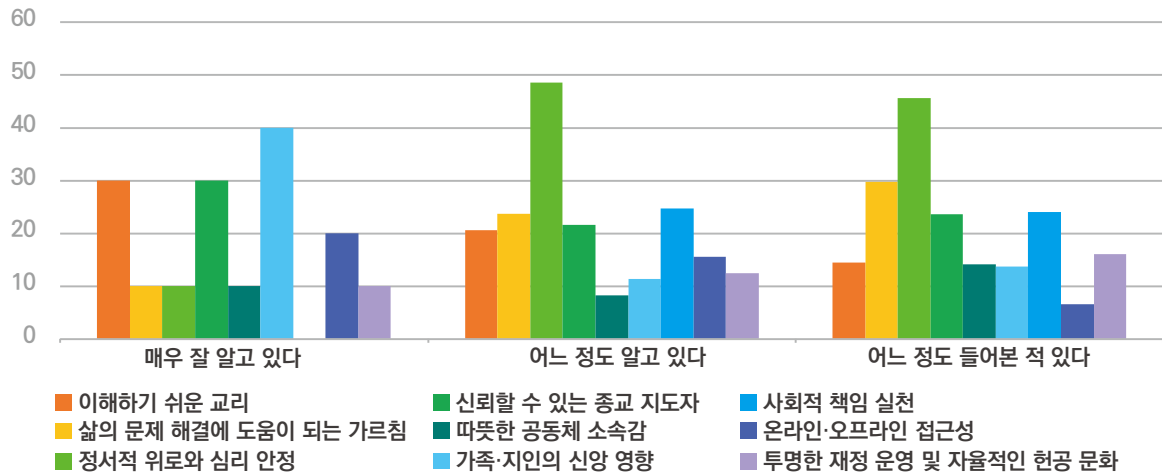
[중장년층 종교 선택 기준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재정 운영
서울	18.6	25.4	40.7	23.7	13.6	11.9	35.6	6.8	13.6
경기도	12.9	24.7	41.2	23.5	11.8	16.5	23.5	9.4	20.0
강원도	5.6	44.4	44.4	27.8	16.7	5.6	22.2	5.6	5.6
충청도	31.3	25.0	50.0	21.9	9.4	25.0	9.4	6.3	12.5
경상도	17.2	29.3	46.5	26.3	12.1	8.1	18.2	13.1	18.2
전라도	13.6	30.5	49.2	13.6	13.6	16.9	28.8	8.5	11.9
제주도	16.7	16.7	55.6	33.3	11.1	16.7	22.2	5.6	0.0



[중장년층 종교 선택 기준 - 종교]

종교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재정 운영
불교	18.6	26.8	54.6	18.6	11.3	12.4	29.9	7.2	13.4
개신교	13.1	29.5	41.0	27.9	13.1	23.0	14.8	9.8	13.1
천주교	7.5	20.8	45.3	30.2	18.9	18.9	17.0	5.7	20.8
원불교	29.4	35.3	58.8	17.6	0.0	11.8	11.8	11.8	5.9
종교 없음	18.4	29.1	39.0	22.0	12.1	9.2	27.0	11.3	15.6



[중장년층 종교 선택 기준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이해가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 심리 안정	신뢰 지도자	공동체 소속감	가족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 라인 접근	투명한 재정 운영
매우 잘 안다	30.0	10.0	10.0	30.0	10.0	40.0	0.0	20.0	10.0
어느 정도 안다	20.6	23.7	48.5	21.6	8.2	11.3	24.7	15.5	12.4
들어본 적 있다	14.4	29.7	45.6	23.6	14.1	13.7	24.0	6.5	16.0

문항25) 분석

‘중장년층이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에 대해 조사(복수선택)한 결과로, 이 세대가 종교를 바라보는 기준이 단순한 신앙이나 교리 차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실용적 가치-사회적 정당성’의 3단계 가치 필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5.4%가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을 선택해, 종교가 심리적 치유와 위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대가 가장 우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27.6%), “사회적 책임 실천”(23.5%),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23.2%)의 순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은 종교를 내면의 평온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코칭, 그리고 사회적 도덕성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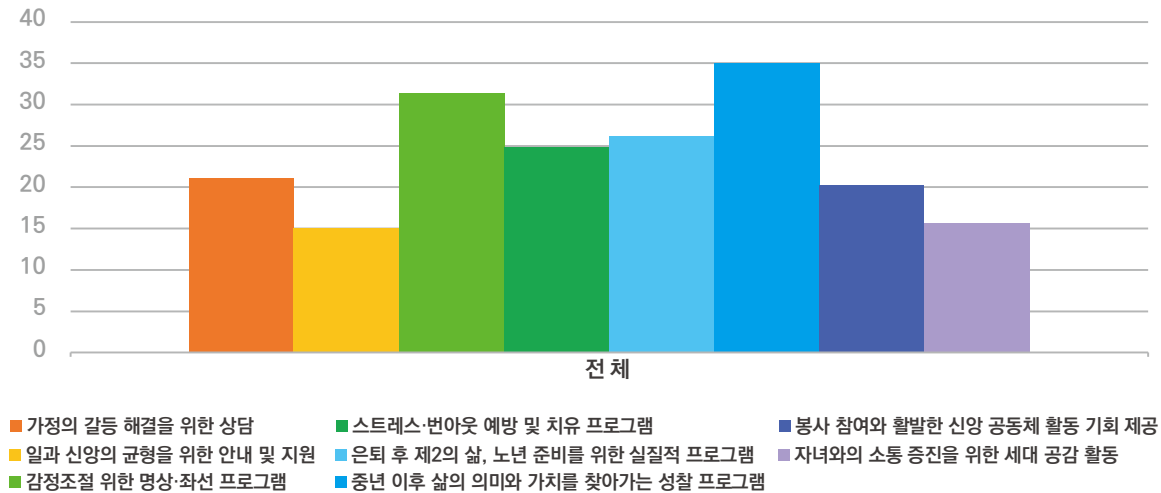
연령별로 분석하면, 40대는 “정서 심리 안정”(45.1%)과 더불어 “투명한 재정 운영”(18.7%)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성향을 드러냈다. 반면 50대는 “삶의 문제 해결”(30.3%), “사회적 책임 실천”(25.5%)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해,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실질적인 삶의 전환과 의미 추구에 대한 기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불교 신자가 “정서 심리 안정”(54.6%)과 “사회적 책임 실천”(29.9%)을 동시에 중시했으며, 원불교 신자는 “정서 심리 안정”(58.8%)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교리”(29.4%)를 높게 평가했다. 이는 원불교의 ‘생활 속 교리’와 ‘마음공부 중심 교화’가 중장년층의 핵심 종교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종교 응답자들 또한 “정서 심리 안정”(39.0%)과 “사회적 책임 실천”(27.0%)을 높은 비중으로 선택해,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종교의 사회적 기여도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종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의 결과는 종교가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삶의 파트너’로 요청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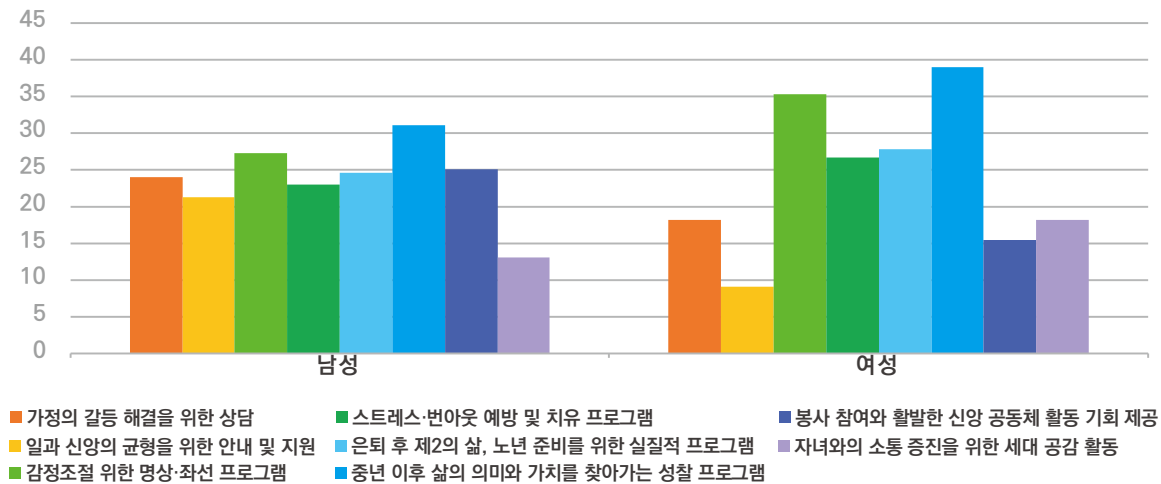
문항26)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복수선택)

귀하께서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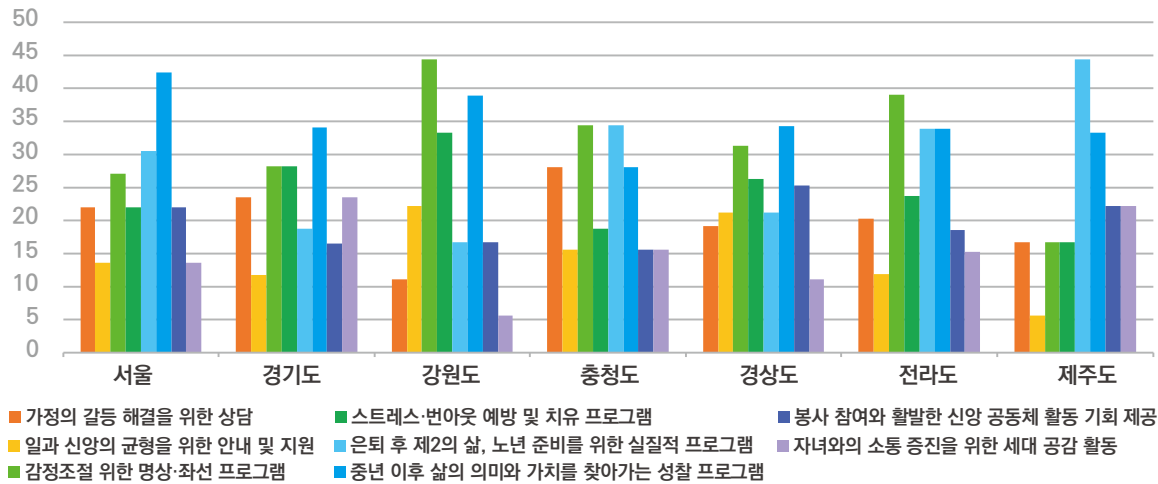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가정 상담	균형 지원	명상·좌선	치유 프로그램	노년 준비	성찰 프로그램	활동 기회 제공	세대 공감 활동
전체	21.1	15.1	31.4	24.9	26.2	35.1	20.3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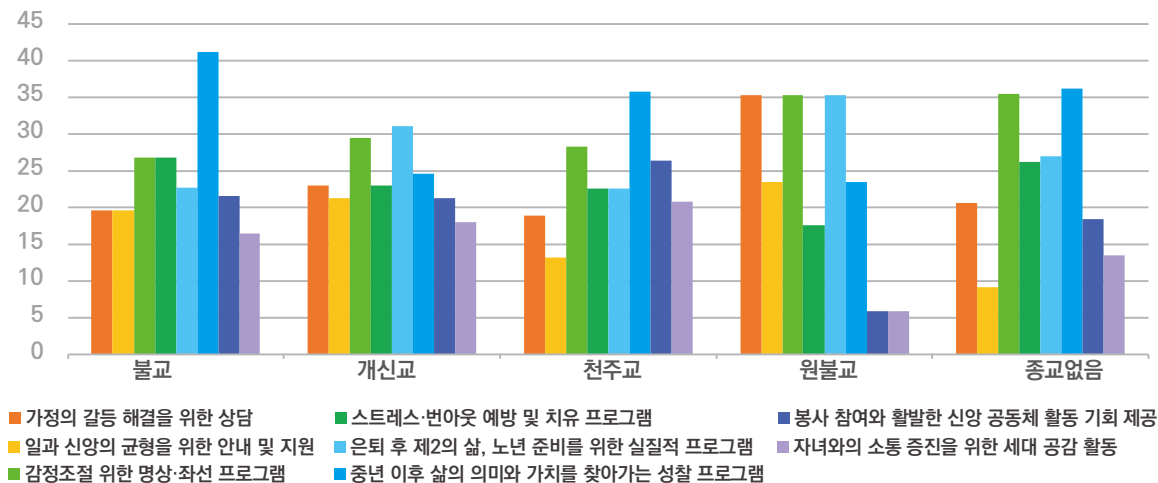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성별]

성별	가정 상담	균형 지원	명상·좌선	치유 프로그램	노년 준비	성찰 프로그램	활동 기회 제공	세대 공감 활동
남성	24.0	21.3	27.3	23.0	24.6	31.1	25.1	13.1
여성	18.2	9.1	35.3	26.7	27.8	39.0	15.5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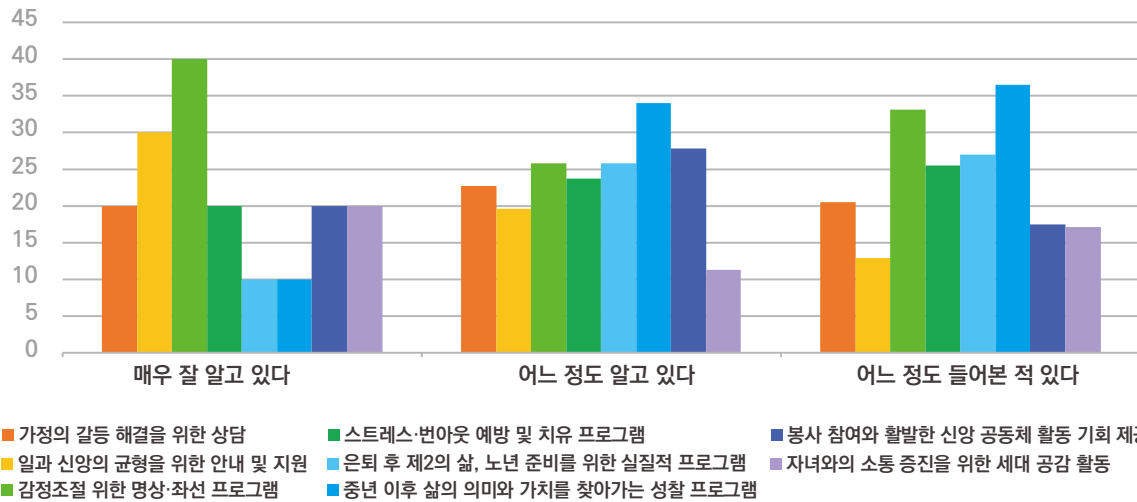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가정 상담	균형 지원	명상·좌선	치유 프로그램	노년 준비	성찰 프로그램	활동 기회 제공	세대 공감 활동
서울	22.0	13.6	27.1	22.0	30.5	42.4	22.0	13.6
경기도	23.5	11.8	28.2	28.2	18.8	34.1	16.5	23.5
강원도	11.1	22.2	44.4	33.3	16.7	38.9	16.7	5.6
충청도	28.1	15.6	34.4	18.8	34.4	28.1	15.6	15.6
경상도	19.2	21.2	31.3	26.3	21.2	34.3	25.3	11.1
전라도	20.3	11.9	39.0	23.7	33.9	33.9	18.6	15.3
제주도	16.7	5.6	16.7	16.7	44.4	33.3	22.2	22.2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종교]

종교	가정 상담	균형 지원	명상·좌선	치유 프로그램	노년 준비	성찰 프로그램	활동 기회 제공	세대 공감 활동
불교	19.6	19.6	26.8	26.8	22.7	41.2	21.6	16.5
개신교	23.0	21.3	29.5	23.0	31.1	24.6	21.3	18.0
천주교	18.9	13.2	28.3	22.6	22.6	35.8	26.4	20.8
원불교	35.3	23.5	35.3	17.6	35.3	23.5	5.9	5.9
종교 없음	20.6	9.2	35.5	26.2	27.0	36.2	18.4	13.5



[중장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가정 상담	균형 지원	명상·좌선	치유 프로그램	노년 준비	성찰 프로그램	활동 기회 제공	세대 공감 활동
매우 잘 안다	20.0	30.0	40.0	20.0	10.0	10.0	20.0	20.0
어느 정도 안다	22.7	19.6	25.8	23.7	25.8	34.0	27.8	11.3
들어본 적 있다	20.5	12.9	33.1	25.5	27.0	36.5	17.5	17.1

문항26) 분석

‘중장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조사(복수선택)한 결과, 이 세대는 종교를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닌 ‘삶의 의미를 찾고 마음을 돌보며, 현실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토탈 라이프케어(life-care)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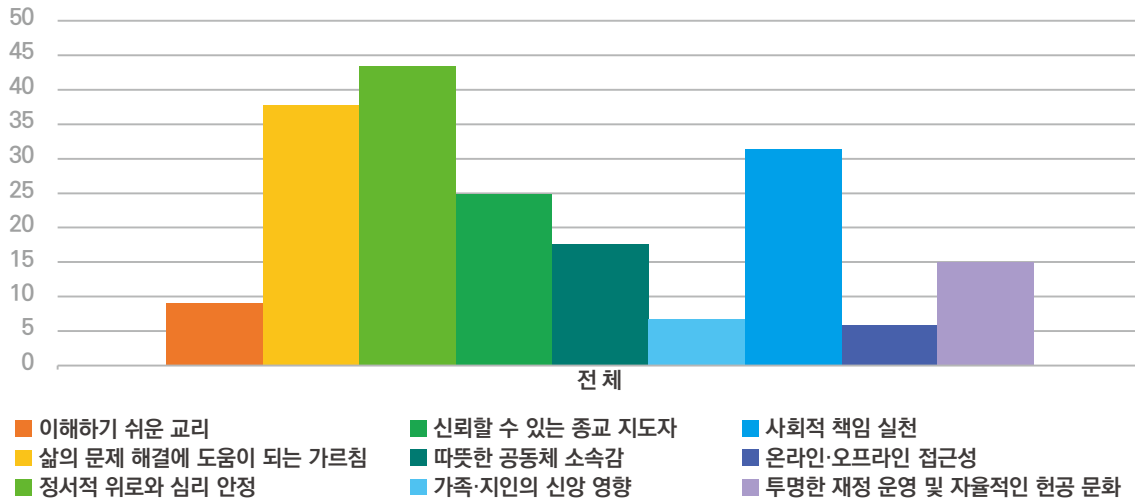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35.1%가 “중년 이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성찰 프로그램”을, 31.4%가 “감정조절을 위한 명상·좌선 프로그램”을, 26.2%가 “은퇴 후 제2의 삶 노년 준비를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24.9%가 “스트레스·번아웃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선택해, ‘의미-마음-노후-스트레스’의 4대 핵심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이 종교에 대해 교리적 가르침보다 삶의 전반을 관리·보완해주는 실질적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40대는 “치유 프로그램”(29.7%), 50대는 “성찰 프로그램”(37.8%)과 “노년 준비”(28.2%)를 중시함이 드러났다. 즉, 40대는 직장 and 가정의 압박 속에서 회복을, 50대는 생애 후반기를 대비한 방향성과 설계를 종교를 통해 찾고자 한다.

특히 원불교 신자층에서는 “가정 상담”, “명상·좌선”, “노년 준비”가 모두 35.3%로 동일하게 응답 되었고, 또한 원불교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집단은 “명상·좌선”(40.0%)과 “일과 신앙의 균형 지원”(30.0%)을 중시해, 교리를 이미 내면화한 신도층은 ‘왜’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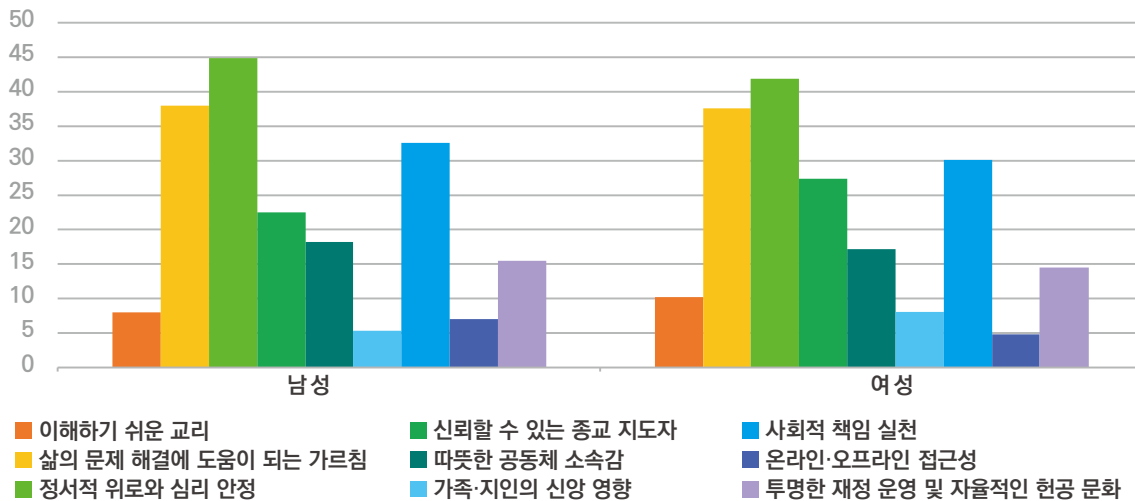
결국 이번 중장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의 결과는 중장년층이 종교를 통해 원하는 것은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삶의 통합적 회복’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신앙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천적 지혜, 공감과 치유의 경험**을 원한다.

문항27) 노년층 종교 선택 기준(복수선택) 귀하께서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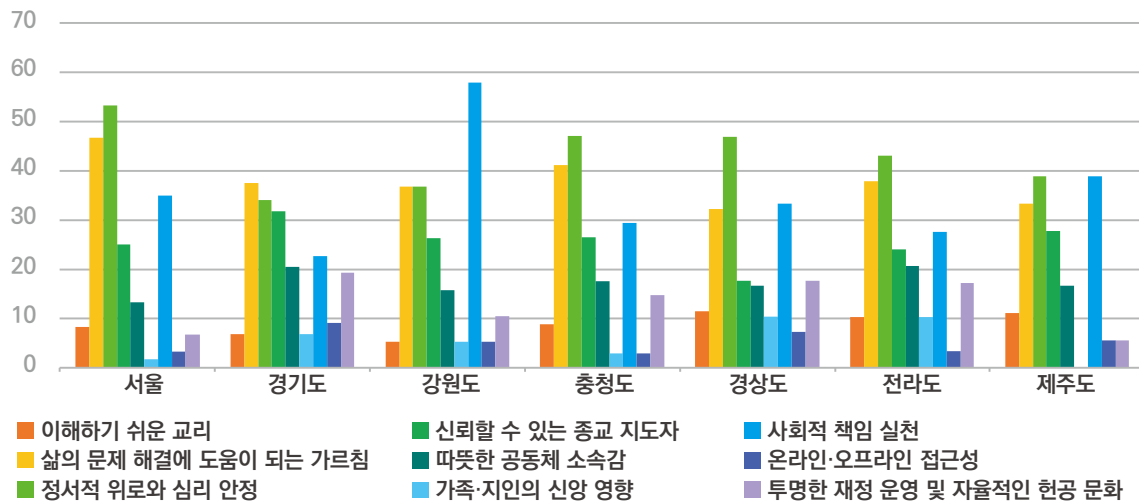
[노년층 종교 선택 기준]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 심리 안정	신뢰 지도자	공동체 소속감	가족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 라인 접근	투명한 재정 운영
전체	9.1	37.8	43.4	24.9	17.7	6.7	31.4	5.9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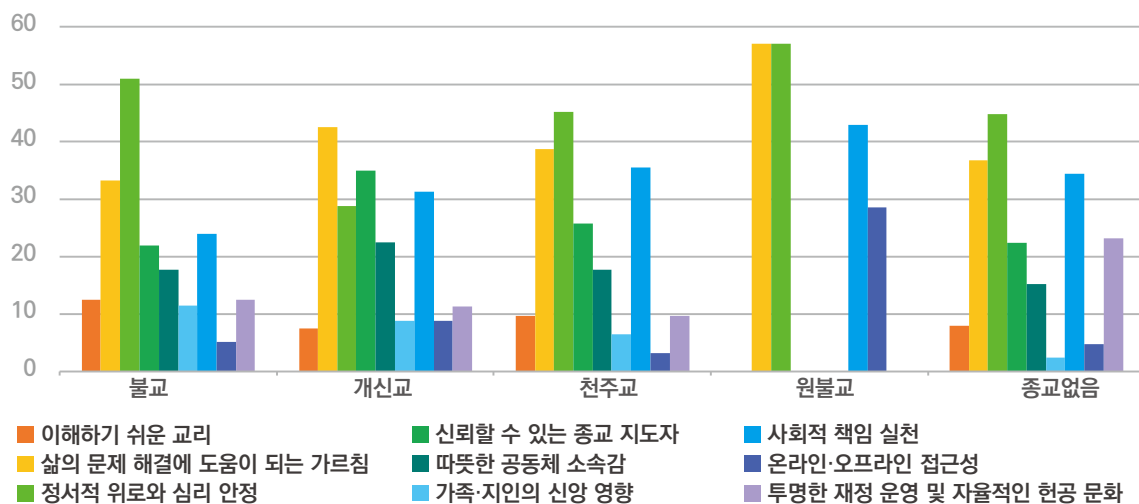
[노년층 종교 선택 기준 - 성별]

성별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 심리 안정	신뢰 지도자	공동체 소속감	가족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 라인 접근	투명한 재정 운영
남성	8.0	38.0	44.9	22.5	18.2	5.3	32.6	7.0	15.5
여성	10.2	37.6	41.9	27.4	17.2	8.1	30.1	4.8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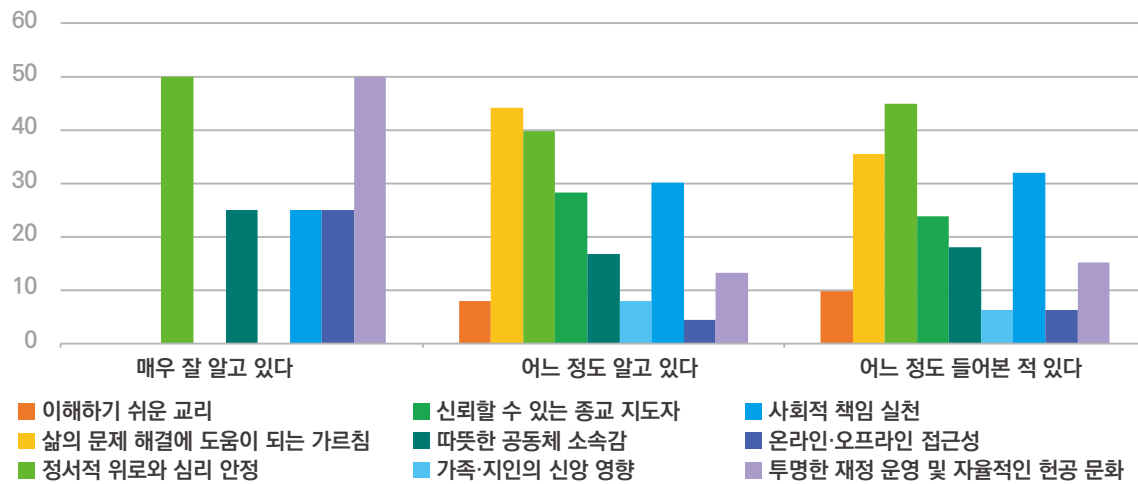
[노년층 종교 선택 기준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재정 운영
서울	8.3	46.7	53.3	25.0	13.3	1.7	35.0	3.3	6.7
경기도	6.8	37.5	34.1	31.8	20.5	6.8	22.7	9.1	19.3
강원도	5.3	36.8	36.8	26.3	15.8	5.3	57.9	5.3	10.5
충청도	8.8	41.2	47.1	26.5	17.6	2.9	29.4	2.9	14.7
경상도	11.5	32.3	46.9	17.7	16.7	10.4	33.3	7.3	17.7
전라도	10.3	37.9	43.1	24.1	20.7	10.3	27.6	3.4	17.2
제주도	11.1	33.3	38.9	27.8	16.7	0.0	38.9	5.6	5.6



[노년층 종교 선택 기준 - 종교]

종교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재정 운영
불교	12.5	33.3	51.0	21.9	17.7	11.5	24.0	5.2	12.5
개신교	7.5	42.5	28.8	35.0	22.5	8.8	31.3	8.8	11.3
천주교	9.7	38.7	45.2	25.8	17.7	6.5	35.5	3.2	9.7
원불교	0.0	57.1	57.1	0.0	0.0	0.0	42.9	28.6	0.0
종교 없음	8.0	36.8	44.8	22.4	15.2	2.4	34.4	4.8	23.2



[노년층 종교 선택 기준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이해가 쉬운 교리	삶의 문제 해결	정서 심리 안정	신뢰 지도자	공동체 소속감	가족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오프라인 접근	투명한 재정 운영
매우 잘 안다	0.0	0.0	50.0	0.0	25.0	0.0	25.0	25.0	50.0
어느 정도 안다	8.0	44.2	39.8	28.3	16.8	8.0	30.1	4.4	13.3
들어본 적 있다	9.8	35.5	44.9	23.8	18.0	6.3	32.0	6.3	15.2

문항27) 분석

‘노년층이 종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조사(복수선택)한 결과, 노년층은 종교를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지혜를 제공하며, 사회적 신뢰를 주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 응답자의 **43.4%**가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을, 37.8%가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31.4%가 “**사회적 책임 실천**”을, 24.9%가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를 선택하여, 노년층의 종교 인식은 ‘위로-실용-공익-신뢰’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이해하기 쉬운 교리”(9.1%)나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6.7%), “온·오프라인 접근성”(5.9%)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노년층이 더 이상 전통적으로 ‘물려받는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종교를 직접 선택하고 평가하는 자율적 세대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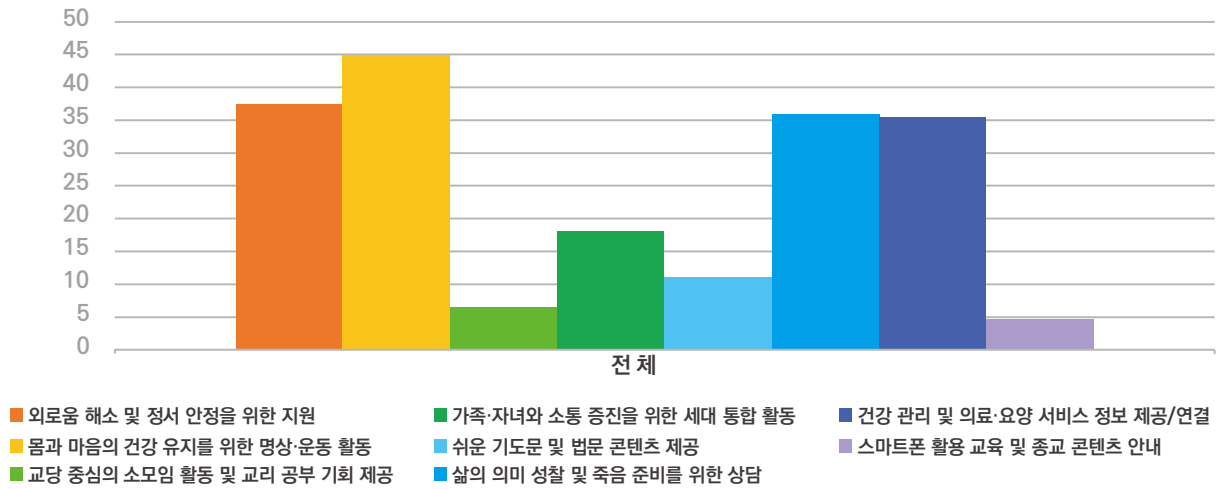
종교별로는 **불교(51.0%)와 원불교(57.1%) 신자층이 “정서 심리 안정”을 가장 많이 선택해**, 종교가 노년기 정서적 안정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개신교는 “삶의 문제 해결”(42.5%)를 중시해** 실용적 교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무종교층 또한 “정서 심리 안정”(44.8%)을 가장 중시했지만, “투명한 재정 운영”(23.2%)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신앙보다 종교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특징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서울은 “정서 심리 안정”(53.3%)과 “삶의 문제 해결”(46.7%)을 동시에 중시하였고, 강원도는 “사회적 책임 실천”(57.9%)을 1순위로 꼽아**, 지역공동체 내에서 종교의 공익적 역할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종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의 결과는 **노년층에게 종교는 더 이상 초월의 상징이 아니라, 일상의 안정과 존엄을 지켜주는 ‘마음의 파트너’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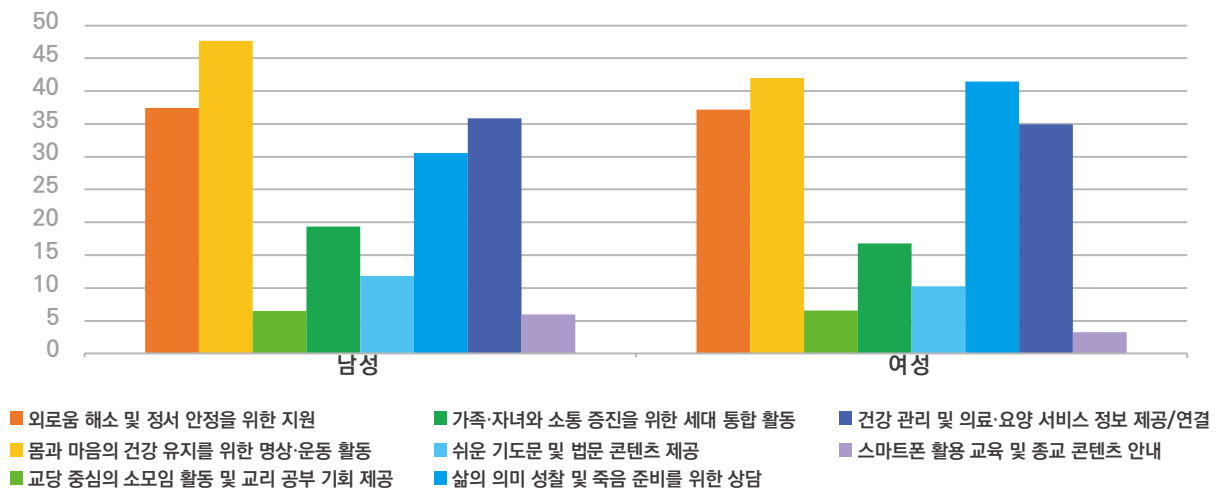
문항28) 노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복수선택)

귀하께서는 노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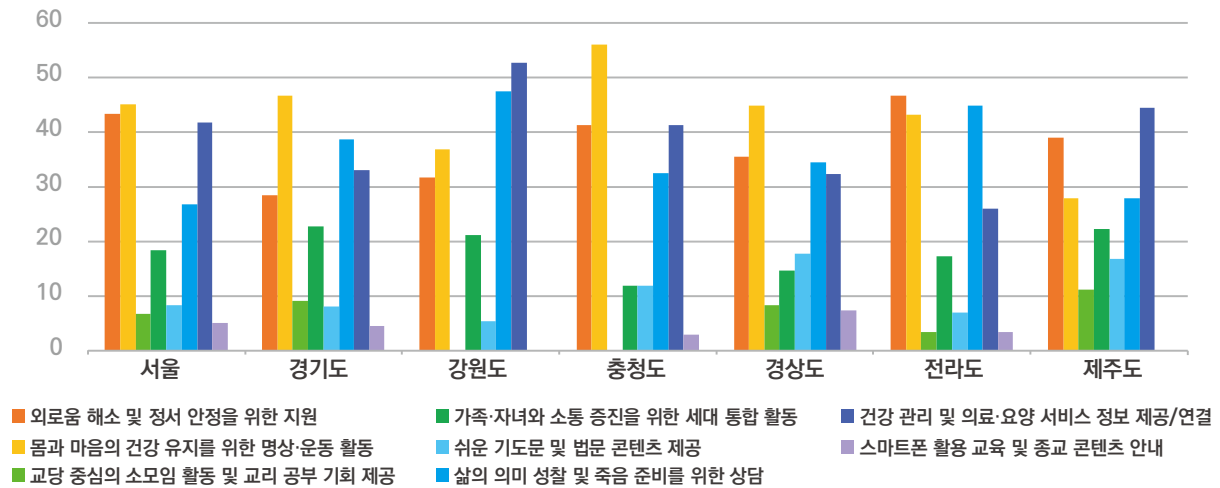
[노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정서 안정 지원	명상·운동 활동	교리 공부 기회	세대 통합 활동	법문 콘텐츠 제공	죽음 준비 상담	의료·요양 정보 제공	스마트폰 활용 교육
전체	37.3	44.8	6.4	18.0	11.0	35.9	35.4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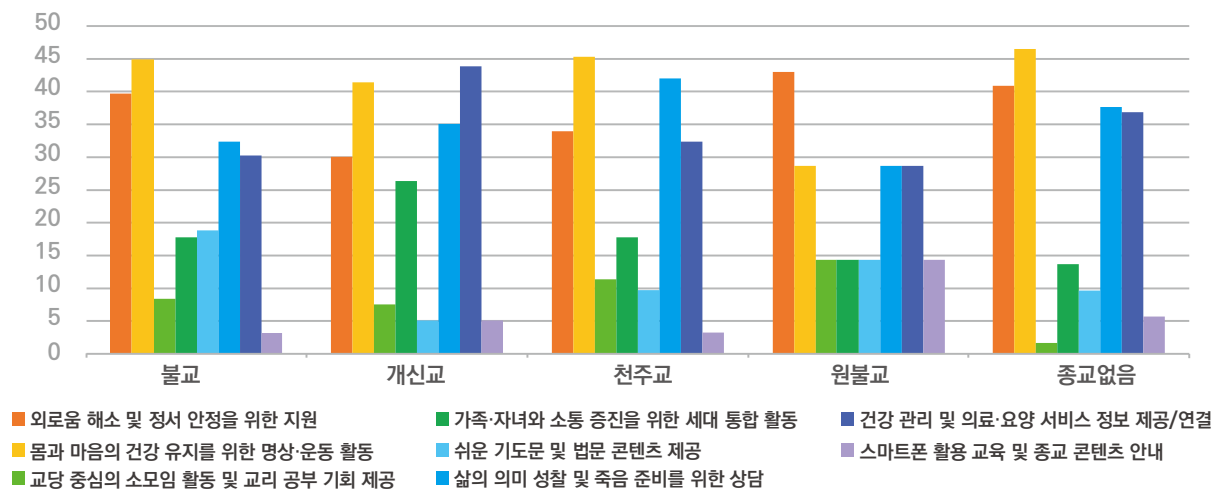
[노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성별]

성별	정서 안정 지원	명상·운동 활동	교리 공부 기회	세대 통합 활동	법문 콘텐츠 제공	죽음 준비 상담	의료·요양 정보 제공	스마트폰 활용 교육
남성	37.4	47.6	6.4	19.3	11.8	30.5	35.8	5.9
여성	37.1	41.9	6.5	16.7	10.2	41.4	34.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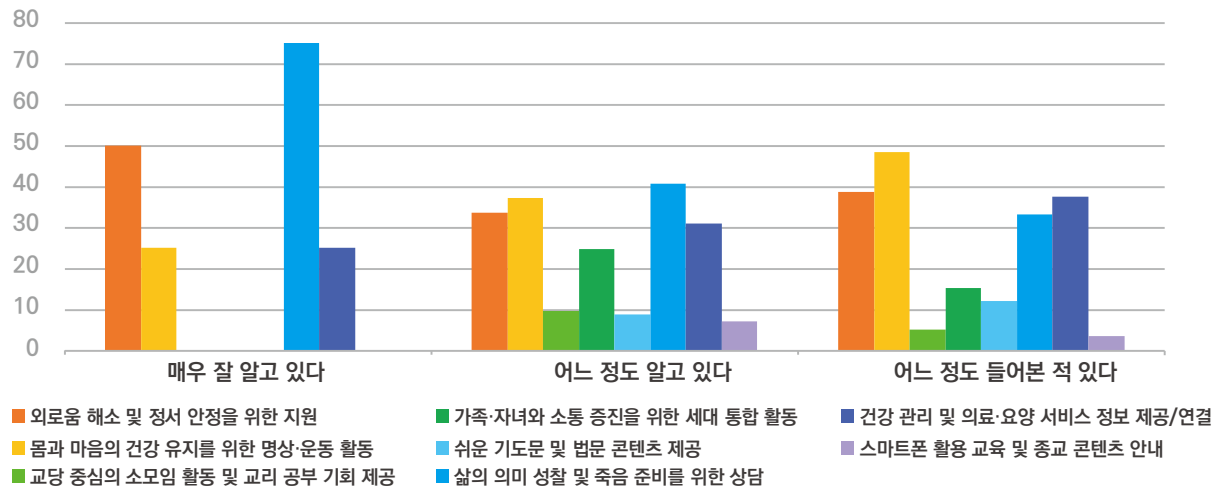
[노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정서 안정 지원	명상·운동 활동	교리 공부 기회	세대 통합 활동	법문 콘텐츠 제공	죽음 준비 상담	의료·요양 정보 제공	스마트폰 활용 교육
서울	43.3	45.0	6.7	18.3	8.3	26.7	41.7	5.0
경기도	28.4	46.6	9.1	22.7	8.0	38.6	33.0	4.5
강원도	31.6	36.8	0.0	21.1	5.3	47.4	52.6	0.0
충청도	41.2	55.9	0.0	11.8	11.8	32.4	41.2	2.9
경상도	35.4	44.8	8.3	14.6	17.7	34.4	32.3	7.3
전라도	46.6	43.1	3.4	17.2	6.9	44.8	25.9	3.4
제주도	38.9	27.8	11.1	22.2	16.7	27.8	44.4	0.0



[노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종교]

종교	정서 안정 지원	명상·운동 활동	교리 공부 기회	세대 통합 활동	법문 콘텐츠 제공	죽음 준비 상담	의료·요양 정보 제공	스마트폰 활용 교육
불교	39.6	44.8	8.3	17.7	18.8	32.3	30.2	3.1
개신교	30.0	41.3	7.5	26.3	5.0	35.0	43.8	5.0
천주교	33.9	45.2	11.3	17.7	9.7	41.9	32.3	3.2
원불교	42.9	28.6	14.3	14.3	14.3	28.6	28.6	14.3
종교 없음	40.8	46.4	1.6	13.6	9.6	37.6	36.8	5.6



[노년 세대를 위한 종교의 우선 역할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정서 안정 지원	명상·운동 활동	교리 공부 기회	세대 통합 활동	법문 콘텐츠 제공	죽음 준비 상담	의료·요양 정보 제공	스마트폰 활용 교육
매우 잘 안다	50.0	25.0	0.0	0.0	0.0	75.0	25.0	0.0
어느 정도 안다	33.6	37.2	9.7	24.8	8.8	40.7	31.0	7.1
들어본 적 있다	38.7	48.4	5.1	15.2	12.1	33.2	37.5	3.5

문항28) 분석

‘노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조사한 결과, 노년층은 종교를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후반기를 지탱해주는 심리적·생활적 돌봄의 체계**, 즉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실질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 응답자의 **44.8%**가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를 위한 명상·운동**”을, 37.3%가 “외로움 해소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을, 35.9%가 “삶의 의미 성찰과 죽음 준비”를, 35.4%가 “건강 관리 및 의료·요양 서비스 정보 제공”을 선택했으며, 노년층의 종교적 요구가 ‘**건강-정서-의미-정보**’의 **4대 축**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교당 중심의 소모임 활동 및 교리 공부 기회 제공”(6.4%)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종교 콘텐츠 안내”(4.6%) 등은 낮은 응답률을 보여, 종교를 통한 지적 학습보다 **삶의 질 개선과 정서적 돌봄에 대한 실질적 필요**가 우선됨을 보여주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불교**는 “**명상·운동 활동**”(44.8%)을 중심으로 수행형 종교의 특징을 보였고, **천주교**는 “**죽음 준비 상담**”(41.9%)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영적 성찰을 중시하였고, **개신교**는 “**의료·요양 정보 제공**”(43.8%)을 선호하였으며, 무종교층은 “명상·운동 활동”(46.4%)을 가장 높게 응답해, 종교적 교리보다는 마음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중시하는 비신앙적 건강한 삶의 종교관을 드러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정서 안정 지원”(43.3%)과 “명상·운동 활동”(45.0%)을 고르게 선택해, 도시적 스트레스와 고립을 완화하는 치유형 종교에 대한 수요가 컸다. 충청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명상·운동 활동”(55.9%)을 선택해, 건강 중심의 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전라도는 “정서 안정 지원”(46.6%)을, 강원도(52.6%)와 제주도(44.4%)는 “의료·요양 정보 제공”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해, **지역 접근성에 따른 교화 수요의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번 노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의 결과는 노년 세대가 종교에서 바라는 것은 화려한 교당이나 기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감되는 안정감과 실질적 도움이 있는 종교를 원한다.

7 사회 인식

▶ 요약 및 분석

문항29) 인류 보편 가치

문항30) 사회 갈등

문항31) 종교 인구 감소 원인

[문항29] 인류 보편 가치

현대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인류 보편 가치를 분석한 결과, 과거의 성장 중심 가치에서 ‘관계’와 ‘생존’ 중심의 가치로 거대한 전환이 포착되었다.

현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위는 “이해와 공감”(33.2%)이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정의’나 ‘자유’, ‘성공’을 앞선 결과로, 혐오와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적 피로도 속에서 대중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문화’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또한, 전쟁과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평화”(29.1%)와 “생명 존중”(29.0%)과 같은 생존 직결 가치들이 상위권에 나타났다.

세대별 특이점으로는 20대 청년층이 유독 “평등”(30.6%)을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한 기회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가 느끼는 깊은 좌절과 분노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문항30] 사회 갈등

우리 사회의 균열 지점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뚜렷한 온도차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사회·국가 차원의 이념 및 계층 갈등”(27.4%)과 “경제적 불평등”(21.9%)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와 심화되는 빈부 격차가 대중에게 가장 큰 거시적 스트레스 요인임을 보여준다.

반면, 청년층의 시선은 훨씬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을 향해 있었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세대 갈등”(20대 23.5%, 30대 18.4%)과 “개인 내면의 심리적 갈등”(20대 15.8%, 30대 17.4%)을 기성세대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년들에게 있어 갈등은 뉴스에 나오는 먼 이념 논쟁이 아니라, 직장 상사와의 불통이나 자신의 내면적 불안 같은 '내 옆의 실재하는 문제'인 것이다.

[문항31] 종교 인구 감소 원인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닌, 종교 내부의 ‘자격 상실’에 있었다.

대중은 종교를 떠나는 압도적인 1위 원인으로 “종교 지도자 및 단체에 대한 신뢰 상실”(40.5%)을 지목했다. 이는 교리가 어렵거나 과학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성직자와 교단이 도덕적으로 믿을만하지 않다.’는 뼈아픈 도덕적 파산 선고와 같다. 2위는 “개인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함”(31.7%)이었다. 취업, 주거, 마음의 병 등 대중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 문제에 대해 종교가 아무런 해답이나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무능함’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개인주의 확산”(31.1%)이라는 사회적 트렌드 역시 원인 중 하나였으나, 앞선 두 가지 내부적 요인(신뢰 상실, 무능함)보다는 비중이 낮아, 종교계의 자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사회 인식에 관한 제언

사회 인식에 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원불교의 미래 전략은 '신뢰를 회복하고(Credibility), 마음을 공감하며(Empathy), 실질적 해법을 주라(Solution)'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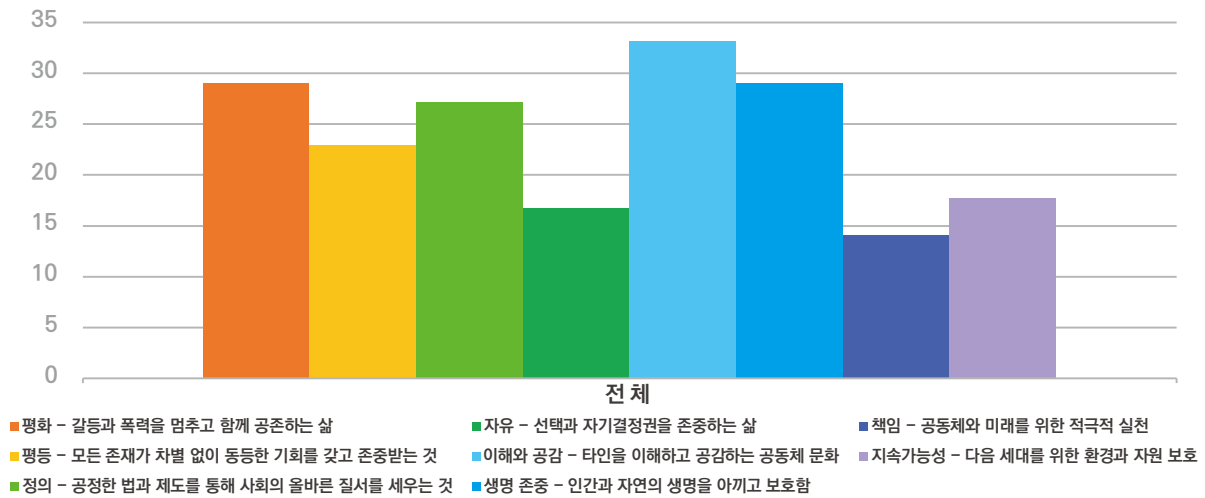
- **무너진 신뢰의 회복:** 종교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이 '도덕적 권위의 추락'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투명한 재정 공개, 성직자의 윤리성 강화, 권위주의를 탈피한 수평적 문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깨끗하고 민주적인 종교"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극단적 공감:** 시대정신인 '이해와 공감'을 선점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리고 고립된 개인들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경청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손에 잡히는 효능감:** 대상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20대에게는 '공정한 기회(장학/멘토링)'를, 중년에게는 '마음의 평화(명상)'를, 노년에게는 '건강한 돌봄(요양)'을 제공하여, 말뿐인 설교가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효능감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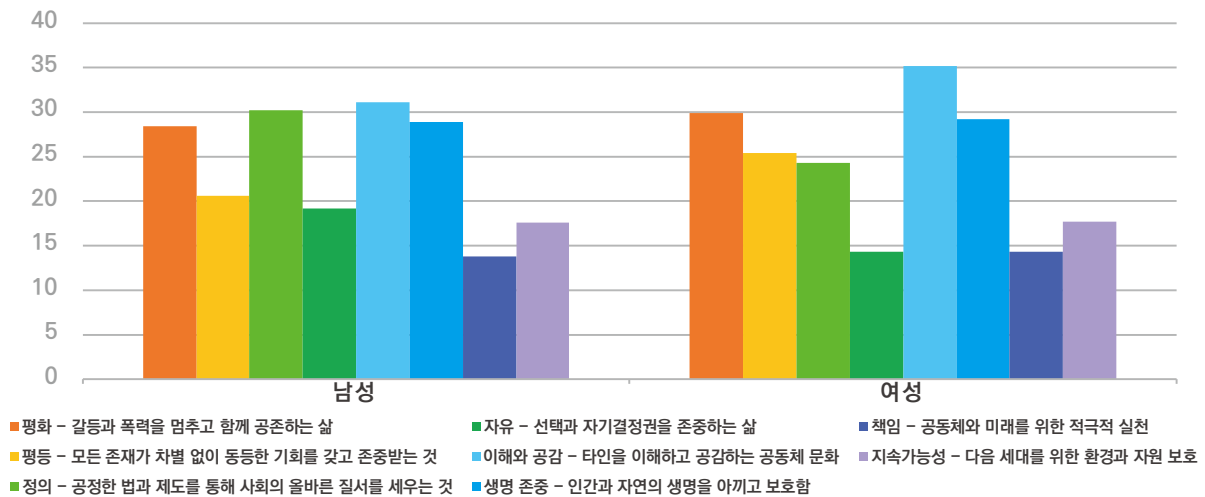
문항29) 인류 보편 가치(복수선택)

귀하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보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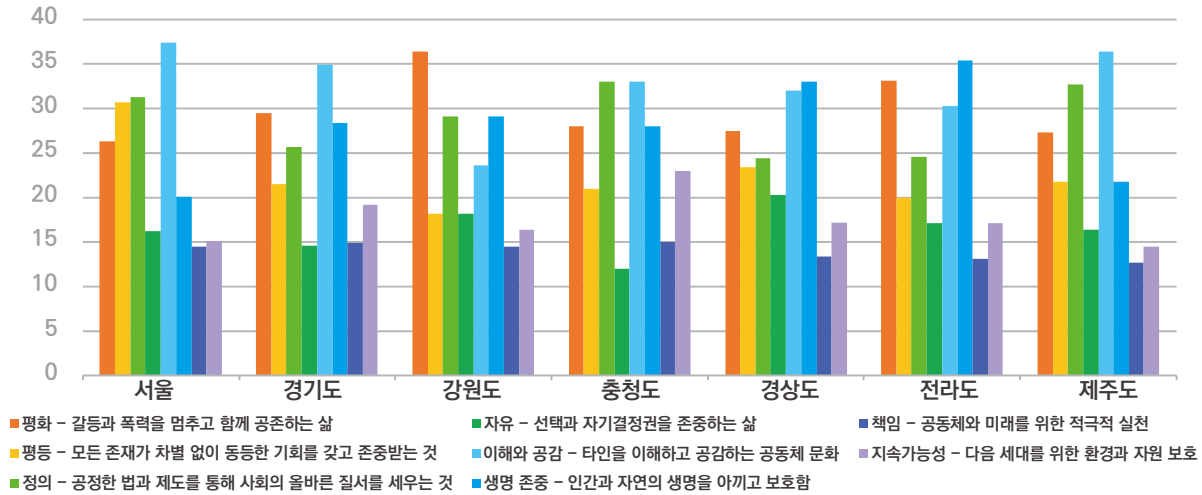
[인류 보편 가치]

	평화	평등	정의	자유	이해와 공감	생명 존중	책임	지속 가능성
전체	29.1	23.0	27.2	16.8	33.2	29.0	14.1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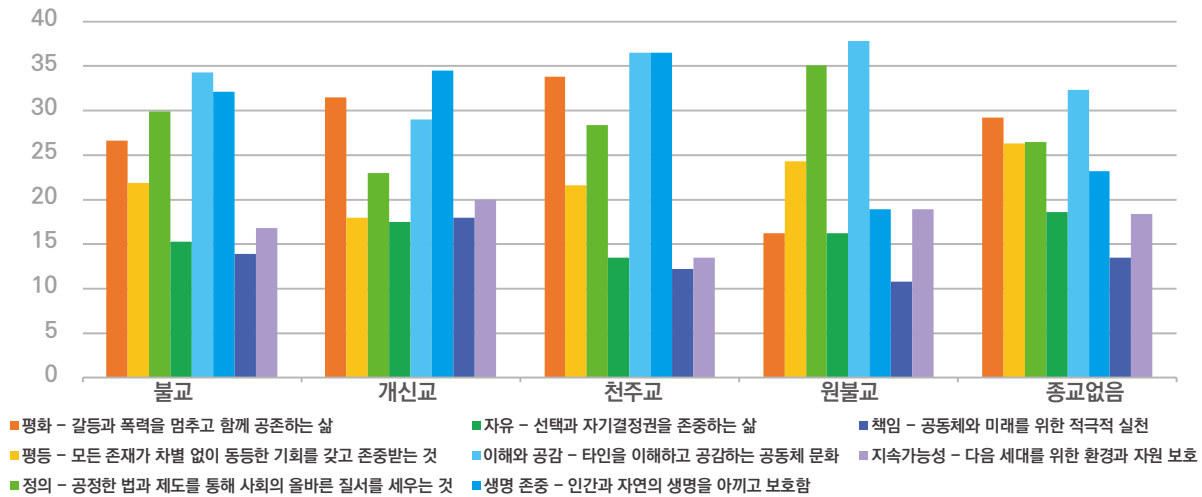
[인류 보편 가치 - 성별]

성별	평화	평등	정의	자유	이해와 공감	생명 존중	책임	지속 가능성
남성	28.4	20.6	30.2	19.2	31.1	28.9	13.8	17.6
여성	29.9	25.4	24.3	14.3	35.2	29.2	14.3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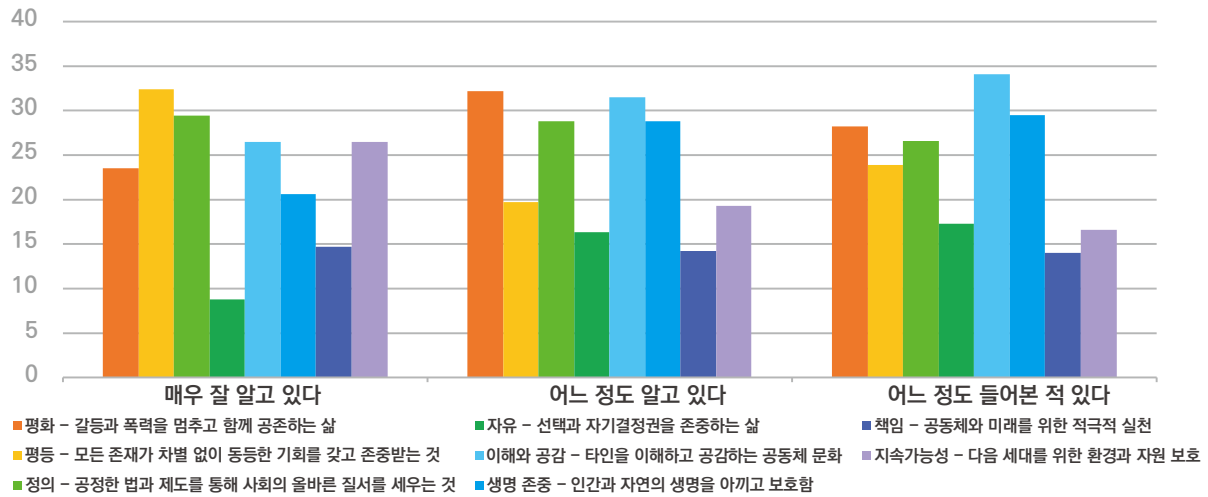
[인류 보편 가치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평화	평등	정의	자유	이해와 공감	생명 존중	책임	지속 가능성
서울	26.3	30.7	31.3	16.2	37.4	20.1	14.5	15.1
경기도	29.5	21.5	25.7	14.6	34.9	28.4	14.9	19.2
강원도	36.4	18.2	29.1	18.2	23.6	29.1	14.5	16.4
충청도	28.0	21.0	33.0	12.0	33.0	28.0	15.0	23.0
경상도	27.5	23.4	24.4	20.3	32.0	33.0	13.4	17.2
전라도	33.1	20.0	24.6	17.1	30.3	35.4	13.1	17.1
제주도	27.3	21.8	32.7	16.4	36.4	21.8	12.7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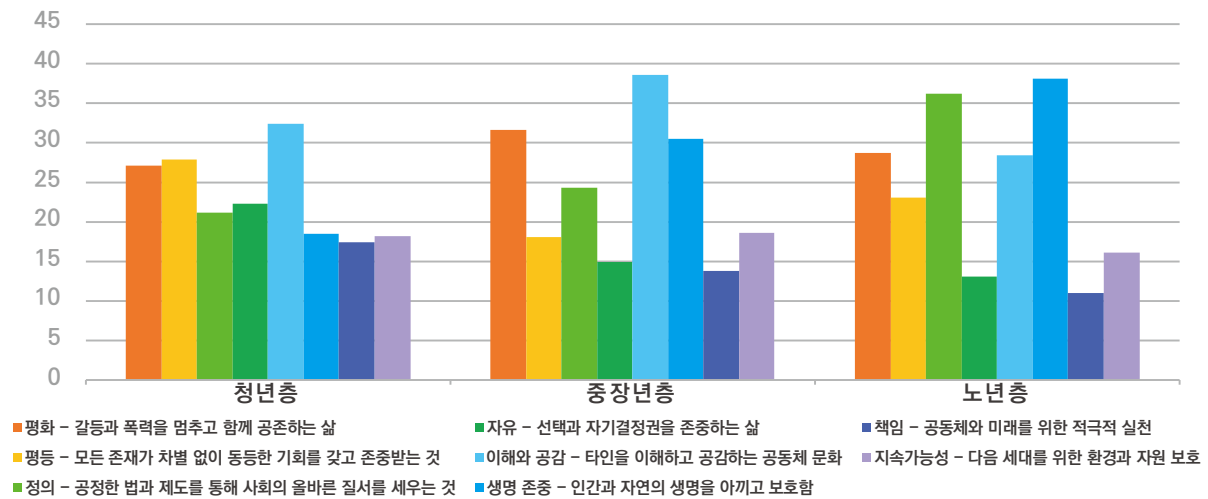
[인류 보편 가치 - 종교]

종교	평화	평등	정의	자유	이해와 공감	생명 존중	책임	지속 가능성
불교	26.6	21.9	29.9	15.3	34.3	32.1	13.9	16.8
개신교	31.5	18.0	23.0	17.5	29.0	34.5	18.0	20.0
천주교	33.8	21.6	28.4	13.5	36.5	36.5	12.2	13.5
원불교	16.2	24.3	35.1	16.2	37.8	18.9	10.8	18.9
종교 없음	29.2	26.3	26.5	18.6	32.3	23.2	13.5	18.4



[인류 보편 가치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평화	평등	정의	자유	이해와 공감	생명 존중	책임	지속가능성
매우 잘 안다	23.5	32.4	29.4	8.8	26.5	20.6	14.7	26.5
어느 정도 안다	32.2	19.7	28.8	16.3	31.5	28.8	14.2	19.3
들어본 적 있다	28.2	23.9	26.6	17.3	34.1	29.5	14.0	16.6



[인류 보편 가치 - 연령대]

연령대	평화	평등	정의	자유	이해와 공감	생명 존중	책임	지속가능성
청년층	27.1	27.9	21.2	22.3	32.4	18.5	17.4	18.2
중장년층	31.6	18.1	24.3	14.9	38.6	30.5	13.8	18.6
노년층	28.7	23.1	36.2	13.1	28.4	38.1	11.0	16.1

문항29) 분석

‘가장 중요한 인류 보편 가치’를 조사한(복수선택) 결과,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중심이 **경쟁과 성취 중심의 제도적 가치에서 관계와 공존 중심의 인간적 가치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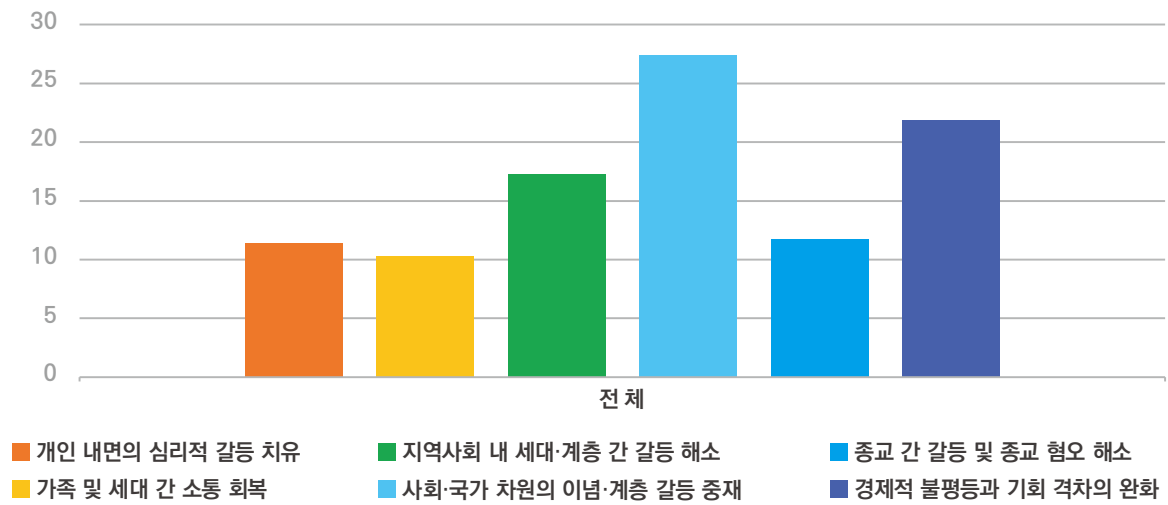
응답 결과, “**이해와 공감**”(33.2%), “**평화**”(29.1%), “**생명 존중**”(29.0%)이 상위 세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정의”(27.2%), “평등”(23.0%), “지속가능성”(17.7%)이 뒤를 이었다. 이는 현대 사회가 불안과 갈등, 불평등,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제도적 정의보다 공감·평화·생명 중심의 회복적 가치를 더 시급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인류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옳고 그름의 논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윤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19~39세)**은 “**이해와 공감**”(32.4%), “**평등**”(27.9%), “**평화**”(27.1%)를 중요하게 꼽으며, 불평등과 차별, 세대 간 불공정에 대한 감수성을 반영했다. 반면 **중장년층(40~59세)**은 “**이해와 공감**”(38.6%), “**평화**”(31.6%), “**생명 존중**”(30.5%)을 높게 선택해, 삶의 무게 속에서 조화와 치유의 가치를 더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 **노년층(60세 이상)**은 “**생명 존중**”(38.1%)과 “**정의**”(36.2%)를 중시하여, 인생의 경륜 속에서 도덕적 질서와 생명의 근본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37.4%)과 제주도(36.4%)에서는 “**이해와 공감**”이 높게 나타나 관계 회복과 공감의 가치가 중심을 이뤘고, 충청도는 “**정의**”(33.0%), 전라도는 “**생명 존중**”(35.4%)을 각각 주요 가치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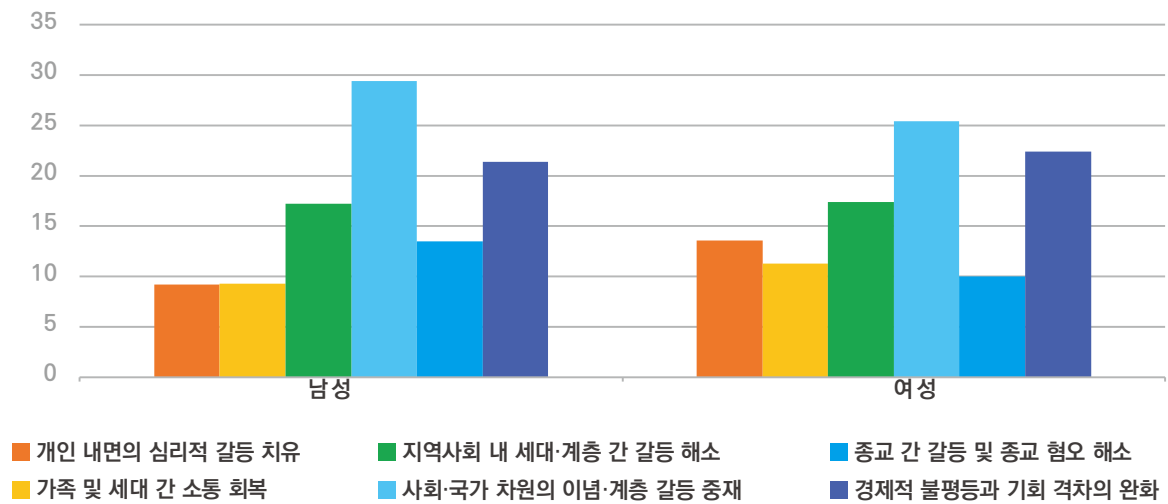
결국 이번 가장 중요한 인류 보편 가치의 결과는 인류가 다시 ‘**공감과 생명의 윤리**’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30) 사회 갈등 귀하께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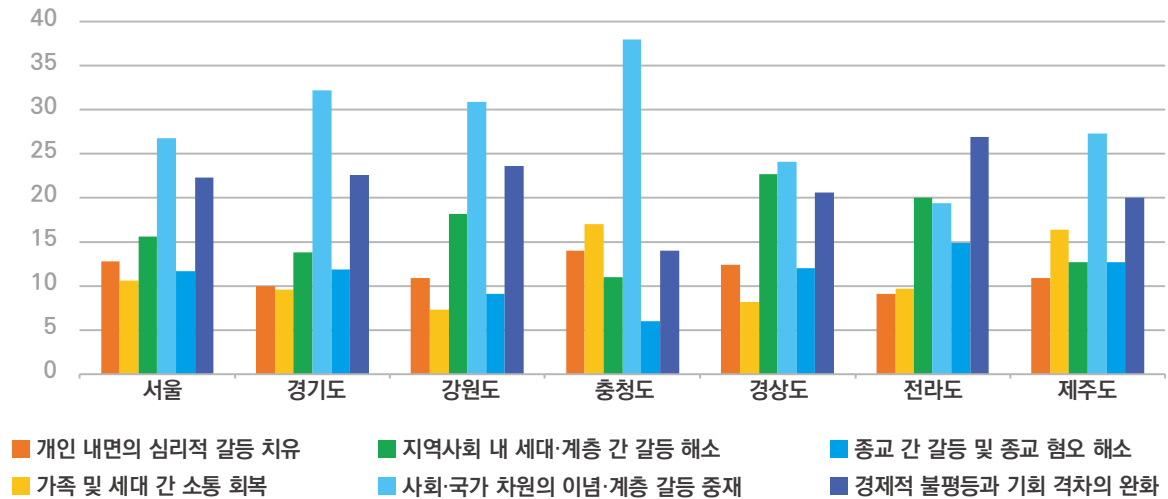
[사회 갈등]

	심리적 갈등 치유	세대 간 소통 회복	지역사회 갈등 해소	이념·계층 갈등 중재	종교 갈등 혐오 해소	경제 불평등 완화
전체	11.4	10.3	17.3	27.4	11.7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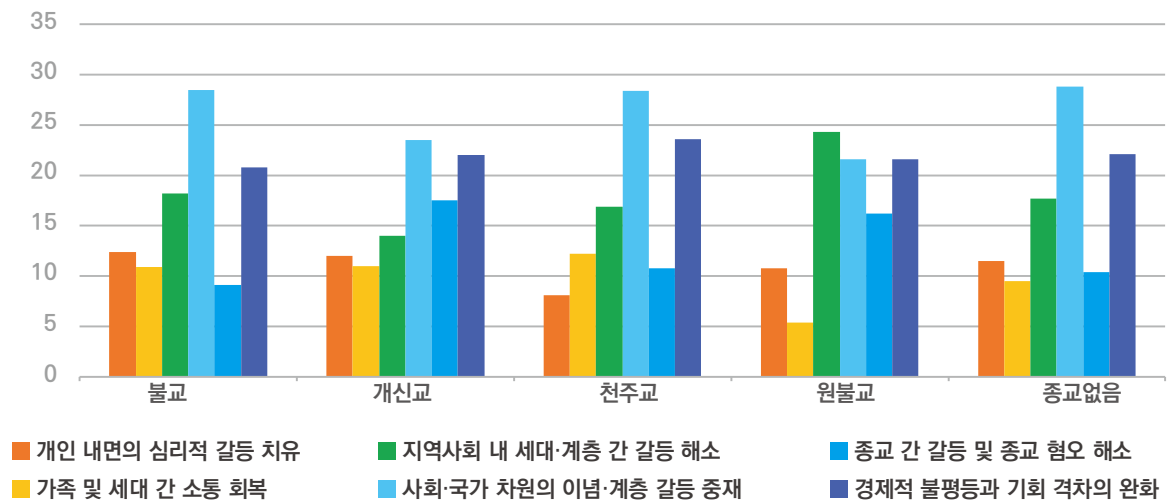
[사회 갈등 - 성별]

성별	심리적 갈등 치유	세대 간 소통 회복	지역사회 갈등 해소	이념·계층 갈등 중재	종교 갈등 혐오 해소	경제 불평등 완화
남성	9.2	9.3	17.2	29.4	13.5	21.4
여성	13.6	11.3	17.4	25.4	10.0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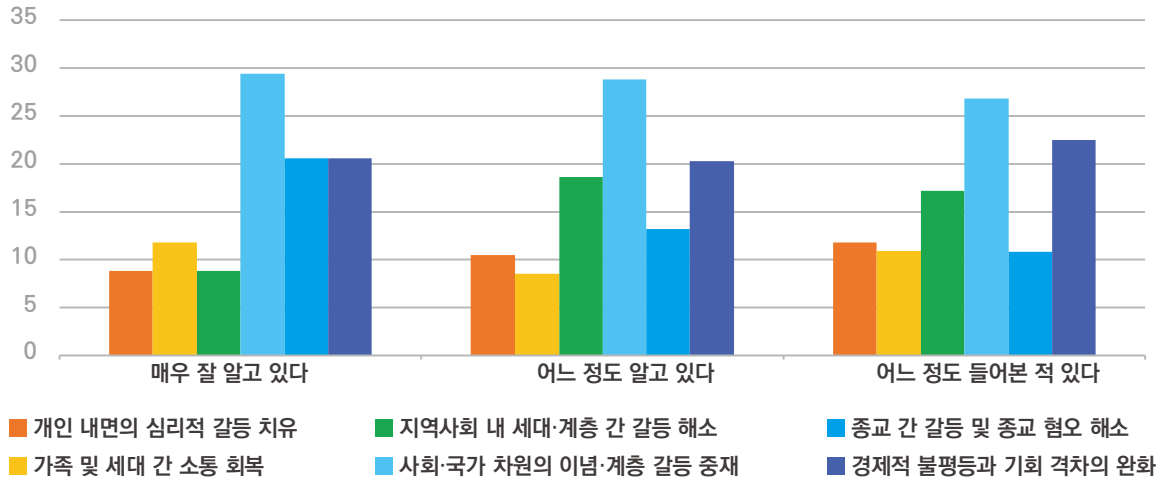
[사회 갈등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심리적 갈등 치유	세대 간 소통 회복	지역사회 갈등 해소	이념·계층 갈등 중재	종교 갈등 혐오 해소	경제 불평등 완화
서울	12.8	10.6	15.6	26.8	11.7	22.3
경기도	10.0	9.6	13.8	32.2	11.9	22.6
강원도	10.9	7.3	18.2	30.9	9.1	23.6
충청도	14.0	17.0	11.0	38.0	6.0	14.0
경상도	12.4	8.2	22.7	24.1	12.0	20.6
전라도	9.1	9.7	20.0	19.4	14.9	26.9
제주도	10.9	16.4	12.7	27.3	12.7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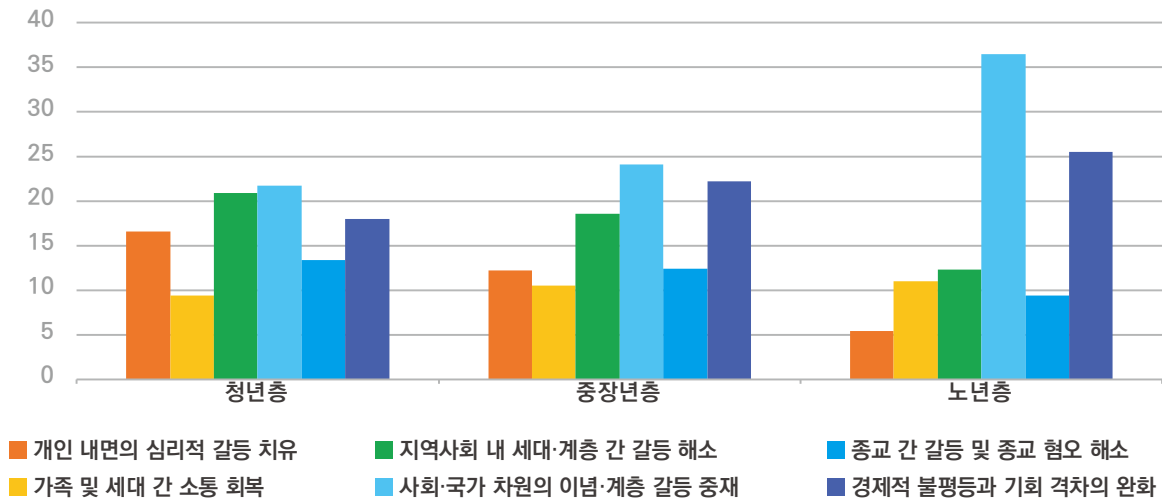
[사회 갈등 - 종교]

종교	심리적 갈등 치유	세대 간 소통 회복	지역사회 갈등 해소	이념·계층 갈등 중재	종교 갈등 혐오 해소	경제 불평등 완화
불교	12.4	10.9	18.2	28.5	9.1	20.8
개신교	12.0	11.0	14.0	23.5	17.5	22.0
천주교	8.1	12.2	16.9	28.4	10.8	23.6
원불교	10.8	5.4	24.3	21.6	16.2	21.6
종교 없음	11.5	9.5	17.7	28.8	10.4	22.1



[사회 갈등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심리적 갈등 치유	세대 간 소통 회복	지역사회 갈등 해소	이념·계층 갈등 중재	종교 갈등 혐오 해소	경제 불평등 완화
매우 잘 안다	8.8	11.8	8.8	29.4	20.6	20.6
어느 정도 안다	10.5	8.5	18.6	28.8	13.2	20.3
들어본 적 있다	11.8	10.9	17.2	26.8	10.8	22.5



[사회 갈등 - 연령대]

연령대	심리적 갈등 치유	세대 간 소통 회복	지역사회 갈등 해소	이념·계층 갈등 중재	종교 갈등 혐오 해소	경제 불평등 완화
청년층	16.6	9.4	20.9	21.7	13.4	18.0
중장년층	12.2	10.5	18.6	24.1	12.4	22.2
노년층	5.4	11.0	12.3	36.5	9.4	25.5

문항30) 분석

‘현대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 구조 갈등과 불평등의 해소’를 가장 심각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중 **27.4%가 “사회·국가 차원의 이념·계층 갈등 중재”**를, 21.9%가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 격차의 완화”를 선택했으며, 이어 “지역사회 내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17.3%), “개인 내면의 심리적 갈등 치유”(11.4%), “가족 및 세대 간 소통 회복”(10.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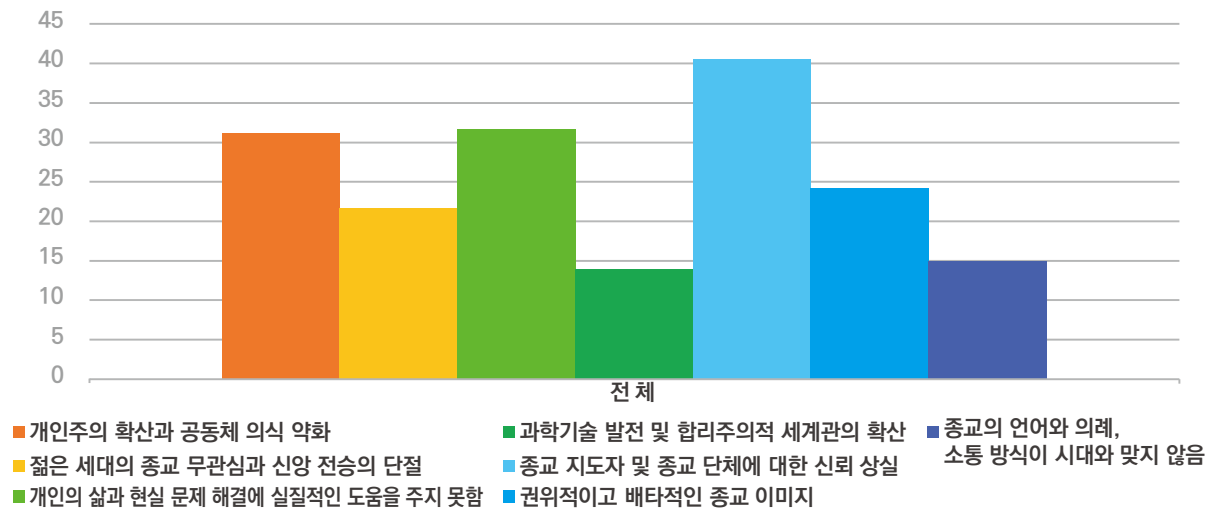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년층(60세 이상)은 “이념·계층 갈등 중재”(36.5%)를 선택했고, 청년층(19~39세)은 “이념·계층 갈등 중재”(21.7%)와 함께 “지역사회 갈등 해소”(20.9%), “심리적 갈등 치유”(16.6%)에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중장년층(40~59세)은 “이념·계층 갈등 중재”(24.1%)와 “경제 불평등 완화”(22.2%)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택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념·계층 갈등 중재”(38.0%) 응답률을 보이고, 전라도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26.9%), 경상도는 “이념·계층 갈등 중재”(24.1%)와 “지역사회 갈등 해소”(22.7%)를 높게 꼽아, 지역별로 사회적 갈등의 체감 양상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역의 정치·경제적 구조가 갈등 인식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가적 문제 해결이 곧 지역 사회의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가 구조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념과 경제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공감’과 ‘대화’라는 관계적 방식으로 풀어가길 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시스템’에서 찾고 있지만, 해법은 결국 ‘관계 회복’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선 ‘인류 보편 가치’ 조사에서 ‘이해와 공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와도 정확히 맞물린다. 즉, **냉전적 사고의 시대는 끝나고, 관계와 공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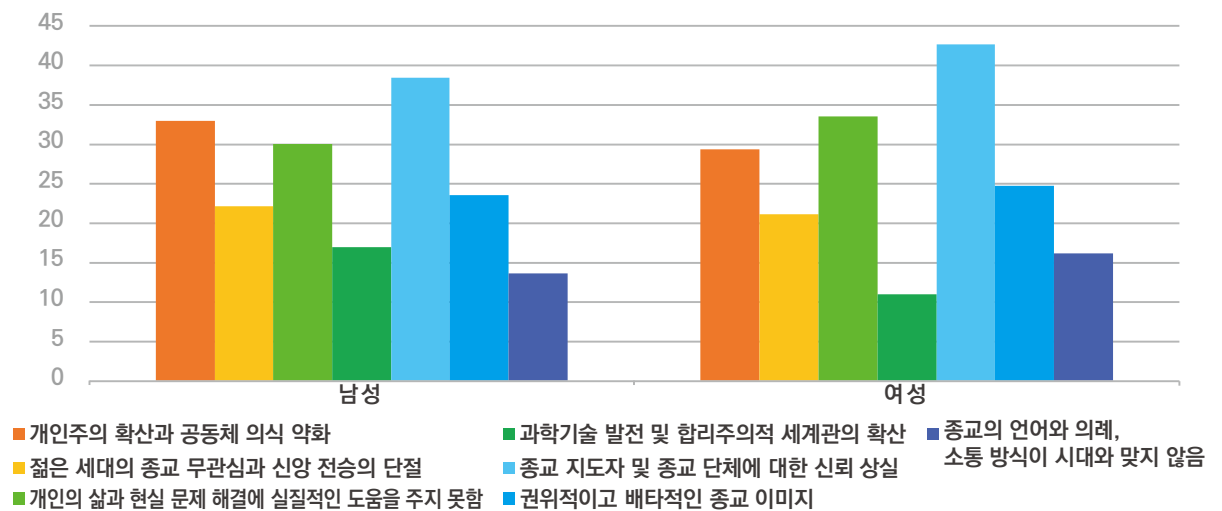
결국 한국 사회가 ‘거시적 진단’에는 피로감을 느끼지만, ‘관계적 회복’에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31) 종교 인구 감소 원인(복수선택) 귀하께서는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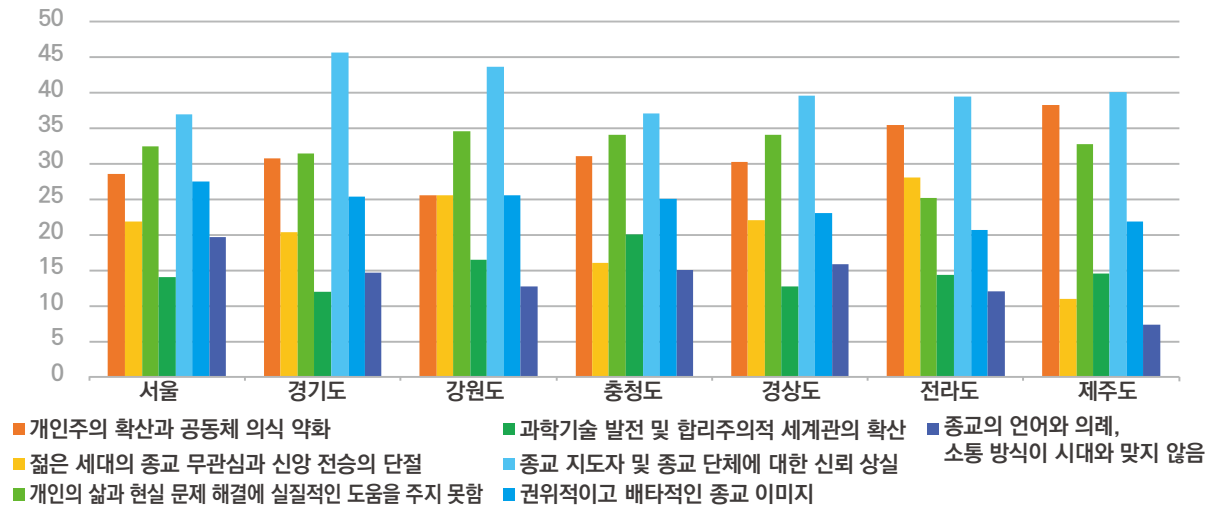
[종교 인구 감소 원인]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전체	31.1	21.6	31.7	13.9	40.5	24.1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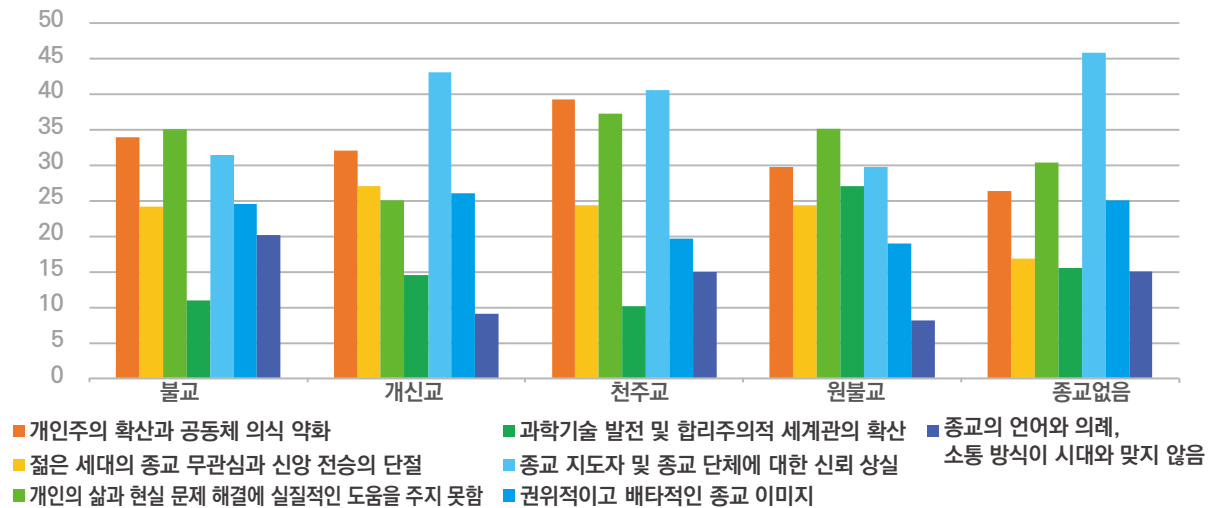
[종교 인구 감소 원인 - 성별]

성별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남성	32.9	22.1	30.0	16.9	38.4	23.5	13.6
여성	29.3	21.1	33.5	10.9	42.6	24.7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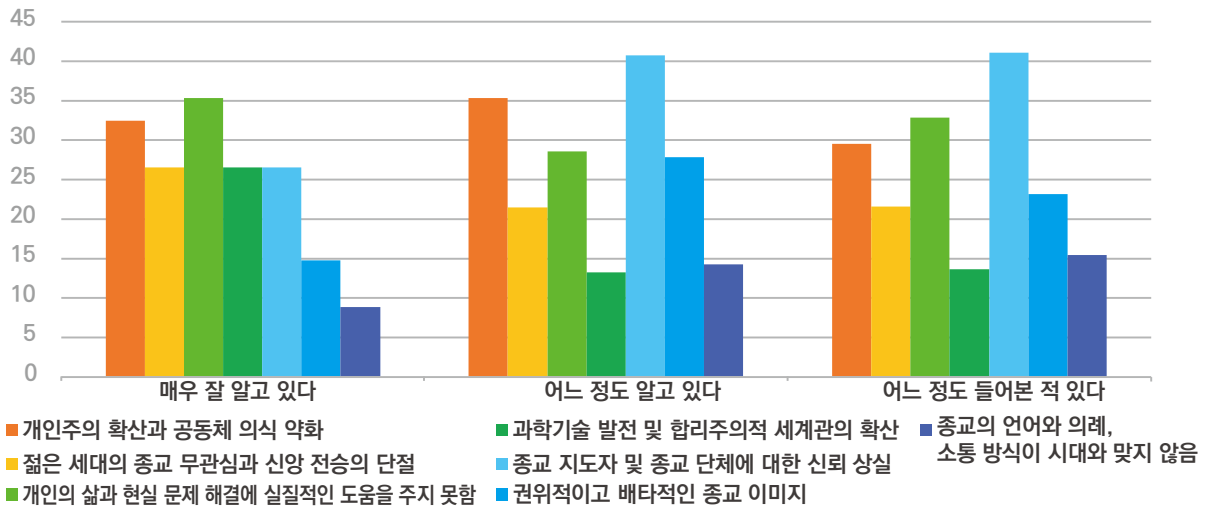
[종교 인구 감소 원인 - 거주 지역]

거주 지역	개인주의 확산과 공동체 의식 약화	젊은 세대 종교 무관심	현실 문제 도움을 주지 못함	과학기술 발전	종교 단체 신뢰 상실	배타적인 종교 이미지	종교의 언어와 의례, 소통 방식이 시대와 맞지 않음
서울	28.5	21.8	32.4	14.0	36.9	27.4	19.6
경기도	30.7	20.3	31.4	11.9	45.6	25.3	14.6
강원도	25.5	25.5	34.5	16.4	43.6	25.5	12.7
충청도	31.0	16.0	34.0	20.0	37.0	25.0	15.0
경상도	30.2	22.0	34.0	12.7	39.5	23.0	15.8
전라도	35.4	28.0	25.1	14.3	39.4	20.6	12.0
제주도	38.2	10.9	32.7	14.5	40.0	21.8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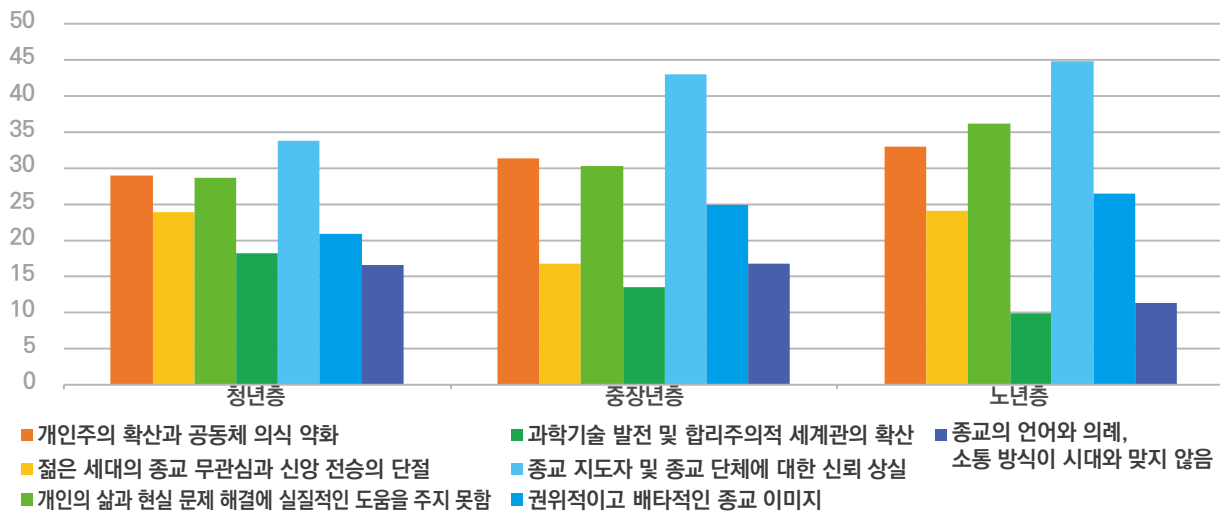
[종교 인구 감소 원인 - 종교]

종교	개인주의 확산과 공동체 의식 약화	젊은 세대 종교 무관심	현실 문제 도움을 주지 못함	과학기술 발전	종교 단체 신뢰 상실	배타적인 종교 이미지	종교의 언어와 의례, 소통 방식이 시대와 맞지 않음
불교	33.9	24.1	35.0	10.9	31.4	24.5	20.1
개신교	32.0	27.0	25.0	14.5	43.0	26.0	9.0
천주교	39.2	24.3	37.2	10.1	40.5	19.6	14.9
원불교	29.7	24.3	35.1	27.0	29.7	18.9	8.1
종교 없음	26.3	16.8	30.3	15.5	45.8	25.0	15.0



[종교 인구 감소 원인 - 원불교 인지도]

원불교 인지도	개인주의 확산과 공동체 의식 약화	젊은 세대 종교 무관심	현실 문제 도움을 주지 못함	과학기술 발전	종교 단체 신뢰 상실	배타적인 종교 이미지	종교의 언어 시대와 맞지 않음
매우 잘 안다	32.4	26.5	35.3	26.5	26.5	14.7	8.8
어느 정도 안다	35.3	21.4	28.5	13.2	40.7	27.8	14.2
들어본 적 있다	29.5	21.5	32.8	13.6	41.0	23.1	15.4



[종교 인구 감소 원인 - 연령대]

연령대	개인주의 확산과 공동체 의식 약화	젊은 세대 종교 무관심	현실 문제 도움을 주지 못함	과학기술 발전	종교 단체 신뢰 상실	배타적인 종교 이미지	종교의 언어 시대와 맞지 않음
청년층	29.0	23.9	28.7	18.2	33.8	20.9	16.6
중장년층	31.4	16.8	30.3	13.5	43.0	24.9	16.8
노년층	33.0	24.1	36.2	9.9	44.8	26.5	11.3

문항31) 분석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을 조사(복수선택)한 결과, 종교의 쇠퇴는 외부 환경이나 시대 변화 때문이 아니라, 종교 내부의 신뢰 붕괴와 현실적 효용성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40.5%**가 “**종교 지도자 및 단체에 대한 신뢰 상실**”을, 31.7%가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꼽았으며, 31.1%는 “**개인주의 확산과 공동체 의식 약화**”를 선택하였다.

이는 종교계 내부의 도덕적 일탈, 재정 불투명, 권위주의적 운영 등은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종교가 개인의 현실적 문제(관계, 경제, 건강, 불안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효용성마저 상실하였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노년층(60세 이상)은 “종교 단체 신뢰 상실”(44.8%)과 “현실 문제 도움을 주지 못함”(36.2%)을 높게 꼽았고, 중장년층(40~59세) 역시 “종교 단체 신뢰 상실”(43.0%)이 1위였으며, 청년층(19~39세)은 “종교 단체 신뢰 상실”(33.8%)과 “현실 문제 도움을 주지 못함”(28.7%) 외에도 “젊은 세대의 종교 무관심”(23.9%)과 “배타적인 종교 이미지”(20.9%)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종교 단체 신뢰 상실”(43.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불교는 “현실 문제 도움을 주지 못함”(35.0%)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무종교층은 “종교 단체 신뢰 상실”(45.8%)을 압도적으로 선택하며,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사람과 조직의 문제’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반면 원불교는 “현실 문제 도움을 주지 못함”(35.1%)과 “개인주의 확산과 공동체 의식 약화”(29.7%)를 주요 요인으로 꼽아, 종교의 실용성과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이번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의 결과는 종교 인구 감소의 본질이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붕괴’, 즉 신뢰의 상실과 현실성의 결여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8 종합 결론 및 제언

1. 3대 핵심 과제 진단

1) 신뢰와 효용성의 위기

종교 인구 감소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종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 즉 '내부의 실패'에 있다. 가장 큰 원인인 “종교 지도자 및 단체에 대한 신뢰 상실”(40.5%)과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31.7%)은 원불교가 ‘신뢰의 위기’와 ‘효용성의 위기’라는 두 개의 근본적 문제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권위적인 가르침보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여 신뢰와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2) 대중과의 소통 미흡

원불교는 대중과의 소통에 장벽이 있음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46.6%가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로 오인하였는바, 원불교가 고유 정체성 전달에 실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원불교의 사회활동에 대해 과반수(51.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브랜딩과 홍보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원불교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원불교에 대한 긍정적 인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대중의 ‘무관심’이 ‘반감’이 아님을 보여주며,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최우선 투자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

3) 세대별 요구와 기존 접근법의 불일치

획일적인 접근 방식은 각 세대의 상이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야기한다.

청년층(19~39세)은 ‘정서적 위로’와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해결책을, 중장년층(40~59세)은 삶의 전환기에 놓여 ‘인생 2막을 위한 성찰 프로그램’ 등 삶의 의미 탐색을, 노년층(60세 이상)은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 및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돌봄(Care)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메시지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청년에게는 ‘힐링 스테이션’으로, 중장년에게는 ‘인생의 파트너’로, 노년에게는 ‘몸·마음 통합돌봄센터’로 다가가는 ‘세대별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이다.

2. 새로운 비전과 원칙

1) 비전 제안 : 마음공부 확산을 통한 정신개벽

마음공부의 확산은 개인의 스트레스·갈등·우울감 등 현대적 고충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원불교는 마음공부를 통해 개인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동시에,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공적 영성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개인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훈련·상시훈련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마음의 안정·영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돕는 대중적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체계적 훈련은 개인의 내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정서적 건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사은 사상과 사요 실천을 생활 속에 보편화하여 사은 보은으로 평화의 세상을 이루고, 사요 실천으로 평등 세상을 이루도록 한다. 감사 보은을 생활화하고 사요를 실천함으로써 이해와 공감, 평화와 평등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여 사회통합의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는 물질문명으로 병들어 가는 세상을 마음공부 확산을 통해 치유함으로써 정신개벽을 이루자는 것이다.

2)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추진 원칙

첫째, 종교에서 '삶의 해법'으로 전환

교리 중심의 전통적 종교 역할에 머물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관계 개선·마음 건강·삶의 회복 등 현대인이 직면한 구체적 문제 해결을 제공하는 '실천적 삶의 해법 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대중이 종교에서 기대하는 기능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교당 중심에서 생활 거점으로 확장

대중의 종교 접근 방식은 '교당 방문'보다 '디지털 콘텐츠와 체험 기반 이용'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교당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일상 속 명상 체험·생활 기반 커뮤니티 등으로 활동 무대를 확장해야 한다. 교당은 단일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하나의 체험 네트워크'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셋째, 일방적 선포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변화

신뢰 상실의 핵심 원인인 권위주의·불통 구조에서 벗어나, 열린 정보 공개·경청 기반의 소통·참여형 운영을 통해 사회와 수평적으로 교류하는 '파트너십 종교'를 지향해야 한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듣고 공감하는 공동체'이다.

3. 3대 핵심 정책 제안 - '마음공부'를 핵심 브랜드로 전면화

1) 신뢰받는 종교로의 전환 - 공공성 강화와 마음공부 중심 브랜딩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원불교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체계화해 각인시키는 것'이다.

분산된 사회공헌 활동을 단일 브랜드 아래 통합하고,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해 '원불교 =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명확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원불교의 핵심 역량인 마음공부를 개인 삶의 문제 해결과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기본 가치로 삼아, '교당은 마음공부 체험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2) 세대의 삶에 응답하다 -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

획일적 프로그램을 넘어, 각 세대가 당면한 삶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세대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 청년층(19~39세)

- 스트레스 완화 중심의 '짧고 실용적인 명상 콘텐츠'
- 20대를 위한 진로·취업 멘토링
- 30대를 위한 온라인 기반 마음공부 프로그램
- 청년의 삶을 직접적으로 돕는 '체감되는 효용성'을 제공

• 중장년층(40~59세)

- 40대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말 쉼 명상 스테이'
- 50대 은퇴 준비를 위한 '노후 설계·삶의 의미 성찰' 과정
- 중장년에게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학교' 역할 수행

• 노년층(60세 이상)

- 교당을 '명상·운동·건강관리'가 결합 된 통합 돌봄 공간으로 활용
- 외로움 해소 커뮤니티, 지역 의료·복지 정보 연계
- '몸·마음 통합돌봄센터' 구축으로 종합 돌봄 제공

3) 디지털로 경계를 허물다 - 일상에서 만나는 마음공부 생태계

디지털 공간은 새로운 시대의 교화 중심지이다.

대중의 선호를 반영한 이중 콘텐츠 전략(Dual Track)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감성·체험 기반 숏폼 콘텐츠이다. 짧고 실용적이며 공감 가능한 콘텐츠로 진입 장벽을 낮춘다.

두 번째는 해법 중심의 지혜 콘텐츠이다. 교리를 현대인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재구성 하여 깊이 있는 신뢰를 만든다.

또한, 디지털 명상 경험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교당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도록 온·오프라인 연계형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마음공부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형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요컨대, 원기 110년 사회여론조사는 원불교가 직면한 신뢰의 위기, 소통의 단절, 세대별 요구 불일치라는 핵심 과제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마음공부 확산을 통한 정신개혁'이라는 대비전을 제시하고, △마음공부 브랜딩 △세대별 맞춤 지원체계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 정책들의 성공적인 실행을 통해 원불교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각 세대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지하며,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신뢰받는 사회의 동반자'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새로운 역할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다.

III 별첨

1 설문지 문항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안내

반갑습니다. 원불교 정책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은 원불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지도 및 이미지, 특징, 가치 및 실천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파악하고, 원불교의 사회적 역할 및 영향력을 점검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종교 선택/유지 동기 및 세대별 특성을 분석하며, 미래 방향성 제언 및 타 종교 관계 인식을 파악하는 등, **원불교와 한국 사회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불교의 교화 전략 수립, 사회적 역할 수행 강화,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귀하의 소중한 답변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B01 문항인 '원불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질문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중 하나를 선택하신 응답자분들께만 설문이 계속 이어 집니다. 이는 원불교에 대해 최소한의 인지도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설문 개요

- 대상: 일반 국민(세대별 구분), B01문항 응답 기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이상인 응답자만 유효표본으로 간주
- 방식: 온라인 설문 (구조화된 객관식 및 복수응답식 문항 중심)

//PART A. 인구통계//

A01.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년 [1900 to 2025]

[로직 : 나이 자동 코딩, 나이 계산: 2024-A01 응답값]

[로직: 연령대 자동 코딩]

0. 18세 이하 -> 면접 중단

1. 19세~24세

2. 25세~29세

3. 30세~34세

4. 35세~39세

5. 40세~44세

6. 45세~49세

7. 50세~54세

8. 55세~59세

9. 60세 이상

A0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A0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경기도(인천광역시 포함)
3. 강원도
4. 충청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5.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포함)
6. 전라도(광주광역시 포함)
7. 제주도

A0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불교
2. 개신교
3. 천주교
4. 원불교
5. 종교 없음
6. 기타()

A05. 귀하의 가족(부모 또는 직계 가족)이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1. 불교
2. 개신교
3. 천주교
4. 원불교
5. 종교 없음 [중복선택불가]
6. 기타()

//PART B. 인지도 & 호감도//

B01. 귀하께서는 원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4.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 면접 중단
5. 전혀 들어본 적 없다 -> 면접 중단

B02. 귀하께서는 어떻게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1. 원불교 행사 참석
2. 원불교 기관 방문
3. 가족, 지인소개
4. 유튜브, 블로그, 포털 등 인터넷 검색
5. TV, 라디오, 신문 등 방송매체

B03. 귀하께서는 원불교에 대해 알게 된 후,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1. 매우 긍정적인 인상
2. 다소 긍정적인 인상
3. 특별한 인상이 없었다
4. 다소 부정적인 인상
5. 매우 부정적인 인상

B04. 귀하께서 느끼시는 원불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개방적이고 따뜻하다
2. 다소 개방적인 편이다
3. 다소 폐쇄적인 편이다
4.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

B05. 귀하께서 느끼시기에 원불교의 교리나 내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2.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3. 다소 어렵고 생소한 편이다
4. 매우 어렵고 낯설다

B06. 귀하께서는 '원불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참신하고 현대적인 새 종교다
2. 불교의 한 종파다
3. 생활 중심의 수행 종교다

4. 민족 전통과 연결된 민족종교다
5. 신뢰가는 종교는 아니다

B07. 귀하께서 원불교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원불교 교리와 이념
2. 원불교의 종교의식(법회, 천도재)
3. 마음공부, 좌선 등 수행 프로그램
4. 청소년·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5. 사회봉사 활동 참여

//PART C. 이미지 & 핵심가치//

C01. 귀하께서는 '원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복수][maxrank : 2]**

1. 일원상(등그라미 상징)
2. 원불교 교당
3. 원불교 성직자 복장
4. 원불교 관련기관 (원광어린이집, 원광대학교, 원불교 육군훈련소, 복지기관 등)
5. 원불교 마음공부, 좌선 등 수행 프로그램
6. 현대적인 새불교
7.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C02. 귀하께서 '원불교'하면 떠오르는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

1. 일원상(하나로 연결된 진리)
2. 정신개벽
3. 마음공부
4. 은혜 (감사, 보은)
5. 기타 ()

C03. 귀하께서는 원불교를 어떤 경로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복수][maxrank : 2]**

1. 교당 방문 (법회, 마음공부 등 직접 참여)
2. 명상·좌선 체험(수행 프로그램 참가)
3. SNS(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4. 유튜브, 팟캐스트 등 영상, 오디오 콘텐츠
5. 도서, 잡지, 원불교 관련 서적
6.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
7. 사회봉사 활동

//PART D. 사회적 역할 & 영향력//

D01. 귀하께서는 원불교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 사회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 일부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3. 기성종교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
4.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잘 모르겠다

D02. 귀하께서 아래 활동 가운데 '원불교'가 주관(또는 깊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랜덤 제시]**

1. '원불교 봉공회' 국내외 재난 긴급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원불교 교당 및 기관' 국가적 비극에 대한 추모의식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3. 소성리 사드반대 평화운동
4. '세계봉공재단' 대학생, 청년 해외봉사활동
5. '원불교환경연대' 햇빛발전소 건립과 탈핵운동
6. 생명존중 자살예방 '다시살림' 캠페인
7. 저출생대응 '다붓다붓' 캠페인
8. '밋마인드(meet mind)' 명상 컨퍼런스
9. '심심풀이' 인성교육
10.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ICCGC)' 주최
11. 잘 모르겠다**[랜덤 고정][중복 선택 불가]**

D03. 귀하께서는 원불교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했으면 하십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 2]

1.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먼저 실천
2.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환경 보전 활동
4. 국내외 갈등 완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중재자 역할
5.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생명 과학 기술의 윤리적 방향 제시
6. 삶의 지혜와 정신적 안정에 기여하는 영성 지도 역할
7.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
8. 기타()

//PART E. 종교 콘텐츠 이용 스타일 (디지털 콘텐츠 중심으로)//

E01. 귀하께서는 디지털 종교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다
2. 자주 이용하고 있다
3. 가끔 이용하고 있다
4.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5. 전혀 이용해 본 적 없다

E02. 귀하께서는 종교 콘텐츠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1. 교리 해설, 경전 강의
2. 명상·좌선, 기도문 낭독 등 체험형 콘텐츠
3. 종교 인물 인터뷰, 간증, 체험담
4. 감성적 메시지나 위로를 주는 영상
5. 실시간 상담과 Q&A로 소통

E03. 귀하께서는 온라인 또는 디지털 종교 콘텐츠(예: 유튜브 법문, AI 기도문, 메타버스 예배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전통 방식도 병행되어야 한다
3. 중립이다 -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4.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종교는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본다
5.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종교 본질과 어긋난다고 본다

E04. 귀하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화 활동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유튜브 교리 강의·수행 안내
2. SNS 감성 콘텐츠(카드뉴스·영상)
3. 온라인 명상·좌선 체험
4. AI 신앙상담·기도문 생성
5. 메타버스 교당·가상 교화 공간
6.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이브리드)

//PART F. 세대별 문항 (청년 대상: 19~39세)//

F01. 귀하께서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 2][랜덤 제시]**

1. 이해하기 쉬운 교리
2.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3.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4.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5.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6.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7. 사회적 책임 실천
8.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
9.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자율적인 헌공 문화

F02. 귀하께서는 청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 2][랜덤 제시]**

1. 학업, 진로, 취업,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
2. 온라인 마음공부·명상 콘텐츠
3. 또래 간 신앙 교류 기회 확대
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콘텐츠
5. 유튜브·SNS 교화 활동 강화
6. 삶의 방향을 위한 청년 맞춤 법문
7. 청년 봉사·연대 활동 기회 제공

//PART G. 세대별 문항 (중장년 대상: 40~59세)//

G01. 귀하께서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 2][랜덤 제시]**

1. 이해하기 쉬운 교리
2.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3.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4.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5.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6.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7. 사회적 책임 실천
8.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
9.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자율적인 헌공 문화

G02. 귀하께서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 2][랜덤 제시]**

1. 가정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부부, 자녀, 고부 갈등 등)
2. 일과 신앙의 균형을 위한 안내 및 지원
3. 감정조절 위한 명상·좌선 프로그램
4. 스트레스·번아웃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5. 은퇴 후 제2의 삶, 노년 준비를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재정, 건강, 여가 등)
6. 중년 이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성찰 프로그램
7. 봉사 참여와 활발한 신앙 공동체 활동 기회 제공
8. 자녀와의 소통 증진을 위한 세대 공감 활동

//PART H. 세대별 문항 (노년층 대상: 60세 이상)//

H01. 귀하께서 종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 2][랜덤 제시]**

1. 이해하기 쉬운 교리
2.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3.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4.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5.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6.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7. 사회적 책임 실천
8.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
9.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자율적인 헌공 문화

H02. 귀하께서는 노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 2][랜덤 제시]**

1. 외로움 해소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
2.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를 위한 명상·운동 활동
3. 교당 중심의 소모임 활동 및 교리 공부 기회 제공
4. 가족·자녀와 소통 증진을 위한 세대 통합 활동
5. 쉬운 기도문 및 법문 콘텐츠(음성, 영상 등) 제공
6. 삶의 의미 성찰 및 죽음 준비를 위한 상담 (장례, 천도재 등)
7. 건강 관리 및 의료·요양 서비스 정보 제공/연결 (요양원, 요양병원 등)
8.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종교 콘텐츠 안내

//PART I. 시대정신과 미래방향성//

I01. 귀하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보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 2] [랜덤 제시]

1. 평화 - 갈등과 폭력을 멈추고 함께 공존하는 삶
2. 평등 - 모든 존재가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존중받는 것
3. 정의 - 공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
4. 자유 -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삶
5. 이해와 공감 -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동체 문화
6. 생명 존중 -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아끼고 보호함
7. 책임 - 공동체와 미래를 위한 적극적 실천
8. 지속가능성 -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보호

I02. 귀하께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랜덤 제시]

1. 개인 내면의 심리적 갈등 치유
2. 가족 및 세대 간 소통 회복
3. 지역사회 내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
4. 사회·국가 차원의 이념·계층 갈등 중재
5. 종교 간 갈등 및 종교 혐오 해소
6.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 격차의 완화

I03. 귀하께서는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maxrank : 2][랜덤 제시]

1. 개인주의 확산과 공동체 의식 약화
2. 젊은 세대의 종교 무관심과 신앙 전승의 단절
3.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4. 과학기술 발전 및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확산
5. 종교 지도자 및 종교 단체에 대한 신뢰 상실
6.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이미지
7. 종교의 언어와 의례, 소통 방식이 시대와 맞지 않음

2 설문 결과표

유효표본+탈락자 (문항1~6)

유효표본 (문항1~31)

문항1) 연령 유효표본+탈락자

	사례수 (명)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		50세~54세		55세~59세		60세 이상		계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1,951)	186	9.5	240	12.3	173	8.9	189	9.7	166	8.5	157	8.0	156	8.0	152	7.8	532	27.3	1,951	100.0
연령																					
만 19~29세	(426)	186	43.7	240	56.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26	100.0
만 30~39세	(362)	0	0.0	0	0.0	173	47.8	189	52.2	0	0.0	0	0.0	0	0.0	0	0.0	0	0.0	362	100.0
만 40~49세	(323)	0	0.0	0	0.0	0	0.0	0	0.0	166	51.4	157	48.6	0	0.0	0	0.0	0	0.0	323	100.0
만 50~59세	(30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6	50.6	152	49.4	0	0.0	308	100.0
만 60세 이상	(53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32	100.0	532	100.0
성별																					
남자	(883)	86	9.7	95	10.8	61	6.9	91	10.3	69	7.8	83	9.4	70	7.9	65	7.4	263	29.8	883	100.0
여자	(1,068)	100	9.4	145	13.6	112	10.5	98	9.2	97	9.1	74	6.9	86	8.1	87	8.1	269	25.2	1,068	100.0
거주 지역																					
서울	(280)	16	5.7	40	14.3	26	9.3	25	8.9	25	8.9	15	5.4	24	8.6	22	7.9	87	31.1	280	100.0
경기도	(472)	44	9.3	64	13.6	34	7.2	48	10.2	39	8.3	33	7.0	33	7.0	46	9.7	131	27.8	472	100.0
강원도	(96)	11	11.5	13	13.5	3	3.1	10	10.4	8	8.3	11	11.5	3	3.1	12	12.5	25	26.0	96	100.0
충청도	(280)	34	12.1	40	14.3	25	8.9	28	10.0	24	8.6	29	10.4	26	9.3	13	4.6	61	21.8	280	100.0
경상도	(506)	55	10.9	47	9.3	52	10.3	44	8.7	45	8.9	48	9.5	45	8.9	33	6.5	137	27.1	506	100.0
전라도	(242)	18	7.4	28	11.6	23	9.5	29	12.0	21	8.7	16	6.6	19	7.9	19	7.9	69	28.5	242	100.0
제주도	(75)	8	10.7	8	10.7	10	13.3	5	6.7	4	5.3	5	6.7	6	8.0	7	9.3	22	29.3	75	100.0
종교																					
불교	(416)	38	9.1	34	8.2	28	6.7	39	9.4	36	8.7	29	7.0	44	10.6	39	9.4	129	31.0	416	100.0
개신교	(347)	17	4.9	41	11.8	26	7.5	30	8.6	27	7.8	25	7.2	28	8.1	34	9.8	119	34.3	347	100.0
천주교	(219)	12	5.5	23	10.5	13	5.9	10	4.6	16	7.3	27	12.3	16	7.3	20	9.1	82	37.4	219	100.0
원불교	(42)	5	11.9	7	16.7	5	11.9	0	0.0	7	16.7	6	14.3	5	11.9	0	0.0	7	16.7	42	100.0
종교 없음	(914)	112	12.3	135	14.8	101	11.1	108	11.8	79	8.6	69	7.5	62	6.8	58	6.3	190	20.8	914	100.0
기타	(13)	2	15.4	0	0.0	0	0.0	2	15.4	1	7.7	1	7.7	1	7.7	1	7.7	5	38.5	13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3	8.8	8	23.5	5	14.7	4	11.8	4	11.8	4	11.8	0	0.0	2	5.9	4	11.8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9	6.4	21	7.1	16	5.4	29	9.8	25	8.5	22	7.5	32	10.8	18	6.1	113	38.3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49	6.2	83	10.5	67	8.5	69	8.8	64	8.1	63	8.0	69	8.8	67	8.5	256	32.5	787	100.0
4.00	(753)	91	12.1	109	14.5	71	9.4	80	10.6	68	9.0	66	8.8	52	6.9	64	8.5	152	20.2	753	100.0
5.00	(82)	24	29.3	19	23.2	14	17.1	7	8.5	5	6.1	2	2.4	3	3.7	1	1.2	7	8.5	82	100.0
연령대																					
청년층	(788)	186	23.6	240	30.5	173	22.0	189	24.0	0	0.0	0	0.0	0	0.0	0	0.0	0	0.0	788	100.0
중장년층	(631)	0	0.0	0	0.0	0	0.0	0	0.0	166	26.3	157	24.9	156	24.7	152	24.1	0	0.0	631	100.0
노년층	(53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32	100.0	532	100.0

문항2) 성별 유효표본+탈락자

	사례수 (명)	남자		여자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951)	883	45.3	1,068	54.7	1,951	100.0
연령							
만 19~29세	(426)	181	42.5	245	57.5	426	100.0
만 30~39세	(362)	152	42.0	210	58.0	362	100.0
만 40~49세	(323)	152	47.1	171	52.9	323	100.0
만 50~59세	(308)	135	43.8	173	56.2	308	100.0
만 60세 이상	(532)	263	49.4	269	50.6	532	100.0
성별							
남자	(883)	883	100.0	0	0.0	883	100.0
여자	(1,068)	0	0.0	1,068	100.0	1,068	100.0
거주 지역							
서울	(280)	129	46.1	151	53.9	280	100.0
경기도	(472)	202	42.8	270	57.2	472	100.0
강원도	(96)	39	40.6	57	59.4	96	100.0
충청도	(280)	136	48.6	144	51.4	280	100.0
경상도	(506)	221	43.7	285	56.3	506	100.0
전라도	(242)	121	50.0	121	50.0	242	100.0
제주도	(75)	35	46.7	40	53.3	75	100.0
종교							
불교	(416)	196	47.1	220	52.9	416	100.0
개신교	(347)	149	42.9	198	57.1	347	100.0
천주교	(219)	87	39.7	132	60.3	219	100.0
원불교	(42)	25	59.5	17	40.5	42	100.0
종교 없음	(914)	422	46.2	492	53.8	914	100.0
기타	(13)	4	30.8	9	69.2	13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23	67.6	11	32.4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67	56.6	128	43.4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367	46.6	420	53.4	787	100.0
4.00	(753)	300	39.8	453	60.2	753	100.0
5.00	(82)	26	31.7	56	68.3	82	100.0
연령대							
청년층	(788)	333	42.3	455	57.7	788	100.0
중장년층	(631)	287	45.5	344	54.5	631	100.0
노년층	(532)	263	49.4	269	50.6	532	100.0

문항3) 거주 지역 유효표본+탈락자

	사례수 (명)	서울		경기도(인천광역시 포함)		강원도		충청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포함)		전라도(광주광역시 포함)		제주도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951)	280	14.4	472	24.2	96	4.9	280	14.4	506	25.9	242	12.4	75	3.8	1,951	100.0
연령																	
만 19~29세	(426)	56	13.1	108	25.4	24	5.6	74	17.4	102	23.9	46	10.8	16	3.8	426	100.0
만 30~39세	(362)	51	14.1	82	22.7	13	3.6	53	14.6	96	26.5	52	14.4	15	4.1	362	100.0
만 40~49세	(323)	40	12.4	72	22.3	19	5.9	53	16.4	93	28.8	37	11.5	9	2.8	323	100.0
만 50~59세	(308)	46	14.9	79	25.6	15	4.9	39	12.7	78	25.3	38	12.3	13	4.2	308	100.0
만 60세 이상	(532)	87	16.4	131	24.6	25	4.7	61	11.5	137	25.8	69	13.0	22	4.1	532	100.0
성별																	
남자	(883)	129	14.6	202	22.9	39	4.4	136	15.4	221	25.0	121	13.7	35	4.0	883	100.0
여자	(1,068)	151	14.1	270	25.3	57	5.3	144	13.5	285	26.7	121	11.3	40	3.7	1,068	100.0
거주 지역																	
서울	(280)	280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80	100.0
경기도	(472)	0	0.0	47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472	100.0
강원도	(96)	0	0.0	0	0.0	96	100.0	0	0.0	0	0.0	0	0.0	0	0.0	96	100.0
충청도	(280)	0	0.0	0	0.0	0	0.0	280	100.0	0	0.0	0	0.0	0	0.0	280	100.0
경상도	(506)	0	0.0	0	0.0	0	0.0	0	0.0	506	100.0	0	0.0	0	0.0	506	100.0
전라도	(242)	0	0.0	0	0.0	0	0.0	0	0.0	0	0.0	242	100.0	0	0.0	242	100.0
제주도	(7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5	100.0	75	100.0
종교																	
불교	(416)	52	12.5	76	18.3	18	4.3	55	13.2	157	37.7	38	9.1	20	4.8	416	100.0
개신교	(347)	56	16.1	107	30.8	19	5.5	38	11.0	62	17.9	54	15.6	11	3.2	347	100.0
천주교	(219)	34	15.5	56	25.6	16	7.3	30	13.7	49	22.4	24	11.0	10	4.6	219	100.0
원불교	(42)	8	19.0	8	19.0	2	4.8	6	14.3	6	14.3	11	26.2	1	2.4	42	100.0
종교 없음	(914)	129	14.1	222	24.3	40	4.4	150	16.4	228	24.9	112	12.3	33	3.6	914	100.0
기타	(13)	1	7.7	3	23.1	1	7.7	1	7.7	4	30.8	3	23.1	0	0.0	13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3	8.8	11	32.4	1	2.9	4	11.8	5	14.7	10	29.4	0	0.0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58	19.7	54	18.3	11	3.7	26	8.8	78	26.4	52	17.6	16	5.4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18	15.0	196	24.9	43	5.5	70	8.9	208	26.4	113	14.4	39	5.0	787	100.0
4.00	(753)	96	12.7	186	24.7	36	4.8	166	22.0	190	25.2	59	7.8	20	2.7	753	100.0
5.00	(82)	5	6.1	25	30.5	5	6.1	14	17.1	25	30.5	8	9.8	0	0.0	82	100.0
연령대																	
청년층	(788)	107	13.6	190	24.1	37	4.7	127	16.1	198	25.1	98	12.4	31	3.9	788	100.0
중장년층	(631)	86	13.6	151	23.9	34	5.4	92	14.6	171	27.1	75	11.9	22	3.5	631	100.0
노년층	(532)	87	16.4	131	24.6	25	4.7	61	11.5	137	25.8	69	13.0	22	4.1	532	100.0

문항4) 본인 종교 유효표본+탈락자

	사례수 (명)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없음		기타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951)	416	21.3	347	17.8	219	11.2	42	2.2	914	46.8	13	0.7	1,951	100.0
연령															
만 19~29세	(426)	72	16.9	58	13.6	35	8.2	12	2.8	247	58.0	2	0.5	426	100.0
만 30~39세	(362)	67	18.5	56	15.5	23	6.4	5	1.4	209	57.7	2	0.6	362	100.0
만 40~49세	(323)	65	20.1	52	16.1	43	13.3	13	4.0	148	45.8	2	0.6	323	100.0
만 50~59세	(308)	83	26.9	62	20.1	36	11.7	5	1.6	120	39.0	2	0.6	308	100.0
만 60세 이상	(532)	129	24.2	119	22.4	82	15.4	7	1.3	190	35.7	5	0.9	532	100.0
성별															
남자	(883)	196	22.2	149	16.9	87	9.9	25	2.8	422	47.8	4	0.5	883	100.0
여자	(1,068)	220	20.6	198	18.5	132	12.4	17	1.6	492	46.1	9	0.8	1,068	100.0
거주 지역															
서울	(280)	52	18.6	56	20.0	34	12.1	8	2.9	129	46.1	1	0.4	280	100.0
경기도	(472)	76	16.1	107	22.7	56	11.9	8	1.7	222	47.0	3	0.6	472	100.0
강원도	(96)	18	18.8	19	19.8	16	16.7	2	2.1	40	41.7	1	1.0	96	100.0
충청도	(280)	55	19.6	38	13.6	30	10.7	6	2.1	150	53.6	1	0.4	280	100.0
경상도	(506)	157	31.0	62	12.3	49	9.7	6	1.2	228	45.1	4	0.8	506	100.0
전라도	(242)	38	15.7	54	22.3	24	9.9	11	4.5	112	46.3	3	1.2	242	100.0
제주도	(75)	20	26.7	11	14.7	10	13.3	1	1.3	33	44.0	0	0.0	75	100.0
종교															
불교	(416)	416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416	100.0
개신교	(347)	0	0.0	347	100.0	0	0.0	0	0.0	0	0.0	0	0.0	347	100.0
천주교	(219)	0	0.0	0	0.0	219	100.0	0	0.0	0	0.0	0	0.0	219	100.0
원불교	(42)	0	0.0	0	0.0	0	0.0	42	100.0	0	0.0	0	0.0	42	100.0
종교 없음	(914)	0	0.0	0	0.0	0	0.0	0	0.0	914	100.0	0	0.0	914	100.0
기타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00.0	13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9	26.5	4	11.8	4	11.8	9	26.5	8	23.5	0	0.0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84	28.5	64	21.7	31	10.5	20	6.8	95	32.2	1	0.3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81	23.0	132	16.8	113	14.4	8	1.0	349	44.3	4	0.5	787	100.0
4.00	(753)	132	17.5	139	18.5	70	9.3	4	0.5	401	53.3	7	0.9	753	100.0
5.00	(82)	10	12.2	8	9.8	1	1.2	1	1.2	61	74.4	1	1.2	82	100.0
연령대															
청년층	(788)	139	17.6	114	14.5	58	7.4	17	2.2	456	57.9	4	0.5	788	100.0
중장년층	(631)	148	23.5	114	18.1	79	12.5	18	2.9	268	42.5	4	0.6	631	100.0
노년층	(532)	129	24.2	119	22.4	82	15.4	7	1.3	190	35.7	5	0.9	532	100.0

문항5) 가족의 종교 유효표본+탈락자

	사례수 (명)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없음		기타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951)	744	38.1	522	26.8	312	16.0	58	3.0	540	27.7	16	0.8
연령													
만 19~29세	(426)	143	33.6	107	25.1	54	12.7	12	2.8	147	34.5	5	1.2
만 30~39세	(362)	141	39.0	79	21.8	43	11.9	9	2.5	133	36.7	4	1.1
만 40~49세	(323)	120	37.2	73	22.6	53	16.4	16	5.0	92	28.5	1	0.3
만 50~59세	(308)	127	41.2	90	29.2	48	15.6	8	2.6	65	21.1	3	1.0
만 60세 이상	(532)	213	40.0	173	32.5	114	21.4	13	2.4	103	19.4	3	0.6
성별													
남자	(883)	345	39.1	220	24.9	133	15.1	30	3.4	244	27.6	3	0.3
여자	(1,068)	399	37.4	302	28.3	179	16.8	28	2.6	296	27.7	13	1.2
거주 지역													
서울	(280)	109	38.9	88	31.4	54	19.3	8	2.9	62	22.1	0	0.0
경기도	(472)	143	30.3	152	32.2	75	15.9	15	3.2	144	30.5	4	0.8
강원도	(96)	34	35.4	30	31.3	15	15.6	1	1.0	27	28.1	0	0.0
충청도	(280)	102	36.4	65	23.2	42	15.0	8	2.9	90	32.1	3	1.1
경상도	(506)	246	48.6	94	18.6	70	13.8	11	2.2	131	25.9	4	0.8
전라도	(242)	75	31.0	79	32.6	44	18.2	14	5.8	65	26.9	5	2.1
제주도	(75)	35	46.7	14	18.7	12	16.0	1	1.3	21	28.0	0	0.0
종교													
불교	(416)	375	90.1	27	6.5	21	5.0	3	0.7	28	6.7	2	0.5
개신교	(347)	43	12.4	297	85.6	20	5.8	4	1.2	26	7.5	0	0.0
천주교	(219)	42	19.2	26	11.9	165	75.3	4	1.8	32	14.6	0	0.0
원불교	(42)	12	28.6	8	19.0	3	7.1	30	71.4	3	7.1	0	0.0
종교 없음	(914)	267	29.2	163	17.8	103	11.3	17	1.9	451	49.3	6	0.7
기타	(13)	5	38.5	1	7.7	0	0.0	0	0.0	0	0.0	8	61.5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0	29.4	9	26.5	4	11.8	8	23.5	11	32.4	0	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39	47.1	82	27.8	45	15.3	25	8.5	56	19.0	2	0.7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312	39.6	207	26.3	157	19.9	17	2.2	203	25.8	5	0.6
4.00	(753)	264	35.1	208	27.6	103	13.7	6	0.8	225	29.9	7	0.9
5.00	(82)	19	23.2	16	19.5	3	3.7	2	2.4	45	54.9	2	2.4
연령대													
청년층	(788)	284	36.0	186	23.6	97	12.3	21	2.7	280	35.5	9	1.1
중장년층	(631)	247	39.1	163	25.8	101	16.0	24	3.8	157	24.9	4	0.6
노년층	(532)	213	40.0	173	32.5	114	21.4	13	2.4	103	19.4	3	0.6

문항6) 원불교 인지도 유효표본+탈락자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이름만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다		계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1,951)	34	1.7	295	15.1	787	40.3	753	38.6	82	4.2	1,951	100.0
연령													
만 19~29세	(426)	11	2.6	40	9.4	132	31.0	200	46.9	43	10.1	426	100.0
만 30~39세	(362)	9	2.5	45	12.4	136	37.6	151	41.7	21	5.8	362	100.0
만 40~49세	(323)	8	2.5	47	14.6	127	39.3	134	41.5	7	2.2	323	100.0
만 50~59세	(308)	2	0.6	50	16.2	136	44.2	116	37.7	4	1.3	308	100.0
만 60세 이상	(532)	4	0.8	113	21.2	256	48.1	152	28.6	7	1.3	532	100.0
성별													
남자	(883)	23	2.6	167	18.9	367	41.6	300	34.0	26	2.9	883	100.0
여자	(1,068)	11	1.0	128	12.0	420	39.3	453	42.4	56	5.2	1,068	100.0
거주 지역													
서울	(280)	3	1.1	58	20.7	118	42.1	96	34.3	5	1.8	280	100.0
경기도	(472)	11	2.3	54	11.4	196	41.5	186	39.4	25	5.3	472	100.0
강원도	(96)	1	1.0	11	11.5	43	44.8	36	37.5	5	5.2	96	100.0
충청도	(280)	4	1.4	26	9.3	70	25.0	166	59.3	14	5.0	280	100.0
경상도	(506)	5	1.0	78	15.4	208	41.1	190	37.5	25	4.9	506	100.0
전라도	(242)	10	4.1	52	21.5	113	46.7	59	24.4	8	3.3	242	100.0
제주도	(75)	0	0.0	16	21.3	39	52.0	20	26.7	0	0.0	75	100.0
종교													
불교	(416)	9	2.2	84	20.2	181	43.5	132	31.7	10	2.4	416	100.0
개신교	(347)	4	1.2	64	18.4	132	38.0	139	40.1	8	2.3	347	100.0
천주교	(219)	4	1.8	31	14.2	113	51.6	70	32.0	1	0.5	219	100.0
원불교	(42)	9	21.4	20	47.6	8	19.0	4	9.5	1	2.4	42	100.0
종교 없음	(914)	8	0.9	95	10.4	349	38.2	401	43.9	61	6.7	914	100.0
기타	(13)	0	0.0	1	7.7	4	30.8	7	53.8	1	7.7	13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34	100.0	0	0.0	0	0.0	0	0.0	0	0.0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0	0.0	295	100.0	0	0.0	0	0.0	0	0.0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0	0.0	0	0.0	787	100.0	0	0.0	0	0.0	787	100.0
4.00	(753)	0	0.0	0	0.0	0	0.0	753	100.0	0	0.0	753	100.0
5.00	(82)	0	0.0	0	0.0	0	0.0	0	0.0	82	100.0	82	100.0
연령대													
청년층	(788)	20	2.5	85	10.8	268	34.0	351	44.5	64	8.1	788	100.0
중장년층	(631)	10	1.6	97	15.4	263	41.7	250	39.6	11	1.7	631	100.0
노년층	(532)	4	0.8	113	21.2	256	48.1	152	28.6	7	1.3	532	100.0

문항1) 연령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		50세~54세		55세~59세		60세 이상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71	6.4	112	10.0	88	7.9	102	9.1	93	8.3	89	8.0	101	9.1	87	7.8	373	33.4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71	38.8	112	61.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83	100.0
만 30~39세	(190)	0	0.0	0	0.0	88	46.3	102	53.7	0	0.0	0	0.0	0	0.0	0	0.0	0	0.0	190	100.0
만 40~49세	(182)	0	0.0	0	0.0	0	0.0	0	0.0	93	51.1	89	48.9	0	0.0	0	0.0	0	0.0	182	100.0
만 50~59세	(18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1	53.7	87	46.3	0	0.0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73	100.0	373	100.0
성별																					
남자	(557)	39	7.0	53	9.5	39	7.0	56	10.1	41	7.4	49	8.8	49	8.8	44	7.9	187	33.6	557	100.0
여자	(559)	32	5.7	59	10.6	49	8.8	46	8.2	52	9.3	40	7.2	52	9.3	43	7.7	186	33.3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7	3.9	23	12.8	14	7.8	16	8.9	18	10.1	12	6.7	16	8.9	13	7.3	60	33.5	179	100.0
경기도	(261)	15	5.7	29	11.1	16	6.1	28	10.7	25	9.6	18	6.9	17	6.5	25	9.6	88	33.7	261	100.0
강원도	(55)	3	5.5	5	9.1	2	3.6	8	14.5	2	3.6	6	10.9	3	5.5	7	12.7	19	34.5	55	100.0
충청도	(100)	3	3.0	13	13.0	9	9.0	9	9.0	8	8.0	8	8.0	13	13.0	3	3.0	34	34.0	100	100.0
경상도	(291)	27	9.3	21	7.2	25	8.6	23	7.9	21	7.2	27	9.3	28	9.6	23	7.9	96	33.0	291	100.0
전라도	(175)	11	6.3	17	9.7	15	8.6	15	8.6	16	9.1	13	7.4	18	10.3	12	6.9	58	33.1	175	100.0
제주도	(55)	5	9.1	4	7.3	7	12.7	3	5.5	3	5.5	5	9.1	6	10.9	4	7.3	18	32.7	55	100.0
종교																					
불교	(274)	19	6.9	20	7.3	18	6.6	24	8.8	23	8.4	17	6.2	33	12.0	24	8.8	96	35.0	274	100.0
개신교	(200)	6	3.0	18	9.0	15	7.5	20	10.0	13	6.5	12	6.0	15	7.5	21	10.5	80	40.0	200	100.0
천주교	(148)	5	3.4	13	8.8	10	6.8	5	3.4	13	8.8	17	11.5	10	6.8	13	8.8	62	41.9	148	100.0
원불교	(37)	4	10.8	5	13.5	4	10.8	0	0.0	6	16.2	6	16.2	5	13.5	0	0.0	7	18.9	37	100.0
종교 없음	(452)	36	8.0	56	12.4	41	9.1	53	11.7	38	8.4	37	8.2	37	8.2	29	6.4	125	27.7	452	100.0
기타	(5)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3	6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3	8.8	8	23.5	5	14.7	4	11.8	4	11.8	4	11.8	0	0.0	2	5.9	4	11.8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9	6.4	21	7.1	16	5.4	29	9.8	25	8.5	22	7.5	32	10.8	18	6.1	113	38.3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49	6.2	83	10.5	67	8.5	69	8.8	64	8.1	63	8.0	69	8.8	67	8.5	256	32.5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71	19.0	112	30.0	88	23.6	102	27.3	0	0.0	0	0.0	0	0.0	0	0.0	0	0.0	373	100.0
중장년층	(370)	0	0.0	0	0.0	0	0.0	0	0.0	93	25.1	89	24.1	101	27.3	87	23.5	0	0.0	370	100.0
노년층	(37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73	100.0	373	100.0

문항2) 성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남자		여자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557	49.9	559	50.1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92	50.3	91	49.7	183	100.0
만 30~39세	(190)	95	50.0	95	50.0	190	100.0
만 40~49세	(182)	90	49.5	92	50.5	182	100.0
만 50~59세	(188)	93	49.5	95	50.5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187	50.1	186	49.9	373	100.0
성별							
남자	(557)	557	100.0	0	0.0	557	100.0
여자	(559)	0	0.0	559	100.0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90	50.3	89	49.7	179	100.0
경기도	(261)	129	49.4	132	50.6	261	100.0
강원도	(55)	28	50.9	27	49.1	55	100.0
충청도	(100)	50	50.0	50	50.0	100	100.0
경상도	(291)	145	49.8	146	50.2	291	100.0
전라도	(175)	87	49.7	88	50.3	175	100.0
제주도	(55)	28	50.9	27	49.1	55	100.0
종교							
불교	(274)	139	50.7	135	49.3	274	100.0
개신교	(200)	101	50.5	99	49.5	200	100.0
천주교	(148)	57	38.5	91	61.5	148	100.0
원불교	(37)	21	56.8	16	43.2	37	100.0
종교 없음	(452)	237	52.4	215	47.6	452	100.0
기타	(5)	2	40.0	3	6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23	67.6	11	32.4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67	56.6	128	43.4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367	46.6	420	53.4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187	50.1	186	49.9	373	100.0
중장년층	(370)	183	49.5	187	50.5	370	100.0
노년층	(373)	187	50.1	186	49.9	373	100.0

문항3) 거주 지역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 례 수 (명)	서울		경기도(인천 광역시 포함)		강원도		충청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포함)		전라도(광주 광역시 포함)		제주도		계	
		사 례 수	%	사 례 수	%	사 례 수	%	사 례 수	%	사 례 수	%	사 례 수	%	사 례 수	%	사 례 수	%
전체	(1,116)	179	16.0	261	23.4	55	4.9	100	9.0	291	26.1	175	15.7	55	4.9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30	16.4	44	24.0	8	4.4	16	8.7	48	26.2	28	15.3	9	4.9	183	100.0
만 30~39세	(190)	30	15.8	44	23.2	10	5.3	18	9.5	48	25.3	30	15.8	10	5.3	190	100.0
만 40~49세	(182)	30	16.5	43	23.6	8	4.4	16	8.8	48	26.4	29	15.9	8	4.4	182	100.0
만 50~59세	(188)	29	15.4	42	22.3	10	5.3	16	8.5	51	27.1	30	16.0	10	5.3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60	16.1	88	23.6	19	5.1	34	9.1	96	25.7	58	15.5	18	4.8	373	100.0
성별																	
남자	(557)	90	16.2	129	23.2	28	5.0	50	9.0	145	26.0	87	15.6	28	5.0	557	100.0
여자	(559)	89	15.9	132	23.6	27	4.8	50	8.9	146	26.1	88	15.7	27	4.8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17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79	100.0
경기도	(261)	0	0.0	26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61	100.0
강원도	(55)	0	0.0	0	0.0	55	100.0	0	0.0	0	0.0	0	0.0	0	0.0	55	100.0
충청도	(100)	0	0.0	0	0.0	0	0.0	100	100.0	0	0.0	0	0.0	0	0.0	100	100.0
경상도	(291)	0	0.0	0	0.0	0	0.0	0	0.0	291	100.0	0	0.0	0	0.0	291	100.0
전라도	(175)	0	0.0	0	0.0	0	0.0	0	0.0	0	0.0	175	100.0	0	0.0	175	100.0
제주도	(5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5	100.0	55	100.0
종교																	
불교	(274)	36	13.1	58	21.2	10	3.6	26	9.5	98	35.8	32	11.7	14	5.1	274	100.0
개신교	(200)	32	16.0	62	31.0	12	6.0	18	9.0	31	15.5	37	18.5	8	4.0	200	100.0
천주교	(148)	27	18.2	36	24.3	11	7.4	12	8.1	33	22.3	21	14.2	8	5.4	148	100.0
원불교	(37)	7	18.9	7	18.9	2	5.4	5	13.5	4	10.8	11	29.7	1	2.7	37	100.0
종교 없음	(452)	76	16.8	97	21.5	20	4.4	39	8.6	124	27.4	72	15.9	24	5.3	452	100.0
기타	(5)	1	20.0	1	20.0	0	0.0	0	0.0	1	20.0	2	40.0	0	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3	8.8	11	32.4	1	2.9	4	11.8	5	14.7	10	29.4	0	0.0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58	19.7	54	18.3	11	3.7	26	8.8	78	26.4	52	17.6	16	5.4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18	15.0	196	24.9	43	5.5	70	8.9	208	26.4	113	14.4	39	5.0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60	16.1	88	23.6	18	4.8	34	9.1	96	25.7	58	15.5	19	5.1	373	100.0
중장년층	(370)	59	15.9	85	23.0	18	4.9	32	8.6	99	26.8	59	15.9	18	4.9	370	100.0
노년층	(373)	60	16.1	88	23.6	19	5.1	34	9.1	96	25.7	58	15.5	18	4.8	373	100.0

문항4) 본인 종교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없음		기타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274	24.6	200	17.9	148	13.3	37	3.3	452	40.5	5	0.4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39	21.3	24	13.1	18	9.8	9	4.9	92	50.3	1	0.5	183	100.0
만 30~39세	(190)	42	22.1	35	18.4	15	7.9	4	2.1	94	49.5	0	0.0	190	100.0
만 40~49세	(182)	40	22.0	25	13.7	30	16.5	12	6.6	75	41.2	0	0.0	182	100.0
만 50~59세	(188)	57	30.3	36	19.1	23	12.2	5	2.7	66	35.1	1	0.5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96	25.7	80	21.4	62	16.6	7	1.9	125	33.5	3	0.8	373	100.0
성별															
남자	(557)	139	25.0	101	18.1	57	10.2	21	3.8	237	42.5	2	0.4	557	100.0
여자	(559)	135	24.2	99	17.7	91	16.3	16	2.9	215	38.5	3	0.5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36	20.1	32	17.9	27	15.1	7	3.9	76	42.5	1	0.6	179	100.0
경기도	(261)	58	22.2	62	23.8	36	13.8	7	2.7	97	37.2	1	0.4	261	100.0
강원도	(55)	10	18.2	12	21.8	11	20.0	2	3.6	20	36.4	0	0.0	55	100.0
충청도	(100)	26	26.0	18	18.0	12	12.0	5	5.0	39	39.0	0	0.0	100	100.0
경상도	(291)	98	33.7	31	10.7	33	11.3	4	1.4	124	42.6	1	0.3	291	100.0
전라도	(175)	32	18.3	37	21.1	21	12.0	11	6.3	72	41.1	2	1.1	175	100.0
제주도	(55)	14	25.5	8	14.5	8	14.5	1	1.8	24	43.6	0	0.0	55	100.0
종교															
불교	(274)	27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274	100.0
개신교	(200)	0	0.0	200	100.0	0	0.0	0	0.0	0	0.0	0	0.0	200	100.0
천주교	(148)	0	0.0	0	0.0	148	100.0	0	0.0	0	0.0	0	0.0	148	100.0
원불교	(37)	0	0.0	0	0.0	0	0.0	37	100.0	0	0.0	0	0.0	37	100.0
종교 없음	(452)	0	0.0	0	0.0	0	0.0	0	0.0	452	100.0	0	0.0	452	100.0
기타	(5)	0	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9	26.5	4	11.8	4	11.8	9	26.5	8	23.5	0	0.0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84	28.5	64	21.7	31	10.5	20	6.8	95	32.2	1	0.3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81	23.0	132	16.8	113	14.4	8	1.0	349	44.3	4	0.5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81	21.7	59	15.8	33	8.8	13	3.5	186	49.9	1	0.3	373	100.0
중장년층	(370)	97	26.2	61	16.5	53	14.3	17	4.6	141	38.1	1	0.3	370	100.0
노년층	(373)	96	25.7	80	21.4	62	16.6	7	1.9	125	33.5	3	0.8	373	100.0

문항5) 가족의 종교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없음		기타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461	41.3	298	26.7	206	18.5	50	4.5	270	24.2	7	0.6
연령													
만 19~29세	(183)	68	37.2	42	23.0	25	13.7	8	4.4	58	31.7	3	1.6
만 30~39세	(190)	81	42.6	48	25.3	26	13.7	6	3.2	58	30.5	1	0.5
만 40~49세	(182)	71	39.0	37	20.3	39	21.4	15	8.2	46	25.3	0	0.0
만 50~59세	(188)	81	43.1	53	28.2	30	16.0	8	4.3	37	19.7	2	1.1
만 60세 이상	(373)	160	42.9	118	31.6	86	23.1	13	3.5	71	19.0	1	0.3
성별													
남자	(557)	231	41.5	147	26.4	89	16.0	24	4.3	137	24.6	2	0.4
여자	(559)	230	41.1	151	27.0	117	20.9	26	4.7	133	23.8	5	0.9
거주 지역													
서울	(179)	78	43.6	52	29.1	42	23.5	7	3.9	32	17.9	0	0.0
경기도	(261)	91	34.9	87	33.3	46	17.6	14	5.4	63	24.1	1	0.4
강원도	(55)	16	29.1	17	30.9	9	16.4	1	1.8	19	34.5	0	0.0
충청도	(100)	46	46.0	20	20.0	18	18.0	6	6.0	27	27.0	1	1.0
경상도	(291)	147	50.5	52	17.9	48	16.5	7	2.4	70	24.1	2	0.7
전라도	(175)	56	32.0	59	33.7	33	18.9	14	8.0	45	25.7	3	1.7
제주도	(55)	27	49.1	11	20.0	10	18.2	1	1.8	14	25.5	0	0.0
종교													
불교	(274)	248	90.5	22	8.0	16	5.8	3	1.1	17	6.2	2	0.7
개신교	(200)	28	14.0	166	83.0	14	7.0	4	2.0	19	9.5	0	0.0
천주교	(148)	33	22.3	18	12.2	112	75.7	4	2.7	21	14.2	0	0.0
원불교	(37)	10	27.0	7	18.9	3	8.1	26	70.3	3	8.1	0	0.0
종교 없음	(452)	140	31.0	85	18.8	61	13.5	13	2.9	210	46.5	2	0.4
기타	(5)	2	40.0	0	0.0	0	0.0	0	0.0	0	0.0	3	6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0	29.4	9	26.5	4	11.8	8	23.5	11	32.4	0	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39	47.1	82	27.8	45	15.3	25	8.5	56	19.0	2	0.7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312	39.6	207	26.3	157	19.9	17	2.2	203	25.8	5	0.6
연령대													
청년층	(373)	149	39.9	90	24.1	51	13.7	14	3.8	116	31.1	4	1.1
중장년층	(370)	152	41.1	90	24.3	69	18.6	23	6.2	83	22.4	2	0.5
노년층	(373)	160	42.9	118	31.6	86	23.1	13	3.5	71	19.0	1	0.3

문항6) 원불교 인지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34	3.0	295	26.4	787	70.5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11	6.0	40	21.9	132	72.1	183	100.0
만 30~39세	(190)	9	4.7	45	23.7	136	71.6	190	100.0
만 40~49세	(182)	8	4.4	47	25.8	127	69.8	182	100.0
만 50~59세	(188)	2	1.1	50	26.6	136	72.3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4	1.1	113	30.3	256	68.6	373	100.0
성별									
남자	(557)	23	4.1	167	30.0	367	65.9	557	100.0
여자	(559)	11	2.0	128	22.9	420	75.1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3	1.7	58	32.4	118	65.9	179	100.0
경기도	(261)	11	4.2	54	20.7	196	75.1	261	100.0
강원도	(55)	1	1.8	11	20.0	43	78.2	55	100.0
충청도	(100)	4	4.0	26	26.0	70	70.0	100	100.0
경상도	(291)	5	1.7	78	26.8	208	71.5	291	100.0
전라도	(175)	10	5.7	52	29.7	113	64.6	175	100.0
제주도	(55)	0	0.0	16	29.1	39	70.9	55	100.0
종교									
불교	(274)	9	3.3	84	30.7	181	66.1	274	100.0
개신교	(200)	4	2.0	64	32.0	132	66.0	200	100.0
천주교	(148)	4	2.7	31	20.9	113	76.4	148	100.0
원불교	(37)	9	24.3	20	54.1	8	21.6	37	100.0
종교 없음	(452)	8	1.8	95	21.0	349	77.2	452	100.0
기타	(5)	0	0.0	1	20.0	4	8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34	100.0	0	0.0	0	0.0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0	0.0	295	100.0	0	0.0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0	0.0	0	0.0	787	100.0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20	5.4	85	22.8	268	71.8	373	100.0
중장년층	(370)	10	2.7	97	26.2	263	71.1	370	100.0
노년층	(373)	4	1.1	113	30.3	256	68.6	373	100.0

문항7) 원불교 인지 경로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원불교 행사 참석		원불교 기관 방문		가족, 지인소개		유튜브, 블로그, 포털 등 인터넷 검색		TV, 라디오, 신문 등 방송매체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70	6.3	91	8.2	250	22.4	213	19.1	492	44.1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27	14.8	16	8.7	31	16.9	55	30.1	54	29.5	183	100.0
만 30~39세	(190)	15	7.9	17	8.9	27	14.2	44	23.2	87	45.8	190	100.0
만 40~49세	(182)	11	6.0	17	9.3	46	25.3	39	21.4	69	37.9	182	100.0
만 50~59세	(188)	5	2.7	13	6.9	47	25.0	33	17.6	90	47.9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12	3.2	28	7.5	99	26.5	42	11.3	192	51.5	373	100.0
성별													
남자	(557)	47	8.4	46	8.3	108	19.4	117	21.0	239	42.9	557	100.0
여자	(559)	23	4.1	45	8.1	142	25.4	96	17.2	253	45.3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9	5.0	21	11.7	52	29.1	32	17.9	65	36.3	179	100.0
경기도	(261)	12	4.6	17	6.5	49	18.8	53	20.3	130	49.8	261	100.0
강원도	(55)	2	3.6	0	0.0	9	16.4	15	27.3	29	52.7	55	100.0
충청도	(100)	7	7.0	10	10.0	24	24.0	19	19.0	40	40.0	100	100.0
경상도	(291)	30	10.3	15	5.2	52	17.9	53	18.2	141	48.5	291	100.0
전라도	(175)	7	4.0	23	13.1	51	29.1	31	17.7	63	36.0	175	100.0
제주도	(55)	3	5.5	5	9.1	13	23.6	10	18.2	24	43.6	55	100.0
종교													
불교	(274)	28	10.2	21	7.7	66	24.1	55	20.1	104	38.0	274	100.0
개신교	(200)	3	1.5	12	6.0	43	21.5	37	18.5	105	52.5	200	100.0
천주교	(148)	4	2.7	12	8.1	33	22.3	19	12.8	80	54.1	148	100.0
원불교	(37)	6	16.2	6	16.2	18	48.6	3	8.1	4	10.8	37	100.0
종교 없음	(452)	29	6.4	39	8.6	88	19.5	98	21.7	198	43.8	452	100.0
기타	(5)	0	0.0	1	20.0	2	40.0	1	20.0	1	2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7	20.6	6	17.6	5	14.7	9	26.5	7	20.6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31	10.5	35	11.9	89	30.2	45	15.3	95	32.2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32	4.1	50	6.4	156	19.8	159	20.2	390	49.6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42	11.3	33	8.8	58	15.5	99	26.5	141	37.8	373	100.0
중장년층	(370)	16	4.3	30	8.1	93	25.1	72	19.5	159	43.0	370	100.0
노년층	(373)	12	3.2	28	7.5	99	26.5	42	11.3	192	51.5	373	100.0

문항8) 원불교에 대한 인상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① 매우 긍정적인 인상		② 다소 긍정적인 인상		①+② 긍정적인 인상		③ 특별한 인상이 없었다		④ 다소 부정적인 인상		⑤ 매우 부정적인 인상		④+⑤ 부정적인 인상		계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34	3.0	315	28.2	349	31.3	697	62.5	57	5.1	13	1.2	70	6.3	1,116	100.0	3.27
연령																		
만 19~29세	(183)	11	6.0	56	30.6	67	36.6	112	61.2	4	2.2	0	0.0	4	2.2	183	100.0	3.40
만 30~39세	(190)	3	1.6	40	21.1	43	22.6	137	72.1	7	3.7	3	1.6	10	5.3	190	100.0	3.17
만 40~49세	(182)	6	3.3	46	25.3	52	28.6	123	67.6	5	2.7	2	1.1	7	3.8	182	100.0	3.27
만 50~59세	(188)	3	1.6	51	27.1	54	28.7	116	61.7	16	8.5	2	1.1	18	9.6	188	100.0	3.20
만 60세 이상	(373)	11	2.9	122	32.7	133	35.7	209	56.0	25	6.7	6	1.6	31	8.3	373	100.0	3.29
성별																		
남자	(557)	21	3.8	176	31.6	197	35.4	329	59.1	21	3.8	10	1.8	31	5.6	557	100.0	3.32
여자	(559)	13	2.3	139	24.9	152	27.2	368	65.8	36	6.4	3	0.5	39	7.0	559	100.0	3.22
거주 지역																		
서울	(179)	4	2.2	64	35.8	68	38.0	99	55.3	11	6.1	1	0.6	12	6.7	179	100.0	3.33
경기도	(261)	9	3.4	64	24.5	73	28.0	166	63.6	18	6.9	4	1.5	22	8.4	261	100.0	3.21
강원도	(55)	0	0.0	17	30.9	17	30.9	35	63.6	3	5.5	0	0.0	3	5.5	55	100.0	3.25
충청도	(100)	2	2.0	28	28.0	30	30.0	68	68.0	1	1.0	1	1.0	2	2.0	100	100.0	3.29
경상도	(291)	7	2.4	74	25.4	81	27.8	185	63.6	18	6.2	7	2.4	25	8.6	291	100.0	3.19
전라도	(175)	8	4.6	54	30.9	62	35.4	107	61.1	6	3.4	0	0.0	6	3.4	175	100.0	3.37
제주도	(55)	4	7.3	14	25.5	18	32.7	37	67.3	0	0.0	0	0.0	0	0.0	55	100.0	3.40
종교																		
불교	(274)	13	4.7	93	33.9	106	38.7	156	56.9	11	4.0	1	0.4	12	4.4	274	100.0	3.39
개신교	(200)	1	0.5	35	17.5	36	18.0	131	65.5	23	11.5	10	5.0	33	16.5	200	100.0	2.97
천주교	(148)	3	2.0	43	29.1	46	31.1	96	64.9	6	4.1	0	0.0	6	4.1	148	100.0	3.29
원불교	(37)	9	24.3	19	51.4	28	75.7	8	21.6	1	2.7	0	0.0	1	2.7	37	100.0	3.97
종교 없음	(452)	8	1.8	121	26.8	129	28.5	306	67.7	15	3.3	2	0.4	17	3.8	452	100.0	3.26
기타	(5)	0	0.0	4	80.0	4	80.0	0	0.0	1	20.0	0	0.0	1	20.0	5	100.0	3.6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3	38.2	11	32.4	24	70.6	5	14.7	3	8.8	2	5.9	5	14.7	34	100.0	3.8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8	6.1	152	51.5	170	57.6	105	35.6	15	5.1	5	1.7	20	6.8	295	100.0	3.55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3	0.4	152	19.3	155	19.7	587	74.6	39	5.0	6	0.8	45	5.7	787	100.0	3.14
연령대																		
청년층	(373)	14	3.8	96	25.7	110	29.5	249	66.8	11	2.9	3	0.8	14	3.8	373	100.0	3.29
중장년층	(370)	9	2.4	97	26.2	106	28.6	239	64.6	21	5.7	4	1.1	25	6.8	370	100.0	3.23
노년층	(373)	11	2.9	122	32.7	133	35.7	209	56.0	25	6.7	6	1.6	31	8.3	373	100.0	3.29

문항9) 원불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태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 수 (명)	① 매우 개방적이고 따뜻하다		② 다소 개방적인 편이다		①+② 개방적이다		③ 다소 폐쇄적인 편이다		④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		③+④ 폐쇄적이다		계		평균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1,116)	62	5.6	591	53.0	653	58.5	449	40.2	14	1.3	463	41.5	1,116	100.0	2.63
연령																
만 19~29세	(183)	24	13.1	102	55.7	126	68.9	57	31.1	0	0.0	57	31.1	183	100.0	2.82
만 30~39세	(190)	9	4.7	97	51.1	106	55.8	79	41.6	5	2.6	84	44.2	190	100.0	2.58
만 40~49세	(182)	10	5.5	103	56.6	113	62.1	67	36.8	2	1.1	69	37.9	182	100.0	2.66
만 50~59세	(188)	5	2.7	93	49.5	98	52.1	88	46.8	2	1.1	90	47.9	188	100.0	2.54
만 60세 이상	(373)	14	3.8	196	52.5	210	56.3	158	42.4	5	1.3	163	43.7	373	100.0	2.59
성별																
남자	(557)	42	7.5	295	53.0	337	60.5	212	38.1	8	1.4	220	39.5	557	100.0	2.67
여자	(559)	20	3.6	296	53.0	316	56.5	237	42.4	6	1.1	243	43.5	559	100.0	2.59
거주 지역																
서울	(179)	11	6.1	96	53.6	107	59.8	72	40.2	0	0.0	72	40.2	179	100.0	2.66
경기도	(261)	11	4.2	126	48.3	137	52.5	118	45.2	6	2.3	124	47.5	261	100.0	2.54
강원도	(55)	1	1.8	26	47.3	27	49.1	27	49.1	1	1.8	28	50.9	55	100.0	2.49
충청도	(100)	5	5.0	58	58.0	63	63.0	37	37.0	0	0.0	37	37.0	100	100.0	2.68
경상도	(291)	18	6.2	151	51.9	169	58.1	117	40.2	5	1.7	122	41.9	291	100.0	2.63
전라도	(175)	12	6.9	102	58.3	114	65.1	59	33.7	2	1.1	61	34.9	175	100.0	2.71
제주도	(55)	4	7.3	32	58.2	36	65.5	19	34.5	0	0.0	19	34.5	55	100.0	2.73
종교																
불교	(274)	24	8.8	151	55.1	175	63.9	98	35.8	1	0.4	99	36.1	274	100.0	2.72
개신교	(200)	6	3.0	88	44.0	94	47.0	100	50.0	6	3.0	106	53.0	200	100.0	2.47
천주교	(148)	1	0.7	82	55.4	83	56.1	63	42.6	2	1.4	65	43.9	148	100.0	2.55
원불교	(37)	8	21.6	21	56.8	29	78.4	8	21.6	0	0.0	8	21.6	37	100.0	3.00
종교 없음	(452)	23	5.1	245	54.2	268	59.3	179	39.6	5	1.1	184	40.7	452	100.0	2.63
기타	(5)	0	0.0	4	80.0	4	80.0	1	20.0	0	0.0	1	20.0	5	100.0	2.8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5	44.1	12	35.3	27	79.4	4	11.8	3	8.8	7	20.6	34	100.0	3.1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27	9.2	188	63.7	215	72.9	76	25.8	4	1.4	80	27.1	295	100.0	2.81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20	2.5	391	49.7	411	52.2	369	46.9	7	0.9	376	47.8	787	100.0	2.54
연령대																
청년층	(373)	33	8.8	199	53.4	232	62.2	136	36.5	5	1.3	141	37.8	373	100.0	2.70
중장년층	(370)	15	4.1	196	53.0	211	57.0	155	41.9	4	1.1	159	43.0	370	100.0	2.60
노년층	(373)	14	3.8	196	52.5	210	56.3	158	42.4	5	1.3	163	43.7	373	100.0	2.59

문항10) 원불교의 교리나 내용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① 매우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②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①+② 이해하기 쉽다		③ 다소 어렵고 생소한 편이다		④ 매우 어렵고 낮설다		③+④ 이해하기 어렵다		계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30	2.7	528	47.3	558	50.0	525	47.0	33	3.0	558	50.0	1,116	100.0	2.50
연령																
만 19~29세	(183)	11	6.0	89	48.6	100	54.6	82	44.8	1	0.5	83	45.4	183	100.0	2.60
만 30~39세	(190)	5	2.6	95	50.0	100	52.6	80	42.1	10	5.3	90	47.4	190	100.0	2.50
만 40~49세	(182)	5	2.7	84	46.2	89	48.9	89	48.9	4	2.2	93	51.1	182	100.0	2.49
만 50~59세	(188)	1	0.5	84	44.7	85	45.2	96	51.1	7	3.7	103	54.8	188	100.0	2.42
만 60세 이상	(373)	8	2.1	176	47.2	184	49.3	178	47.7	11	2.9	189	50.7	373	100.0	2.49
성별																
남자	(557)	20	3.6	274	49.2	294	52.8	247	44.3	16	2.9	263	47.2	557	100.0	2.54
여자	(559)	10	1.8	254	45.4	264	47.2	278	49.7	17	3.0	295	52.8	559	100.0	2.46
거주 지역																
서울	(179)	4	2.2	91	50.8	95	53.1	80	44.7	4	2.2	84	46.9	179	100.0	2.53
경기도	(261)	7	2.7	114	43.7	121	46.4	131	50.2	9	3.4	140	53.6	261	100.0	2.46
강원도	(55)	2	3.6	28	50.9	30	54.5	24	43.6	1	1.8	25	45.5	55	100.0	2.56
충청도	(100)	5	5.0	48	48.0	53	53.0	46	46.0	1	1.0	47	47.0	100	100.0	2.57
경상도	(291)	4	1.4	132	45.4	136	46.7	144	49.5	11	3.8	155	53.3	291	100.0	2.44
전라도	(175)	6	3.4	90	51.4	96	54.9	75	42.9	4	2.3	79	45.1	175	100.0	2.56
제주도	(55)	2	3.6	25	45.5	27	49.1	25	45.5	3	5.5	28	50.9	55	100.0	2.47
종교																
불교	(274)	14	5.1	138	50.4	152	55.5	118	43.1	4	1.5	122	44.5	274	100.0	2.59
개신교	(200)	1	0.5	83	41.5	84	42.0	103	51.5	13	6.5	116	58.0	200	100.0	2.36
천주교	(148)	2	1.4	67	45.3	69	46.6	73	49.3	6	4.1	79	53.4	148	100.0	2.44
원불교	(37)	7	18.9	18	48.6	25	67.6	12	32.4	0	0.0	12	32.4	37	100.0	2.86
종교 없음	(452)	6	1.3	219	48.5	225	49.8	217	48.0	10	2.2	227	50.2	452	100.0	2.49
기타	(5)	0	0.0	3	60.0	3	60.0	2	40.0	0	0.0	2	40.0	5	100.0	2.6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4	41.2	11	32.4	25	73.5	5	14.7	4	11.8	9	26.5	34	100.0	3.0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3	4.4	188	63.7	201	68.1	88	29.8	6	2.0	94	31.9	295	100.0	2.71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3	0.4	329	41.8	332	42.2	432	54.9	23	2.9	455	57.8	787	100.0	2.40
연령대																
청년층	(373)	16	4.3	184	49.3	200	53.6	162	43.4	11	2.9	173	46.4	373	100.0	2.55
중장년층	(370)	6	1.6	168	45.4	174	47.0	185	50.0	11	3.0	196	53.0	370	100.0	2.46
노년층	(373)	8	2.1	176	47.2	184	49.3	178	47.7	11	2.9	189	50.7	373	100.0	2.49

문항11) 원불교에 대한 생각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 수 (명)	참신하고 현대적인 새 종교다		불교의 한 종파다		생활 중심의 수행 종교다		민족 전통과 연결된 민족종교다		신뢰가는 종교는 아니다		계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1,116)	44	3.9	520	46.6	258	23.1	189	16.9	105	9.4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17	9.3	101	55.2	36	19.7	17	9.3	12	6.6	183	100.0
만 30~39세	(190)	6	3.2	79	41.6	40	21.1	38	20.0	27	14.2	190	100.0
만 40~49세	(182)	9	4.9	102	56.0	31	17.0	30	16.5	10	5.5	182	100.0
만 50~59세	(188)	6	3.2	75	39.9	44	23.4	33	17.6	30	16.0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6	1.6	163	43.7	107	28.7	71	19.0	26	7.0	373	100.0
성별													
남자	(557)	28	5.0	241	43.3	135	24.2	99	17.8	54	9.7	557	100.0
여자	(559)	16	2.9	279	49.9	123	22.0	90	16.1	51	9.1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6	3.4	89	49.7	29	16.2	41	22.9	14	7.8	179	100.0
경기도	(261)	12	4.6	125	47.9	52	19.9	46	17.6	26	10.0	261	100.0
강원도	(55)	7	12.7	20	36.4	11	20.0	10	18.2	7	12.7	55	100.0
충청도	(100)	4	4.0	43	43.0	31	31.0	20	20.0	2	2.0	100	100.0
경상도	(291)	6	2.1	144	49.5	61	21.0	41	14.1	39	13.4	291	100.0
전라도	(175)	8	4.6	76	43.4	58	33.1	21	12.0	12	6.9	175	100.0
제주도	(55)	1	1.8	23	41.8	16	29.1	10	18.2	5	9.1	55	100.0
종교													
불교	(274)	13	4.7	132	48.2	73	26.6	34	12.4	22	8.0	274	100.0
개신교	(200)	8	4.0	89	44.5	35	17.5	39	19.5	29	14.5	200	100.0
천주교	(148)	2	1.4	66	44.6	39	26.4	32	21.6	9	6.1	148	100.0
원불교	(37)	3	8.1	18	48.6	11	29.7	5	13.5	0	0.0	37	100.0
종교 없음	(452)	17	3.8	214	47.3	99	21.9	77	17.0	45	10.0	452	100.0
기타	(5)	1	20.0	1	20.0	1	20.0	2	40.0	0	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4	11.8	16	47.1	8	23.5	4	11.8	2	5.9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21	7.1	122	41.4	85	28.8	51	17.3	16	5.4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9	2.4	382	48.5	165	21.0	134	17.0	87	11.1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23	6.2	180	48.3	76	20.4	55	14.7	39	10.5	373	100.0
중장년층	(370)	15	4.1	177	47.8	75	20.3	63	17.0	40	10.8	370	100.0
노년층	(373)	6	1.6	163	43.7	107	28.7	71	19.0	26	7.0	373	100.0

문항12) 원불교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것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 수 (명)	원불교 교리와 이념		원불교의 종교의식(법회 , 천도재)		마음공부, 수행 좌선 등 프로그램		청소년·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 참여		계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1,116)	221	19.8	117	10.5	517	46.3	79	7.1	182	16.3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43	23.5	27	14.8	76	41.5	15	8.2	22	12.0	183	100.0
만 30~39세	(190)	34	17.9	29	15.3	79	41.6	22	11.6	26	13.7	190	100.0
만 40~49세	(182)	30	16.5	26	14.3	89	48.9	19	10.4	18	9.9	182	100.0
만 50~59세	(188)	33	17.6	13	6.9	90	47.9	10	5.3	42	22.3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81	21.7	22	5.9	183	49.1	13	3.5	74	19.8	373	100.0
성별													
남자	(557)	128	23.0	70	12.6	244	43.8	36	6.5	79	14.2	557	100.0
여자	(559)	93	16.6	47	8.4	273	48.8	43	7.7	103	18.4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36	20.1	23	12.8	89	49.7	8	4.5	23	12.8	179	100.0
경기도	(261)	54	20.7	27	10.3	112	42.9	21	8.0	47	18.0	261	100.0
강원도	(55)	11	20.0	0	0.0	24	43.6	4	7.3	16	29.1	55	100.0
충청도	(100)	19	19.0	9	9.0	52	52.0	7	7.0	13	13.0	100	100.0
경상도	(291)	58	19.9	31	10.7	132	45.4	22	7.6	48	16.5	291	100.0
전라도	(175)	34	19.4	18	10.3	82	46.9	13	7.4	28	16.0	175	100.0
제주도	(55)	9	16.4	9	16.4	26	47.3	4	7.3	7	12.7	55	100.0
종교													
불교	(274)	72	26.3	37	13.5	122	44.5	18	6.6	25	9.1	274	100.0
개신교	(200)	31	15.5	14	7.0	84	42.0	17	8.5	54	27.0	200	100.0
천주교	(148)	29	19.6	12	8.1	84	56.8	6	4.1	17	11.5	148	100.0
원불교	(37)	6	16.2	10	27.0	18	48.6	2	5.4	1	2.7	37	100.0
종교 없음	(452)	83	18.4	43	9.5	207	45.8	35	7.7	84	18.6	452	100.0
기타	(5)	0	0.0	1	20.0	2	40.0	1	20.0	1	2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5	14.7	12	35.3	10	29.4	5	14.7	2	5.9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55	18.6	34	11.5	140	47.5	27	9.2	39	13.2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61	20.5	71	9.0	367	46.6	47	6.0	141	17.9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77	20.6	56	15.0	155	41.6	37	9.9	48	12.9	373	100.0
중장년층	(370)	63	17.0	39	10.5	179	48.4	29	7.8	60	16.2	370	100.0
노년층	(373)	81	21.7	22	5.9	183	49.1	13	3.5	74	19.8	373	100.0

문항13) 원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 수 (명)	일원상(동그라미 상징)		원불교 교당		원불교 성직자 복장		원불교 관련기관 (원광어린이 집, 원광대학교, 원불교 육군훈련소, 복지기관 등)		원불교 마음공부, 좌선 등 수행 프로그램		현대적인 새불교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1,116)	620	55.6	256	22.9	220	19.7	445	39.9	192	17.2	113	10.1	84	7.5
연령															
만 19~29세	(183)	83	45.4	50	27.3	27	14.8	82	44.8	35	19.1	27	14.8	13	7.1
만 30~39세	(190)	88	46.3	47	24.7	20	10.5	87	45.8	28	14.7	28	14.7	21	11.1
만 40~49세	(182)	92	50.5	42	23.1	30	16.5	77	42.3	42	23.1	17	9.3	11	6.0
만 50~59세	(188)	113	60.1	40	21.3	41	21.8	72	38.3	36	19.1	13	6.9	17	9.0
만 60세 이상	(373)	244	65.4	77	20.6	102	27.3	127	34.0	51	13.7	28	7.5	22	5.9
성별															
남자	(557)	319	57.3	126	22.6	101	18.1	221	39.7	85	15.3	59	10.6	47	8.4
여자	(559)	301	53.8	130	23.3	119	21.3	224	40.1	107	19.1	54	9.7	37	6.6
거주 지역															
서울	(179)	115	64.2	44	24.6	39	21.8	57	31.8	38	21.2	18	10.1	5	2.8
경기도	(261)	150	57.5	53	20.3	52	19.9	99	37.9	43	16.5	26	10.0	24	9.2
강원도	(55)	30	54.5	4	7.3	12	21.8	24	43.6	8	14.5	4	7.3	7	12.7
충청도	(100)	44	44.0	24	24.0	19	19.0	45	45.0	20	20.0	17	17.0	6	6.0
경상도	(291)	162	55.7	75	25.8	48	16.5	115	39.5	50	17.2	30	10.3	25	8.6
전라도	(175)	93	53.1	49	28.0	33	18.9	88	50.3	24	13.7	14	8.0	11	6.3
제주도	(55)	26	47.3	7	12.7	17	30.9	17	30.9	9	16.4	4	7.3	6	10.9
종교															
불교	(274)	147	53.6	68	24.8	55	20.1	106	38.7	47	17.2	34	12.4	17	6.2
개신교	(200)	113	56.5	41	20.5	39	19.5	78	39.0	30	15.0	26	13.0	19	9.5
천주교	(148)	92	62.2	33	22.3	43	29.1	55	37.2	24	16.2	8	5.4	4	2.7
원불교	(37)	17	45.9	13	35.1	12	32.4	13	35.1	8	21.6	3	8.1	1	2.7
종교 없음	(452)	249	55.1	99	21.9	71	15.7	191	42.3	81	17.9	42	9.3	42	9.3
기타	(5)	2	40.0	2	40.0	0	0.0	2	40.0	2	40.0	0	0.0	1	2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5	44.1	11	32.4	12	35.3	15	44.1	4	11.8	4	11.8	2	5.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78	60.3	80	27.1	58	19.7	116	39.3	44	14.9	32	10.8	18	6.1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427	54.3	165	21.0	150	19.1	314	39.9	144	18.3	77	9.8	64	8.1
연령대															
청년층	(373)	171	45.8	97	26.0	47	12.6	169	45.3	63	16.9	55	14.7	34	9.1
중장년층	(370)	205	55.4	82	22.2	71	19.2	149	40.3	78	21.1	30	8.1	28	7.6
노년층	(373)	244	65.4	77	20.6	102	27.3	127	34.0	51	13.7	28	7.5	22	5.9

문항13-1) 원불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1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일원상(동그라미 상징)		원불교 교당		원불교 성직자 복장		원불교 관련기관 (원광어린이집, 원광대학교, 원불교 육군훈련소, 복지기관 등)		원불교 마음공부, 좌선 수행 프로그램		현대적인 새불교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516	46.2	143	12.8	90	8.1	206	18.5	73	6.5	46	4.1	42	3.8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60	32.8	33	18.0	15	8.2	41	22.4	17	9.3	11	6.0	6	3.3	183	100.0
만 30~39세	(190)	69	36.3	27	14.2	8	4.2	50	26.3	8	4.2	14	7.4	14	7.4	190	100.0
만 40~49세	(182)	81	44.5	21	11.5	15	8.2	35	19.2	19	10.4	6	3.3	5	2.7	182	100.0
만 50~59세	(188)	93	49.5	21	11.2	17	9.0	26	13.8	15	8.0	5	2.7	11	5.9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213	57.1	41	11.0	35	9.4	54	14.5	14	3.8	10	2.7	6	1.6	373	100.0
성별																	
남자	(557)	271	48.7	71	12.7	42	7.5	97	17.4	31	5.6	21	3.8	24	4.3	557	100.0
여자	(559)	245	43.8	72	12.9	48	8.6	109	19.5	42	7.5	25	4.5	18	3.2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94	52.5	23	12.8	16	8.9	25	14.0	12	6.7	8	4.5	1	0.6	179	100.0
경기도	(261)	127	48.7	28	10.7	22	8.4	45	17.2	16	6.1	7	2.7	16	6.1	261	100.0
강원도	(55)	27	49.1	1	1.8	3	5.5	12	21.8	6	10.9	3	5.5	3	5.5	55	100.0
충청도	(100)	39	39.0	12	12.0	8	8.0	24	24.0	8	8.0	7	7.0	2	2.0	100	100.0
경상도	(291)	130	44.7	42	14.4	20	6.9	53	18.2	21	7.2	14	4.8	11	3.8	291	100.0
전라도	(175)	77	44.0	33	18.9	12	6.9	36	20.6	6	3.4	6	3.4	5	2.9	175	100.0
제주도	(55)	22	40.0	4	7.3	9	16.4	11	20.0	4	7.3	1	1.8	4	7.3	55	100.0
종교																	
불교	(274)	119	43.4	39	14.2	25	9.1	51	18.6	18	6.6	15	5.5	7	2.6	274	100.0
개신교	(200)	100	50.0	23	11.5	16	8.0	31	15.5	13	6.5	8	4.0	9	4.5	200	100.0
천주교	(148)	71	48.0	14	9.5	19	12.8	33	22.3	6	4.1	3	2.0	2	1.4	148	100.0
원불교	(37)	13	35.1	6	16.2	7	18.9	5	13.5	5	13.5	1	2.7	0	0.0	37	100.0
종교 없음	(452)	211	46.7	60	13.3	23	5.1	85	18.8	31	6.9	19	4.2	23	5.1	452	100.0
기타	(5)	2	40.0	1	20.0	0	0.0	1	20.0	0	0.0	0	0.0	1	2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0	29.4	6	17.6	6	17.6	10	29.4	1	2.9	0	0.0	1	2.9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52	51.5	47	15.9	15	5.1	44	14.9	17	5.8	14	4.7	6	2.0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354	45.0	90	11.4	69	8.8	152	19.3	55	7.0	32	4.1	35	4.4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129	34.6	60	16.1	23	6.2	91	24.4	25	6.7	25	6.7	20	5.4	373	100.0
중장년층	(370)	174	47.0	42	11.4	32	8.6	61	16.5	34	9.2	11	3.0	16	4.3	370	100.0
노년층	(373)	213	57.1	41	11.0	35	9.4	54	14.5	14	3.8	10	2.7	6	1.6	373	100.0

문항14) 원불교하면 떠오르는 핵심가치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일원상(하나로 연결된 진리)		정신개벽		마음공부		은혜 (감사, 보은)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536	48.0	111	9.9	325	29.1	108	9.7	12	1.1	24	2.2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71	38.8	23	12.6	54	29.5	30	16.4	4	2.2	1	0.5	183	100.0
만 30~39세	(190)	80	42.1	28	14.7	48	25.3	24	12.6	4	2.1	6	3.2	190	100.0
만 40~49세	(182)	76	41.8	24	13.2	54	29.7	22	12.1	0	0.0	6	3.3	182	100.0
만 50~59세	(188)	95	50.5	14	7.4	63	33.5	11	5.9	1	0.5	4	2.1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214	57.4	22	5.9	106	28.4	21	5.6	3	0.8	7	1.9	373	100.0
성별															
남자	(557)	267	47.9	68	12.2	157	28.2	51	9.2	5	0.9	9	1.6	557	100.0
여자	(559)	269	48.1	43	7.7	168	30.1	57	10.2	7	1.3	15	2.7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98	54.7	13	7.3	44	24.6	17	9.5	5	2.8	2	1.1	179	100.0
경기도	(261)	127	48.7	25	9.6	72	27.6	29	11.1	5	1.9	3	1.1	261	100.0
강원도	(55)	26	47.3	5	9.1	17	30.9	3	5.5	0	0.0	4	7.3	55	100.0
충청도	(100)	44	44.0	10	10.0	34	34.0	11	11.0	0	0.0	1	1.0	100	100.0
경상도	(291)	144	49.5	34	11.7	82	28.2	20	6.9	2	0.7	9	3.1	291	100.0
전라도	(175)	77	44.0	13	7.4	61	34.9	21	12.0	0	0.0	3	1.7	175	100.0
제주도	(55)	20	36.4	11	20.0	15	27.3	7	12.7	0	0.0	2	3.6	55	100.0
종교															
불교	(274)	143	52.2	26	9.5	76	27.7	27	9.9	1	0.4	1	0.4	274	100.0
개신교	(200)	106	53.0	17	8.5	50	25.0	19	9.5	4	2.0	4	2.0	200	100.0
천주교	(148)	70	47.3	13	8.8	45	30.4	8	5.4	2	1.4	10	6.8	148	100.0
원불교	(37)	11	29.7	7	18.9	13	35.1	6	16.2	0	0.0	0	0.0	37	100.0
종교 없음	(452)	204	45.1	48	10.6	141	31.2	46	10.2	4	0.9	9	2.0	452	100.0
기타	(5)	2	40.0	0	0.0	0	0.0	2	40.0	1	20.0	0	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3	38.2	8	23.5	7	20.6	5	14.7	0	0.0	1	2.9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50	50.8	23	7.8	87	29.5	27	9.2	4	1.4	4	1.4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373	47.4	80	10.2	231	29.4	76	9.7	8	1.0	19	2.4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151	40.5	51	13.7	102	27.3	54	14.5	8	2.1	7	1.9	373	100.0
중장년층	(370)	171	46.2	38	10.3	117	31.6	33	8.9	1	0.3	10	2.7	370	100.0
노년층	(373)	214	57.4	22	5.9	106	28.4	21	5.6	3	0.8	7	1.9	373	100.0

문항15) 원불교를 경험하고 싶은 경로(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교당 방문 (법회, 마중공부 등 직접 참여)		영상·좌선 체험(수행 프로그램 참가)		SNS(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유튜브, 팟캐스트 등 영상, 오디오 콘텐츠		도서, 잡지, 원불교 관련 서적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		사회봉사 활동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256	22.9	470	42.1	276	24.7	426	38.2	206	18.5	88	7.9	194	17.4
연령															
만 19~29세	(183)	42	23.0	83	45.4	57	31.1	64	35.0	26	14.2	13	7.1	19	10.4
만 30~39세	(190)	36	18.9	59	31.1	57	30.0	81	42.6	40	21.1	12	6.3	30	15.8
만 40~49세	(182)	47	25.8	76	41.8	47	25.8	69	37.9	20	11.0	12	6.6	35	19.2
만 50~59세	(188)	30	16.0	85	45.2	47	25.0	78	41.5	36	19.1	11	5.9	42	22.3
만 60세 이상	(373)	101	27.1	167	44.8	68	18.2	134	35.9	84	22.5	40	10.7	68	18.2
성별															
남자	(557)	138	24.8	232	41.7	152	27.3	203	36.4	118	21.2	36	6.5	83	14.9
여자	(559)	118	21.1	238	42.6	124	22.2	223	39.9	88	15.7	52	9.3	111	19.9
거주 지역															
서울	(179)	44	24.6	86	48.0	39	21.8	67	37.4	36	20.1	11	6.1	27	15.1
경기도	(261)	54	20.7	104	39.8	71	27.2	112	42.9	48	18.4	15	5.7	45	17.2
강원도	(55)	11	20.0	28	50.9	15	27.3	15	27.3	13	23.6	1	1.8	11	20.0
충청도	(100)	24	24.0	50	50.0	28	28.0	36	36.0	15	15.0	7	7.0	17	17.0
경상도	(291)	62	21.3	115	39.5	71	24.4	115	39.5	51	17.5	31	10.7	54	18.6
전라도	(175)	47	26.9	64	36.6	40	22.9	63	36.0	37	21.1	20	11.4	28	16.0
제주도	(55)	14	25.5	23	41.8	12	21.8	18	32.7	6	10.9	3	5.5	12	21.8
종교															
불교	(274)	91	33.2	133	48.5	63	23.0	92	33.6	50	18.2	17	6.2	34	12.4
개신교	(200)	26	13.0	67	33.5	63	31.5	87	43.5	52	26.0	14	7.0	38	19.0
천주교	(148)	27	18.2	76	51.4	23	15.5	66	44.6	27	18.2	11	7.4	22	14.9
원불교	(37)	14	37.8	16	43.2	13	35.1	10	27.0	6	16.2	2	5.4	2	5.4
종교 없음	(452)	97	21.5	176	38.9	112	24.8	170	37.6	71	15.7	41	9.1	98	21.7
기타	(5)	1	20.0	2	40.0	2	40.0	1	20.0	0	0.0	3	60.0	0	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9	26.5	14	41.2	11	32.4	14	41.2	10	29.4	1	2.9	1	2.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83	28.1	150	50.8	64	21.7	104	35.3	58	19.7	24	8.1	39	13.2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64	20.8	306	38.9	201	25.5	308	39.1	138	17.5	63	8.0	154	19.6
연령대															
청년층	(373)	78	20.9	142	38.1	114	30.6	145	38.9	66	17.7	25	6.7	49	13.1
중장년층	(370)	77	20.8	161	43.5	94	25.4	147	39.7	56	15.1	23	6.2	77	20.8
노년층	(373)	101	27.1	167	44.8	68	18.2	134	35.9	84	22.5	40	10.7	68	18.2

문항15-1) 원불교를 경험하고 싶은 경로(1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교당 방문 (법회, 마음공부 등 직접 참여)		영상·좌선 체험(수행 프로그램 참가)		SNS(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유튜브, 팟캐스트 등 영상·오디오 콘텐츠		도서, 잡지, 원불교 서적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		사회봉사 활동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141	12.6	317	28.4	172	15.4	237	21.2	92	8.2	49	4.4	108	9.7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26	14.2	54	29.5	43	23.5	33	18.0	7	3.8	6	3.3	14	7.7	183	100.0
만 30~39세	(190)	26	13.7	37	19.5	40	21.1	42	22.1	23	12.1	8	4.2	14	7.4	190	100.0
만 40~49세	(182)	22	12.1	55	30.2	29	15.9	39	21.4	11	6.0	6	3.3	20	11.0	182	100.0
만 50~59세	(188)	17	9.0	56	29.8	28	14.9	42	22.3	16	8.5	5	2.7	24	12.8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50	13.4	115	30.8	32	8.6	81	21.7	35	9.4	24	6.4	36	9.7	373	100.0
성별																	
남자	(557)	81	14.5	145	26.0	102	18.3	106	19.0	53	9.5	20	3.6	50	9.0	557	100.0
여자	(559)	60	10.7	172	30.8	70	12.5	131	23.4	39	7.0	29	5.2	58	10.4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25	14.0	55	30.7	27	15.1	39	21.8	15	8.4	4	2.2	14	7.8	179	100.0
경기도	(261)	31	11.9	70	26.8	42	16.1	63	24.1	19	7.3	8	3.1	28	10.7	261	100.0
강원도	(55)	7	12.7	13	23.6	12	21.8	8	14.5	5	9.1	1	1.8	9	16.4	55	100.0
충청도	(100)	12	12.0	36	36.0	17	17.0	22	22.0	6	6.0	4	4.0	3	3.0	100	100.0
경상도	(291)	36	12.4	81	27.8	39	13.4	63	21.6	25	8.6	15	5.2	32	11.0	291	100.0
전라도	(175)	23	13.1	46	26.3	25	14.3	33	18.9	19	10.9	15	8.6	14	8.0	175	100.0
제주도	(55)	7	12.7	16	29.1	10	18.2	9	16.4	3	5.5	2	3.6	8	14.5	55	100.0
종교																	
불교	(274)	52	19.0	94	34.3	42	15.3	44	16.1	21	7.7	6	2.2	15	5.5	274	100.0
개신교	(200)	17	8.5	42	21.0	35	17.5	48	24.0	24	12.0	8	4.0	26	13.0	200	100.0
천주교	(148)	13	8.8	54	36.5	13	8.8	37	25.0	13	8.8	7	4.7	11	7.4	148	100.0
원불교	(37)	6	16.2	10	27.0	9	24.3	7	18.9	3	8.1	1	2.7	1	2.7	37	100.0
종교 없음	(452)	53	11.7	115	25.4	73	16.2	100	22.1	31	6.9	25	5.5	55	12.2	452	100.0
기타	(5)	0	0.0	2	40.0	0	0.0	1	20.0	0	0.0	2	40.0	0	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6	17.6	8	23.5	9	26.5	5	14.7	4	11.8	1	2.9	1	2.9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46	15.6	101	34.2	37	12.5	54	18.3	24	8.1	13	4.4	20	6.8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89	11.3	208	26.4	126	16.0	178	22.6	64	8.1	35	4.4	87	11.1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52	13.9	91	24.4	83	22.3	75	20.1	30	8.0	14	3.8	28	7.5	373	100.0
중장년층	(370)	39	10.5	111	30.0	57	15.4	81	21.9	27	7.3	11	3.0	44	11.9	370	100.0
노년층	(373)	50	13.4	115	30.8	32	8.6	81	21.7	35	9.4	24	6.4	36	9.7	373	100.0

문항16) 원불교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사회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기성종교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65	5.8	408	36.6	371	33.2	28	2.5	244	21.9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17	9.3	58	31.7	61	33.3	8	4.4	39	21.3	183	100.0
만 30~39세	(190)	8	4.2	56	29.5	67	35.3	4	2.1	55	28.9	190	100.0
만 40~49세	(182)	8	4.4	67	36.8	70	38.5	5	2.7	32	17.6	182	100.0
만 50~59세	(188)	9	4.8	77	41.0	43	22.9	5	2.7	54	28.7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23	6.2	150	40.2	130	34.9	6	1.6	64	17.2	373	100.0
성별													
남자	(557)	34	6.1	226	40.6	192	34.5	16	2.9	89	16.0	557	100.0
여자	(559)	31	5.5	182	32.6	179	32.0	12	2.1	155	27.7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13	7.3	78	43.6	56	31.3	7	3.9	25	14.0	179	100.0
경기도	(261)	16	6.1	86	33.0	95	36.4	7	2.7	57	21.8	261	100.0
강원도	(55)	1	1.8	17	30.9	19	34.5	0	0.0	18	32.7	55	100.0
충청도	(100)	6	6.0	33	33.0	34	34.0	3	3.0	24	24.0	100	100.0
경상도	(291)	14	4.8	102	35.1	94	32.3	7	2.4	74	25.4	291	100.0
전라도	(175)	14	8.0	72	41.1	55	31.4	3	1.7	31	17.7	175	100.0
제주도	(55)	1	1.8	20	36.4	18	32.7	1	1.8	15	27.3	55	100.0
종교													
불교	(274)	22	8.0	118	43.1	76	27.7	6	2.2	52	19.0	274	100.0
개신교	(200)	11	5.5	49	24.5	79	39.5	5	2.5	56	28.0	200	100.0
천주교	(148)	7	4.7	53	35.8	55	37.2	3	2.0	30	20.3	148	100.0
원불교	(37)	3	8.1	23	62.2	10	27.0	1	2.7	0	0.0	37	100.0
종교 없음	(452)	21	4.6	164	36.3	150	33.2	11	2.4	106	23.5	452	100.0
기타	(5)	1	20.0	1	20.0	1	20.0	2	40.0	0	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5	14.7	16	47.1	6	17.6	4	11.8	3	8.8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27	9.2	141	47.8	81	27.5	7	2.4	39	13.2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33	4.2	251	31.9	284	36.1	17	2.2	202	25.7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25	6.7	114	30.6	128	34.3	12	3.2	94	25.2	373	100.0
중장년층	(370)	17	4.6	144	38.9	113	30.5	10	2.7	86	23.2	370	100.0
노년층	(373)	23	6.2	150	40.2	130	34.9	6	1.6	64	17.2	373	100.0

문항17) 원불교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활동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 수 (명)	‘원불교 봉공회’ 국내외 재난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원불교 교당 및 기관’ 국가적 비극에 대한 추모의식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소성리 사드반대 평화운동		‘세계봉공 재단’ 대학생, 청년 해외봉사활동		‘원불교 환경여대’ 햇빛발전소 건립과 탈핵운동		생명존중 자살예방 캠페인		저출생대응 ‘다들다들’ 캠페인		‘밋마인드 (meet mind)’ 명상 컨퍼런스		‘심심풀이’ 인성교육		‘종교연합 세계 시민회의 (I CCGC)’ 주최		잘 모르겠다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1,116)	210	18.8	226	20.3	64	5.7	118	10.6	122	10.9	134	12.0	75	6.7	65	5.8	60	5.4	88	7.9	574	51.4
연령																							
만 19~29세	(183)	30	16.4	28	15.3	10	5.5	15	8.2	14	7.7	17	9.3	18	9.8	10	5.5	18	9.8	17	9.3	93	50.8
만 30~39세	(190)	33	17.4	29	15.3	10	5.3	18	9.5	14	7.4	22	11.6	13	6.8	12	6.3	11	5.8	10	5.3	110	57.9
만 40~49세	(182)	35	19.2	38	20.9	13	7.1	21	11.5	19	10.4	23	12.6	12	6.6	9	4.9	11	6.0	16	8.8	89	48.9
만 50~59세	(188)	29	15.4	35	18.6	9	4.8	20	10.6	20	10.6	23	12.2	11	5.9	15	8.0	11	5.9	13	6.9	102	54.3
만 60세 이상	(373)	83	22.3	96	25.7	22	5.9	44	11.8	55	14.7	49	13.1	21	5.6	19	5.1	9	2.4	32	8.6	180	48.3
성별																							
남자	(557)	126	22.6	128	23.0	35	6.3	67	12.0	67	12.0	69	12.4	48	8.6	35	6.3	35	6.3	57	10.2	257	46.1
여자	(559)	84	15.0	98	17.5	29	5.2	51	9.1	55	9.8	65	11.6	27	4.8	30	5.4	25	4.5	31	5.5	317	56.7
거주 지역																							
서울	(179)	29	16.2	37	20.7	11	6.1	15	8.4	21	11.7	27	15.1	13	7.3	12	6.7	12	6.7	16	8.9	88	49.2
경기도	(261)	54	20.7	46	17.6	17	6.5	31	11.9	25	9.6	28	10.7	21	8.0	15	5.7	14	5.4	20	7.7	136	52.1
강원도	(55)	7	12.7	10	18.2	3	5.5	8	14.5	4	7.3	7	12.7	1	1.8	5	9.1	4	7.3	4	7.3	33	60.0
충청도	(100)	19	19.0	20	20.0	2	2.0	8	8.0	6	6.0	14	14.0	6	6.0	8	8.0	5	5.0	12	12.0	49	49.0
경상도	(291)	51	17.5	58	19.9	17	5.8	30	10.3	41	14.1	31	10.7	15	5.2	19	6.5	12	4.1	20	6.9	154	52.9
전라도	(175)	40	22.9	44	25.1	14	8.0	23	13.1	24	13.7	24	13.7	16	9.1	6	3.4	12	6.9	11	6.3	81	46.3
제주도	(55)	10	18.2	11	20.0	0	0.0	3	5.5	1	1.8	3	5.5	3	5.5	0	0.0	1	1.8	5	9.1	33	60.0
종교																							
불교	(274)	68	24.8	58	21.2	15	5.5	33	12.0	36	13.1	41	15.0	23	8.4	12	4.4	19	6.9	28	10.2	127	46.4
개신교	(200)	36	18.0	44	22.0	11	5.5	22	11.0	20	10.0	30	15.0	9	4.5	10	5.0	10	5.0	15	7.5	111	55.5
천주교	(148)	27	18.2	33	22.3	12	8.1	11	7.4	20	13.5	13	8.8	9	6.1	15	10.1	8	5.4	15	10.1	72	48.6
원불교	(37)	13	35.1	13	35.1	2	5.4	7	18.9	6	16.2	12	32.4	9	24.3	5	13.5	4	10.8	7	18.9	5	13.5
종교 없음	(452)	64	14.2	76	16.8	23	5.1	45	10.0	40	8.8	38	8.4	25	5.5	23	5.1	18	4.0	23	5.1	259	57.3
기타	(5)	2	40.0	2	40.0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6	47.1	16	47.1	8	23.5	8	23.5	8	23.5	12	35.3	12	35.3	9	26.5	5	14.7	8	23.5	5	14.7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76	25.8	78	26.4	18	6.1	40	13.6	40	13.6	52	17.6	22	7.5	25	8.5	24	8.1	38	12.9	120	40.7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18	15.0	132	16.8	38	4.8	70	8.9	74	9.4	70	8.9	41	5.2	31	3.9	31	3.9	42	5.3	449	57.1
연령대																							
청년층	(373)	63	16.9	57	15.3	20	5.4	33	8.8	28	7.5	39	10.5	31	8.3	22	5.9	29	7.8	27	7.2	203	54.4
중장년층	(370)	64	17.3	73	19.7	22	5.9	41	11.1	39	10.5	46	12.4	23	6.2	24	6.5	22	5.9	29	7.8	191	51.6
노년층	(373)	83	22.3	96	25.7	22	5.9	44	11.8	55	14.7	49	13.1	21	5.6	19	5.1	9	2.4	32	8.6	180	48.3

문항18) 원불교의 사회적 역할(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먼저 실천		사회적 소수자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환경 보전 활동		국내외 안화 정착을 위한 중재자		갈등화 평화 위한 역할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생명 과학 기술의 윤리적 제시		삶의 지혜와 정신적 안정에는 기여하는 영성 역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기타		잘 모르겠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376	33.7	355	31.8	145	13.0	225	20.2	320	28.7	404	36.2	181	16.2	10	0.9	18	1.6		
연령																					
만 19~29세	(183)	52	28.4	69	37.7	28	15.3	34	18.6	47	25.7	63	34.4	36	19.7	0	0.0	0	0.0		
만 30~39세	(190)	57	30.0	53	27.9	23	12.1	52	27.4	52	27.4	61	32.1	38	20.0	2	1.1	3	1.6		
만 40~49세	(182)	46	25.3	51	28.0	35	19.2	29	15.9	57	31.3	73	40.1	25	13.7	3	1.6	2	1.1		
만 50~59세	(188)	62	33.0	68	36.2	23	12.2	38	20.2	56	29.8	66	35.1	29	15.4	1	0.5	6	3.2		
만 60세 이상	(373)	159	42.6	114	30.6	36	9.7	72	19.3	108	29.0	141	37.8	53	14.2	4	1.1	7	1.9		
성별																					
남자	(557)	203	36.4	179	32.1	81	14.5	130	23.3	159	28.5	179	32.1	78	14.0	4	0.7	4	0.7		
여자	(559)	173	30.9	176	31.5	64	11.4	95	17.0	161	28.8	225	40.3	103	18.4	6	1.1	14	2.5		
거주 지역																					
서울	(179)	62	34.6	55	30.7	23	12.8	42	23.5	55	30.7	60	33.5	32	17.9	0	0.0	2	1.1		
경기도	(261)	92	35.2	97	37.2	32	12.3	50	19.2	60	23.0	90	34.5	36	13.8	5	1.9	4	1.5		
강원도	(55)	20	36.4	17	30.9	8	14.5	11	20.0	18	32.7	20	36.4	4	7.3	0	0.0	1	1.8		
충청도	(100)	38	38.0	29	29.0	12	12.0	20	20.0	33	33.0	39	39.0	16	16.0	1	1.0	0	0.0		
경상도	(291)	103	35.4	94	32.3	40	13.7	59	20.3	79	27.1	99	34.0	46	15.8	3	1.0	6	2.1		
전라도	(175)	48	27.4	47	26.9	23	13.1	35	20.0	60	34.3	72	41.1	37	21.1	1	0.6	2	1.1		
제주도	(55)	13	23.6	16	29.1	7	12.7	8	14.5	15	27.3	24	43.6	10	18.2	0	0.0	3	5.5		
종교																					
불교	(274)	105	38.3	79	28.8	39	14.2	50	18.2	96	35.0	102	37.2	33	12.0	0	0.0	1	0.4		
개신교	(200)	64	32.0	65	32.5	24	12.0	48	24.0	55	27.5	62	31.0	33	16.5	4	2.0	7	3.5		
천주교	(148)	44	29.7	49	33.1	12	8.1	30	20.3	52	35.1	60	40.5	20	13.5	1	0.7	6	4.1		
원불교	(37)	6	16.2	10	27.0	8	21.6	9	24.3	8	21.6	18	48.6	5	13.5	0	0.0	0	0.0		
종교 없음	(452)	155	34.3	150	33.2	62	13.7	88	19.5	109	24.1	161	35.6	87	19.2	5	1.1	4	0.9		
기타	(5)	2	40.0	2	40.0	0	0.0	0	0.0	0	0.0	1	20.0	3	60.0	0	0.0	0	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5	14.7	12	35.3	4	11.8	9	26.5	10	29.4	12	35.3	7	20.6	1	2.9	1	2.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08	36.6	99	33.6	37	12.5	73	24.7	91	30.8	91	30.8	36	12.2	1	0.3	6	2.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263	33.4	244	31.0	104	13.2	143	18.2	219	27.8	301	38.2	138	17.5	8	1.0	11	1.4		
연령대																					
청년층	(373)	109	29.2	122	32.7	51	13.7	86	23.1	99	26.5	124	33.2	74	19.8	2	0.5	3	0.8		
중장년층	(370)	108	29.2	119	32.2	58	15.7	67	18.1	113	30.5	139	37.6	54	14.6	4	1.1	8	2.2		
노년층	(373)	159	42.6	114	30.6	36	9.7	72	19.3	108	29.0	141	37.8	53	14.2	4	1.1	7	1.9		

문항18-1) 원불교의 사회적 역할(1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사회적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먼저 실천		사회적 소수자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환경 보전 활동		국내외 평화와 친화 역할		갈등 해결을 위한 정중 역할		생명 및 예방 과학 윤리적 제시		존중 자살 생명의 방향을 지정		삶의 정신적 안정 기여하는 영성 역할		지혜와 안정 기여하는 영성 역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협력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267	23.9	225	20.2	74	6.6	109	9.8	151	13.5	183	16.4	80	7.2	9	0.8	18	1.6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30	16.4	44	24.0	15	8.2	20	10.9	24	13.1	31	16.9	19	10.4	0	0.0	0	0.0	183	100.0						
만 30~39세	(190)	40	21.1	32	16.8	14	7.4	23	12.1	22	11.6	34	17.9	20	10.5	2	1.1	3	1.6	190	100.0						
만 40~49세	(182)	33	18.1	30	16.5	20	11.0	16	8.8	30	16.5	35	19.2	13	7.1	3	1.6	2	1.1	182	100.0						
만 50~59세	(188)	40	21.3	45	23.9	10	5.3	21	11.2	33	17.6	26	13.8	6	3.2	1	0.5	6	3.2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124	33.2	74	19.8	15	4.0	29	7.8	42	11.3	57	15.3	22	5.9	3	0.8	7	1.9	373	100.0						
성별																											
남자	(557)	151	27.1	109	19.6	42	7.5	55	9.9	74	13.3	84	15.1	35	6.3	3	0.5	4	0.7	557	100.0						
여자	(559)	116	20.8	116	20.8	32	5.7	54	9.7	77	13.8	99	17.7	45	8.1	6	1.1	14	2.5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43	24.0	38	21.2	12	6.7	23	12.8	22	12.3	24	13.4	15	8.4	0	0.0	2	1.1	179	100.0						
경기도	(261)	64	24.5	59	22.6	16	6.1	23	8.8	35	13.4	38	14.6	18	6.9	4	1.5	4	1.5	261	100.0						
강원도	(55)	12	21.8	13	23.6	5	9.1	6	10.9	7	12.7	8	14.5	3	5.5	0	0.0	1	1.8	55	100.0						
충청도	(100)	27	27.0	14	14.0	6	6.0	10	10.0	12	12.0	23	23.0	7	7.0	1	1.0	0	0.0	100	100.0						
경상도	(291)	74	25.4	63	21.6	18	6.2	26	8.9	39	13.4	46	15.8	16	5.5	3	1.0	6	2.1	291	100.0						
전라도	(175)	36	20.6	28	16.0	14	8.0	15	8.6	28	16.0	37	21.1	14	8.0	1	0.6	2	1.1	175	100.0						
제주도	(55)	11	20.0	10	18.2	3	5.5	6	10.9	8	14.5	7	12.7	7	12.7	0	0.0	3	5.5	55	100.0						
종교																											
불교	(274)	76	27.7	47	17.2	19	6.9	23	8.4	44	16.1	49	17.9	15	5.5	0	0.0	1	0.4	274	100.0						
개신교	(200)	45	22.5	45	22.5	15	7.5	20	10.0	25	12.5	27	13.5	12	6.0	4	2.0	7	3.5	200	100.0						
천주교	(148)	32	21.6	29	19.6	8	5.4	15	10.1	24	16.2	26	17.6	7	4.7	1	0.7	6	4.1	148	100.0						
원불교	(37)	4	10.8	6	16.2	4	10.8	5	13.5	5	13.5	12	32.4	1	2.7	0	0.0	0	0.0	37	100.0						
종교 없음	(452)	108	23.9	97	21.5	28	6.2	46	10.2	53	11.7	69	15.3	43	9.5	4	0.9	4	0.9	452	100.0						
기타	(5)	2	40.0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40.0	0	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4	11.8	6	17.6	2	5.9	4	11.8	5	14.7	8	23.5	3	8.8	1	2.9	1	2.9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80	27.1	65	22.0	16	5.4	31	10.5	39	13.2	42	14.2	15	5.1	1	0.3	6	2.0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83	23.3	154	19.6	56	7.1	74	9.4	107	13.6	133	16.9	62	7.9	7	0.9	11	1.4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70	18.8	76	20.4	29	7.8	43	11.5	46	12.3	65	17.4	39	10.5	2	0.5	3	0.8	373	100.0						
중장년층	(370)	73	19.7	75	20.3	30	8.1	37	10.0	63	17.0	61	16.5	19	5.1	4	1.1	8	2.2	370	100.0						
노년층	(373)	124	33.2	74	19.8	15	4.0	29	7.8	42	11.3	57	15.3	22	5.9	3	0.8	7	1.9	373	100.0						

문항19) 디지털 종교 콘텐츠 이용 경험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① 매우 자주 이용하고 있다		② 자주 이용하고 있다		①+② 이용하고 있다		③ 가끔 이용하고 있다		④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⑤ 전혀 본 적 없다		④+⑤ 이용하지 않는다		계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15	1.3	85	7.6	100	9.0	338	30.3	404	36.2	274	24.6	678	60.8	1,116	100.0	2.25
연령																		
만 19~29세	(183)	3	1.6	10	5.5	13	7.1	59	32.2	72	39.3	39	21.3	111	60.7	183	100.0	2.27
만 30~39세	(190)	5	2.6	8	4.2	13	6.8	67	35.3	63	33.2	47	24.7	110	57.9	190	100.0	2.27
만 40~49세	(182)	2	1.1	25	13.7	27	14.8	55	30.2	64	35.2	36	19.8	100	54.9	182	100.0	2.41
만 50~59세	(188)	0	0.0	22	11.7	22	11.7	51	27.1	69	36.7	46	24.5	115	61.2	188	100.0	2.26
만 60세 이상	(373)	5	1.3	20	5.4	25	6.7	106	28.4	136	36.5	106	28.4	242	64.9	373	100.0	2.15
성별																		
남자	(557)	11	2.0	42	7.5	53	9.5	175	31.4	199	35.7	130	23.3	329	59.1	557	100.0	2.29
여자	(559)	4	0.7	43	7.7	47	8.4	163	29.2	205	36.7	144	25.8	349	62.4	559	100.0	2.21
거주 지역																		
서울	(179)	4	2.2	19	10.6	23	12.8	57	31.8	67	37.4	32	17.9	99	55.3	179	100.0	2.42
경기도	(261)	3	1.1	22	8.4	25	9.6	86	33.0	81	31.0	69	26.4	150	57.5	261	100.0	2.27
강원도	(55)	0	0.0	2	3.6	2	3.6	14	25.5	28	50.9	11	20.0	39	70.9	55	100.0	2.13
충청도	(100)	2	2.0	11	11.0	13	13.0	30	30.0	34	34.0	23	23.0	57	57.0	100	100.0	2.35
경상도	(291)	4	1.4	16	5.5	20	6.9	91	31.3	101	34.7	79	27.1	180	61.9	291	100.0	2.19
전라도	(175)	2	1.1	10	5.7	12	6.9	43	24.6	76	43.4	44	25.1	120	68.6	175	100.0	2.14
제주도	(55)	0	0.0	5	9.1	5	9.1	17	30.9	17	30.9	16	29.1	33	60.0	55	100.0	2.20
종교																		
불교	(274)	5	1.8	26	9.5	31	11.3	96	35.0	97	35.4	50	18.2	147	53.6	274	100.0	2.41
개신교	(200)	5	2.5	26	13.0	31	15.5	80	40.0	58	29.0	31	15.5	89	44.5	200	100.0	2.58
천주교	(148)	0	0.0	5	3.4	5	3.4	48	32.4	55	37.2	40	27.0	95	64.2	148	100.0	2.12
원불교	(37)	2	5.4	11	29.7	13	35.1	16	43.2	7	18.9	1	2.7	8	21.6	37	100.0	3.16
종교 없음	(452)	3	0.7	16	3.5	19	4.2	97	21.5	185	40.9	151	33.4	336	74.3	452	100.0	1.97
기타	(5)	0	0.0	1	20.0	1	20.0	1	20.0	2	40.0	1	20.0	3	60.0	5	100.0	2.4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7	20.6	8	23.5	15	44.1	8	23.5	7	20.6	4	11.8	11	32.4	34	100.0	3.2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4	1.4	43	14.6	47	15.9	107	36.3	94	31.9	47	15.9	141	47.8	295	100.0	2.54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4	0.5	34	4.3	38	4.8	223	28.3	303	38.5	223	28.3	526	66.8	787	100.0	2.10
연령대																		
청년층	(373)	8	2.1	18	4.8	26	7.0	126	33.8	135	36.2	86	23.1	221	59.2	373	100.0	2.27
중장년층	(370)	2	0.5	47	12.7	49	13.2	106	28.6	133	35.9	82	22.2	215	58.1	370	100.0	2.34
노년층	(373)	5	1.3	20	5.4	25	6.7	106	28.4	136	36.5	106	28.4	242	64.9	373	100.0	2.15

문항20) 종교 콘텐츠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교리 해설, 경전 강의		명상·좌선, 기도문 낭독, 등 체험형 콘텐츠		종교 인물 인터뷰, 간증, 체험담		감성적 메시지나 위로 주는 영상		실시간 상담과 Q&A로 소통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177	15.9	286	25.6	157	14.1	416	37.3	80	7.2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23	12.6	50	27.3	24	13.1	67	36.6	19	10.4	183	100.0
만 30~39세	(190)	22	11.6	45	23.7	29	15.3	76	40.0	18	9.5	190	100.0
만 40~49세	(182)	22	12.1	48	26.4	23	12.6	70	38.5	19	10.4	182	100.0
만 50~59세	(188)	29	15.4	49	26.1	32	17.0	69	36.7	9	4.8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81	21.7	94	25.2	49	13.1	134	35.9	15	4.0	373	100.0
성별													
남자	(557)	97	17.4	154	27.6	83	14.9	184	33.0	39	7.0	557	100.0
여자	(559)	80	14.3	132	23.6	74	13.2	232	41.5	41	7.3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26	14.5	41	22.9	26	14.5	76	42.5	10	5.6	179	100.0
경기도	(261)	53	20.3	64	24.5	42	16.1	82	31.4	20	7.7	261	100.0
강원도	(55)	8	14.5	15	27.3	9	16.4	17	30.9	6	10.9	55	100.0
충청도	(100)	15	15.0	32	32.0	12	12.0	36	36.0	5	5.0	100	100.0
경상도	(291)	37	12.7	73	25.1	38	13.1	121	41.6	22	7.6	291	100.0
전라도	(175)	29	16.6	46	26.3	18	10.3	70	40.0	12	6.9	175	100.0
제주도	(55)	9	16.4	15	27.3	12	21.8	14	25.5	5	9.1	55	100.0
종교													
불교	(274)	48	17.5	86	31.4	35	12.8	94	34.3	11	4.0	274	100.0
개신교	(200)	55	27.5	32	16.0	42	21.0	60	30.0	11	5.5	200	100.0
천주교	(148)	25	16.9	34	23.0	12	8.1	68	45.9	9	6.1	148	100.0
원불교	(37)	4	10.8	14	37.8	8	21.6	10	27.0	1	2.7	37	100.0
종교 없음	(452)	45	10.0	119	26.3	60	13.3	183	40.5	45	10.0	452	100.0
기타	(5)	0	0.0	1	20.0	0	0.0	1	20.0	3	6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5	14.7	14	41.2	5	14.7	7	20.6	3	8.8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58	19.7	88	29.8	50	16.9	85	28.8	14	4.7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14	14.5	184	23.4	102	13.0	324	41.2	63	8.0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45	12.1	95	25.5	53	14.2	143	38.3	37	9.9	373	100.0
중장년층	(370)	51	13.8	97	26.2	55	14.9	139	37.6	28	7.6	370	100.0
노년층	(373)	81	21.7	94	25.2	49	13.1	134	35.9	15	4.0	373	100.0

문항21) 온라인 또는 디지털 종교 콘텐츠에 대한 생각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②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전통 방식도 병행되어야 한다		①+②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③ 중립이다 -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④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종교는 직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본다		⑤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종교 본질과 어긋난다고 본다		④+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계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59	5.3	260	23.3	319	28.6	650	58.2	122	10.9	25	2.2	147	13.2	1,116	100.0	3.18
연령																		
만 19~29세	(183)	15	8.2	54	29.5	69	37.7	88	48.1	22	12.0	4	2.2	26	14.2	183	100.0	3.30
만 30~39세	(190)	13	6.8	38	20.0	51	26.8	113	59.5	22	11.6	4	2.1	26	13.7	190	100.0	3.18
만 40~49세	(182)	6	3.3	44	24.2	50	27.5	110	60.4	18	9.9	4	2.2	22	12.1	182	100.0	3.16
만 50~59세	(188)	4	2.1	36	19.1	40	21.3	124	66.0	22	11.7	2	1.1	24	12.8	188	100.0	3.10
만 60세 이상	(373)	21	5.6	88	23.6	109	29.2	215	57.6	38	10.2	11	2.9	49	13.1	373	100.0	3.19
성별																		
남자	(557)	34	6.1	140	25.1	174	31.2	302	54.2	66	11.8	15	2.7	81	14.5	557	100.0	3.20
여자	(559)	25	4.5	120	21.5	145	25.9	348	62.3	56	10.0	10	1.8	66	11.8	559	100.0	3.17
거주 지역																		
서울	(179)	12	6.7	51	28.5	63	35.2	91	50.8	21	11.7	4	2.2	25	14.0	179	100.0	3.26
경기도	(261)	14	5.4	58	22.2	72	27.6	152	58.2	32	12.3	5	1.9	37	14.2	261	100.0	3.17
강원도	(55)	0	0.0	16	29.1	16	29.1	32	58.2	6	10.9	1	1.8	7	12.7	55	100.0	3.15
충청도	(100)	5	5.0	21	21.0	26	26.0	62	62.0	10	10.0	2	2.0	12	12.0	100	100.0	3.17
경상도	(291)	15	5.2	61	21.0	76	26.1	181	62.2	27	9.3	7	2.4	34	11.7	291	100.0	3.17
전라도	(175)	8	4.6	38	21.7	46	26.3	107	61.1	17	9.7	5	2.9	22	12.6	175	100.0	3.15
제주도	(55)	5	9.1	15	27.3	20	36.4	25	45.5	9	16.4	1	1.8	10	18.2	55	100.0	3.25
종교																		
불교	(274)	21	7.7	82	29.9	103	37.6	140	51.1	28	10.2	3	1.1	31	11.3	274	100.0	3.33
개신교	(200)	11	5.5	43	21.5	54	27.0	108	54.0	30	15.0	8	4.0	38	19.0	200	100.0	3.10
천주교	(148)	7	4.7	17	11.5	24	16.2	106	71.6	13	8.8	5	3.4	18	12.2	148	100.0	3.05
원불교	(37)	6	16.2	14	37.8	20	54.1	14	37.8	3	8.1	0	0.0	3	8.1	37	100.0	3.62
종교 없음	(452)	14	3.1	104	23.0	118	26.1	277	61.3	48	10.6	9	2.0	57	12.6	452	100.0	3.15
기타	(5)	0	0.0	0	0.0	0	0.0	5	100.0	0	0.0	0	0.0	0	0.0	5	100.0	3.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0	29.4	10	29.4	20	58.8	8	23.5	4	11.8	2	5.9	6	17.6	34	100.0	3.6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21	7.1	103	34.9	124	42.0	134	45.4	29	9.8	8	2.7	37	12.5	295	100.0	3.34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28	3.6	147	18.7	175	22.2	508	64.5	89	11.3	15	1.9	104	13.2	787	100.0	3.11
연령대																		
청년층	(373)	28	7.5	92	24.7	120	32.2	201	53.9	44	11.8	8	2.1	52	13.9	373	100.0	3.24
중장년층	(370)	10	2.7	80	21.6	90	24.3	234	63.2	40	10.8	6	1.6	46	12.4	370	100.0	3.13
노년층	(373)	21	5.6	88	23.6	109	29.2	215	57.6	38	10.2	11	2.9	49	13.1	373	100.0	3.19

문항2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화 활동 중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방법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유튜브 교리 강의·수행 안내		SNS 감성 콘텐츠(카드뉴스·영상)		온라인 명상·좌선 체험		AI 신앙상담·기도문 생성		메타버스 교당·가상 교화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이브리드)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280	25.1	172	15.4	306	27.4	51	4.6	31	2.8	276	24.7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48	26.2	39	21.3	35	19.1	12	6.6	10	5.5	39	21.3	183	100.0
만 30~39세	(190)	43	22.6	41	21.6	43	22.6	13	6.8	3	1.6	47	24.7	190	100.0
만 40~49세	(182)	34	18.7	29	15.9	59	32.4	9	4.9	2	1.1	49	26.9	182	100.0
만 50~59세	(188)	45	23.9	30	16.0	58	30.9	9	4.8	7	3.7	39	20.7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110	29.5	33	8.8	111	29.8	8	2.1	9	2.4	102	27.3	373	100.0
성별															
남자	(557)	138	24.8	85	15.3	161	28.9	25	4.5	14	2.5	134	24.1	557	100.0
여자	(559)	142	25.4	87	15.6	145	25.9	26	4.7	17	3.0	142	25.4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37	20.7	27	15.1	50	27.9	10	5.6	4	2.2	51	28.5	179	100.0
경기도	(261)	75	28.7	42	16.1	67	25.7	9	3.4	9	3.4	59	22.6	261	100.0
강원도	(55)	13	23.6	4	7.3	14	25.5	5	9.1	4	7.3	15	27.3	55	100.0
충청도	(100)	24	24.0	12	12.0	33	33.0	8	8.0	0	0.0	23	23.0	100	100.0
경상도	(291)	72	24.7	49	16.8	77	26.5	13	4.5	8	2.7	72	24.7	291	100.0
전라도	(175)	46	26.3	27	15.4	54	30.9	4	2.3	4	2.3	40	22.9	175	100.0
제주도	(55)	13	23.6	11	20.0	11	20.0	2	3.6	2	3.6	16	29.1	55	100.0
종교															
불교	(274)	88	32.1	40	14.6	79	28.8	7	2.6	6	2.2	54	19.7	274	100.0
개신교	(200)	50	25.0	35	17.5	44	22.0	13	6.5	4	2.0	54	27.0	200	100.0
천주교	(148)	37	25.0	15	10.1	45	30.4	7	4.7	5	3.4	39	26.4	148	100.0
원불교	(37)	11	29.7	5	13.5	11	29.7	3	8.1	1	2.7	6	16.2	37	100.0
종교 없음	(452)	93	20.6	77	17.0	126	27.9	20	4.4	13	2.9	123	27.2	452	100.0
기타	(5)	1	20.0	0	0.0	1	20.0	1	20.0	2	40.0	0	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0	29.4	7	20.6	11	32.4	1	2.9	0	0.0	5	14.7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83	28.1	41	13.9	83	28.1	14	4.7	9	3.1	65	22.0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87	23.8	124	15.8	212	26.9	36	4.6	22	2.8	206	26.2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91	24.4	80	21.4	78	20.9	25	6.7	13	3.5	86	23.1	373	100.0
중장년층	(370)	79	21.4	59	15.9	117	31.6	18	4.9	9	2.4	88	23.8	370	100.0
노년층	(373)	110	29.5	33	8.8	111	29.8	8	2.1	9	2.4	102	27.3	373	100.0

문항23) 청년층의 종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운영 및 재정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373)	73	19.6	107	28.7	122	32.7	75	20.1	56	15.0	55	14.7	81	21.7	38	10.2	74	19.8
연령																			
만 19~29세	(183)	25	13.7	58	31.7	55	30.1	34	18.6	31	16.9	30	16.4	40	21.9	17	9.3	41	22.4
만 30~39세	(190)	48	25.3	49	25.8	67	35.3	41	21.6	25	13.2	25	13.2	41	21.6	21	11.1	33	17.4
성별																			
남자	(187)	40	21.4	54	28.9	46	24.6	35	18.7	25	13.4	29	15.5	47	25.1	23	12.3	39	20.9
여자	(186)	33	17.7	53	28.5	76	40.9	40	21.5	31	16.7	26	14.0	34	18.3	15	8.1	35	18.8
거주 지역																			
서울	(60)	6	10.0	22	36.7	21	35.0	7	11.7	8	13.3	11	18.3	22	36.7	6	10.0	7	11.7
경기도	(88)	17	19.3	28	31.8	31	35.2	16	18.2	14	15.9	16	18.2	16	18.2	5	5.7	19	21.6
강원도	(18)	1	5.6	3	16.7	2	11.1	6	33.3	2	11.1	4	22.2	4	22.2	4	22.2	4	22.2
충청도	(34)	12	35.3	12	35.3	12	35.3	5	14.7	2	5.9	3	8.8	6	17.6	2	5.9	10	29.4
경상도	(96)	13	13.5	24	25.0	37	38.5	26	27.1	18	18.8	8	8.3	17	17.7	15	15.6	20	20.8
전라도	(58)	21	36.2	13	22.4	11	19.0	13	22.4	9	15.5	9	15.5	14	24.1	4	6.9	9	15.5
제주도	(19)	3	15.8	5	26.3	8	42.1	2	10.5	3	15.8	4	21.1	2	10.5	2	10.5	5	26.3
종교																			
불교	(81)	14	17.3	25	30.9	32	39.5	13	16.0	5	6.2	13	16.0	23	28.4	9	11.1	14	17.3
개신교	(59)	14	23.7	19	32.2	13	22.0	15	25.4	13	22.0	13	22.0	13	22.0	5	8.5	4	6.8
천주교	(33)	3	9.1	6	18.2	12	36.4	8	24.2	6	18.2	7	21.2	3	9.1	4	12.1	11	33.3
원불교	(13)	5	38.5	8	61.5	1	7.7	3	23.1	0	0.0	2	15.4	1	7.7	1	7.7	3	23.1
종교 없음	(186)	37	19.9	49	26.3	64	34.4	35	18.8	32	17.2	20	10.8	40	21.5	19	10.2	42	22.6
기타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20)	7	35.0	9	45.0	4	20.0	0	0.0	2	10.0	3	15.0	8	40.0	1	5.0	3	15.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85)	18	21.2	24	28.2	27	31.8	16	18.8	16	18.8	11	12.9	21	24.7	8	9.4	17	2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68)	48	17.9	74	27.6	91	34.0	59	22.0	38	14.2	41	15.3	52	19.4	29	10.8	54	20.1
연령대																			
청년층	(373)	73	19.6	107	28.7	122	32.7	75	20.1	56	15.0	55	14.7	81	21.7	38	10.2	74	19.8

문항23-1) 청년층의 종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1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정서적 위로와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하고 정당한 운영 및 재정 관리		계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373)	45	12.1	55	14.7	65	17.4	33	8.8	25	6.7	39	10.5	48	12.9	26	7.0	37	9.9	373	100.0
연령																					
만 19~29세	(183)	13	7.1	31	16.9	34	18.6	13	7.1	14	7.7	24	13.1	23	12.6	11	6.0	20	10.9	183	100.0
만 30~39세	(190)	32	16.8	24	12.6	31	16.3	20	10.5	11	5.8	15	7.9	25	13.2	15	7.9	17	8.9	190	100.0
성별																					
남자	(187)	27	14.4	27	14.4	26	13.9	17	9.1	4	2.1	21	11.2	28	15.0	17	9.1	20	10.7	187	100.0
여자	(186)	18	9.7	28	15.1	39	21.0	16	8.6	21	11.3	18	9.7	20	10.8	9	4.8	17	9.1	186	100.0
거주 지역																					
서울	(60)	5	8.3	10	16.7	11	18.3	1	1.7	5	8.3	8	13.3	14	23.3	3	5.0	3	5.0	60	100.0
경기도	(88)	8	9.1	16	18.2	16	18.2	7	8.0	6	6.8	11	12.5	8	9.1	5	5.7	11	12.5	88	100.0
강원도	(18)	1	5.6	2	11.1	1	5.6	2	11.1	1	5.6	4	22.2	3	16.7	1	5.6	3	16.7	18	100.0
충청도	(34)	6	17.6	5	14.7	7	20.6	3	8.8	1	2.9	1	2.9	3	8.8	2	5.9	6	17.6	34	100.0
경상도	(96)	8	8.3	15	15.6	17	17.7	13	13.5	6	6.3	7	7.3	9	9.4	12	12.5	9	9.4	96	100.0
전라도	(58)	14	24.1	5	8.6	8	13.8	7	12.1	5	8.6	6	10.3	9	15.5	2	3.4	2	3.4	58	100.0
제주도	(19)	3	15.8	2	10.5	5	26.3	0	0.0	1	5.3	2	10.5	2	10.5	1	5.3	3	15.8	19	100.0
종교																					
불교	(81)	9	11.1	10	12.3	17	21.0	6	7.4	1	1.2	9	11.1	17	21.0	4	4.9	8	9.9	81	100.0
개신교	(59)	11	18.6	8	13.6	7	11.9	8	13.6	8	13.6	8	13.6	3	5.1	3	5.1	3	5.1	59	100.0
천주교	(33)	1	3.0	3	9.1	7	21.2	4	12.1	2	6.1	7	21.2	2	6.1	4	12.1	3	9.1	33	100.0
원불교	(13)	2	15.4	4	30.8	0	0.0	1	7.7	0	0.0	2	15.4	1	7.7	1	7.7	2	15.4	13	100.0
종교 없음	(186)	22	11.8	30	16.1	34	18.3	14	7.5	14	7.5	13	7.0	24	12.9	14	7.5	21	11.3	186	100.0
기타	(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20)	4	20.0	4	20.0	1	5.0	0	0.0	1	5.0	2	10.0	7	35.0	1	5.0	0	0.0	20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85)	9	10.6	15	17.6	16	18.8	8	9.4	6	7.1	6	7.1	13	15.3	5	5.9	7	8.2	8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68)	32	11.9	36	13.4	48	17.9	25	9.3	18	6.7	31	11.6	28	10.4	20	7.5	30	11.2	268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45	12.1	55	14.7	65	17.4	33	8.8	25	6.7	39	10.5	48	12.9	26	7.0	37	9.9	373	100.0

문항24) 청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학업, 진로, 취업,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		온라인 마음공부·명상 콘텐츠		또래 간 신앙 교류 기회 확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콘텐츠		유튜브·SNS 교화 활동 강화		삶의 방향을 위한 청년 법문		청년 봉사·연대 활동 기회 제공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73)	91	24.4	106	28.4	73	19.6	128	34.3	67	18.0	106	28.4	99	26.5
연령															
만 19~29세	(183)	51	27.9	45	24.6	40	21.9	65	35.5	29	15.8	50	27.3	49	26.8
만 30~39세	(190)	40	21.1	61	32.1	33	17.4	63	33.2	38	20.0	56	29.5	50	26.3
성별															
남자	(187)	46	24.6	55	29.4	37	19.8	53	28.3	40	21.4	53	28.3	45	24.1
여자	(186)	45	24.2	51	27.4	36	19.4	75	40.3	27	14.5	53	28.5	54	29.0
거주 지역															
서울	(60)	15	25.0	15	25.0	10	16.7	22	36.7	10	16.7	21	35.0	15	25.0
경기도	(88)	21	23.9	24	27.3	19	21.6	26	29.5	16	18.2	29	33.0	23	26.1
강원도	(18)	4	22.2	3	16.7	4	22.2	7	38.9	4	22.2	6	33.3	3	16.7
충청도	(34)	6	17.6	11	32.4	6	17.6	11	32.4	7	20.6	8	23.5	14	41.2
경상도	(96)	23	24.0	30	31.3	23	24.0	34	35.4	16	16.7	23	24.0	23	24.0
전라도	(58)	19	32.8	13	22.4	9	15.5	19	32.8	10	17.2	17	29.3	15	25.9
제주도	(19)	3	15.8	10	52.6	2	10.5	9	47.4	4	21.1	2	10.5	6	31.6
종교															
불교	(81)	19	23.5	32	39.5	19	23.5	26	32.1	16	19.8	22	27.2	14	17.3
개신교	(59)	15	25.4	15	25.4	12	20.3	19	32.2	12	20.3	18	30.5	14	23.7
천주교	(33)	8	24.2	6	18.2	8	24.2	13	39.4	5	15.2	12	36.4	9	27.3
원불교	(13)	4	30.8	2	15.4	3	23.1	5	38.5	2	15.4	6	46.2	1	7.7
종교 없음	(186)	44	23.7	51	27.4	31	16.7	65	34.9	31	16.7	48	25.8	61	32.8
기타	(1)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20)	8	40.0	3	15.0	4	20.0	8	40.0	0	0.0	7	35.0	6	3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85)	22	25.9	28	32.9	18	21.2	26	30.6	15	17.6	27	31.8	21	24.7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68)	61	22.8	75	28.0	51	19.0	94	35.1	52	19.4	72	26.9	72	26.9
연령대															
청년층	(373)	91	24.4	106	28.4	73	19.6	128	34.3	67	18.0	106	28.4	99	26.5

문항24-1) 청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1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학업, 진로, 취업,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		온라인 마음공부·명상 콘텐츠		또래 간 신앙 교류 기회 확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 콘텐츠		유튜브·SNS 교화 활동 강화		삶의 방향을 위한 맞춤 정년법문		청년 봉사·연대 활동 기회 제공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73)	45	12.1	69	18.5	44	11.8	67	18.0	33	8.8	64	17.2	51	13.7	373	100.0
연령																	
만 19~29세	(183)	25	13.7	28	15.3	22	12.0	38	20.8	15	8.2	32	17.5	23	12.6	183	100.0
만 30~39세	(190)	20	10.5	41	21.6	22	11.6	29	15.3	18	9.5	32	16.8	28	14.7	190	100.0
성별																	
남자	(187)	21	11.2	34	18.2	24	12.8	32	17.1	23	12.3	29	15.5	24	12.8	187	100.0
여자	(186)	24	12.9	35	18.8	20	10.8	35	18.8	10	5.4	35	18.8	27	14.5	186	100.0
거주 지역																	
서울	(60)	8	13.3	9	15.0	5	8.3	11	18.3	6	10.0	13	21.7	8	13.3	60	100.0
경기도	(88)	10	11.4	17	19.3	9	10.2	11	12.5	10	11.4	19	21.6	12	13.6	88	100.0
강원도	(18)	1	5.6	2	11.1	4	22.2	4	22.2	2	11.1	4	22.2	1	5.6	18	100.0
충청도	(34)	2	5.9	6	17.6	2	5.9	8	23.5	5	14.7	5	14.7	6	17.6	34	100.0
경상도	(96)	15	15.6	19	19.8	16	16.7	16	16.7	5	5.2	11	11.5	14	14.6	96	100.0
전라도	(58)	7	12.1	8	13.8	7	12.1	14	24.1	3	5.2	11	19.0	8	13.8	58	100.0
제주도	(19)	2	10.5	8	42.1	1	5.3	3	15.8	2	10.5	1	5.3	2	10.5	19	100.0
종교																	
불교	(81)	10	12.3	21	25.9	12	14.8	13	16.0	6	7.4	13	16.0	6	7.4	81	100.0
개신교	(59)	10	16.9	11	18.6	8	13.6	8	13.6	4	6.8	10	16.9	8	13.6	59	100.0
천주교	(33)	3	9.1	1	3.0	6	18.2	9	27.3	3	9.1	7	21.2	4	12.1	33	100.0
원불교	(13)	1	7.7	0	0.0	3	23.1	4	30.8	0	0.0	5	38.5	0	0.0	13	100.0
종교 없음	(186)	21	11.3	36	19.4	15	8.1	33	17.7	19	10.2	29	15.6	33	17.7	186	100.0
기타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20)	2	10.0	1	5.0	3	15.0	7	35.0	0	0.0	5	25.0	2	10.0	20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85)	11	12.9	16	18.8	14	16.5	11	12.9	8	9.4	14	16.5	11	12.9	8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68)	32	11.9	52	19.4	27	10.1	49	18.3	25	9.3	45	16.8	38	14.2	268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45	12.1	69	18.5	44	11.8	67	18.0	33	8.8	64	17.2	51	13.7	373	100.0

문항25) 중장년층의 종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운영 자율적인 환경		재정 및 문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70)	61	16.5	102	27.6	168	45.4	86	23.2	46	12.4	51	13.8	87	23.5	34	9.2	55	14.9		
연령																					
만 40~49세	(182)	30	16.5	45	24.7	82	45.1	40	22.0	19	10.4	29	15.9	39	21.4	13	7.1	34	18.7		
만 50~59세	(188)	31	16.5	57	30.3	86	45.7	46	24.5	27	14.4	22	11.7	48	25.5	21	11.2	21	11.2		
성별																					
남자	(183)	32	17.5	44	24.0	79	43.2	41	22.4	28	15.3	24	13.1	45	24.6	20	10.9	27	14.8		
여자	(187)	29	15.5	58	31.0	89	47.6	45	24.1	18	9.6	27	14.4	42	22.5	14	7.5	28	15.0		
거주 지역																					
서울	(59)	11	18.6	15	25.4	24	40.7	14	23.7	8	13.6	7	11.9	21	35.6	4	6.8	8	13.6		
경기도	(85)	11	12.9	21	24.7	35	41.2	20	23.5	10	11.8	14	16.5	20	23.5	8	9.4	17	20.0		
강원도	(18)	1	5.6	8	44.4	8	44.4	5	27.8	3	16.7	1	5.6	4	22.2	1	5.6	1	5.6		
충청도	(32)	10	31.3	8	25.0	16	50.0	7	21.9	3	9.4	8	25.0	3	9.4	2	6.3	4	12.5		
경상도	(99)	17	17.2	29	29.3	46	46.5	26	26.3	12	12.1	8	8.1	18	18.2	13	13.1	18	18.2		
전라도	(59)	8	13.6	18	30.5	29	49.2	8	13.6	8	13.6	10	16.9	17	28.8	5	8.5	7	11.9		
제주도	(18)	3	16.7	3	16.7	10	55.6	6	33.3	2	11.1	3	16.7	4	22.2	1	5.6	0	0.0		
종교																					
불교	(97)	18	18.6	26	26.8	53	54.6	18	18.6	11	11.3	12	12.4	29	29.9	7	7.2	13	13.4		
개신교	(61)	8	13.1	18	29.5	25	41.0	17	27.9	8	13.1	14	23.0	9	14.8	6	9.8	8	13.1		
천주교	(53)	4	7.5	11	20.8	24	45.3	16	30.2	10	18.9	10	18.9	9	17.0	3	5.7	11	20.8		
원불교	(17)	5	29.4	6	35.3	10	58.8	3	17.6	0	0.0	2	11.8	2	11.8	2	11.8	1	5.9		
종교 없음	(141)	26	18.4	41	29.1	55	39.0	31	22.0	17	12.1	13	9.2	38	27.0	16	11.3	22	15.6		
기타	(1)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10)	3	30.0	1	10.0	1	10.0	3	30.0	1	10.0	4	40.0	0	0.0	2	20.0	1	1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97)	20	20.6	23	23.7	47	48.5	21	21.6	8	8.2	11	11.3	24	24.7	15	15.5	12	12.4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63)	38	14.4	78	29.7	120	45.6	62	23.6	37	14.1	36	13.7	63	24.0	17	6.5	42	16.0		
연령대																					
중장년층	(370)	61	16.5	102	27.6	168	45.4	86	23.2	46	12.4	51	13.8	87	23.5	34	9.2	55	14.9		

문항25-1) 중장년층의 종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1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정서적 위로와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사회적 공헌		계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370)	41	11.1	46	12.4	101	27.3	44	11.9	26	7.0	33	8.9	40	10.8	15	4.1	24	6.5	370	100.0
연령																					
만 40~49세	(182)	19	10.4	22	12.1	51	28.0	21	11.5	10	5.5	20	11.0	15	8.2	7	3.8	17	9.3	182	100.0
만 50~59세	(188)	22	11.7	24	12.8	50	26.6	23	12.2	16	8.5	13	6.9	25	13.3	8	4.3	7	3.7	188	100.0
성별																					
남자	(183)	22	12.0	22	12.0	47	25.7	20	10.9	17	9.3	17	9.3	19	10.4	9	4.9	10	5.5	183	100.0
여자	(187)	19	10.2	24	12.8	54	28.9	24	12.8	9	4.8	16	8.6	21	11.2	6	3.2	14	7.5	187	100.0
거주 지역																					
서울	(59)	9	15.3	7	11.9	10	16.9	7	11.9	3	5.1	5	8.5	10	16.9	3	5.1	5	8.5	59	100.0
경기도	(85)	6	7.1	9	10.6	23	27.1	10	11.8	6	7.1	11	12.9	12	14.1	3	3.5	5	5.9	85	100.0
강원도	(18)	0	0.0	6	33.3	4	22.2	3	16.7	1	5.6	0	0.0	2	11.1	1	5.6	1	5.6	18	100.0
충청도	(32)	7	21.9	2	6.3	11	34.4	1	3.1	1	3.1	6	18.8	1	3.1	0	0.0	3	9.4	32	100.0
경상도	(99)	9	9.1	13	13.1	29	29.3	15	15.2	8	8.1	3	3.0	8	8.1	6	6.1	8	8.1	99	100.0
전라도	(59)	7	11.9	8	13.6	19	32.2	4	6.8	6	10.2	6	10.2	5	8.5	2	3.4	2	3.4	59	100.0
제주도	(18)	3	16.7	1	5.6	5	27.8	4	22.2	1	5.6	2	11.1	2	11.1	0	0.0	0	0.0	18	100.0
종교																					
불교	(97)	11	11.3	12	12.4	27	27.8	12	12.4	8	8.2	8	8.2	13	13.4	1	1.0	5	5.2	97	100.0
개신교	(61)	6	9.8	8	13.1	15	24.6	7	11.5	3	4.9	11	18.0	3	4.9	4	6.6	4	6.6	61	100.0
천주교	(53)	3	5.7	5	9.4	16	30.2	11	20.8	5	9.4	3	5.7	3	5.7	2	3.8	5	9.4	53	100.0
원불교	(17)	3	17.6	2	11.8	8	47.1	0	0.0	0	0.0	2	11.8	1	5.9	1	5.9	0	0.0	17	100.0
종교 없음	(141)	18	12.8	19	13.5	35	24.8	13	9.2	10	7.1	9	6.4	20	14.2	7	5.0	10	7.1	141	100.0
기타	(1)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10)	1	10.0	0	0.0	1	10.0	2	20.0	1	10.0	4	40.0	0	0.0	0	0.0	1	10.0	10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97)	15	15.5	9	9.3	27	27.8	12	12.4	6	6.2	7	7.2	11	11.3	5	5.2	5	5.2	97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63)	25	9.5	37	14.1	73	27.8	30	11.4	19	7.2	22	8.4	29	11.0	10	3.8	18	6.8	263	100.0
연령대																					
중장년층	(370)	41	11.1	46	12.4	101	27.3	44	11.9	26	7.0	33	8.9	40	10.8	15	4.1	24	6.5	370	100.0

문항26) 중장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가정 의 해 결 을 상 담 (부 부, 자 녀, 갈 등)		갈 등 위 한 안 내 (부 부, 고 부 등)		일 과 신 앙 의 위 한 지 원		감 정 조 절 위 한 명 상 작 선 프 로 그 램		스 트 레 스 번 아 운 예 방 프 로 그 램		은 퇴 후 제 2의 생 활, 노 년 준 비를 위 한 실 질 적 프 로 그 램 (재 정, 건 강, 여 가 등)		중 년 이 후 생 활 의 가 치를 찾 아 가 는 프 로 그 램		봉 사 참 여와 활 발 한 공 동 체 기 회 제 공		자 녀와 의 소 통 증 진을 위 한 세 대 공 감 활 동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70)	78	21.1	56	15.1	116	31.4	92	24.9	97	26.2	130	35.1	75	20.3	58	15.7		
연령																			
만 40~49세	(182)	39	21.4	27	14.8	55	30.2	54	29.7	44	24.2	59	32.4	32	17.6	31	17.0		
만 50~59세	(188)	39	20.7	29	15.4	61	32.4	38	20.2	53	28.2	71	37.8	43	22.9	27	14.4		
성별																			
남자	(183)	44	24.0	39	21.3	50	27.3	42	23.0	45	24.6	57	31.1	46	25.1	24	13.1		
여자	(187)	34	18.2	17	9.1	66	35.3	50	26.7	52	27.8	73	39.0	29	15.5	34	18.2		
거주 지역																			
서울	(59)	13	22.0	8	13.6	16	27.1	13	22.0	18	30.5	25	42.4	13	22.0	8	13.6		
경기도	(85)	20	23.5	10	11.8	24	28.2	24	28.2	16	18.8	29	34.1	14	16.5	20	23.5		
강원도	(18)	2	11.1	4	22.2	8	44.4	6	33.3	3	16.7	7	38.9	3	16.7	1	5.6		
충청도	(32)	9	28.1	5	15.6	11	34.4	6	18.8	11	34.4	9	28.1	5	15.6	5	15.6		
경상도	(99)	19	19.2	21	21.2	31	31.3	26	26.3	21	21.2	34	34.3	25	25.3	11	11.1		
전라도	(59)	12	20.3	7	11.9	23	39.0	14	23.7	20	33.9	20	33.9	11	18.6	9	15.3		
제주도	(18)	3	16.7	1	5.6	3	16.7	3	16.7	8	44.4	6	33.3	4	22.2	4	22.2		
종교																			
불교	(97)	19	19.6	19	19.6	26	26.8	26	26.8	22	22.7	40	41.2	21	21.6	16	16.5		
개신교	(61)	14	23.0	13	21.3	18	29.5	14	23.0	19	31.1	15	24.6	13	21.3	11	18.0		
천주교	(53)	10	18.9	7	13.2	15	28.3	12	22.6	12	22.6	19	35.8	14	26.4	11	20.8		
원불교	(17)	6	35.3	4	23.5	6	35.3	3	17.6	6	35.3	4	23.5	1	5.9	1	5.9		
종교 없음	(141)	29	20.6	13	9.2	50	35.5	37	26.2	38	27.0	51	36.2	26	18.4	19	13.5		
기타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10)	2	20.0	3	30.0	4	40.0	2	20.0	1	10.0	1	10.0	2	20.0	2	2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97)	22	22.7	19	19.6	25	25.8	23	23.7	25	25.8	33	34.0	27	27.8	11	11.3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63)	54	20.5	34	12.9	87	33.1	67	25.5	71	27.0	96	36.5	46	17.5	45	17.1		
연령대																			
중장년층	(370)	78	21.1	56	15.1	116	31.4	92	24.9	97	26.2	130	35.1	75	20.3	58	15.7		

문항26-1) 중장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1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가정상담자녀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부부 갈등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신앙의 지원		감정 조절 위한 명상·좌선 프로그램		스트레스·번아웃 예방 치유 프로그램		은퇴 후 2차 준비 프로그램 (재정, 여가 등)		중년 이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성찰 프로그램		봉사 활동 발달 기회 제공		자녀와의 소통 증진을 위한 공동 활동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70)	46	12.4	25	6.8	64	17.3	40	10.8	50	13.5	72	19.5	38	10.3	35	9.5	370	100.0
연령																			
만 40~49세	(182)	23	12.6	12	6.6	36	19.8	20	11.0	21	11.5	30	16.5	18	9.9	22	12.1	182	100.0
만 50~59세	(188)	23	12.2	13	6.9	28	14.9	20	10.6	29	15.4	42	22.3	20	10.6	13	6.9	188	100.0
성별																			
남자	(183)	27	14.8	18	9.8	25	13.7	20	10.9	24	13.1	30	16.4	24	13.1	15	8.2	183	100.0
여자	(187)	19	10.2	7	3.7	39	20.9	20	10.7	26	13.9	42	22.5	14	7.5	20	10.7	187	100.0
거주 지역																			
서울	(59)	7	11.9	6	10.2	8	13.6	4	6.8	10	16.9	13	22.0	6	10.2	5	8.5	59	100.0
경기도	(85)	13	15.3	0	0.0	17	20.0	10	11.8	8	9.4	15	17.6	9	10.6	13	15.3	85	100.0
강원도	(18)	0	0.0	3	16.7	3	16.7	3	16.7	2	11.1	5	27.8	2	11.1	0	0.0	18	100.0
충청도	(32)	5	15.6	2	6.3	7	21.9	2	6.3	4	12.5	8	25.0	1	3.1	3	9.4	32	100.0
경상도	(99)	10	10.1	8	8.1	16	16.2	13	13.1	12	12.1	21	21.2	11	11.1	8	8.1	99	100.0
전라도	(59)	8	13.6	5	8.5	11	18.6	6	10.2	11	18.6	8	13.6	7	11.9	3	5.1	59	100.0
제주도	(18)	3	16.7	1	5.6	2	11.1	2	11.1	3	16.7	2	11.1	2	11.1	3	16.7	18	100.0
종교																			
불교	(97)	10	10.3	9	9.3	13	13.4	14	14.4	11	11.3	22	22.7	8	8.2	10	10.3	97	100.0
개신교	(61)	11	18.0	6	9.8	5	8.2	3	4.9	14	23.0	7	11.5	10	16.4	5	8.2	61	100.0
천주교	(53)	5	9.4	2	3.8	10	18.9	6	11.3	7	13.2	11	20.8	7	13.2	5	9.4	53	100.0
원불교	(17)	5	29.4	3	17.6	4	23.5	2	11.8	0	0.0	2	11.8	1	5.9	0	0.0	17	100.0
종교 없음	(141)	15	10.6	5	3.5	32	22.7	15	10.6	18	12.8	29	20.6	12	8.5	15	10.6	141	100.0
기타	(1)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10)	2	20.0	1	10.0	3	30.0	1	10.0	0	0.0	0	0.0	2	20.0	1	10.0	10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97)	13	13.4	8	8.2	13	13.4	11	11.3	13	13.4	19	19.6	13	13.4	7	7.2	97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63)	31	11.8	16	6.1	48	18.3	28	10.6	37	14.1	53	20.2	23	8.7	27	10.3	263	100.0
연령대																			
중장년층	(370)	46	12.4	25	6.8	64	17.3	40	10.8	50	13.5	72	19.5	38	10.3	35	9.5	370	100.0

문항27) 노년층의 종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정서적 위로와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운영·재정 자율성 문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73)	34	9.1	141	37.8	162	43.4	93	24.9	66	17.7	25	6.7	117	31.4	22	5.9	56	15.0
연령																			
만 60세 이상	(373)	34	9.1	141	37.8	162	43.4	93	24.9	66	17.7	25	6.7	117	31.4	22	5.9	56	15.0
성별																			
남자	(187)	15	8.0	71	38.0	84	44.9	42	22.5	34	18.2	10	5.3	61	32.6	13	7.0	29	15.5
여자	(186)	19	10.2	70	37.6	78	41.9	51	27.4	32	17.2	15	8.1	56	30.1	9	4.8	27	14.5
거주 지역																			
서울	(60)	5	8.3	28	46.7	32	53.3	15	25.0	8	13.3	1	1.7	21	35.0	2	3.3	4	6.7
경기도	(88)	6	6.8	33	37.5	30	34.1	28	31.8	18	20.5	6	6.8	20	22.7	8	9.1	17	19.3
강원도	(19)	1	5.3	7	36.8	7	36.8	5	26.3	3	15.8	1	5.3	11	57.9	1	5.3	2	10.5
충청도	(34)	3	8.8	14	41.2	16	47.1	9	26.5	6	17.6	1	2.9	10	29.4	1	2.9	5	14.7
경상도	(96)	11	11.5	31	32.3	45	46.9	17	17.7	16	16.7	10	10.4	32	33.3	7	7.3	17	17.7
전라도	(58)	6	10.3	22	37.9	25	43.1	14	24.1	12	20.7	6	10.3	16	27.6	2	3.4	10	17.2
제주도	(18)	2	11.1	6	33.3	7	38.9	5	27.8	3	16.7	0	0.0	7	38.9	1	5.6	1	5.6
종교																			
불교	(96)	12	12.5	32	33.3	49	51.0	21	21.9	17	17.7	11	11.5	23	24.0	5	5.2	12	12.5
개신교	(80)	6	7.5	34	42.5	23	28.8	28	35.0	18	22.5	7	8.8	25	31.3	7	8.8	9	11.3
천주교	(62)	6	9.7	24	38.7	28	45.2	16	25.8	11	17.7	4	6.5	22	35.5	2	3.2	6	9.7
원불교	(7)	0	0.0	4	57.1	4	57.1	0	0.0	0	0.0	0	0.0	3	42.9	2	28.6	0	0.0
종교 없음	(125)	10	8.0	46	36.8	56	44.8	28	22.4	19	15.2	3	2.4	43	34.4	6	4.8	29	23.2
기타	(3)	0	0.0	1	33.3	2	66.7	0	0.0	1	33.3	0	0.0	1	33.3	0	0.0	0	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4)	0	0.0	0	0.0	2	50.0	0	0.0	1	25.0	0	0.0	1	25.0	1	25.0	2	5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13)	9	8.0	50	44.2	45	39.8	32	28.3	19	16.8	9	8.0	34	30.1	5	4.4	15	13.3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56)	25	9.8	91	35.5	115	44.9	61	23.8	46	18.0	16	6.3	82	32.0	16	6.3	39	15.2
연령대																			
노년층	(373)	34	9.1	141	37.8	162	43.4	93	24.9	66	17.7	25	6.7	117	31.4	22	5.9	56	15.0

문항27-1) 노년층의 종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1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이해하기 쉬운 교리		삶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		정서적 위로와 심리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소속감		가족·지인의 신앙 영향		사회적 책임 실천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		투명한 운영·재정 현황		재정 및 문화		계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373)	20	5.4	71	19.0	103	27.6	44	11.8	22	5.9	16	4.3	58	15.5	10	2.7	29	7.8	373	100.0		
연령																							
만 60세 이상	(373)	20	5.4	71	19.0	103	27.6	44	11.8	22	5.9	16	4.3	58	15.5	10	2.7	29	7.8	373	100.0		
성별																							
남자	(187)	9	4.8	32	17.1	57	30.5	17	9.1	12	6.4	8	4.3	33	17.6	5	2.7	14	7.5	187	100.0		
여자	(186)	11	5.9	39	21.0	46	24.7	27	14.5	10	5.4	8	4.3	25	13.4	5	2.7	15	8.1	186	100.0		
거주 지역																							
서울	(60)	2	3.3	17	28.3	17	28.3	9	15.0	1	1.7	0	0.0	13	21.7	0	0.0	1	1.7	60	100.0		
경기도	(88)	3	3.4	20	22.7	17	19.3	9	10.2	9	10.2	5	5.7	10	11.4	4	4.5	11	12.5	88	100.0		
강원도	(19)	0	0.0	3	15.8	5	26.3	3	15.8	0	0.0	1	5.3	5	26.3	1	5.3	1	5.3	19	100.0		
충청도	(34)	3	8.8	6	17.6	10	29.4	4	11.8	5	14.7	0	0.0	2	5.9	1	2.9	3	8.8	34	100.0		
경상도	(96)	8	8.3	9	9.4	30	31.3	8	8.3	5	5.2	8	8.3	19	19.8	3	3.1	6	6.3	96	100.0		
전라도	(58)	3	5.2	12	20.7	20	34.5	6	10.3	2	3.4	2	3.4	6	10.3	1	1.7	6	10.3	58	100.0		
제주도	(18)	1	5.6	4	22.2	4	22.2	5	27.8	0	0.0	0	0.0	3	16.7	0	0.0	1	5.6	18	100.0		
종교																							
불교	(96)	8	8.3	14	14.6	34	35.4	10	10.4	6	6.3	7	7.3	9	9.4	1	1.0	7	7.3	96	100.0		
개신교	(80)	4	5.0	22	27.5	10	12.5	11	13.8	7	8.8	4	5.0	12	15.0	5	6.3	5	6.3	80	100.0		
천주교	(62)	1	1.6	11	17.7	21	33.9	9	14.5	4	6.5	3	4.8	9	14.5	1	1.6	3	4.8	62	100.0		
원불교	(7)	0	0.0	1	14.3	3	42.9	0	0.0	0	0.0	0	0.0	2	28.6	1	14.3	0	0.0	7	100.0		
종교 없음	(125)	7	5.6	22	17.6	34	27.2	14	11.2	5	4.0	2	1.6	25	20.0	2	1.6	14	11.2	125	100.0		
기타	(3)	0	0.0	1	33.3	1	33.3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3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4)	0	0.0	0	0.0	2	50.0	0	0.0	0	0.0	0	0.0	1	25.0	1	25.0	0	0.0	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13)	7	6.2	26	23.0	24	21.2	13	11.5	9	8.0	6	5.3	19	16.8	2	1.8	7	6.2	113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56)	13	5.1	45	17.6	77	30.1	31	12.1	13	5.1	10	3.9	38	14.8	7	2.7	22	8.6	256	100.0		
연령대																							
노년층	(373)	20	5.4	71	19.0	103	27.6	44	11.8	22	5.9	16	4.3	58	15.5	10	2.7	29	7.8	373	100.0		

문항28) 노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외로움 해소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명상·운동		교당·종교 소모임 및 교리 교육 기회 제공		가족·자녀와 소통·증진을 위한 통합 활동		쉬운 기도문 및 법문·성경 영상·콘텐츠 제공		삶의 의미 및 죽음 준비 (장례, 선종교 등)		건강 관리 및 의료·요양 서비스/연결 제공 (요양원, 요양병원 등)		스마트 폰 교육 및 콘텐츠 안내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73)	139	37.3	167	44.8	24	6.4	67	18.0	41	11.0	134	35.9	132	35.4	17	4.6
연령																	
만 60세 이상	(373)	139	37.3	167	44.8	24	6.4	67	18.0	41	11.0	134	35.9	132	35.4	17	4.6
성별																	
남자	(187)	70	37.4	89	47.6	12	6.4	36	19.3	22	11.8	57	30.5	67	35.8	11	5.9
여자	(186)	69	37.1	78	41.9	12	6.5	31	16.7	19	10.2	77	41.4	65	34.9	6	3.2
거주 지역																	
서울	(60)	26	43.3	27	45.0	4	6.7	11	18.3	5	8.3	16	26.7	25	41.7	3	5.0
경기도	(88)	25	28.4	41	46.6	8	9.1	20	22.7	7	8.0	34	38.6	29	33.0	4	4.5
강원도	(19)	6	31.6	7	36.8	0	0.0	4	21.1	1	5.3	9	47.4	10	52.6	0	0.0
충청도	(34)	14	41.2	19	55.9	0	0.0	4	11.8	4	11.8	11	32.4	14	41.2	1	2.9
경상도	(96)	34	35.4	43	44.8	8	8.3	14	14.6	17	17.7	33	34.4	31	32.3	7	7.3
전라도	(58)	27	46.6	25	43.1	2	3.4	10	17.2	4	6.9	26	44.8	15	25.9	2	3.4
제주도	(18)	7	38.9	5	27.8	2	11.1	4	22.2	3	16.7	5	27.8	8	44.4	0	0.0
종교																	
불교	(96)	38	39.6	43	44.8	8	8.3	17	17.7	18	18.8	31	32.3	29	30.2	3	3.1
개신교	(80)	24	30.0	33	41.3	6	7.5	21	26.3	4	5.0	28	35.0	35	43.8	4	5.0
천주교	(62)	21	33.9	28	45.2	7	11.3	11	17.7	6	9.7	26	41.9	20	32.3	2	3.2
원불교	(7)	3	42.9	2	28.6	1	14.3	1	14.3	1	14.3	2	28.6	2	28.6	1	14.3
종교 없음	(125)	51	40.8	58	46.4	2	1.6	17	13.6	12	9.6	47	37.6	46	36.8	7	5.6
기타	(3)	2	66.7	3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4)	2	50.0	1	25.0	0	0.0	0	0.0	0	0.0	3	75.0	1	25.0	0	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13)	38	33.6	42	37.2	11	9.7	28	24.8	10	8.8	46	40.7	35	31.0	8	7.1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56)	99	38.7	124	48.4	13	5.1	39	15.2	31	12.1	85	33.2	96	37.5	9	3.5
연령대																	
노년층	(373)	139	37.3	167	44.8	24	6.4	67	18.0	41	11.0	134	35.9	132	35.4	17	4.6

문항28-1) 노년 세대를 위해 종교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외로움 안정을 지원		몸과 건강 위한 명상·활동		마음의 유지를 위한 운동		교당 소모 및 공부 제공		중심 인 교리 기회		가족· 소통 위한 통합		자녀· 증진 세대 활동		위문 및 콘 영상 제공		기법 (음성 등)		삶의 의미 및 준 비 를 위 한 (장 례 등)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요양 병원 등)		스마트 폰 활 용 및 종 교 안 내		계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373)	69	18.5	93	24.9	13	3.5	22	5.9	23	6.2	70	18.8	70	18.8	13	3.5	373	100.0								
연령																											
만 60세 이상	(373)	69	18.5	93	24.9	13	3.5	22	5.9	23	6.2	70	18.8	70	18.8	13	3.5	373	100.0								
성별																											
남자	(187)	38	20.3	47	25.1	6	3.2	13	7.0	10	5.3	27	14.4	39	20.9	7	3.7	187	100.0								
여자	(186)	31	16.7	46	24.7	7	3.8	9	4.8	13	7.0	43	23.1	31	16.7	6	3.2	186	100.0								
거주 지역																											
서울	(60)	15	25.0	17	28.3	2	3.3	3	5.0	1	1.7	7	11.7	13	21.7	2	3.3	60	100.0								
경기도	(88)	8	9.1	25	28.4	6	6.8	5	5.7	2	2.3	22	25.0	17	19.3	3	3.4	88	100.0								
강원도	(19)	4	21.1	5	26.3	0	0.0	0	0.0	0	0.0	6	31.6	4	21.1	0	0.0	19	100.0								
충청도	(34)	5	14.7	9	26.5	0	0.0	2	5.9	3	8.8	6	17.6	8	23.5	1	2.9	34	100.0								
경상도	(96)	20	20.8	24	25.0	2	2.1	5	5.2	13	13.5	14	14.6	13	13.5	5	5.2	96	100.0								
전라도	(58)	14	24.1	9	15.5	2	3.4	4	6.9	2	3.4	12	20.7	13	22.4	2	3.4	58	100.0								
제주도	(18)	3	16.7	4	22.2	1	5.6	3	16.7	2	11.1	3	16.7	2	11.1	0	0.0	18	100.0								
종교																											
불교	(96)	18	18.8	20	20.8	5	5.2	5	5.2	12	12.5	17	17.7	16	16.7	3	3.1	96	100.0								
개신교	(80)	15	18.8	22	27.5	3	3.8	2	2.5	3	3.8	18	22.5	15	18.8	2	2.5	80	100.0								
천주교	(62)	12	19.4	16	25.8	4	6.5	5	8.1	1	1.6	11	17.7	11	17.7	2	3.2	62	100.0								
원불교	(7)	0	0.0	2	28.6	0	0.0	1	14.3	0	0.0	1	14.3	2	28.6	1	14.3	7	100.0								
종교 없음	(125)	23	18.4	31	24.8	1	0.8	9	7.2	7	5.6	23	18.4	26	20.8	5	4.0	125	100.0								
기타	(3)	1	33.3	2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4)	1	25.0	1	25.0	0	0.0	0	0.0	0	0.0	1	25.0	1	25.0	0	0.0	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13)	16	14.2	25	22.1	5	4.4	12	10.6	6	5.3	25	22.1	19	16.8	5	4.4	113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256)	52	20.3	67	26.2	8	3.1	10	3.9	17	6.6	44	17.2	50	19.5	8	3.1	256	100.0								
연령대																											
노년층	(373)	69	18.5	93	24.9	13	3.5	22	5.9	23	6.2	70	18.8	70	18.8	13	3.5	373	100.0								

문항29) 가장 중요한 인류 보편 가치(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평화 - 폭력을 감등과 함께 멈추고 존중하는 삶		평등 -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받는다		정의 - 법과 공정함을 세우는 것		자유 -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삶		이해와 공감 -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화		생명 존중 -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보호함		책임 - 공동체와 미래를 위한 적극적 실천		지속가능성 -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보호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325	29.1	257	23.0	304	27.2	187	16.8	370	33.2	324	29.0	157	14.1	197	17.7
연령																	
만 19~29세	(183)	49	26.8	56	30.6	36	19.7	43	23.5	57	31.1	32	17.5	30	16.4	33	18.0
만 30~39세	(190)	52	27.4	48	25.3	43	22.6	40	21.1	64	33.7	37	19.5	35	18.4	35	18.4
만 40~49세	(182)	62	34.1	41	22.5	36	19.8	30	16.5	63	34.6	45	24.7	28	15.4	38	20.9
만 50~59세	(188)	55	29.3	26	13.8	54	28.7	25	13.3	80	42.6	68	36.2	23	12.2	31	16.5
만 60세 이상	(373)	107	28.7	86	23.1	135	36.2	49	13.1	106	28.4	142	38.1	41	11.0	60	16.1
성별																	
남자	(557)	158	28.4	115	20.6	168	30.2	107	19.2	173	31.1	161	28.9	77	13.8	98	17.6
여자	(559)	167	29.9	142	25.4	136	24.3	80	14.3	197	35.2	163	29.2	80	14.3	99	17.7
거주 지역																	
서울	(179)	47	26.3	55	30.7	56	31.3	29	16.2	67	37.4	36	20.1	26	14.5	27	15.1
경기도	(261)	77	29.5	56	21.5	67	25.7	38	14.6	91	34.9	74	28.4	39	14.9	50	19.2
강원도	(55)	20	36.4	10	18.2	16	29.1	10	18.2	13	23.6	16	29.1	8	14.5	9	16.4
충청도	(100)	28	28.0	21	21.0	33	33.0	12	12.0	33	33.0	28	28.0	15	15.0	23	23.0
경상도	(291)	80	27.5	68	23.4	71	24.4	59	20.3	93	32.0	96	33.0	39	13.4	50	17.2
전라도	(175)	58	33.1	35	20.0	43	24.6	30	17.1	53	30.3	62	35.4	23	13.1	30	17.1
제주도	(55)	15	27.3	12	21.8	18	32.7	9	16.4	20	36.4	12	21.8	7	12.7	8	14.5
종교																	
불교	(274)	73	26.6	60	21.9	82	29.9	42	15.3	94	34.3	88	32.1	38	13.9	46	16.8
개신교	(200)	63	31.5	36	18.0	46	23.0	35	17.5	58	29.0	69	34.5	36	18.0	40	20.0
천주교	(148)	50	33.8	32	21.6	42	28.4	20	13.5	54	36.5	54	36.5	18	12.2	20	13.5
원불교	(37)	6	16.2	9	24.3	13	35.1	6	16.2	14	37.8	7	18.9	4	10.8	7	18.9
종교 없음	(452)	132	29.2	119	26.3	120	26.5	84	18.6	146	32.3	105	23.2	61	13.5	83	18.4
기타	(5)	1	20.0	1	20.0	1	20.0	0	0.0	4	80.0	1	20.0	0	0.0	1	2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8	23.5	11	32.4	10	29.4	3	8.8	9	26.5	7	20.6	5	14.7	9	26.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95	32.2	58	19.7	85	28.8	48	16.3	93	31.5	85	28.8	42	14.2	57	19.3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222	28.2	188	23.9	209	26.6	136	17.3	268	34.1	232	29.5	110	14.0	131	16.6
연령대																	
청년층	(373)	101	27.1	104	27.9	79	21.2	83	22.3	121	32.4	69	18.5	65	17.4	68	18.2
중장년층	(370)	117	31.6	67	18.1	90	24.3	55	14.9	143	38.6	113	30.5	51	13.8	69	18.6
노년층	(373)	107	28.7	86	23.1	135	36.2	49	13.1	106	28.4	142	38.1	41	11.0	60	16.1

문항29-1) 가장 중요한 인류 보편 가치(1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평화 - 과감하게 갈등과 추고하는 삶		평등 - 재능을 발휘하는 삶		정의 - 공정한 사회를 세우는 것		자유 - 선택과 결정하는 삶		이해와 타인과의 공감		생명 - 인간 존엄을 가꾸고 보호함		책임 - 공동 체와 미래를 위한 실천		지속가능성 - 다음 세대를 위한 보호		계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1,116)	171	15.3	133	11.9	154	13.8	104	9.3	200	17.9	182	16.3	74	6.6	98	8.8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24	13.1	30	16.4	20	10.9	24	13.1	30	16.4	19	10.4	16	8.7	20	10.9	183	100.0
만 30~39세	(190)	26	13.7	28	14.7	22	11.6	29	15.3	33	17.4	21	11.1	15	7.9	16	8.4	190	100.0
만 40~49세	(182)	32	17.6	21	11.5	18	9.9	19	10.4	34	18.7	25	13.7	10	5.5	23	12.6	182	100.0
만 50~59세	(188)	32	17.0	14	7.4	29	15.4	10	5.3	42	22.3	38	20.2	8	4.3	15	8.0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57	15.3	40	10.7	65	17.4	22	5.9	61	16.4	79	21.2	25	6.7	24	6.4	373	100.0
성별																			
남자	(557)	81	14.5	69	12.4	87	15.6	60	10.8	83	14.9	97	17.4	34	6.1	46	8.3	557	100.0
여자	(559)	90	16.1	64	11.4	67	12.0	44	7.9	117	20.9	85	15.2	40	7.2	52	9.3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21	11.7	30	16.8	33	18.4	12	6.7	32	17.9	19	10.6	13	7.3	19	10.6	179	100.0
경기도	(261)	54	20.7	26	10.0	26	10.0	24	9.2	46	17.6	44	16.9	17	6.5	24	9.2	261	100.0
강원도	(55)	8	14.5	3	5.5	9	16.4	6	10.9	7	12.7	13	23.6	5	9.1	4	7.3	55	100.0
충청도	(100)	13	13.0	9	9.0	22	22.0	7	7.0	19	19.0	13	13.0	6	6.0	11	11.0	100	100.0
경상도	(291)	41	14.1	41	14.1	38	13.1	30	10.3	47	16.2	51	17.5	20	6.9	23	7.9	291	100.0
전라도	(175)	25	14.3	17	9.7	18	10.3	20	11.4	38	21.7	35	20.0	9	5.1	13	7.4	175	100.0
제주도	(55)	9	16.4	7	12.7	8	14.5	5	9.1	11	20.0	7	12.7	4	7.3	4	7.3	55	100.0
종교																			
불교	(274)	33	12.0	33	12.0	38	13.9	25	9.1	58	21.2	43	15.7	20	7.3	24	8.8	274	100.0
개신교	(200)	31	15.5	13	6.5	19	9.5	21	10.5	31	15.5	44	22.0	19	9.5	22	11.0	200	100.0
천주교	(148)	31	20.9	19	12.8	18	12.2	3	2.0	29	19.6	32	21.6	7	4.7	9	6.1	148	100.0
원불교	(37)	2	5.4	5	13.5	8	21.6	5	13.5	10	27.0	2	5.4	1	2.7	4	10.8	37	100.0
종교 없음	(452)	74	16.4	63	13.9	70	15.5	50	11.1	70	15.5	60	13.3	27	6.0	38	8.4	452	100.0
기타	(5)	0	0.0	0	0.0	1	20.0	0	0.0	2	40.0	1	20.0	0	0.0	1	2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6	17.6	3	8.8	4	11.8	2	5.9	6	17.6	4	11.8	3	8.8	6	17.6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47	15.9	36	12.2	42	14.2	32	10.8	54	18.3	37	12.5	17	5.8	30	10.2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18	15.0	94	11.9	108	13.7	70	8.9	140	17.8	141	17.9	54	6.9	62	7.9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50	13.4	58	15.5	42	11.3	53	14.2	63	16.9	40	10.7	31	8.3	36	9.7	373	100.0
중장년층	(370)	64	17.3	35	9.5	47	12.7	29	7.8	76	20.5	63	17.0	18	4.9	38	10.3	370	100.0
노년층	(373)	57	15.3	40	10.7	65	17.4	22	5.9	61	16.4	79	21.2	25	6.7	24	6.4	373	100.0

문항30) 현대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개인 내면의 심리적 갈등 치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 회복		지역사회 내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		사회·국가 차원의 이념·계층 갈등 중재		종교 간 종교 갈등 해소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의 완화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127	11.4	115	10.3	193	17.3	306	27.4	131	11.7	244	21.9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29	15.8	20	10.9	43	23.5	33	18.0	27	14.8	31	16.9	183	100.0
만 30~39세	(190)	33	17.4	15	7.9	35	18.4	48	25.3	23	12.1	36	18.9	190	100.0
만 40~49세	(182)	21	11.5	21	11.5	37	20.3	45	24.7	24	13.2	34	18.7	182	100.0
만 50~59세	(188)	24	12.8	18	9.6	32	17.0	44	23.4	22	11.7	48	25.5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20	5.4	41	11.0	46	12.3	136	36.5	35	9.4	95	25.5	373	100.0
성별															
남자	(557)	51	9.2	52	9.3	96	17.2	164	29.4	75	13.5	119	21.4	557	100.0
여자	(559)	76	13.6	63	11.3	97	17.4	142	25.4	56	10.0	125	22.4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23	12.8	19	10.6	28	15.6	48	26.8	21	11.7	40	22.3	179	100.0
경기도	(261)	26	10.0	25	9.6	36	13.8	84	32.2	31	11.9	59	22.6	261	100.0
강원도	(55)	6	10.9	4	7.3	10	18.2	17	30.9	5	9.1	13	23.6	55	100.0
충청도	(100)	14	14.0	17	17.0	11	11.0	38	38.0	6	6.0	14	14.0	100	100.0
경상도	(291)	36	12.4	24	8.2	66	22.7	70	24.1	35	12.0	60	20.6	291	100.0
전라도	(175)	16	9.1	17	9.7	35	20.0	34	19.4	26	14.9	47	26.9	175	100.0
제주도	(55)	6	10.9	9	16.4	7	12.7	15	27.3	7	12.7	11	20.0	55	100.0
종교															
불교	(274)	34	12.4	30	10.9	50	18.2	78	28.5	25	9.1	57	20.8	274	100.0
개신교	(200)	24	12.0	22	11.0	28	14.0	47	23.5	35	17.5	44	22.0	200	100.0
천주교	(148)	12	8.1	18	12.2	25	16.9	42	28.4	16	10.8	35	23.6	148	100.0
원불교	(37)	4	10.8	2	5.4	9	24.3	8	21.6	6	16.2	8	21.6	37	100.0
종교 없음	(452)	52	11.5	43	9.5	80	17.7	130	28.8	47	10.4	100	22.1	452	100.0
기타	(5)	1	20.0	0	0.0	1	20.0	1	20.0	2	40.0	0	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3	8.8	4	11.8	3	8.8	10	29.4	7	20.6	7	20.6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31	10.5	25	8.5	55	18.6	85	28.8	39	13.2	60	20.3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93	11.8	86	10.9	135	17.2	211	26.8	85	10.8	177	22.5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62	16.6	35	9.4	78	20.9	81	21.7	50	13.4	67	18.0	373	100.0
중장년층	(370)	45	12.2	39	10.5	69	18.6	89	24.1	46	12.4	82	22.2	370	100.0
노년층	(373)	20	5.4	41	11.0	46	12.3	136	36.5	35	9.4	95	25.5	373	100.0

문항31)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1+2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개인주의 확산과 공동체 약화		젊은 세대의 종교 무관심과 신앙 전승의 단절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과학기술 발전과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확산		종교 지도자 및 종교 단체에 대한 신뢰 상실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이미지		종교의 의례, 방식이 맞지 않음		언어와 소통 방식이 낡고 시대와 맞지 않음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347	31.1	241	21.6	354	31.7	155	13.9	452	40.5	269	24.1	166	14.9		
연령																	
만 19~29세	(183)	45	24.6	54	29.5	54	29.5	32	17.5	52	28.4	42	23.0	32	17.5		
만 30~39세	(190)	63	33.2	35	18.4	53	27.9	36	18.9	74	38.9	36	18.9	30	15.8		
만 40~49세	(182)	57	31.3	26	14.3	57	31.3	26	14.3	71	39.0	46	25.3	33	18.1		
만 50~59세	(188)	59	31.4	36	19.1	55	29.3	24	12.8	88	46.8	46	24.5	29	15.4		
만 60세 이상	(373)	123	33.0	90	24.1	135	36.2	37	9.9	167	44.8	99	26.5	42	11.3		
성별																	
남자	(557)	183	32.9	123	22.1	167	30.0	94	16.9	214	38.4	131	23.5	76	13.6		
여자	(559)	164	29.3	118	21.1	187	33.5	61	10.9	238	42.6	138	24.7	90	16.1		
거주 지역																	
서울	(179)	51	28.5	39	21.8	58	32.4	25	14.0	66	36.9	49	27.4	35	19.6		
경기도	(261)	80	30.7	53	20.3	82	31.4	31	11.9	119	45.6	66	25.3	38	14.6		
강원도	(55)	14	25.5	14	25.5	19	34.5	9	16.4	24	43.6	14	25.5	7	12.7		
충청도	(100)	31	31.0	16	16.0	34	34.0	20	20.0	37	37.0	25	25.0	15	15.0		
경상도	(291)	88	30.2	64	22.0	99	34.0	37	12.7	115	39.5	67	23.0	46	15.8		
전라도	(175)	62	35.4	49	28.0	44	25.1	25	14.3	69	39.4	36	20.6	21	12.0		
제주도	(55)	21	38.2	6	10.9	18	32.7	8	14.5	22	40.0	12	21.8	4	7.3		
종교																	
불교	(274)	93	33.9	66	24.1	96	35.0	30	10.9	86	31.4	67	24.5	55	20.1		
개신교	(200)	64	32.0	54	27.0	50	25.0	29	14.5	86	43.0	52	26.0	18	9.0		
천주교	(148)	58	39.2	36	24.3	55	37.2	15	10.1	60	40.5	29	19.6	22	14.9		
원불교	(37)	11	29.7	9	24.3	13	35.1	10	27.0	11	29.7	7	18.9	3	8.1		
종교 없음	(452)	119	26.3	76	16.8	137	30.3	70	15.5	207	45.8	113	25.0	68	15.0		
기타	(5)	2	40.0	0	0.0	3	60.0	1	20.0	2	40.0	1	20.0	0	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11	32.4	9	26.5	12	35.3	9	26.5	9	26.5	5	14.7	3	8.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104	35.3	63	21.4	84	28.5	39	13.2	120	40.7	82	27.8	42	14.2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232	29.5	169	21.5	258	32.8	107	13.6	323	41.0	182	23.1	121	15.4		
연령대																	
청년층	(373)	108	29.0	89	23.9	107	28.7	68	18.2	126	33.8	78	20.9	62	16.6		
중장년층	(370)	116	31.4	62	16.8	112	30.3	50	13.5	159	43.0	92	24.9	62	16.8		
노년층	(373)	123	33.0	90	24.1	135	36.2	37	9.9	167	44.8	99	26.5	42	11.3		

문항31-1) 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1순위) 유효표본만 (탈락자 제외)

	사례수 (명)	개인의주의 확산과 의식 약화		젊은 세대의 종교 무관심과 신앙 전승의 단절		개인의 삶과 현실 문제에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과학기술 발전 및 합리주의 확산 세계관의		종교 지도자 및 종교 단체에 대한 신뢰 상실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이미지		종교의 의례, 방식이 맞지 않음		언어와 소통 시대와 맞지 않음		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16)	200	17.9	145	13.0	202	18.1	77	6.9	265	23.7	143	12.8	84	7.5	1,116	100.0		
연령																			
만 19~29세	(183)	26	14.2	38	20.8	30	16.4	17	9.3	20	10.9	33	18.0	19	10.4	183	100.0		
만 30~39세	(190)	42	22.1	20	10.5	34	17.9	14	7.4	42	22.1	23	12.1	15	7.9	190	100.0		
만 40~49세	(182)	29	15.9	13	7.1	29	15.9	18	9.9	45	24.7	30	16.5	18	9.9	182	100.0		
만 50~59세	(188)	42	22.3	20	10.6	25	13.3	10	5.3	56	29.8	19	10.1	16	8.5	188	100.0		
만 60세 이상	(373)	61	16.4	54	14.5	84	22.5	18	4.8	102	27.3	38	10.2	16	4.3	373	100.0		
성별																			
남자	(557)	101	18.1	74	13.3	100	18.0	51	9.2	121	21.7	68	12.2	42	7.5	557	100.0		
여자	(559)	99	17.7	71	12.7	102	18.2	26	4.7	144	25.8	75	13.4	42	7.5	559	100.0		
거주 지역																			
서울	(179)	23	12.8	25	14.0	35	19.6	11	6.1	45	25.1	23	12.8	17	9.5	179	100.0		
경기도	(261)	45	17.2	31	11.9	45	17.2	13	5.0	73	28.0	32	12.3	22	8.4	261	100.0		
강원도	(55)	8	14.5	9	16.4	9	16.4	6	10.9	10	18.2	9	16.4	4	7.3	55	100.0		
충청도	(100)	19	19.0	10	10.0	19	19.0	9	9.0	23	23.0	12	12.0	8	8.0	100	100.0		
경상도	(291)	53	18.2	36	12.4	61	21.0	22	7.6	66	22.7	35	12.0	18	6.2	291	100.0		
전라도	(175)	38	21.7	30	17.1	23	13.1	12	6.9	36	20.6	22	12.6	14	8.0	175	100.0		
제주도	(55)	14	25.5	4	7.3	10	18.2	4	7.3	12	21.8	10	18.2	1	1.8	55	100.0		
종교																			
불교	(274)	49	17.9	40	14.6	62	22.6	11	4.0	55	20.1	31	11.3	26	9.5	274	100.0		
개신교	(200)	41	20.5	35	17.5	26	13.0	12	6.0	49	24.5	27	13.5	10	5.0	200	100.0		
천주교	(148)	34	23.0	20	13.5	29	19.6	7	4.7	37	25.0	13	8.8	8	5.4	148	100.0		
원불교	(37)	7	18.9	5	13.5	8	21.6	5	13.5	5	13.5	7	18.9	0	0.0	37	100.0		
종교 없음	(452)	68	15.0	45	10.0	74	16.4	42	9.3	119	26.3	64	14.2	40	8.8	452	100.0		
기타	(5)	1	20.0	0	0.0	3	60.0	0	0.0	0	0.0	1	20.0	0	0.0	5	100.0		
원불교 인지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4)	9	26.5	5	14.7	8	23.5	3	8.8	6	17.6	3	8.8	0	0.0	34	10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5)	64	21.7	39	13.2	44	14.9	19	6.4	72	24.4	41	13.9	16	5.4	295	100.0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다	(787)	127	16.1	101	12.8	150	19.1	55	7.0	187	23.8	99	12.6	68	8.6	787	100.0		
연령대																			
청년층	(373)	68	18.2	58	15.5	64	17.2	31	8.3	62	16.6	56	15.0	34	9.1	373	100.0		
중장년층	(370)	71	19.2	33	8.9	54	14.6	28	7.6	101	27.3	49	13.2	34	9.2	370	100.0		
노년층	(373)	61	16.4	54	14.5	84	22.5	18	4.8	102	27.3	38	10.2	16	4.3	373	100.0		

